

1. 이 보고서는 농업기본법 제4조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와 “농업시책에 관한 문서”로서 작성하였다.
2. 이 보고서의 편제는 제1부 농업부문과 제2부 임업부문으로 나누어 각각 제1편에 동향, 제2편에 1971년도 시책, 제3편에 1972년도 시책방향을 수록하였다.
3. 제1편의 동향편에는 1965년을 기준연도로 하여 주로 1969~70년의 농가소득과 생활수준, 농림업 생산, 경영등에 관한 제 동향을, 제2편 1971년도 시책에는 1971년에 추진하고 있는 시책을, 제3편 1972년도 시책방향에는 1972년에 강구하고자 하는 농림시책을 기술하였다.
4. 임업부문은 농업의 일부문이므로 이 보고서에 포함하였다.

17080918

1971년도

농업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여백

국민 교육헌장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난 얼을 오늘에 되살려 안으로 자주독립의 자
세를 확립하고 밖으로 인류공영에 이바지 할 때다.

이에 우리의 나아갈 바를 밝혀 교육의 지표로 삼는다.

성실한 마음과 튼튼한 몸으로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
히며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을 계발하고 우리의 처지를 약
진의 발판으로 삼아 창조와 개혁의 정신을 기른다.

공익과 질서를 앞 세우며 능률과 실질을 숭상하고 경애
와 신의에 뿌리박은 상부상조의 전통을 이어받아 명랑하고
따뜻한 협동정신을 복돋운다.

우리의 창의와 협력을 바탕으로 나라가 발전하며 나라의
융성이 나의 발전의 근본임을 깨달아 자유와 권리에 따르
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스스로 국가 건설에 참여하고 봉
사하는 국민정신을 드높인다.

반공 민주 정신에 투철한 애국 애족이 우리의 삶의 길이
며 자유 세계의 이상을 실현하는 기반이다.

길이 후손에 물려 줄 영광된 통일 조국의 앞날을 내다보
며 신념과 긍지를 지닌 근면한 국민으로서 민족의 슬기를
모아 즐기찬 노력으로 새 역사를 창조하자.

1968년 12월 5일

여백

차 례

제 I 부 농업부문

제 1 편 70년도 농업동향

제 1 장 70년도 농업경제의 움직임	21
1. 일반경제	21
2. 농업경제	25
제 2 장 농업경영	32
1. 전환기의 농업경영	32
2. 변동되는 농업취업	35
3. 경지이용과 생산요소의 투입집약도	40
4. 농업생산성의 향상	43
제 3 장 농가소득과 생활	47
1. 17.4% 증가된 농가소득	47
2. 소득격차의 개선	50
3. 농업소득 16.1% 증가	52
4. 겸업소득의 증가 둔화	56
5. 겸업이의 수입의 증가	58
6. 농가 구매력과 소비생활	60
7. 농가 수지변동과 자산	64
8. 농촌환경의 개선	67

제 4 장	농업생산	73
1.	농작물 생산 저조와 축잠생산 호조.....	73
2.	농작물 생산	74
3.	증산을 위한 자재투입 증가	85
4.	잠업.....	92
5.	축산.....	93
제 5 장	농업생산기반	98
1.	향상된 수리안전도	98
2.	경지정리 및 확장.....	99
제 6 장	시험연구사업과 농촌지도.....	102
1.	시험연구사업	102
2.	농촌지도사업	105
3.	토양 및 비옥도 조사사업	109
제 7 장	농산물수급과 가격	111
1.	수요압력에서 발생한 수급 경직화	111
2.	양곡수급.....	116
3.	가격관리에 따른 농산물가격 상승	124
4.	농수산물 수출	128
제 8 장	농촌물가와 임료금.....	133
1.	향상된 농가판매가격 조건.....	133
2.	상대적으로 둔화된 농가구입가격 상승	136
3.	개선된 농가교역조건	138
제 9 장	농업신용과 농협 육성	141

1. 농업대출금의 증대	141
2. 중장기·저리자금 공급의 증대	142
3. 상호금융의 확대	144
4. 저리금융 체계의 유지	145
5. 단위조합의 자립화와 육성	145
제10장 농업부문 자금지원과 투자	148
1. 농업부문에 대한 자금지원의 방향전환	148
2. 농업부문 재정 투융자	152
3. 농업부문에 대한 투자(자본형성)	154
제11장 농업의 당면과제	156
1. 70년도 농업의 개관	156
2. 70년도 농업이 제기한 당면과제	159
제 2 편 71년도 농업시책	
제 1 장 기본방향	167
제 2 장 식량증산	168
1. 양곡수급의 추세와 자급전망	168
2. 71년도 식량증산 시책	174
제 3 장 농가소득 증대	183
1. 농어민소득증대 특별사업	183

2. 축산진흥.....	185
3. 경제작물 증산	189
4. 잠업증산.....	190
제 4 장 농업생산기반의 확충.....	192
1. 농업 용수개발	192
2. 다목적 대단지 농업 개발사업	194
3. 경지정리.....	195
4. 농업 기계화	197
제 5 장 유통개선과 가격지지.....	199
1. 양곡수급과 곡가안정	199
2. 일반 농수산물 가격 평준화	201
3. 농수산물 수출증대	202
제 6 장 농촌 환경개선.....	204
1. 농촌 종합개발	204
2. 농촌 생활환경의 개선.....	205
제 7 장 행정지원 강화.....	206
1. 농정추진방식의 개선	206
2. 농림수산 자금지원	208
제 3 편 72년도 농업시책 방향	
제 1 장 시책방향	213
제 2 장 식량증산	215

1. 우량종자 보급	215
2. 벼 집단재배	216
3. 시비법 개선	216
4. 비료 공급	217
5. 병충해 방제	218
6. 맥류증산과 보리가격 예시	218
제 3 장 농가소득 증대	221
1. 농어민 소득증대 특별사업	221
2. 경제작물 증산	224
3. 잠업 증산	226
4. 축산 진흥	227
5. 농어가 부업의 장려	228
제 4 장 농업생산기반의 조성	232
1. 농업용수개발	232
2. 경지정리	234
3. 농역기제화	234
제 5 장 농지제도의 개선	236
제 6 장 농산물유통	237
1. 양곡수급과 곡가안정	237
2. 농산물 유통개선	238
3. 농산물 가격평준화	240
4. 농수산물 수출	241
제 7 장 농림행정지원	243

1. 농사시험연구.....	243
2. 농촌지도.....	245
3. 농업통계 개선	247
4. 국제협력.....	248
5. 농협의 육성과 농업신용제도 개선	249

제 II 부 임업부문

제 1 편 70년도 임업동향

제 1 장 국민경제와 임업.....	257
1. 임업의 위치	257
2. 임업과 다른 산업과의 관련	258
제 2 장 임업생산	259
1. 임산자원의 조성	259
2. 임산물 생산	265
3. 임산자원의 보호육성	267
제 3 장 임산물 수급.....	269
1. 목재수급.....	269
2. 목재무역.....	270
3. 목재가격추이.....	271
4. 해외임지개발.....	272
5. 목재공업.....	273
6. 임산연료 수급	275

제 4 장 임업경영	276
1. 현 황	276
2. 경영개선	278
제 5 장 국토보전	281
1. 사방사업	281
2. 3강유역 개발사업	281
제 6 장 임업금융	283
제 7 장 산림조합 육성	284

제 2 편 71년도 임업시책

제 1 장 시책방향	287
제 2 장 임업 생산성 향상과 기반조성	287
1. 대단지 산지개발	287
2. 임야등기사업	289
3. 조림사업	289
4. 종묘사업	291
5. 산림 해충방제	292
제 3 장 국토보전	293
1. 사방사업	293
2. 3강유역 개발사업	293
제 4 장 임산물 수급안정과 수출촉진	293

1. 목재 수급 원활.....	293
2. 해외 임지 개발.....	294
3. 목재 가격의 안정.....	295
4. 임산물 수출 증대.....	295
5. 임산연료 수급	296
제 5 장 임업기술 향상.....	296
1. 시험연구.....	296
2. 산림자원 조사	296
제 6 장 임업금융	297
제 7 장 산림조합 육성.....	298

제 3 편 72년도 임업시책 방향

제 1 장 시책방향	301
1. 임업의 현황과 전망.....	301
2. 72년도 시책방향	302
제 2 장 임산자원 조성.....	304
1. 경제림 조성	304
2. 국토보전 및 수원함양.....	304
3. 산림보호의 강화	305
4. 임업기술의 향상	305
5. 통일동산 조성	306

제 3 장	임업경영	307
1.	사유림의 경영개선	307
2.	국유림의 경영개선	307
제 4 장	임산물 수급.....	308
1.	임산물유통 및 농촌연료대책.....	308
2.	해외임산자원의 개발	308
3.	임산물 수출	309
제 5 장	산림조합 육성	309

여백

제 1 부

농 업 부 문

여백

제 1 편 70년 도 농업 동향

농림부
농업정책
농업정책



제 1 장 70년도 농업경제의 움직임

1. 일반경제

70년에 들어와서 미국을 위시한 주요국가들의 경기후퇴로 생산증대의 확대추세는 크게 둔화되었는데 이러한 생산확대의 둔화에 불구하고 인프라는 지속되어 무역량은 신장되었다.

이같은 선진국의 인프라는 일부국가에서 발생한 생산의 애로로 인한 초과수요 증가와 임금상승으로 인한 「코스트·푸쉬」 인프라의 압력이 가중되는데 연유하였는데 무역의 증대와 함께 세계적으로 과급되었다.

우리나라 경제는 고도성장과정에서 발생한 투자의 과열화와 소비의 증가등 초과수요압력으로 야기된 안정기조의 불안화 요인을 극복하기 위한 안정정책이 주효하므로써 60년대 후반기 이래 계속된 급속한 확대추세가 안정되었다.

70년도 국민총생산액은 경상가격으로 2조 5,459억 원으로서 명목상으로는 전년대비 24.4% 증가되었으나, 실질가격(65년 불변가격)으로는 1조 4,223억 원에 머물음으로서 전년대비 8.9%의 실질성장을 이루었다.

이것은 69년도의 실질성장을 15.9%에 비하면 7.0%포인트나 낮은 것으로서, 투자 과열화를 방지하기 위한 각종 긴축정책의 성과로 투자증가가 완화되고 연중을 통한 기상조건의 불량으로 곡물생산을 비롯한 농작물생산이 전년보다 감소함에 따라 농림어업의 생산증가가 -0.8%의 부(負)의 성장을 이룩한데 기인한다.

총투자는 경상가격으로 7,124억 원으로서 전년대비 15.9% 증가되었는데, 물가요인을 제거한 실질가격으로는 0.9%밖에 증가되지 않았다.

이것은 69년에 총투자가 전년대비 31.2%라는 급속한 증가를 이룩하

여 총투자율을 30.0%까지 확대해 온것과는 상반적으로 안정화된 것이며, 70년의 총투자율은 이에 따라 28.0%로 줄어들었다.

투자가 이와같이 감소된 이유는 농산물의 재고가 크게 감소된데 더하여 경제의 안정화를 위하여 재정지출을 줄여 오므로서 정부의 재정투자가 감소되었으며, 긴축정책으로 금융에도 경직상태가 부하된 결과 민간의 투자 역시 그 증가추세가 둔화된데 있다.

즉, 고정투자는 65년 가격으로 69년에 4,077억원이었는데 70년에는 2.2%가 늘어난 4,167억원에 머물렀으며 재고투자는 69년의 437억원에서 70년에는 388억원으로 감소되었다.

고정투자의 내역별 증가는 건설부문에서 민간부문이 도시건설을 중심으로 계속 증가되므로서 전년대비 18.8%의 실질증가를 나타내는데 반하여 정부건설은 재정긴축에 따라 고속도로 건설사업등 각종사업의 투자규모가 축소되므로서 69년에 시현한 전년대비 58.3%의 높은 증가와는 달리 8.6%의 실질감소를 나타내었다.

기계설비에 대한 투자는 차관사업의 엄선등 투자의 사전조정 강화에 따라 5.0%의 실질감소를 나타내었다.

확대추세의 안정화는 저축에도 반영되어 국내 저축율은 69년의 18.8%에서 18.2%로, 해외저축율은 69년의 11.2%에서 9.8%로 각각 감소되었는데, 자본도입의 엄격한 조정, 선택에 따라 저축의 자립도는 69년보다 2.3%포인트 향상되어 65.0%가 되었다.

총소비는 증가추세가 정부지출은 통제로 완화되었으나, 민간소비의 증가추세가 그대로 지속되므로서 총소비율이 69년보다 약간 증가된 83.6%로 되었다.

총소비지출액은 65년 불변가격에 의할 때 1조2,036억원으로 전년대비 10.6%의 실질증가를 나타냈는데 이것은 69년의 총소비실질증가율 11.2%보다 약간 낮은 것이다.

이 가운데 민간의 소비는 1조77십억원으로 전년대비 11.1%의 실질증

표 1-1 주요 경제 지표

구분	단위	65	66	67	68	69	70
경제성장률	%	7.4	13.4	8.9	13.3	15.9	8.9
인구증가율	%	2.70	2.50	2.40	2.30	2.20	1.9
투자율	%	14.7	21.7	21.9	26.7	30.0	28.0
국내저축율	%	8.2	13.2	12.8	15.1	18.8	18.2
해외저축율	%	6.5	8.5	9.1	11.6	11.2	9.8
도매물가지수		100.0	108.8	115.8	125.2	133.7	145.9
통화량	10억원	64.7	84.2	120.0	149.8	217.9	306.5
수출	백만\$ (1)	180.4	255.7	358.5	500.4	702.8	1,030.8
수입	"	463.4	716.4	996.2	1,462.9	1,823.6	1,984.0
국제수지	" (2)	4.7	119.1	112.6	8.4	94.8	-58.0
1인당 G. N. P	\$	114.4	130.8	143.4	164.7	198.0	223.0

자료: 경제기획원, 주요경제지표 1971.
한국은행, 통계월보 1971. 7

주: (1) 수출실적
(2) 종합수지 순계액임

가를 나타냈고, 정부 소비증가는 69년의 전년대비 실질증가율 12.2%보다 훨씬 낮은 6.7%에 머물렀다.

한편, 대외거래에서 수출총액은 65년 불변가적으로 3,659.9억원이 되어 전년대비 19.8%의 증가를 나타내는데 비하여, 총수입은 65년 불변가적으로 5,790.2억원으로서 전년대비 12.2%의 증가에 머물렀다.

수출에 있어서 특이한 사항은 69년에 전년대비 25.0%의 실질증가를 나타낸 무역외수출이 월남경기의 축소과정을 비롯한 각종 여건의 변동으로 70년도에는 전년대비 0.9%의 실질증가에 머물른 점이며, 수입은 이와는 달리 무역수입이 69년에 전년대비 24.8%의 실질증가를 나타냈음에 반해 70년도에는 9.3% 증가로 완화되었다.

이에 따라 국민총생산에 대한 수입의 비율은 69년의 27.4%에서 70년에는 26.6%로 약간 감소되었다.

총인구의 증가는 점차로 생활수준이 높아지고 핵가족단위의 생활이 보편화된 결과 출산율이 계속 감소되므로서 70년에 인구증가율이 1.8%로 둔화되었다.

인구증가의 감소효과와 생산신장의 지속효과에 따라 국민 1인당 총생산액은 69년의 66,545원에서 70년에는 81,295원으로 22.2% (경상가격기준) 증가되었다. 이것을 \$화로 환산하면 69년의 198\$ 수준에서 70년에는 223\$로 증가되므로서 처음으로 국민 1인당 G.N.P가 200\$대를 넘어섰다.

이것은 60년의 1인당 G.N.P 94.8\$에 비할 때 그 배가 넘는 것으로서 지난 10여년간의 힘찬 노력이 우리경제를 100\$대 미만의 저개발국에서 200\$대 이상의 발전도상국가로 약진시켜 왔음을 과시하여 주고 있다.

산업구조는 경상가격으로 평가할 때는 농림어업이 28.1%, 광공업이 22.2%,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 서비스업이 49.7%로서 1, 2, 3차산업의 구성비가 대략 3:2:5의 비중을 이루었다.

조세부담율은 경제성장과 투자재원의 자체조달의 필요에 따라 계속 증가되어 70년에는 15.6%가 되었다.

국제수지는 무역수지의 적자폭이 수출의 적극적 조장과 수입의 조절에 따라 약간 축소된데 반하여 무역외수지의 흑자가 전년에 비하여 현저히 감소되었고, 이전수입이 수취의 감소와 함께 지급의 증가가 동반된 결과 흑자폭이 줄어들어서 경상거래의 적자폭이 확대된 한편, 장기자본의 도입도 투자의 엄선에 따라 감소되고 상환액이 증가되어 자본거래의 흑자도 전년에 비하여 감소되므로서 전반적으로 종합수지는 적자를 나타냈다.

통화량은 69년말의 2,179억원에서 70년말에는 3,065억으로 40.7% 증가되었는데 이것은 68~69년간의 증가율 45.5%보다 안정화된 것이다.

투자증대의 안정화와 통화공급의 긴축이 이루어진 배경아래 물가수준(전국도매물가 총지수)은 9.1%의 등귀를 실현하므로서 최근에 없었던

강세를 나타내었다.

물가의 등귀는 경제의 과열화 현상에서 온 압력이 계속된 긴축과 안정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어느정도 노출되는데 덧붙여서 추수기를 통하여 쌀값의 정부 수매가격수준을 대폭적으로 인상하게 되는데 영향을 받았다. 그러나 이러한 물가상승도 당초의 유지목표인 10%선을 넘지는 않았으므로 전반적인 안정기조의 유지에 기여하였다.

이와 같이 70년도의 경제는 대외적으로나 대내적으로 인플레이의 압력이 만연된 속에서 국내경제의 안정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대외균형과 성장의 가속화가 억제되므로서 안정기조상의 지속적 성장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농업부문의 애로는 아직도 기후변동의 영향에 의한 작물생산의 변동으로 성장에 차질을 줄뿐 아니라 새롭게 제기된 가격지지는 전체경제의 안정추구 소요와 상충되는 새 국면을 나타내었다.

2. 농업경제

70년의 농업경제는 기후조건의 불순으로 농작물생산이 전반적으로 저조한데 기하여 농업생산이 부(負)의 성장을 기록함으로써 생산면에서는 정체현상을 나타내었는데, 농산물 가격지지가 강화되고 유통시설의 확충이 이루어졌으며, 도시에서는 쌀등 곡물의 가격안정을 위한 유통조직 개편이 시작되므로서 유통면에서는 보다 개선된 새로운 진보를 이루었다.

이러한 속에서 보다 수익이 높은 부문에 전업화하는 전통적 영농의 탈피가 진전되었고, 생산성이 높은 타부문으로의 취업이전과 기술향상에 따라 생산성이 향상되었으며 전반적인 이동성이 제고되었다.

농가인구는 67년이래 감소되어온 추세가 지속되어 69~70년간에 1,157천명이 줄어들음으로서 68~69년간의 감소 319천명보다 훨씬 많은 인구이동을 나타내었다.

농가인구의 이동이 이와같이 급속해진 배경에는 도시지역의 지역적 확산과 도시지역의 고밀도화와 기능집적에 따르는 서비스수요의 증가 및 소득조건이 우월성이 중요한 요인으로 잠재하고 있다.

농가호수는 인구의 급속한 이동과 같이 하여 전년대비 2.3%가 감소된 2,488천호로 감소되었다.

총경지면적은 69년의 2,330천ha보다 198천ha가 줄어든 2,132천ha로 감소되었다.

이와같은 농가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경지면적의 감소가 지난 10년간의 변동추세에 비추어 이례적인 변동을 보인것은 지난 10년간의 통계가 행정통제인데 비해, 60년과 70년은 10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는 농업센사스의 결과인 점에서 통계 조사방법의 차이점도 일응 고려해 두어야 할 것이다.

센사스를 실시하는 해에는 행정통제를 내지 않기 때문에 오차의 확인과 시정이 불가능 함으로 우선 통계치 대로 해석해 나갈 수 밖에 없으나 센사스와 행정통제간의 연결을 위한 조정작업이 요청되고 있다.

이에 따라 총인구중 농가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68년의 51.7%에서 불과 2년만에 45.0%로 급격히 감소되었으며, 농가호당 가구원수는 69년의 6.12인에서 5.8인으로, 농가호당 경지면적은 69년의 91.5a에서 85.7a로 각각 감소되었다.

69년의 풍작과 최근에 와서 강화된 가격지지등 농업지원정책의 강화에 불구하고 농촌의 변질과정이 이와같이 더욱 가속된 것은 농촌지역에 대한 개발에 불구하고 앞으로 지속될 것으로 예기된다.

이러한 변동과정에서 특이한 것은 농지의 감모가 의외로 커지고 있다.

는 점이다.

농지의 감모가 절대량으로 의미있게 표출되기 시작한 것은 개간, 간척등에 의한 농지확장이 사업의 정선에 따라 점감되게 되고 각종 공장, 도로, 주택등의 부지소요가 급속히 늘어나기 시작한 67~68년경 부터 인데 대규모의 고속도로 건설사업이 크게 부각된 69년을 지나 70년에도 이 감모현상이 심화된 것은 농지보존의 필요성을 더욱 제고시키고 있다.

한편, 농가호당인구가 5.8인 수준으로 적어진 것은 일면에서는 농촌

표 1-2 농업경제주요지표

구	분	단 위	65	66	67	68	69	70				
농	가	인	구 ²⁾	천 명	15,812	15,781	16,078	15,908	15,589	14,432		
농	가	호	수	천 호	2,507	2,540	2,587	2,579	2,546	2,488		
경	지	면	적	천ha	2,275	2,312	2,331	2,338	2,330	2,132		
	농가인구/총인구			%	55.2	54.0	53.5	51.7	49.6	45.0		
	호당경지면적			a	90.7	91.0	90.1	90.7	91.5	85.7		
	호당농가인구			명	6.31	6.21	6.22	6.17	6.12	5.8		
농	업	생	산	지	수 ¹⁾	100.0	112.0	106.7	108.3	123.7	—	
농	가	교	역	조	건	%	100.0	94.5	95.7	93.5	97.1	99.1
	농가판매가격지수				100.0	106.0	121.5	142.3	162.4	191.4		
	농가구입가격지수				100.0	112.2	127.0	152.2	167.2	193.1		
농	가	소	득	월	112,201	130,176	149,470	178,959	217,874	255,804		
농	가	영	겉	계	수	%	53.1	50.2	49.1	47.4	46.4	45.9
농	수	산	물	수	출	천\$	63,142	98,830	112,634	148,126	202,135	264,171
농	수	산	물	수	입	"	143,015	204,167	239,396	340,698	522,159	673,213

자료: 농림부 조사통계과
경제기획원 주요경제지표 1971
농림부 수출진흥관

주 1) 64-66기준으로 산출된 생산지수를 65=100으로 환산한 것임
2) 70년 기본통계는 농업센서스 결과이고 65~69년 통계는 행정통계임.

가계의 핵가족 단위화가 크게 진전되었음을 나타내고 있으나 다른 일면에서는 농가에서 생산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노동력이 그만큼 감소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현재와 같은 노동집약적 생산양식 아래에서 생산성을 제고시키는데 새로운 과제를 제기시키고 있다.

특히 하곡의 생산감소에 이어 추곡의 생산까지 감소되므로서 농가의 보유양곡은 크게 감소하였는데, 이러한 현상은 70년도 상반기의 후기에 서 부터 곡물의 출하량 감소에 반영되어 70년 여름부터 곡물의 가격이 강세를 나타내었을 뿐 아니라 전반적인 재고감소를 결과하였다.

이러한 배경아래 가격평준화 시책이 더욱 강화된 때문에 70년도의 곡물수요는 계속 증가세를 시현했고, 이에 대응하여 상당량의 곡물이 도입되었다.

농가교역조건은 농가판매가격수준이 청과물과 쌀을 비롯한 곡물의 판매가격 등위로 크게 향상된데 비하여 농가의 구입가격수준은 농촌임료금을 제외한 타품목의 가격수준이 비교적 안정세를 이룸으로서 농가의 판매가격과 구매가격의 패리티율이 70년에는 99.1%로 개선되었다.

농가소득은 농가인구 및 농가호수의 감소, 농산물 가격지지가 반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농산물생산이 저조한데 기하여 증가의 속도가 전년보다 둔화 되었다.

즉, 68~69년간 농업소득은 22.0%, 농업외소득은 20.8%가 각각 증가되어 농가소득은 전년대비 21.8%의 증가를 나타내었는데, 70년에는 농업소득이 전년대비 16.1%, 농외소득은 전년대비 21.8%가 증가되어 농가소득은 전년대비 17.4% 증가에 머물렀다.

이 결과 도시근로자가구 소득과 농가소득의 격차는 69년의 상대소득

수준이 65.3% 이었음에 비하여 70년에는 상대 소득수준이 67.1%로 1.8% 포인트 상승하여 약간 개선 되었다.

한편, 농공간의 소득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농어민의 소득증대방안으로 68년부터 농어민 소득증대특별사업이 착수되었다.

농어민소득증대특별사업은 수익성과 시장성이 좋은 잠축산업과 경제작물재배를 중심으로하여 4개년간 497억원의 투자규모로 2,488천호의 농가중 18%에 해당하는 464천호가 참여하고 있다.

농어민 소득증대특별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농어의 소득은 69년에는 특별사업에 의해서 24,498원의 추가소득을 올려 호당 242,372원의 소득으로 도시근로자 소득에 비해 72.6% 수준이었으며 70년에는 32,400원의 추가소득을 올려 참여농가호당 288,204원의 소득으로 도시근로자소득 381,240원에 비해 75.6%로 소득격차를 급속히 좁혀가고 있다.

70년의 농수산물수출은 생사류의 국제시장단가 등귀와 잡곡의 신규시장 확대에 호조를 보임으로서 당초의 목표를 상회한 264,171천 \$에 이르렀다.

이러한 수출의 호조에 비해 농수산물수입은 쌀등 곡물의 수입이 증가되고 원목수입이 증가되므로써 69년보다 28.9%가 증가된 673,213천 \$로 확대되었다.

농가의 엔겔계수는 45.9% 수준에 머물름으로서 69년과 비슷한 수준에 유지되었다.

이 현상은 농가의 식품소비양식이 보다 다양해 지므로써 조미료 및 각종 부식물비의 지출이 많이 증가되었을 뿐 아니라 농촌지역에서도 곡물의 구입가격이 상당히 등귀된데 기인한다.

이와 같이 70년도 농업경제는 경제의 전반적인 전환기에 처해있는 가운데 농업구조가 지속적으로 분해하는 과정에서 자체내 성장의 부진으로 인하여 애로현상을 배태하게 되었다.

특히, 종래와는 달리 단경기에 가격 안정시책이 추진되고 생산시기에 가격 지지시책이 추진되는 가격지지의 2원화가 물량공급 능력이 제약된속에서 이루어지므로써, 농산물 유통은 보다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으며 이같은 농산물의 가격지지는 전체경제에 대하여 새로운 부담조건으로 대두 되었다.

농촌과 도시의 소득격차 개선이 완만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현상은 부문간 격차의 능률적인 조정을 위하여 앞으로 농촌경제의 개발이 보다 다

표 1-3 농업경제의 성장과 국민경제 65년 불변가격기준

구 분		단위	65	66	67	68	69	70
성 장 율	국 민 총 생 산	%	7.4	13.4	8.9	13.3	15.9	8.9
	농 립 어 업	"	-0.9	11.0	-5.5	1.2	11.9	-0.8
	비 농 립 어 업	"	13.4	14.9	17.7	19.2	17.5	12.7
	광 공 업	"	21.1	15.2	22.5	26.9	21.0	17.7
	사 회 간 접 자 본 및 기 타 써 어 비 스 업	"	10.1	14.8	15.4	15.9	15.6	9.9
구 성 비	국 민 총 생 산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농 립 어 업	"	38.7	37.9	32.8	29.4	28.4	25.8
	비 농 립 어 업	"	61.3	62.1	67.2	70.6	71.6	74.2
	광 공 업	"	19.5	19.9	22.3	24.8	25.9	28.0
	사 회 간 접 자 본 및 기 타 써 어 비 스 업	"	41.8	42.2	44.9	45.8	45.7	46.2
GNP 성 장 기 여 율	농 립 어 업	"	-4.8	31.7	-23.4	3.0	22.0	-2.5
	비 농 립 어 업	"	104.8	68.3	123.4	97.0	78.0	102.5
	광 공 업	"	49.3	22.2	50.1	43.5	32.7	51.6
	사 회 간 접 자 본 및 기 타 써 어 비 스 업	"	55.5	46.1	73.3	53.5	45.3	50.9

자료 : 한국은행, 국민소득실적추계 1971. 7.

각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질 것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은 변동을 내포한 농업경제의 국민경제에 대한 기여는 생산면에서 후퇴하였으나 소비면에서는 역할을 계속 신장하였다.

생산면에서 국민총생산은 65년 불변가격으로 평가할 때 8.9%의 실질 성장을 나타내었는데, 이에 대한 농림어업부문의 성장기여는 -2.5%라는 부(負)의 기여를 하였다.

따라서 경제에 대하여 필요한 물량을 생산공급하는 능력은 약화되어 양곡을 비롯한 농산물의 수급이 전반적으로 강박 현상을 나타내게 되었고 농산물의 가격수준의 등위가 강세를 실현 하였다.

타부문의 생산에 대한 수요측으로서 농업부문은 농가의 소비수준이 계속 향상되고 지출능력이 증가되므로서 소비기능이 확대되었다.

농가의 평균소비성향은 69년의 81.4%에서 2.0% 포인트가 높은 83.4%로 확대 되었는데, 이와같은 소비수준의 향상은 농가 자체의 저축증대와 재투자 능력 강화에 대해서는 기여하지 못했으나 타부문에 대한 구매력은 확대시켰다.

제 2 장 농업경영

1. 전환기의 농업경영

농업경영의 근대화를 위한 노력은 농업경영의 구조 변동이 외연적으로 유인된 결과 보다 신속한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농가 인구의 상대적 비중이 점감되기 시작한 것은 해방이후 정치, 행정, 문화, 경제의 모든 기능이 도시를 중심으로 수행 되므로서 대부분의 도시가 이와같은 서비스의 공급소가 되면서 부터 이었는데, 이 여건 아래에서 농가의 절대수 증가와 농촌인구의 수적증가가 계속되었기 때문에 농가의 경영단위를 대규모화 한다든가 비 경종 분야에 전업화 시킨다는 것은 극히 어려웠다.

경종부문에 종사하는 농가들의 단위 경작면적을 늘린다는 것은 농가호수의 감소와 농경지의 확장을 필요로 하는데 농경지의 대량확장이나 농가의 대거 이농은 모두가 가능하지 않았으며, 경종농가를 비경종분야로 전업시킨다는 것은 우선 농가의 대부분이 자가 소비 식량을 공급하기 위한 자급경작을 중심으로 경영되고 있는 상태에서 경작의 포기가 이보다 훨씬 유리한 수익 조건을 형성해야 하는데 비경종분야 농산물의 시장 수요는 국내 구매력의 한정으로 극히 제약되어 있었기 때문에 역시 바람직할 것이 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60년대 초기에서 부터 제1,2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중심으로 공업화가 추진되고 이에 따라 도시의 생산기능이 급격히 확대되기 시작 하면서 부터 도시에서의 고용기회가 증대되는 동시에 이 부문에서의 부가가치가 농촌지역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를 훨씬 상회케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62~63년을 계기로 하여 도시근로자 소득과 농가소득의 패리티 관계가 역전되어 농가가 도시 근로자 가구보다 훨씬 불리한 상대 소득수준에 남게 되는데서 노출되었는데, 도시·농촌간의 격차발생은 농촌인구의 도시이동과 도시에서의 농산물 수요 급증이라는 현상과 동시에 진행되었다. 이에 따라 농촌인구의 이동과 수요가 현저하게 증가하는 고수익 부문의 성장농업개발이 촉진되게 되었으며 농업 경영이 다각화되게 되었다.

70년도에도 이 현상은 지속되어 농가의 경영 개선이 진행되었다.

경종 농가의 감소수는 60천호에 이르므로서 총 경종농가는 전체 농가의 97.5%인 2,427천호로 줄어 들었다.

경종농가들의 경작규모별 분포상태는 1ha 미만의 농가가 전년대비 2.9%가 감소된 1,602천호로 감소된 반면 1ha 이상의 농가들은 전년대비 1.6%가 감소된 825천호로 감소되었으나, 전체농가에 대한 비중은 1ha 미만의 농가가 66%, 1ha 이상의 농가가 34%로 변동되어 지금까지 1ha 미만의 농가들이 대종을 이룬 경작구조가 1ha 이상의 안정농가 중심으로 계속 전환하고 있다.

표 1-4 경 작 규 모 별 농 가 호 수 단위 : 천호

연도	60		65		68		69		70 ^{P)}	
	호 수	구성비	호 수	구성비	호 수	구성비	호 수	구성비	호 수	구성비
경지규모										
~0.5 ha	1,009	42.9%	901	35.9%	858	34.0%	842	33.9%	806	33.2%
0.5~1.0	707	30.1	794	31.7	820	32.6	807	32.5	796	32.8
1.0~2.0	486	20.7	643	25.7	669	26.5	668	26.8	658	27.1
2.0~3.0	141	6.0	140	5.6	133	5.3	131	5.2	128	5.3
3.0~	7	0.3	29	1.1	41	1.6	39	1.6	39	1.6
경종농가수	2,350	100.0	2,507	100.0	2,521	100.0	2,487	100.0	2,427	100.0
경종의농가	—		—		57		59		61	
총 농 가	2,350		2,507		2,578		2,546		2,488	

자료 : 농림부 조사통계과

경종농가의 감소에 비하여 축, 잡, 원예농가들은 보합상태를 유지하였다.

한편, 경영형태는 전업 농가가 계속 감소하고 있으나 겸업 농가들도 동시에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농가에 대한 전업농가와 겸업농가의 비중은 대체적으로 85 : 15의 비율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표 1-5 형태별 농가 호수 단위 : 천호, %

구분	67		68		69		70 ^{P)}	
	호수	구성비	호수	구성비	호수	구성비	호수	구성비
계	2,586.8	100.0	2,578.5	100.0	2,546.2	100.0	2,488	100.0
순농가 { 소계 전업 1종 겸업 2종 겸업	2,458.9	95.0	2,384.7	92.5	2,347.4	92.2	2,309	92.8
	2,251.1	87.0	2,201.7	85.4	2,181.6	85.7	2,159	86.8
	207.8	8.0	183.0	7.1	165.8	6.5	150	6.0
	81.8	3.2	193.8	7.5	198.8	7.8	179	7.2
임금노동농가	46.1	1.8	—	—	—	—	—	—

자료 : 농림부 조사통계과

주 : 70년치는 잠정추계치임

전업농가가 계속 일정한 비중을 점하고 있는 것은 농촌경제의 기능적 구조가 거의 변동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겸업의 기회가 경직화 되어 있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 현상은 표 1-18에서와 같이 경작면적이 1.5ha 미만 수준의 농가에서는 농업소득으로 가계비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최근의 격증한 이농현상이 종래와는 달리 지식층의 이농이 아니라 영세농가의 이농임을 나타내고 있다.

70년도에 전북의 일부지역에서 조사된 이농의 경작 계층별 분포는 이 같은 현상을 더욱 분명히 하고 있다.

즉, 조사지역내의 이농농가 184호 가운데 66.2%인 122호가 1ha 미만의 농가이며, 2ha 미만의 농가가 88%를 점하는 162호에 이르고 있다.

표 1-

이농호수분포

구	분	호 수	비 율
	ha	호	%
	~ 0.5	62	33.6
	0.5 ~ 1.0	60	32.6
	1.0 ~ 2.0	40	21.8
	2.0 ~ 3.0	7	3.9
	3.0 ~	4	2.2
	비 농 가	11	5.9
	계	184	100.0

자료 : 전라북도, 70년도 도정평가 보고서 p. 63

조사대상에서 비농가 이농가구를 제외할 때 이농가구의 36%가 0.5ha 미만 계층이고 1ha 미만이 71%, 2ha 미만이 94%를 각각 점하고 있다.

한편, 전업 농가중 경종 농가의 지역별, 경종별 분포는 도시지역의 확대와 고속도로망을 중심으로 한 교통망의 확산에 따라 소비지와의 교역거리가 축소된 결과 고등채소를 중심으로 하는 원예 농가가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도시근교 지역은 종래와는 달리 지가상승의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투기적인 자본의 토지투자에 따라 유향화 하고 있어서 근교농의 생산권이 원격, 광역화 되었다.

이와 같이 70년의 농업경영은 전체경제의 구조변동에 따라 농업경제가 내포적인 구조분해를 일으키는 전환기의 특성을 나타내었는데 이러한 변동은 합리적인 경영개선을 위한 대책을 필요로 하고 있다.

2. 변동되는 농업취업

비농업부문의 취업증가로 인하여 농업의 취업상태는 변동하고 있다. 농업부문의 취업자수는 점감되고 있으며 농업부문에서 비농업부문으

로의 인력유출은 계속되고 있고 농가에서는 비농가에 비할때나, 종래의 상태에 비할 때 여자들의 취업이 현저히 증가 되었다.

농가에서의 취업 이전은 부분이농의 경우 주로 청장년층이 타부문에 이전되고 있기 때문에 농가의 영농취업율은 저하되고 있고 가계부담은 농업 이외의 소득원천으로 분산되고 있다.

70년의 14세이상 인구의 노동활동 참여율은 전체로는 55.9%로 68, 69년의 상태와 같은 수준을 유지 하였는데, 농가의 경우 노동활동 참여율은 60.9%로서 비농가의 노동활동 참여율 51.5%보다 9.4%포인트 높았다.

취업에 있어서도 전체의 취업율이 69년의 95.2%에서 70년에는 95.5%로 약간 증가 되었는데, 농가는 69년의 97.8%에서 98.4%로 증가된데 비하여, 비농가는 92.2%에서 92.5%로 증가되었다.

남·여별 취업상태는 농가의 경우 65년에는 농가의 취업자 5,720천명 중 남·여 취업의 비율이 각각 62.8%, 37.2% 이었던 것이 69년에는 60.0%와 40.0%로, 70년에 57.9%와 42.1%로 변동하여 오히려 남자의 취업감소가 여자 노동력의 취업증가로 보전되고 있음을 나타내었다.

특히, 이러한 변동은 비농가의 경우 65년 비농가 취업자에 대한 남자의 비율이 67.4%이었던것이 69년에 69.3%, 70년에 69.0%로 늘어난 것과 대조를 이루고 있다.

농가와 비농가의 취업상태가 이와 같은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은 가계를 유지하는데 있어서 농가가 더 많은 취업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점과 농가에서는 남자 취업자가 부분 이농을 통하여 비농가 취업에 흡수되고 있는데 대응하여 여자들의 취업이 증가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상태는 고생산성부문으로의 합리적 고용배분이라는 총괄적인 측면에서는 바람직한 것이나 농업경영이 노동집약상태에 방치된 속에서 약체노동력이 투입되고 있으므로 농업 노동의 질적 약화라는 일시적인 노동 약화 현상을 야기시키고 있다.

취업의 산업별 구성에 있어서 농업을 비롯한 1차산업 취업자의 비중은

감소되어 70년에는 50.5%로 줄어 들었다.

69~70년간의 농림업 취업자는 종래와는 달리 1.8%의 증가를 나타내었는데 이것은 총 취업자의 증가 2.4%보다는 낮았다.

농림업 취업자 수가 69~70년간 증가되게 된 것은 농가의 취업에서 여자 노동력과 연소자 취업이 증가한데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표 1-7 취업의 산업별구성 단위:천명

연 도	총취업자	농림수산	농 립 업	수산·수렵	광 공 업	사회간접자본및 기타서비스업
65	8,522	5,000	4,785	215	879	2,643
68	9,261	4,863	4,643	220	1,295	3,163
69	9,347	4,798	4,660	138	1,335	3,214
70	9,574	4,834	4,745	89	1,369	3,371

자료: 경제기획원, 주요경제지표, 1971.

농가인구의 변동을 연령별로 보면 전계층의 인구가 감소되고 있으나, 특히, 청장년층의 인구감소가 평균수준보다 높고 아동과 노년층의 감소는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나고 있어서 중견노동력의 감소가 현저함에 반

표 1-8 연령별 농가인구 단위:천명

구 분	68			69			70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총 수	7,993.9	7,913.8	15,907.7	7,839.7	7,749.2	15,588.9	7,173.3	7,258.6	14,431.9
14세이하	3,295.9	3,071.9	6,367.8	3,247.0	3,014.7	6,261.7	3,258.5	3,235.5	6,274.0
15~19	1,069.0	963.5	2,032.5	1,030.7	930.7	1,961.4	3,937.8	4,220.1	8,157.9
20~49	2,548.4	2,510.4	5,058.8	2,497.6	2,447.2	4,944.8			
50~51	620.2	722.3	1,342.5	603.0	708.9	1,311.9			
60~	460.4	645.7	1,106.1	461.4	647.7	1,109.1			

자료: 농림부 조사통계과

하여 연소자 및 노년층의 잔류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69~70 년간에도 총 농가인구의 감소가 7.3%임에 비하여, 14세 이하는 0.6% 증가된 반면에, 15세이상 인구는 11.5% 감소되었다.

청·장년층의 이농은 대부분 부분적 이농이 주축을 이루고 있는데 앞에서 제시한바 있는 전라북도의 일부 지역에서 실시된 이농현황 조사에서도 이같은 실태가 나타나고 있다.

즉, 피조사 이농자 총수 233명 가운데 70.4%인 164명이 남자이고, 여자는 29.6%인 69명에 지나지 않는다.

이 농 자 의 연 령 별 성 별 분 포

표 1-9

구	분	남	여	계	비율
	세	명	명	명	%
10~15		4	2	6	2.6
16~20		32	34	66	28.3
21~30		92	30	122	52.4
31~40		29	3	32	13.7
41~50		5	—	5	2.0
51세 이상		2	—	2	1.0
계		164	69	233	100.0
남·여 비율		% 70.4	% 29.6	% 100	

자료 : 전라북도, 70년도 도정평가보고서, P.64

전체 이농자의 연령별 분포는 16~30세가 80.7%의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농촌지역에서 노동력의 핵을 이루고 있는 16~40세 계층이 94.4%로 이농자가 거의 이들 계층에 속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여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16~30세 계층이 92.7%를 점하고 있어서 이농의 조건이 도시에서 취업기회가 부여될 수 있는 계층에 한정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이농자의 이농후 직업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여자의 경우 타이피스트, 간호원, 가정부, 이용사, 요리사, 견습공 등에 취업하고 있고 남자의 경우는 운전사, 사진사, 출판, 제지, 철공등을 비롯하여 견습공, 종업원 등에 이르고 있어서 대개가 기능적이 아니면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농가의 호당 영농종사자는 65년의 3.15인에서 70년에는 2.91인으로 줄었는데, 이에 따라 농가호당 취업율은 65년의 50.08%에서 70년에는 49.19%로 감소되었다.

특히, 경작규모별로는 경작규모가 큰 계층이 경작규모가 작은 계층보다 상대적으로 영농 취업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영세 농가에서의 이농과 겸업 현상이 상대적으로 높은것이 반영되고 있다.

농 가 호 당 취 업 상 태

표 1-10

구 분	평 균	경 작 규 모 별 (ha)					
		~0.5	0.5~1.0	1.0~1.5	1.5~2.0	2.0~	
농 가 인 구 (호 당)	65	6.29 ^인	5.26	5.99	6.83	7.46	8.14
	68	6.02	5.09	5.63	6.58	7.05	7.68
	69	5.99	5.03	5.75	6.46	6.84	7.68
	70	5.92	4.95	5.66	6.50	6.88	7.21
취 업 인 구 (호당영농종사자)	65	3.15	2.52	3.01	3.51	3.61	4.18
	68	3.00	2.49	2.79	3.31	3.75	4.01
	69	2.96	2.43	2.80	3.29	3.34	3.94
	70	2.91	2.44	2.73	3.25	3.38	3.67
취 업 율 (%)	65	50.08	47.70	50.25	51.39	48.39	51.35
	68	49.83	48.92	49.56	50.30	50.35	51.30
	69	49.42	48.31	48.70	50.93	48.83	51.30
	70	49.19	49.29	48.23	50.00	49.13	50.90

자료 : 농림부 조사통계과

농업의 취업상태가 이와 같이 변동하고 있는것은 비농업부문에서 수요가 급증하는 기능공 계층과 잡역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인력자원을 싼 값으로 공급할 수 있다는 전체경제의 발전에 대한 기여가 확대되고 있음에 반하여 농업부문에서는 노동력의 부족현상을 발생시켜서 농촌노임을 등귀시키며 노동의 질적 약화 현상을 가져오므로서 생산비와 생산성의 향상에 대하여 부담을 주고 있으므로 농업기계화 등 새로운 대책을 강화 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3. 경지이용과 생산요소의 투입 집약도

경지이용은 경지의 절대 면적 감소와 비곡물의 수요증가 및 근교농의 지역적 확산에 따라 계속 다각화 되었다.

총 경지이용율은 총 이용면적이 약 7만ha가 줄었음에 비하여 절대경지면적의 감소가 더 컸기 때문에 종래의 하락세와는 달리 증가되었다.

투입의 집약도는 농촌노동력의 감소와 투자의 증대에 따라 노동의 자본대체가 계속 진행되어 자본 구성도가 증가되었다.

70년도의 경지이용은 경지면적 2,132천ha에 대해서 총이용면적이 3,504천ha로, 총 경지 이용율은 164.4%로서 69년의 153.4%보다 11.0%포인트 늘어났다.

작물별로는 식량작물의 이용면적이 2,972.3천ha로 69년의 이용면적 3,065.3천ha 보다 3.0% 줄었는데, 미곡의 이용면적이 전년대비 1.3% 줄어든 1,213.4천ha, 맥류가 전년대비 31% 줄어든 1,084.4천ha가 되었고, 기타 곡물의 이용 면적은 69년의 716.0천ha에서 531.5천ha로 줄어들었다.

식량작물의 이용면적이 감소된 원인은 농경지의 감모분 가운데 고속도로변이나 도시근교 지역에 있는 우수한 농지들이 대량으로 비농업용지로 전환되었거나 투기적인 토지투자에 따라 유향화되는데 주로 기인하

표 1-11

경지면적의 이용

구분	단위	65	66	67	68	69	70
경지면적이용율	%	158.0	150.3	152.0	152.0	153.4	164.4
경지면적	천ha	2,275.2	2,312.2	2,331.2	2,338.0	2,330.0	2,132.0
이용면적	"	3,587.7 (100.0)	3,481.8 (100.0)	3,541.2 (100.0)	3,552.5 (100.0)	3,574.5 (100.0)	3,503.8 (100.0)
식량작물	"	3,248.4 (90.54)	3,115.9 (89.49)	3,135.4 (88.54)	3,103.4 (87.36)	3,065.3 (85.75)	2,972.3 (84.83)
미곡	"	1,238.4 (34.52)	1,271.6 (35.66)	1,245.6 (35.17)	1,160.5 (32.67)	1,229.7 (34.40)	1,213.4 (34.63)
맥류	"	1,210.9 (33.75)	1,148.2 (32.98)	1,150.5 (32.49)	1,160.9 (32.68)	1,119.6 (36.53)	1,084.4 (30.95)
식량작물의 특용작물	"	339.4 (9.46)	365.9 (10.51)	405.7 (11.46)	449.0 (12.64)	509.2 (14.25)	531.5 (15.17)
과실	"	60.9 (1.69)	68.2 (1.65)	74.2 (2.01)	72.1 (20.1)	88.8 (2.49)	89.2 (2.54)
채소	"	42.9 (1.19)	45.2 (1.38)	48.1 (1.41)	51.2 (1.41)	55.7 (1.56)	60.2 (1.72)
연초	"	150.7 (4.20)	154.1 (4.47)	177.3 (5.01)	192.6 (5.40)	226.3 (6.33)	254.0 (7.25)
상전	"	34. (0.91)	36.7 (1.19)	37.6 (11.2)	38.7 (1.12)	39.1 (1.09)	43.2 (1.23)
	"	50.5 (1.47)	61.7 (1.82)	68.5 (1.91)	94.4 (2.70)	99.3 (2.78)	84.9 (2.42)

자료 : 농림부 조사통계과

주 : ()는 이용면적에 대한 비율임

는데 이러한 현상은 식량의 생산총량이 감소되는 큰 원인의 하나가 되었다.

비식량작물의 이용면적은 531.5천ha로 69년보다 22.3천ha가 늘어났고, 총 이용면적에 대한 비중은 69년의 14.25%보다 늘어난 15.17%가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밭의 이용이 논지 이용보다 상대적으로 활발하였다는 점을 나타내고 있다.

비식량작물의 이용면적 가운데 가장 많이 증가된 것은 채소로서 69년의 이용면적이 226.3천ha이었음에 비하여 70년에는 28.1천ha가 증가된 254.4천ha로 확대되었다.

채소의 이용면적 증가는 원예농업 지역의 지역적 확산과 생산의 주년화를 반영하는 것이다.

생산요소의 투입관계는 노동집약도가 감소되고 자본집약도가 계속 증가 하였는데 노동과 자본의 집약도가 경지규모가 작은 계층일 수록 높아 영세농 계층이 대농층보다 생산활동이 집약적임을 나타내고 있다.

농가의 노동 집약도는 65년의 경지 10a당 투입된 노동시간 217.58시간이 69년에는 185.11시간으로 32.47시간 줄었는데, 70년에는 다시 183.23시간으로 감소되므로서 65년대비 15.8%, 69년대비 1.0%가 감소되었다.

생 산 요 소 투 입 의 집 약 도

표 1-12

구 분	연 도	평 균	경 지 규 모 별				
			ha ~0.5	ha 0.5~1.0	ha 1.0~1.5	ha 1.5~2.0	ha 2.0~
노 동 집 약 도 (시 간)	65	217.58	313.94	250.99	215.60	195.44	195.16
	68	188.51	239.33	220.03	190.83	169.58	146.33
	69	185.11	248.86	208.50	189.27	161.63	142.20
	70	183.23	273.32	200.48	195.33	160.20	138.73
자 본 집 약 도 (원)	65	8,324	10,556	9,004	8,167	8,534	7,734
	68	18,204	21,171	19,129	17,245	18,296	16,015
	69	22,767	29,667	23,760	21,064	22,962	21,192
	70	26,394	34,536	28,500	25,383	25,096	23,583

자료 : 농림부 조사통계과

경지규모별로는 0.5ha 미만계층이 69년보다 24.46시간 증가된 273.32시간, 0.5~1.0ha 계층이 8.02시간 감소된 200.48시간, 1.0~1.5ha계층이 6.06시간 증가된 195.33시간, 1.5~2.0ha 계층이 1.43시간 감소된 160.20시간, 2.0ha 이상이 3.47시간 감소된 138.73시간 이었다.

노동 집약도가 감소된 주된 원인은 농가의 노동력 감소와 각종 약제 및 개량된 농기구의 사용등으로 인한 노동의 절약인데 최근에 와서는 노동력의 양적인 감소와 이에 따른 노임등위가 보다 크게 작용하고 있

는 것으로 이해된다.

자본 집약도는 69년의 22,767원에서 15.9%가 증가된 26,394원으로 상승 하였는데, 이것은 68~69년간의 상승율 25.1%보다 9.2%포인트가 낮은 것이다.

실질가격 수준으로 평가 할때 68~69년간에는 15.5%, 69~70년간에는 8.3%의 실질증가를 실현하였다.

경지규모별로는 0.5ha 이하 계층이 16.4% 증가로 가장 높은 증가를 나타냈으며, 2ha 이상계층이 11.3%증가로 가장 낮은 증가를 나타냈다,

생산요소의 투입관계가 이와같이 노동 집약에서 자본 집약으로 이전 되고 있는것은 장기적으로 바람직한 추세라고 해석할 수 있으나, 단기적으로는 생산비와 경작에 부담을 주고, 지금까지의 노동 집약상태가 본격적으로 자본 집약화 하지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요소투입의 공백상태를 야기하므로서 생산성 향상을 지연 시킬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이 강구될 것을 필요로 하고 있다.

4. 농업 생산성의 향상

최근 농업 생산성은 농가인구 및 농업취업자의 감소추세와 생산 자재의 투입증대, 기술수준의 향상에 따른 단위생산의 증가로 계속 향상되어 왔다.

그러나 비농업부문의 급속한 생산성 향상에는 미치지 못하므로서 농업 부문의 비농업부문에 대한 비교 생산성은 계속 감소되어 오므로서 양부문의 소득격차를 발생시켜 왔다.

노동 시간당 소득은 향상되었으며 자본 생산성은 감소세를 지속하였고, 토지 생산성은 전년보다 증가 되었다.

자본계수는 고정투자의 증가에 따라 높아졌으며 이에 따라 자본구성도도 향상되었다.

농업부문 취업자 1인당 생산액은 G.D.P.를 기준(경상가격)으로 할 때 69년의 117,436원에서 70년에는 140,663원으로 전년대비 19.78%가 증가되었다.

농업부문 취업자의 노동 생산성이 이와같이 증가를 나타내는데 반하여 비농업부문 취업자의 노동 생산성은 69년의 317,450원에서 70년에는 334,810원으로 증가 되므로서 명목으로 5.47% 증가를 시현했다.

이에 따라 농업부문의 생산성과 비농업부문의 생산성은 격차폭이 축소 되므로서 농업부문의 비교 생산성이 69년의 36.9%에서 70년에는 42.0%로 향상 되었다.

농업부문의 생산성을 제조업부문과 비교하면 제조업부문 취업자 1인당 생산액수준이 69년의 335,957원에서 70년에는 333,277원으로 명목상 0.8%의 감소를 실현한 결과 농업부문의 비교생산성이 69년의 34.96%에서 70년에는 42.21%로 향상되었다.

표 1-13

농업의 비교 생산성

단위 : 원, %

구 분	취업자 1인당 생산액 (명목)						비교 생산성	
	농 립 업		제 조 업		비 농 업		(A)/(B)	(A)/(C)
	생 산 액 (A)	전년대비 증 감 율	생 산 액 (B)	전년대비 증 감 율	생 산 액 (C)	전년대비 증 감 율		
65	59,904.0	△50.5	161,262.0	10.75	124,280.0	17.61	37.15	48.20
66	72,975.0	21.82	188,471.0	16.87	155,559.0	25.17	38.72	46.91
67	78,691.0	7.83	186,507.0	△1.05	178,572.0	14.79	42.19	44.07
68	91,228.0	15.93	213,378.0	14.41	212,593.0	19.05	42.75	42.91
69	117,436.0	28.73	335,957.0	57.45	317,450.0	49.32	34.96	36.99
70	140,663.0	19.78	333,277.0	△0.8	334,810.0	5.47	42.21	42.01

자료 : 한국은행, 국민소득과

경제기획원, 주요경제지표 1971

주 : 취업인구 1인당 생산액은 산업별 국내 총생산액을 산업별 취업인구로 나눈 것임,

70년의 노동생산성 증가를 실질수준으로 평가 할 때 전년보다 둔화 된것은 감산에 연유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표 1-15

농업생산성

구분	경지규모별 (ha)					
	평균	~0.5	0.5~1.0	1.0~1.5	1.5~2.0	2.0~
노동생산성 (원/시간)						
67	58	56	56	58	61	61
68	73	73	69	71	76	76
69	91	88	89	90	90	99
70	107	105	105	101	118	115
자본생산성 (원/원)						
67	0.79	0.83	0.82	0.81	0.98	0.70
68	0.75	0.83	0.79	0.79	0.71	0.70
69	0.74	0.74	0.78	0.81	0.63	0.66
70	0.74	0.72	0.74	0.78	0.75	0.68
토지생산성 (원/10a)						
67	11,934	15,363	13,095	11,607	10,787	9,613
68	13,707	17,520	15,112	13,593	12,909	11,163
69	16,780	21,809	18,578	17,026	14,499	14,065
70	19,639	24,966	21,146	19,726	18,848	16,013

자료: 농림부 조사통계과

농가의 경작면적에 대한 토지 생산성은 69년의 16,780원에서 70년에는 19,639원으로 17.0% 증가 되었는데, 물가 상승요인을 제거하면 8.0%의 실질증가에 머물렀다.

토지 생산성의 증가가 부진한 원인은 농가의 호당 경지 이용면적이 감소되었고, 농업소득의 대종을 이루는 곡물등의 단수가 전년보다 낮은 데 기인하는데 이와같은 실물면에서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금액의 실질 증가로 반영되게 된것은 정부의 고미가 정책에서 연유된 곡물의 가격지지와 청과물 등 농산물의 판매가격 수준이 크게 향상된 데 기인한다.

제 3 장 농가소득과 생활

1. 17.4% 증가된 농가소득

70년도 농가소득은 쌀을 비롯한 곡물과 채소등 청과물의 전년대비 감소와 결업수지의 부진으로 인하여 전년대비 명목으로 17.4%, 실질로 7.6%가 증가되었다.

농업소득은 194,037원으로 69년의 167,128원 보다는 16.1% 향상되었으나, 이것은 도매물가 수준을 기준으로 평가할 때 실질증가가 6.4%에 머문것으로서 68~69년간의 14.0% 실질증가보다 저조하였다.

그러나 농업소득이 농작물 등 실물생산의 전년대비 감소에도 불구하고 6.4%의 실질증가를 나타낸 것은 쌀값의 지지를 비롯한 농산물 가격의 등귀에 의존한다.

따라서 70년의 농가소득 변동의 특징은 실물생산의 부진이 가격의 등귀에 의해서 상당한 수준까지 보상된 점이다.

결업소득은 결업수입의 증가가 전년대비 18.7% 증가된 16,642원으로 둔화 되었음에 더하여 결업지출의 증가는 계속된 결과, 소득액이 9,599원의 수준에 머무름으로서 전년대비 명목 18.0%가 증가하여 실질가격 수준으로는 8.1%의 증가를 실현하였다.

결업의 수입은 52,168원으로서 69년의 42,656원보다는 22.3%가 증가되어 실질 수준으로는 전년대비 12.1% 증가를 나타내었는데, 결업의 수입이 증가된 주된 원인은 농촌지역의 부분 이농의 촉진에 따라 도시에서의 이전 수입이 증가되고 각종 노임 및 임대료가 등귀된데 있다.

이에 따라 농가소득의 원천별 구성은 농업소득이 75.8%로 전년보다 0.9%포인트 감소된 반면, 농업이외 소득은 전년의 23.3%에서 24.2%로 늘어났다.

표 1-16

농가소득

단위: 원

연도	농가소득				농가소득 전년대비율	전국도매 물가지수 ¹⁾	
	명목	농업	겸업	겸업외			
68	명목	178,959	136,936	8,433	33,590	19.7	125.2
	실질	142,938	109,374	6,736	26,828	10.7	
69	명목	217,874	167,128	8,090	42,656	21.7	133.7
	실질	162,957	125,002	6,051	31,904	14.0	
70	명목	255,804	194,037	9,599	52,168	17.4	145.9
	실질	175,328	132,993	6,579	35,756	7.6	

자료: 농림부 조사통계과

주: 1) 1965=100

경지 규모별로는 경지규모가 큰 계층일수록 농업소득에 대한 의존도가 큰데 반하여 경지규모가 작은 계층일수록 농업소득에 대한 의존도가 낮은 현상이 지속되었는데, 이것은 종래와 같이 농업소득의 가계비 충족도가 낮은 수준에 있는 현상을 반영한 것이다.

소득의 가계비 충족도를 농가소득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0.5ha 계층이 106.7%로서 분기점을 이루고 있고 농업소득을 기준으로 할 때는 농업소득 1.0ha~1.5ha 계층이 분기점을 이루고 있다.

평균수준으로는 65년의 89.2%에서 4.2%포인트 개선된 93.4%이다.

이러한 현상은 경지규모별 소득분포와 관련하여 해석할 때 경지규모 1.5ha 계층 이하의 농가에서는 농업수입이 가계비의 충분한 공급원이 되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러한 사실은 경지규모 1.5ha 미만의 농가가 가계운영을 위하여 농업의 소득을 확보하는데 크게 노력하고 있다는 점에 반영되고 있다.

이농현상에 있어서도 1.5ha 미만의 계층이 큰 비중을 점하고 있으며,

표 1-17

계층별 농가소득

단위 : 천원 · %

구분	평균		경지규모별 (ha)									
			~0.5		0.5~1.0		1.0~1.5		1.5~2.0		2.0~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농가소득												
65	112.2	100.0	71.7	100.0	94.2	100.0	130.9	100.0	171.9	100.0	218.2	100.0
68	178.9	100.0	118.0	100.0	144.4	100.0	202.0	100.0	257.0	100.0	346.2	100.0
69	217.9	100.0	139.8	100.0	182.0	100.0	245.0	100.0	305.3	100.0	428.8	100.0
70	255.8	100.0	163.0	100.0	211.7	100.0	288.5	100.0	383.0	100.0	477.1	100.0
농업소득												
65	88.8	79.2	42.2	58.9	74.0	78.5	110.1	84.1	146.1	85.0	195.5	89.6
68	136.9	76.5	62.0	52.5	108.6	75.2	165.2	81.8	223.4	86.9	293.5	84.8
69	167.1	76.7	72.4	51.8	136.2	74.8	208.9	85.3	252.1	82.6	369.1	86.1
70	194.0	75.8	82.9	50.8	156.9	74.1	238.5	82.7	321.4	83.9	405.9	85.1
농업외소득												
65	23.4	20.8	29.5	41.1	20.2	21.5	20.8	15.9	25.8	15.0	22.7	10.4
68	42.0	23.5	56.0	47.5	35.8	24.8	36.8	18.2	33.6	13.1	52.7	15.2
69	50.8	23.3	67.4	48.2	45.8	25.2	36.1	14.7	53.2	17.4	59.7	13.9
70	61.8	24.2	80.1	49.2	54.8	25.9	50.0	17.3	61.6	16.1	71.2	14.9
겸업소득												
65	3.9	3.4	6.8	9.4	3.4	3.7	2.5	2.0	5.0	3.0	△0.8	△0.3
68	8.4	4.7	16.1	13.7	6.5	4.6	5.9	3.1	5.1	2.1	6.1	1.9
69	8.1	3.7	14.7	10.5	6.8	3.8	5.3	2.1	5.9	1.9	4.8	1.1
70	9.6	3.8	15.5	9.6	9.8	4.6	4.3	1.5	7.9	2.1	7.7	1.6
겸업외입수												
65	19.5	17.4	22.7	31.7	16.8	17.8	18.3	13.9	20.8	12.0	23.5	10.7
68	33.6	18.8	39.9	33.8	29.3	20.2	30.9	15.1	28.5	11.0	46.6	13.3
69	42.7	19.6	52.7	37.7	39.0	21.4	30.8	12.6	47.3	15.5	54.9	12.8
70	52.2	20.4	64.6	39.6	45.0	21.3	45.7	15.8	53.7	14.0	63.5	13.3

자료 : 농림부 조사통계과

이들의 이농후 직업은 고등교육을 이수한 지식층의 이농이 아니라 각종

표 1-18

계층별가계비충족도

단위 : %

구분	전국	~0.5ha	0.5~1.0ha	1.0~1.5ha	1.5~2.0ha	2.0ha~	
농업소득	68	95.7	57.7	87.8	106.6	117.5	120.2
	69	97.5	57.2	93.9	113.2	104.4	124.4
	70	93.4	54.3	88.3	103.6	119.3	112.4
농가소득	68	125.1	109.8	116.8	130.3	135.3	141.8
	69	127.1	110.4	125.5	122.8	126.4	144.1
	70	124.9	106.7	119.2	125.3	142.0	132.1

자료 : 농림부 조사통계과

의 서비스기능 내지 기술을 요구하는 기능적 이농인 것은 이들이 소득의 새로운 원천으로서 다른 직업을 선택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2. 소득격차의 개선

70년도의 도시·농촌간 소득격차는 농가소득의 향상이 상대적으로 부진하였고 도시근로자 가구의 소득의 향상도 완만하였기 때문에 소득격차는 전년도 보다 약간 개선되었다.

도시근로자 가구와 농가와의 소득격차는 비농업부문의 개발이 본격화되고 도시의 생산가능이 크게 신장되기 시작한 60년대 초반기 이후부터 발생되었는데, 62년의 경우 농가의 소득이 도시보다 유리했던 수준에서, 67년에는 100.0 : 60.1로 농가소득이 극히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었다.

그 후 이와같은 성장의 과정에서 발생한 격차의 시정을 위하여 68년부터 「농어민 소득증대 특별사업」이 적극 추진되고 「고미가정책」이 구현되는 등 각종 노력이 집중된 결과 69년에는 소득격차가 100.0 : 65.3으로 약간 개선되었다.

3. 농업소득 16.1% 증가

농업수입의 총액은 222,667원으로서 69년의 187,534원보다 18.7%가 증가되었다.

이 가운데 미·맥수입이 전체의 67%인 149,179원, 과실, 채소 및 특용작물 수입이 전체의 14.1%인 31,505원, 기타의 농작물 수입이 전체의 9.0%인 20,075원, 축잡수입이 전체의 4.7%인 10,472원, 농산가공수입이 0.5%인 1,065원, 기타 수입이 4.7%인 10,371원이다.

전년대비의 증감은 농산가공수입이 가장높은 69.6%의 증가를 나타내었으며, 축산물 수입이 14.5%의 감소를 나타내었다.

미·맥 수입이 70년산 하곡의 감산과 추곡의 생산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전년대비 13.0%의 증가를 실현한 것은 69년의 미곡풍작으로 인한 재고증가와 70년의 가격지지 시책이 크게 반영된 것을 나타내고 있다.

미·맥수입의 증가는 68년이후 생산의 증가를 훨씬 상회하여 증가되어 왔는데, 65~68년간 24.8% 증가한데 비하여 68~69년간에는 29.8%, 69~70년간에는 13.0%의 증가를 실현하여 왔다.

이에 따라 농업수입증가에 대한 기여도도 극히 높아져서 69~70년간 농업수입의 18.7% 증가에 대하여 미·맥수입증가는 9.5%의 기여를 나타냈다.

농업수입가운데 미·맥수입이 점하는 비중이 아직도 70%선을 유지하고 있고, 농가소득가운데 농업소득이 점하는 비중이 75%선을 유지하고 있는 현재의 실정으로는 미맥가격 상승의 농가소득 효과가 앞으로도 큰 성과를 나타낼 것으로 이해된다.

농업수입의 원천으로서 미·맥 다음에 의미 있는 비중을 가지고 있는 것은 과채류와 축잡 등 이른바 소비의 소득탄력성도 상대적으로 높고 수익성도 높은 성장농업부문이다.

과채류 및 특용작물의 수입은 65년을 기준으로 할 때 68년에는 57.3%, 69년에는 88.0%, 70년에는 201.5%가 증가되었으며, 축·잠수입은 65년을 기준으로 할 때 68년에는 132.5%, 69년에는 170.1%, 70년에는 193.7%가 각각 증가됨으로서 최근의 농업수입증대에 기여하여 왔다.

69, 70년간 농업수입증가에 대한 이들의 기여는 축잠수입이 4.7%, 과채류 및 특용작물수입이 14.1%로서 종래보다는 훨씬 큰 기여를 하였다.

경지의 규모별로는 대농총일수룩 미·맥수입에의 의존도가 높고 소농총일수룩 미·맥 이외의 작물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상태를 실현하므로써, 영세농의 경우 미·맥경작은 대부분 생계 유지를 위한 자급생산의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농업소득은 이러한 수입의 증가에 대하여 농가의 구입가격 수준이 농가의 판매가격 수준보다 상대적으로 안정된 수준을 유지한 결과 전년 대비 16.1%의 증가를 실현하였다.

농업에 대한 의존도는 69년의 76.7%에서 70년에는 75.8%로 0.9%포인트가 줄어들었는데, 이것은 65년 수준에 비교하면 3.4%포인트가 감소된 것이다.

농업의존도가 전반적으로 감소세를 나타내는 이러한 추세는 전항에서 제시된 것과 같이 농가들이 그들의 수입원천을 농업에서만 찾는 이외에 한계를 나아가 수입의 원천을 비농업부문에서 찾고 있음을 반영한다.

경지구모별로 본 농업 의존도의 변이는 0.5ha 미만 계층이 69년의 51.8%에서 70년에는 50.8%로 1.0%포인트 감소하였고, 0.5~1.0ha 계층이 69년의 74.8%에서 70년에는 74.1%로 0.7%포인트 감, 1.0~1.5ha 계층이 82.7%로서 69년보다 2.6%포인트 감, 1.5~2.0ha 계층이 83.9%로 69년 대비 1.3%포인트 증, 2.0ha 이상 계층이 85.1%로서 69년 보다 1.0포인트 감을 나타내었다.

표 1-20

농업수입

구분	연도	평균			~0.5ha	
		금액	구성비	지수	금액	구성비
농업수입	65	113,629 ^원	100.0 [%]	100.0	52,967 ^원	100.0 [%]
	68	149,082	100.0	131.2	67,181	100.0
	69	187,534	100.0	165.0	76,272	100.0
	70	222,667	100.0	196.0	96,952	100.0
미백	65	81,484	71.7	100.0	34,167	64.5
	68	101,723	68.2	124.8	39,762	59.2
	69	132,069	70.4	162.0	51,437	64.9
	70	149,179	67.0	183.1	60,193	62.1
과실채소 및 특용작물	65	10,451	1.2	100.0	5,018	9.5
	68	16,441	11.0	157.3	8,638	12.9
	69	19,650	10.5	188.0	8,939	11.3
	70	31,505	14.1	301.5	14,826	15.3
기타농작물	65	11,869	10.5	100.0	7,001	13.2
	68	13,636	9.4	114.9	7,682	11.5
	69	17,062	9.1	143.7	8,819	11.1
	70	20,075	9.0	69.1	9,571	9.9
축잡	65	3,566	3.1	100.0	1,914	3.6
	68	8,291	5.5	232.5	4,533	6.7
	69	9,633	5.2	270.1	3,690	4.7
	70	10,472	4.7	293.7	4,646	4.8
농산가공	65	601	0.5	100.0	263	0.5
	68	796	0.5	132.4	435	0.6
	69	628	0.3	104.5	246	0.3
	70	1,065	0.5	177.2	642	0.6
기타수입	65	5,658	5.0	100.0	4,604	8.7
	68	8,195	5.4	144.8	6,131	9.1
	69	8,492	4.5	150.1	6,141	7.7
	70	10,371	4.7	183.3	7,074	7.3

자료: 농림부 조사통제과

의 내 용

0.5~1.0ha		1.0~1.5ha		1.5~2.0ha		2.0ha~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원	%	원	%	원	%	원	%
91,007	100.0	140,596	100.0	189,632	100.0	269,008	100.0
119,084	100.0	180,345	100.0	237,395	100.0	331,476	100.0
141,387	100.0	233,122	100.0	307,456	100.0	440,583	100.0
175,796	100.0	267,901	100.0	361,097	100.0	495,682	100.0
63,125	69.4	98,750	70.2	145,375	76.7	211,178	78.6
78,686	66.1	122,324	67.8	167,316	70.5	249,687	75.3
94,967	67.2	161,524	69.3	225,859	73.5	338,281	76.8
114,701	65.3	173,606	64.8	252,062	69.8	361,129	72.9
7,503	8.2	17,078	12.2	16,203	8.5	18,725	7.0
13,272	11.1	23,535	13.1	23,870	10.1	26,474	8.0
16,291	11.5	31,071	13.3	27,946	9.1	27,135	6.2
25,319	14.4	45,326	16.9	47,256	13.1	52,000	10.5
10,736	11.8	14,083	10.0	16,086	8.5	22,940	8.4
10,774	9.1	15,223	8.5	22,579	9.5	28,868	8.7
14,164	10.0	20,518	8.8	26,392	8.6	33,226	7.5
15,899	9.0	24,606	9.2	30,118	8.3	43,811	8.8
3,236	3.6	4,168	3.0	4,163	2.2	8,385	3.1
7,177	6.0	9,043	5.0	13,150	5.6	16,249	5.0
6,499	4.6	9,947	4.3	16,238	5.3	31,396	7.1
8,625	4.9	11,079	4.1	17,594	4.9	23,984	4.8
513	0.6	725	0.5	1,192	0.6	1,167	0.4
824	0.6	938	0.6	1,225	0.5	829	0.2
600	0.4	935	0.4	1,032	0.3	572	0.1
849	0.5	1,211	0.5	2,493	0.7	1,175	0.2
5,894	6.4	5,792	4.1	6,613	3.5	6,613	2.5
8,351	7.1	9,281	5.0	9,255	3.8	9,369	2.8
8,866	6.3	9,127	3.9	9,989	3.2	9,973	2.3
10,403	5.9	12,073	4.5	11,574	3.2	13,583	2.8

표 1-21

경지규모별 농업의 존도

단위 : 천원
%

구분	평균		경지규모별 (ha)									
			~0.5		0.5~1.0		1.0~1.5		1.5~2.0		2.0~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농가소득												
65	112.2	100.0	71.7	100.0	94.2	100.0	130.9	100.0	171.9	100.0	218.2	100.0
68	178.9	100.0	118.0	100.0	144.4	100.0	202.0	100.0	257.0	100.0	346.2	100.0
69	217.9	100.0	139.8	100.0	182.0	100.0	245.0	100.0	305.3	100.0	428.8	100.0
70	255.8	100.0	163.0	100.0	211.7	100.0	288.5	100.0	383.0	100.0	477.1	100.0
농업소득												
65	88.8	79.2	42.2	58.9	74.0	78.5	110.1	84.1	146.1	85.0	195.5	89.6
68	136.9	76.5	62.0	52.5	108.6	75.2	165.2	81.8	223.4	86.9	293.5	84.8
69	167.1	76.7	72.4	51.8	136.2	74.8	208.9	85.3	252.1	82.6	369.1	86.1
70	194.0	75.8	82.9	50.8	156.9	74.1	238.5	82.7	321.4	83.9	405.9	85.1
농업외소득												
65	23.4	20.8	29.5	41.1	20.2	21.5	20.8	15.9	25.8	15.0	22.7	10.4
68	42.0	23.5	56.0	47.5	35.8	24.8	36.8	18.2	33.6	13.1	52.7	15.2
69	50.8	23.3	67.4	48.2	45.8	25.2	36.1	14.7	53.2	17.4	59.7	13.9
70	61.8	24.2	80.1	49.2	54.8	25.9	50.0	17.3	61.6	16.1	71.2	14.9

자료 : 농림부 조사통계과

4. 겸업소득의 증가 둔화

겸업수입은 69년 대비 18.4% 증가된 16,642원으로 확대되었는데 이와함께 겸업지출이 20.0%나 증가되므로써, 겸업소득은 전년대비 18.0%의 명목증가에 머무른 결과 농가의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평가할때 8.1%의 실질증가를 나타내어 증가추세가 둔화되었다.

겸업소득은 68~69년간에 4.1%가 감소되면서 부터 증가추세 둔화가

표 1-22

겸업수입의 내용

단위 : 원

구분	수입액				증감율	
	65	68	69	70	70/65	70/69
계	10,636	15,152	14,059	16,642	56.5	18.4
농업부대서비스업	512	950	1,295	1,677	227.5	29.5
임산물	783	1,071	861	941	20.2	9.3
상공광업	6,285	7,830	1,181	7,802	24.1	8.7
수산물	1,574	3,233	2,595	2,996	90.3	15.4
일반서비스업	1,247	1,724	1,790	2,562	105.4	43.1
기타	235	344	337	664	182.5	97.0

자료 : 농림부 조사통계과

시작되었는데 이러한 현상은 각 농업서비스업 및 일반서비스업이 임료금의 등귀와 수요 증가에 따라 수입이 크게 증가되어 온데 반하여, 임산물 수입이 연료의 대체와 자원의 감소로 확대추세가 둔화되고, 상공·광업 수입이 농촌지역내의 소읍권 형성과 도시—농촌간의 유통거리 단축에 따라 중소규모의 상공·광업이 겸업농가에 의해서가 아니라 전업화된 비농가에 의해서 경영되고 있으며, 농촌지역의 소비기능 확장추세가 완만하다는 여러가지 요인으로 증가가 둔화된데 기인하여 나타나고 있다.

69~70년간 겸업수입은 14,059원에서 16,642원으로 18.4%의 증가를 실현하였는데, 겸업지출은 69년의 5,966원에서 7,043원으로 18.0% 증가되었으며, 수입면과 지출면에서 일반서비스업의 비용변동이 가장 컸다.

겸업수입 가운데 일반서비스업의 수입은 69~70년간 43.1%가 증가되어 총수입의 증가에 15.4%의 기여를 하였으며, 다음으로는 농업에 따른 각종 부대 서비스업의 수입이 29.5%가 증가되어 총수입의 증가에 10.1% 기여하므로써, 70년의 겸업수입증가에 대하여 이 두가지의 서비스업 수입이 25.5%의 기여를 하였다.

이에 비하여 수산업 수입은 69년의 2,595원에서 2,996원으로 15.5% 증가하였고, 임산물수입은 전년대비 9.3%, 상공·광업수입은 전년대비 8.6%의 낮은 증가를 나타내었다.

지출면에서는 일반서비스업의 지출이 전년대비 52.7%의 증가를 나타내었고, 임산물 수입부분의 지출이 91.7%의 비용지출증가를 나타내어 수입증가율을 훨씬 상회함으로써 실제의 부가소득이 크게 증가되지 못한 데 반하여 농업부대서비스업 수입의 지출은 전년대비 25.5%의 감소를 나타내므로서 부가소득증가에 크게 기여하였다.

겸업소득의 농가소득에 대한 기여는 65년의 3.5%, 69년의 3.7%에서 70년에는 3.8%로 크게 향상되지는 못하였으나, 경작 규모가 작고 농업소득에 의한 가계비 충족이 곤란한 계층일수록 겸업소득의 기여가 크며 경작규모가 크고 농업의 소득의 보전필요성을 상대적으로 작게 느끼는 계층일수록 그 기여가 상대적으로 적다.

즉, 경작규모 0.5ha 이하의 계층에서는 겸업소득이 농가소득의 9.6%를 점하고 0.5~1.0ha 계층에서는 4.6%를 점하는 데 비하여, 1.5~2.0ha 계층에서는 2.1%, 2.0ha 이상의 계층에서는 1.6%를 점하고 있다.

겸업소득의 증가가 최근에 와서 둔화되고 있고 원천별 증감경향도 색다르게 변동되고 있는 현상은 농가소득의 원천을 확대시키는데 있어서 겸업화 방안이 가질 파급효과에 관하여 중요한 영향을 주고 있다.

5. 겸업이외 수입의 증가

겸업 이외 수입은 급료 및 노임과 외부로부터의 피증·보조가 증가되면서부터 급속히 증가되어 왔는데 70년에는 전년대비 22.3%가 늘어난 52,168원으로 향상되었다.

원천별로는 급료 및 연금이 69년의 9,750원에서 42.2%가 증가된 13,866원으로 가장 높은 증가를 나타냈고, 피증·보조가 전년보다 23.5%가 늘어난 19,406원으로 증가되었으며, 노임 수입은 69년의 11,761원보다 10.1%가 늘어난 12,948원으로 증가 되었다.

급료, 연금과 피증·보조가 주로 늘어난데 비하여 노임과 임대료의 수입증가가 상대적으로 완만하였던 것은 농가의 여유 노동력이 감소된 점과 농촌지역내에서의 물적 임대차 거래가 활발하지 못한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농촌지역내의 실태와는 달리 급료, 연금부문과 피증·보조부문의 증가추세가 지속된 것은 취업자의 1인당 생산수준이나 그 증가속도가 비농업부문이 농업부문보다 훨씬 유리하다는 실정을 반영하고 있다.

표 1-23

겸업의 수입

단위: 원

구분	65	68	69	70	증감율(%)	
					70/65	70/69
계	19,492	33,590	42,656	52,168	167.6	22.3
농업노임	2,592	3,699	5,053	5,275	78.7	4.4
기타노임	2,477	4,861	6,708	7,673	209.8	14.4
급료	3,430	7,227	7,051	11,712	241.5	53.1
사연금	1,152	2,037	2,099	2,154	87.0	2.6
농지임대료	418	845	1,509	1,447	246.2	△4.1
기타임대료	882	1,525	1,535	1,807	102.6	17.7
배당이자	701	902	1,303	1,671	138.4	28.2
송금보조	1,792	4,841	6,229	6,168	244.2	△1.0
피증	5,140	7,123	9,481	13,238	157.6	39.6
가사수입	157	364	264	162	3.2	△38.6
기타잡수입	381	516	824	861	126.0	4.5

자료: 농림부 조사통계과

이러한 현상은 농업부문의 노동력을 타부문의 기능공 내지 전문적 노동력으로 유인하는 주된 계기가 되고, 농촌노임의 등귀에도 상당한 경쟁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데, 노임수입가운데 농업노임이 차지하는 비중이 65년의 15.1%에서 69년 11.9%, 70년 10.1%로 감소된 점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70년도의 피증·보조 증가는 68~69년간의 증가추세보다 줄었는데 이는 70년도 이농이 전년보다 규모가 컸으나, 비농업부문이 건축정책의 영향으로 고용증대의 신장도가 낮았으며 농촌지역에서 도시로의 부분이농 취업자들이 도시주거로 전환함으로써 송금 등 이전이 감소되고 있음에 기인한다.

이같은 현상은 농촌지역이 도시지역에 비할때 급료 및 노임수입확보에 훨씬 열등한 상태에 있다는 점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농촌지역의 경제활동이 영농기를 전후한 이외에는 극히 얇은 상태에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같은 현상은 농촌지역 저소득층의 농가들에 대해 유망한 농업의 소득의 원천을 제공하지 못하므로써 농촌에서 이농이 종래와 같이 농가에서 형성된 자원이 교육이나 상업자본으로 전환되어 도시로 진출하는 양식을 떠나서 새로운 취업기회를 얻고자하는 이농양식으로 변동할 가능성을 확대시키고 있다.

6. 농가 구매력과 소비생활

농가 구매력은 교역조건 개선과 소득의 향상에 따라 계속 향상되어 오므로써 비농업부문에 대한 소비시장으로서의 역할을 확대하여 왔을 뿐 아니라 농가생활을 윤택하게 하므로써 농촌생활의 여잉 향유능력과 복지 수준을 향상시켜왔다.

70년의 농가 가구원 1인당 가처분 소득은 69~70년간의 물가 등귀 요인을 제거할 때 8.5%의 실질 증가를 나타내므로써 농가 가구원의 실질

소비능력의 향상을 이룩하였다.

농가 가계비는 69년의 171,371 원에서 70년도에는 207,766 원으로 명목상으로는 21.2%가 증가되었는데, 물가 등귀 요인을 제거하면 11.1%의 실질 증가를 나타냄으로서 68~69년간의 증가보다는 감소되었다.

70년도의 농가구매력 향상이 완만한 증가를 나타낸 것은 농가의 소득 증가가 전년도에 비하여 현저하게 둔화된 데 기인 한다.

표 1-24

농가의 가처분 소득

단위 : 원

연 도	농가소득	가 처 분 소 득			도매물가 지 수	가처분소 득전년대 비증가율
		가 계 비	기타지출	농가잉여		
68	명 목	178,959	173,561	143,104	125.2	20.0
	실 질	142,938	138,627	114,300		11.0
69	명 목	217,874	210,451	171,371	133.9	21.3
	실 질	162,957	157,405	128,175		13.6
70	명 목	255,804	249,084	207,766	145.9	18.4
	실 질	175,328	170,722	142,403		8.5

자료 : 농림부 조사통계과

주 : 도매물가지수 1965=100

농가 실질구매력 증가가 둔화된 영향은 농촌지역에서의 소비수준변동에 민감하게 작용하므로써 상공업을 비롯한 농가의 결업수지가 두드러지게 부진하였고 농촌지역내에서 발생하는 결업 이외의 수입원으로서 노임 증가도 둔화되었다.

한편, 이러한 영향이 비농업부문에 과급된 과정은 비농업부문의 생산품에 대한 국내 수요의 변동을 거쳐 산업생산의 신장에 기여한 것으로 해석된다.

농가의 구매력이 가계 소비면에서 강박현상을 실현한데 반하여 조수익의 처분과정에서 비료, 농약 등 농업용품의 가격수준에 비할 때 쌀 등 농산물의 판매가격이 현저하게 등귀되어 왔기 때문에 생산자재의 구매

력이 크게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농가구매력신장을 기하여 농가 생활수준 향상과 농촌의 시장 기능 신장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이 농업소득 의존도가 높고 농산물 생산의 연간 진폭이 지속되는 상태에서는 농산물 가격지지보다 폭넓게 강화될 것을 필요로 하고 있다.

농가의 소비수준은 농가구매력이 전년도 수준을 크게 넘어서지 못한 데 영향을 받아 뚜렷하게 개선되지는 못하였다.

농가의 엔겔계수는 69년의 46.4%에서 70년에는 45.9%로 0.5% 포인트가 감소되므로서 대체적으로 46.0% 수준의 상태에 그대로 머물렀다.

문화제비의 지출에 있어서도 잡비가 전년대비 27.5%, 교육비가 24.2%의 명목증가를 나타낸 것을 제외하고는 광열비가 전년대비 18.3%, 피복비가 전년대비 12.0% 증가하므로서 일반적으로 전년 수준을 유지하였고, 주거비의 지출은 전년보다 5%가 감소되었다.

잡비지출 가운데 가장 많이 증가된 것은 교통비 등 기타 잡비로서 69년

표 1-25

가 계 비 지 출

구 분	연 도	경 지 규 모 별 (ha)					
		평 균	~0.5	0.5~1.0	1.0~1.5	1.5~2.0	2.0~
가 계 비 (천원)	65	100.4	72.0	88.3	113.7	141.3	173.7
	68	143.1	107.5	123.7	155.0	190.1	244.1
	69	171.3	126.6	144.9	184.4	241.5	297.5
	70	207.8	152.7	177.9	230.2	269.4	361.1
음 식 물 비 (%)	65	53.1	58.3	55.0	52.3	50.2	45.3
	68	47.4	49.8	49.5	48.7	43.9	40.8
	69	46.4	49.3	49.4	47.5	40.9	39.9
	70	45.9	48.3	49.3	45.8	43.8	38.1

주거및광열비 (%)	65	11.6	12.9	12.1	11.3	10.1	11.0
	68	13.0	14.7	13.9	12.6	11.7	10.7
	69	12.4	12.9	13.5	13.0	10.6	10.6
	70	12.1	13.1	13.0	11.2	11.0	9.7
피부비 (%)	65	8.0	7.4	7.3	8.6	8.7	8.9
	68	9.0	8.9	8.6	9.6	9.2	8.8
	69	9.0	8.8	8.7	9.6	8.8	9.3
	70	8.4	8.5	8.1	8.6	8.4	8.4
학교교육비 (%)	65	4.5	3.2	3.0	3.9	6.1	9.2
	68	6.8	5.0	5.3	5.9	10.1	10.9
	69	6.7	5.3	5.2	6.4	9.0	9.6
	70	6.8	6.6	6.0	5.8	9.8	7.9
가계잡비 (%)	65	22.8	18.2	22.6	23.9	24.9	25.6
	68	23.8	21.6	22.7	23.2	25.1	28.8
	69	25.5	23.7	23.2	23.5	30.7	30.5
	70	26.9	23.5	23.6	27.6	27.0	35.9
평균소비성향 (%)	65	92.3	119.5	95.0	92.8	92.4	71.0
	68	82.5	93.0	87.9	79.3	76.4	73.7
	69	81.4	93.0	81.7	78.6	82.7	72.4
	70	83.4	95.6	85.7	82.1	72.2	78.9

자료 : 농림부 조사통계과

주 : 음식물비 이하항목의 수치는 당해년도 가계비 지출을 100.0으로 한 구성비임.

보다 33.8%가 증가되었고, 다음으로는 교제비가 31.4%, 의료비가 22.3%씩 증가되었으며, 관혼상제비의 증가는 전년대비 21.2%에 머물렀다.

70년 가계비지출 증감변동은 구매력의 실질증가 둔화에 따라 일상적인 생활에서 즉시적으로 지출되어야 하는 잡비의 지출과 자녀들에 대한 교육비의 지출이 계속 증가되므로, 이에 상응하여 정기적으로 지출되는

광열비와 약간의 사치성을 내포하는 피복비 지출의 증대가 상대적으로 제약되었고 고정적인 비용을 지출해서 개선해야 하는 주거 개선의 비용 지출은 오히려 전년보다 낮은 수준으로 줄었다.

잡비 지출에 있어서도 관혼상제비와 교제비가 68~69년간에는 각기 44.4%, 34.9%씩 증가되었던 것이 안정화되고 지출의 필수소요가 보다 높은 의료비와 기타 지출이 각각 68~69년 간의 10.9%, 9.1% 증가에서 22.3%, 35.3%의 증가를 나타내었다.

잡비지출의 변동에서 교제비, 관혼상제비의 증가추세 둔화는 한편에서는 그동안 널리 추진되어 온 소비절약과 생활검소화운동의 영향을 받았다고도 해석할 수 있으나 이보다 더 영향을 준 것은 지출 가능액의 제약으로 제한된 소득의 처분이 보다 합리적으로 배분된데 있다.

7. 농가 수지변동과 자산

농가의 수지와 자산 변동은 소득의 증가가 둔화된데 영향을 받아 흑자 확대추세가 68~69년에 비할 때 크게 둔화되었다.

농가자산의 변동은 70년에 명목상으로 전년대비 15.6%가 증가된 2,085원의흑자증가를실현하였는데, 재고는 1,631원이 감소되므로서 농가수지는 전년대보다 438원이 개선되었다.

농가의 수지는 1/4분기에는 863원의 흑자를 나타냈고, 2/4분기에는 적자폭이 전년도보다 517원이 확대된 2,436원의 적자를 실현하였으며, 3/4분기에는 전년도보다 1,796원이 많은 3,800원의 흑자를 4/4분기에는 전년도 보다 346원이 많은 13,201원의 흑자를 각각 실현하였다.

1/4분기 수지가 전년대보다 많이 개선된 주된 원인은 1/4분기말에 수지의 적자폭이 크게 줄어들었는데 기인하는데, 이와같은 적자개선은 농산물의 69년의 풍작으로 증가된 농산물 재고량의 농가 출회가 늘어남에다가 곡물가격이 상승된 결과 농업수입이 현저히 늘어남에서 연유되었다.

표 1-26

농가수지변동

단위 : 원

경작 규모	농가수지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합계	재고증감	수지증감	
평균	69	403	△ 1,919	2,004	12,855	13,343	23,999	37,342
	70	863	△ 2,436	3,800	13,201	15,428	22,362	37,780
~0.5ha	69	△ 2,728	△ 274	△ 76	4,454	1,376	7,350	8,726
	70	△ 2,709	830	4	3,408	1,533	3,775	5,308
0.5~1.0	69	△ 1,104	△ 1,683	2,539	7,643	7,395	23,777	31,172
	70	71	△ 1,578	2,671	8,672	9,836	17,577	27,413
1.0~1.5	69	1,197	△ 1,452	3,495	17,734	20,421	27,090	47,511
	70	△ 194	△ 1,821	867	16,022	14,874	30,723	45,597
1.5~2.0	69	3,783	△ 4,636	2,021	22,252	23,420	24,997	48,417
	70	3,846	△ 2,376	16,543	31,321	49,334	47,431	96,765
2.0ha~	69	9,795	△ 3,773	2,089	37,249	45,360	65,421	110,781
	70	6,580	△ 16,041	11,008	31,427	32,974	55,691	88,665

자료 : 농림부 조사통계과

2/4분기 적자폭의 증대는 수입의 증가가 전년수준보다 개선되지 못한 속에서 농번기를 맞이하여 노임을 비롯한 농업경영비가 전년보다 많이 증가된데서 연유되었고, 3/4분기의 흑자증가는 보리등 하곡의 가격상승과 판매증가 과채류등의 판매수입이 늘어난데 연유하고, 4/4분기 흑자증가는 추곡수매가격의 대폭인상으로 미곡수입이 크게 증가된데 기인한다.

70년도의 농가수지변동은 이와같이 농작물수입의 실물면에서의 감소가 가격면에서 보상된 특징을 나타내었으며, 농외수입의 증가가 전체적인 수지개선에 대하여 큰 기여를 하였다.

이러한 특징은 경지규모별 농가계층에 따른 수지변동 동향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전년에 비하여 농업외의 수입에 의존이 높았던 0.5ha 미만 계층 및 1.0~1.5ha 계층의 농가들에 있어서는 영농기인 2/4분기의

수지가 흑자 내지는 전년보다 낮은 수준의 적자를 실현한 반면, 4/4분기의 흑자증가가 다른 상위 계층의 농가들에 비하여 훨씬 둔화되었다.

농가의 수지변동이 경색을 드러내며 영향을 받아 농가의 자산은 고정자산의 매각이 증가되고 유통자산과 부채가 각각 늘어났다.

농가의 고정자산 구입은 69년의 27,853원에서 70년에는 42.1%가 증가된 39,580원으로 늘어났는데, 고정자산의 매각이 69년의 34,894원에서 70년에는 45,525원으로 30.5% 증가되므로써, 고정자산의 매각초과로 발생된 자산의 증가는 69년의 7,041원에서 70년에는 5,945원으로 감소되었다.

고정자산의 매각초과는 최근에 지속되어온 현상의 하나인데 이러한 현상은 농촌의 현금수요가 급격히 증가되는데 반하여 소득의 증가속도는 상대적으로 원만하므로써 토지, 대동물등의 매각이 구입보다 상대적으로 많았음을 나타내고 있다.

분기별 고정자산의 변동상태는 고정자산의 매각초과가 3/4분기에 가장 많았고, 4/4분기에 가장 적었으며, 구입활동은 1/4분기와 4/4분기에 활발하였다.

표 1-27

농가 자산의 변동

단위 : 원

구분	고정 자산			유통 자산			부 채			재산증감
	구입	매각	증감	증 가	감 소	증 감	증가	감소	증 감	
65	17,495	20,786	3,291	51,164	44,242	△ 6,922	21,825	21,904	△ 79	3,710
69	27,853	34,894	7,041	120,539	105,223	△ 15,316	27,422	32,490	△ 5,068	13,343
70	39,580	45,525	5,945	155,617	134,160	△ 21,457	33,099	33,015	84	15,428
70, 1/4	12,151	13,368	1,217	36,919	35,088	△ 1,831	7,283	7,532	△ 249	863
2/4	6,834	7,679	845	29,555	25,834	△ 3,721	10,609	5,297	5,312	△ 2,436
3/4	6,246	10,750	4,504	38,152	28,714	△ 9,438	6,159	5,025	1,134	3,800
4/4	14,349	13,728	621	50,991	44,524	△ 6,467	9,048	15,161	△ 6,113	13,201

자료 : 농림부 조사통계과

3/4분기의 고정자산 매각초과가 컸었던 것은 영농기가 끝나고 고초기(枯草期)를 맞이하여 소등의 대동물매각이 이루어진데 비하여 구입활동은 미온적으로 끝난데서 연유되며, 1/4분기와 4/4분기의 구매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진 것은 토지등의 고정자산 구매활동이 영농기가 끝나고 농가수지의 흑자폭이 상대적으로 큰 기간에 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유통자산의 변동은 고정자산의 매각초과 지속, 부채의 증가와 같이하여 증가 초과현상을 지속하여왔다.

유통자산의 증가초과분은 65년에는 6,922원이었는데, 69년에는 15,316원, 70년에는 21,457원으로 계속되었다.

유통자산 증가가 가장 컸던 것은 고정자산의 매각 초과가 가장 많았던 3/4분기로 초과 증가액이 9,438원이었고, 1/4분기에는 증가 초과는 가장 적었다.

부채의 증감은 69년의 경우 부채의 감소가 증가를 5,068원 초과하였으나, 70년에는 부채의 상환 등 감소가 둔화된 반면 부채의 차입등에 의한 증가가 현저히 늘어나서 84원의 부채 증가초과가 발생하였다.

부채의 증가 초과가 발생한 것은 영농기간인 2/4분기와 3/4분기인데, 특히, 가계수지의 적자현상이 만성화 되어 있는 2/4분기의 부채증가 초과는 5,312원이나 되었다.

한편, 1/4분기와 4/4분기에서는 차입보다 상환이 활발하여 각각 부채의 감소가 증가를 초과하여 실현되었다.

8. 농촌환경의 개선

농촌의 생활환경은 소비성향의 고급화와 이를 뒷받침한 구매력 및 공급능력의 증가로 계속 개선되어 왔는데, 최근에 들어와서는 새로운 교통수단으로서 각급고속도로망의 확충과 TV의 시청권이 전국으로 확대된 결과 생활문화에 새로운 차원을 조성하였다.

70년도의 한해동안 총 107천동의 농가지붕개량을 지원하여 주택개량

을 기하르로서, 지붕개량대상농가의 건물동수는 69년의 1,607천동에서 70년말에는 1,500천동으로 줄었다.

이와 같은 지붕개량에 대한 비용지출은 농가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

표 1-28 농촌생활환경상황

구 분	63	65	66	67	68	69	70
인 구	천명 27,184	천명 28,670	천명 29,375	천명 30,067	천명 30,747	천명 31,410	천명 32,056
시 부	8,365	9,284	9,780	10,304	10,855	11,436	(31,469)
군 부	18,819	19,386	19,595	19,763	19,892	19,974	(17,860)
라 티 오	대 709,886	대 1,066,961		대 1,507,688		대 2,505,696	대 2,539,775
시 부	496,085					1,247,542	1,306,819
군 부	213,801					1,258,154	1,232,956
T V	대 31,727	대 37,648		대 70,561		대 189,017	대 335,864
시 부	30,211					178,354	319,096
군 부	1,516					10,663	16,768
스 피 카	대 544,600	대 678,734		대 814,855		대 512,884	대 500,840
신 문	부 790,261	부 1,096,120		부 1,539,561		부 2,060,119	부 4,500,000
시 부	488,456					1,256,850	(추산)
군 부	301,805					803,269	
마을문고		개소 4,240	개소 7,189	개소 6,850	개소 12,112	개소 14,510	개소 16,150
우 체 국		국 1,475	국 1,728	국 1,769	국 1,803	국 1,822	국 1,842
시 부		162	175	179	198	207	218
군 부		1,313	1,573	1,573	1,605	1,615	1,624
전화가입		대 220,635	대 277,756	대 339,280	대 384,514	대 442,452	대 481,207
도 시		145,293	193,145	246,575	289,027	339,130	368,301
농 촌		75,342	84,611	92,705	95,487	103,057	113,000

농어촌 전화호수 (%)	—	천호 356 (13)	천호 421 (15)	천호 466 (16)	천호 520 (18)	천호 591 (23)	천호 682 (27)
병(의)원	5,473	5,208	5,233	6,281	5,445	5,392	5,644
한의원	2,315	2,247	2,316	2,347	2,413	2,434	2,443
보건소 (의사배치)	189	189	189	189	191	192	192
무의사면 (%)	455 (31.0)	649 (44.3)	690 (47.1)	742 (50.6)	645 (44.0)	641 (47.8)	650 (48.4)

자료 : 문화공보부, 체신부, 보건사회부

주 : 무의사면의 ()내%는 무의면의 비율임

70년도 시, 군부인구는 인구 주택조사 속보자료(70, 10, 1 현재), 경제기획원

71 한국방송년감(중앙방송국)

는 역량이 낮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호당 20천원의 저리융자로 사업시행을 지원하였는데, 앞으로는 농가의 경제력 신장에 따라 자발적으로 시행토록 소요자재를 염가로 원활히 공급하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농어촌 전화(電化) 사업은 그동안 정부지원을 강화한 결과 70년에 91천호의 농어가에 전기를 가설함으로써, 농어촌 전화율은 69년의 23%에서 27.0%로 향상 시키므로써 전년보다 5.2% 포인트가 개선되었다.

농어촌 전화사업의 실시결과로 전기의 혜택을 받는 농가호수는 전년도 총 591천호에서 682천호로 증가되었는데, 이와 같은 변동은 농어촌의 약 3할에 가까운 가구들이 전기문명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농촌생활문화에 새로운 계기를 이루고 있다.

농촌에 대한 매스콤 매개체의 보급은 농촌전화사업의 확대와 같이 하여 전국을 T.V 시청권으로 만들기 위한 중계망이 이미 완공된 결과 지금까지와 같은 라디오보급의 단계에서 T.V 보급의 단계로 전향되어가고 있다. 특히, 농촌지역에서 라디오의 보급은 값싼 트랜지스터 라디오가 대량 공급되기 시작한 65~66년 이후부터 농촌지역에서의 라디오 구입이 활발해졌으며, 최근에 와서 월부 또는 수확기인 하계와 추계에 분할납부

하는 판매방법이 상인들에 의해서 자생적으로 파급되면서 부터 크게 늘어났다.

이러한 라디오의 증가경향에 따라 농촌지역의 앰프, 스피카 보급수는 68년이래 계속 감소되어 69~70년에 12천대가 다시 감소되므로서 501천대 수준을 보유하고 있다.

한편, 농촌지역의 T.V 보급은 69년의 보유수 10,663대 보다 6,105대가 증가된 16,768대로 증가되므로서 농가 1,000호당 보급수는 69년의 0.5대에서 0.9대로 급속히 증가되었다.

T.V의 보급은 최근에 와서 국내공급능력이 대폭신장되면서부터 판매가격이 일정한 보합상태를 유지하였을뿐 아니라 할부제 판매가 보편화되므로서 도시지역에서는 그 증가가 특히 급속하였다.

총 보급수는 69년 189,017대에서 70년에는 335,864대로 증가되었는데, 시부지역에서는 69년의 178,354대에서 70년에는 319,096대로 약 배 가까이 증가되었다.

전화(電話)시설은 도시지역에서는 주로 자동식 전화가 많이 증가보급되었는데 농촌지역에서는 공전식전화를 중심으로 보급이 증가 되었다.

69~70년간 공전식전화는 10,357대가 증가되어 전년대비 9.7%의 증가를 나타냈는데, 농촌지역의 통신망확대를 위한 리동 전화가설 계획의 추진도 상당한 성과를 나타냈다.

농촌지역의 문화와 지식수준향상을 위하여 추진 되어온 「마을문고설치운동」은 계속된 「마을 문고 협회」의 노력으로 69~70년간 1,640개소가 증설된 16,150개소로 설치수가 늘어났다.

농어촌지역의 무의면 해소를 위하여 추진된 무의면 일소운동은 63년에는 무의면의 수가 455개면으로서 31.0%에 불과했었는데, 그 이후 운영, 수익등 여러가지 애로의 발생으로 무의면수는 다시 증가되어 67년에는 742개면 50.6% 수준으로 늘어났었다.

이와같은 경향은 공의보건소를 증가배치하고 의사의 수효가 늘어났으

며 농촌지역의 경제력이 상당히 향상되므로서 68년 이후에는 무의면의 수가 640~650개소 수준에 머물게 되었는데 67~70년간에는 무의면이 9개소가 늘어났다.

농어촌환경개선문제가 가지는 특성은 대부분의 사업이 농가의 주도적인 노력에 의해서 보다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점인데, 정부가 농촌환경개선에 대하여 모든 지원을 투입하는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앞으로 정부부담이 크게 증가될 것이 예기된다.

또한 농촌환경은 지금까지 도시와의 시간적, 공간적 거리가 각종 매스 미디어의 보급증가와 교통 통신수단의 발달로 크게 줄어들음으로서 도시와의 의존도가 더욱 높아졌다.

도시와 농촌의 생활권이 축소된 결과 농촌이 도시로부터 받는 경제적, 사회적 영향은 다각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대도시와의 거리축소로 인하여 소유권의 중계역활이 더욱 확대되는 반면 중소도시와의 연계성은 크게 강화되지 못하고 있다.

농촌지역에서 새로이 제기되고 있는 새로운 환경상의 문제는 공해 현상의 확대이다.

각종 공업시설의 지방도시 분산은 주위 농업지대에 대해서 상당한 피해를 주고있으며 우량농지의 공장부지 전환은 농지보존에 대하여 큰 압박을 주고 있다. 이와같은 현상은 울산지방의 농장피해사건, 경부고속도로선의 경지정리된 농지의 비농업용지 전환증가와 도시주변 농지의 유희화증가로 표출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러한 현상에 대한 경제 전반적인 관점에서의 조정대책을 강구할 것을 필요로 하고 있다.

또한 농촌지역내에서의 농업공해도 상당히 증가되었는데 근래에 병충해의 방제가 강화되면서부터 각종 농약공해는 특히 문제되고 있다.

병충해의 발생이 만연되는 것은 생육기의 질소비료 편중시비에 연유되고도 있지만 발생된 병충해의 방제과정에서 잔류독성 농약의 사용은 인명을 앗아가고 있을 뿐 아니라, 각종 과채류의 결실물에까지 잔류되어

있기때문에 보건위생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다.

특히, 유기수은제농약의 증시로 쌀에 수은의 잔류량이 늘어나고 있어서 미리 이에 대처할 필요를 증대시키고 있고 농약의 사용후에 남은 유리병은 독성으로 인하여 회수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논, 밭에 버려지는 것이 상례인데 주로 밭을 벗고 영농작업을 하는 현금의 실정에서 작업 중에 자주 상해를 발생시키고 있다.

최근에 널리 실시되기 시작한 항공방제는 면적이 대규모화 되고 그 효과가 좋은데 반하여 농가들에까지 약이 날아가기 때문에 식수와 기타 음식물이 오염되고 있으며, 뽕밭에까지 약이 날아가서 양잠에 큰 피해를 주는예가 있고 제비등 각종 익조(益鳥)의 폐사를 초래하고 있어서 자연보호나 영농 일상생활 등에 대하여 여러가지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이 필요하다.

농약의사용에 관해서는 약제마다 독성과 사용방법이 명시되어 있고 용법을 농촌지도소를 통하여 지도 계몽되고 있으나 이와 같은 예방조치에도 불구하고 사고는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별단의 효과적 조치의 강구가 필요시되고 있으며 여타의 공해사항에 대해서도 새로운 조치들이 다각적으로 강구되고 있다.

및 농업용 각종 기재를 싼값으로 증가 보급하고 68년이래 고미가정책을 계속 실시 하였는데 경지면적의 감소, 투입노동의 감소와 기후조건의 불순에 기인하여 생산수준이 전년보다 감소되었다.

즉, 수도식부면적은 69년의 1,208.0천ha에서 70년에는 1,193.4천ha로 14.6천ha가 감소되었고, 맥류의 식부면적은 35.2천ha가 감소되었다.

수도식부면적의 감소는 주로 도시주변, 농경지의 유희화, 도로, 주택공장 등의 타목적 전용에서 연유되었고, 맥류식부면적의 감소는 밭의 타목적 전용과 식부시기에 경쟁관계를 갖는 다른 경제작물들에 비해서 수익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데 기인하고 있다.

한편, 채소생산은 연중을 통한 총 생산수준은 전년보다 증가되었지만 김장채소는 전년보다 감소되었는데 채소류의 수요가 주년화하는 결과 생산면에서도 비닐하우스에 의한 재배 등으로 주년화 경향을 나타내므로서 봄·여름을 통한 생산량증가가 현저히 늘어남에 기인한다.

이에 비하여 잠엽생산은 뽕밭면적이 전년수준보다 약15천ha가 감소되었으나 단위 면적당 뽕산출량이 증가되고 잠실·잠구등 양잠 시설의 확충과 기술향상으로 누에고치가 전년보다 7백% 증산되었고, 축산업 생산은 수익의 상대적 우위성과 농어민 소득증대 특별사업을 비롯한 각종 지원시책의 강구 및 수요의 증대로 인하여 생산수준이 증가되었다.

2. 농작물 생산

가. 식량작물

농작물 생산은 한해, 수해, 과습, 저온, 일조부족 등 천후조건에 따라 크게 좌우되고 있다.

67년에 이어 68년에도 거듭된 한해로 식량작물 생산이 저조하여, 68년

표 1-30

식량작물생산

구	분	65		68		69		70	
		면적 천ha	수량 kg	면적 천ha	수량 kg	면적 천ha	수량 kg	면적 천ha	수량 kg
합	계	3,248.3	216	3,103.4	221	3,065.3	252	2,972.3	252
미	곡	1,238.3	283	1,160.5	275	1,229.7	333	1,213.4	325
백	류	1,210.9	176	1,161.0	211	1,119.7	220	1,084.4	217
두	류	368.4	55	384.1	75	378.7	72	368.2	75
서	류	214.4	487	198.1	383	193.0	403	181.9	431
잡	곡	216.3	56	199.7	81	144.2	95	124.4	100

자료 : 농림부 조사통계과
 주 : 각유별 생산량은 양곡환산 ㄱ 수임

에는 65년에 비하여 3.5% 감소되었으나, 69년에는 68년부터 시작된 대대적인 농업용수개발, 벼 집단재배와 경지이용율의 제고, 작부체계의 개선, 경종기술의 향상, 병충해 공동방제, 비료, 농약, 방제기구, 석회석 등 농업자재의 증가투입등이 주효해서 총 7,737천ㄹ을 생산하므로써 68년 대비 12.8%가 증산되었는데, 70년에는 생육기의 과습, 저온, 일조시수부족과 출수기의 태풍으로 인하여 전년보다 3.4%가 감소된 7,476천ㄹ이 생산되었다.

(1) 미곡

미곡은 69년에 4,090천ㄹ을 생산하였으나 70년에는 전년도 보다 3.7%가 감소된 3,939천ㄹ으로 생산이 저조하였다.

이는 식부면적이 69년 보다 1.3%가 감소되었을 뿐 아니라 수도생육종반기의 벼 멸구 발생, 출수기의 태풍빌리호의 영향, 등숙기의 일조부족 등 원인으로 단수가 줄어든데 기인하고 있다.

단보당 수확량은 65년에 비하여 70년에는 14.9%가 증가한 325kg으로 늘어났다.

단수증가를 위한 농업자재 투입은 요소별 단보당 시비량이 65년에 N; 6.1kg, P;3.4kg, K;1.4kg 이었던 것을 69년에는 N;9.0kg, P;3.7kg, K;2.3kg으로, 70년에는 N;10.2kg, P;3.6kg, K;2.4kg, 으로 증시하므로써 요소별 N;P;K의 비율이 65년 6:3:1이던것을 70년에는 6:2:2로 하였으며, 농약투입은 65년에 반당 706g이던것이 69년에는 3.4배가 증가한 2,376g, 70년에는 4.5배가 증가한 3,200g으로 증시하였고, 동력방제 기구는 65년 6,161대에서 69년에는 19,210대, 70년에는 39,882대로 대폭 증가공급되었으며, 동력경운기는 65년에 1,080대이었던 것이 70년에는 12,512대로 늘어났다.

한편, 평당 유효수수는 65년에 943.5수에 70년에는 1,108.3수로 늘었고, 수도 집단재배는 68년도부터 시작하여 큰 성과를 얻어 70년에는

표 1-31

미곡생산에 관한 주요 지표

구	분	단 위	65	68	69	70
총	생 산 량	천%	3,501.1	3,195.3	4,090.4	3,939.3
수	식 부 면 적	천ha	1,208.9	1,136.4	1,208.0	1,193.4
		단 당 수 확 량	kg	287.0	279.0	336.0
도	수 확 량	천%	3,464.4	3,166.0	4,057.1	3,906.8
육	도	천%	36.7	29.3	33.3	32.5
평	당 주 수	주	74.0	74.9	75.0	73.4
평	당 유효 수 수	수	943.5	1,040.7	1,121.0	1,108.3
피	해 량	천%		1,051.4	501.0	656.0
	기 상 재 해	"		865.4	449.0	543.9
	병 총 해	"	27.0	186.0	52.0	112.1
방	제 면 적	천ha	1,294	3,229	5,740	3,774
농	약 투 입 량	g/10a	706	700	2,376	3,200
동	력 방 제 기	대	6,161	9,030	19,210	39,882
단	투	질 소 성분 kg	6.1	8.1	9.0	10.2
		인 산 "	3.4	3.4	3.7	3.6
		가 리 "	1.4	2.0	2.3	2.4
트	랙 타	대	—	99	99	99
동	력 경 운 기	"	1,080	8,931	8,931	12,512
집	단	지 역 수 개 소	—	500	10,758	22,896
		면 적 ha	—	2,500	150,000	30,000
		참 여 호 수 호	—	8,730	456,400	817,000
		평 균 단 수 kg/10a	—	421	434	410
정	부 매 입 가 격	원/80kg	3,150	4,200	5,150	7,000

자료 : 농림부 농업생산국, 농정국

22,896개 단지의 연면적 30만 ha에 817천호가 참여하므로써 평균하면 70년도 전체평균 단수 325 kg보다 85kg이나 높은 410kg으로서, 일본의 70년 평균단수 410kg 과 같은 수준을 생산하였다.

미작 피해상황은 70년 총피해량 656.0천² 중 병충해 피해가 17.1%인 112.1천², 기상피해가 82.9%인 543.9천²으로 병충해의 피해가 방제 효과로 감소된 반면 기상피해가 상대적으로 증가하였다.

(2) 맥류

70년도 맥류생산은 2,352천²으로서 65년보다10%가 증수되었으나 69년보다는 4.3%가 감소되었다.

이는 다습한 기후조건으로 맥류 붉은 곰팡이병이 발생, 만연되었고 발면적이 주택, 도로, 공장 등의 부지로 전용되고 있어서 파종가능한 절대면적이 감소되었으며, 단위면적당 수익에서 경제작물들과의 경쟁에 열위를 차지하므로써 이용면적이 감소되고 있을 뿐 아니라, 맥류 수확기 이전에 벼를 이앙해야 하는 중부지방에서 답리작이 포기되고 있고, 맥류의 파종과 수확기에 노동 투입이 미작과 경합하는 관계로 맥작이 기피되고 있기 때문이었다.

표 1-32 맥류 생산을 위한 경지이용 상황

구 분	맥 류 생 산						경제작물생산면적	
	밭		논		계		면 적	지 수
	면 적	구성비	면 적	구성비	면 적	지 수		
	천ha	%	천ha	%	천ha		천ha	%
66	702	62.1	446	38.9	1,148	100	304	100
67	685	59.6	465	40.4	1,150	100	337	111
68	689	57.6	472	42.4	1,161	101	325	117
69	640	57.1	480	42.9	1,120	97	410	135
70	615	56.7	469	43.3	1,084	94	451	148

자료 : 농림부 조사통계과

주 : 논, 밭의 %는 맥류생산 총 면적에 대한 각기의 구성비임.

(3) 두류, 서류, 잡곡

두류생산은 기후조건 불순과 경지면적 감소경향으로 68년부터 생산량이

감소되어 70년에는 전년대비 3.8%가 줄어든 277천 μ 를 생산하였다.

서류 식부면적은 매년 감소되고 있는데 69~70년간에도 식부면적이 11.1천 ha가 감소되어 181.9천 ha로 줄었다. 그러나 단수가 69년의 403kg에서 431kg으로 증가되므로서 생산량은 전년대비 0.7% 증가한 783.2천 μ 에 이르렀다.

잡곡생산은 가격조건의 불안정, 시장수요의 감퇴로 파종면적이 줄어 생산량이 감소되고 있다.

70년의 파종면적은 124.4천ha로 전년보다 19.8천 ha가 감소되었으며, 65년 수준에 대비하면 92.2천ha가 줄었다. 생산은 124.1천 μ 로 전년보다는 13.7%가 감소되었다.

나. 경제작물

특용작물 및 청과물 생산은 시장소비 수요가 계속 확대되고, 경제적 수익성도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재배면적과 생산량이 증가되어 왔으며 농업소득 증대와 농업경영 개선에 크게 기여하여 왔다.

경제작물 생산의 농림어업 부가가치에 대한 기여도도 이에 따라 계속 확대되어 왔는데, 65년에는 기여도가 21.9% 이었던 것이 70년에는 23.2%로 늘어났다.

생산증가가 가장 현저하였던 부문은 채소류인데 채소류의 생산증가는 급속한 도시화에 따라 수요가 주년화 되고 소비량이 증대된데 기인한다.

(1) 특용작물

특용작물 중 섬유작물과 유지작물은 수요증대에 따라 전반적으로 생산량이 증대되어 왔는데, 70년에는 재배면적의 감소와 기상조건의 불량으로 인하여 생산량이 69년 보다 12.2% 감소된 72.6천 μ 에 머물렀다.

최근 특용작물의 생산량 증가는 재배면적 증가를 훨씬 상회하여 왔는데 이것은 재배 기술의 보급 및 계약재배와 가격보장 등의 지원시책으로 안정생산을 보장하여온 성과로 단위생산량이 제고되었기 때문이다.

65년에서 70년까지 5개년간의 작물별 재배면적 증가추이는 인초 57%, 유채 238%, 참깨 150%, 들깨 39%가 각각 증가하였으나 재배조건이 상대적으로 불리하거나 수익성이 타작물보다 낮은 면화, 삼, 저마, 피마자 재배면적이 감소되고 있다.

특히, 아미는 재배기술 향상으로 단위수량은 증가되었으나 보리와 비교 수익성이 상대적으로 저하되고 가공수요의 증가가 둔화되었기 때문에 재배면적이 감소되었으며, 면화, 삼은 화학섬유 공급증대로 수요가 위축되고 생산원가가 국제가격 보다 높아 시장성이 낮아서 재배면적이 점차 감소되어 가고 있다.

표 1-33 특용작물 재배면적과 생산

품	목	65		68		69		70		70/65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ha	%	ha	%	ha	%	ha	%	%	%
계		60,896	40,749	72,126	66,804	88,771	82,651	89,212	72,565	147	178
면	화	19,224	11,817	16,443	12,670	16,837	13,549	16,010	13,341	83	114
	삼	5,677	5,576	5,666	6,314	5,829	7,337	5,284	6,611	93	119
저	마	3,163	1,725	1,365	1,662	1,445	1,799	864	1,134	27	119
아	마	836	745	974	3,111	1,065	2,801	862	1,895	103	254
인	초	84	801	299	2,491	670	4,499	132	1,086	157	134
수	세	162	20	230	56	185	56	290	165	179	895
유	채	6,858	6,021	17,576	20,989	27,942	31,181	23,187	25,070	338	416
참	깨	10,318	4,164	13,599	6,537	17,436	7,708	25,773	10,386	250	249
들	깨	8,295	3,521	10,540	5,289	10,607	5,724	11,572	6,349	139	180
피	마	4,301	2,362	2,916	2,057	2,978	2,197	1,974	1,486	46	63
기	타	1,978	3,997	2,517	5,629	3,777	5,800	3,264	5,042	165	123

자료: 농림부 농업생산국

특용작물의 생산증대는 수요권의 확대와 가격안정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수입대체 시책의 강화와 새로운 판매시장 개척이 요청되고 있다.

(2) 채소

채소류 재배면적은 생활수준이 점차 향상됨에 따라 수요가 전반적으로 증대되어 70년에는 65년 보다 68%가 증가된 254천ha에 이르렀고 생산량도 2,520천톤으로 65년 보다 60%가 증수되었다.

65~70년간 채소류의 품목별 재배면적 증가는 엽채류가 연평균 14.2%, 조미채소류 14.5%, 근채류 6%, 과채류는 14%씩 각각 늘어났다.

이와 같은 재배면적의 증가는 식품소비형태의 고급화와 선도를 요구하는 소비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조미채소 및 엽채류가 더 많이 증가된 특징을 가지고 있다.

특히, 배추, 상치, 호박, 오이, 도마도, 수박, 참외는 수요의 주년화에 따라 비닐하우스 축성재배를 전업적으로 하는 고등원에 농가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 최근에는 고속도로 개발로 전국이 하루 생활권내로 확장됨에 따라서 생산지역도 지역에 구애됨이 없이 크게 확대 되고 있다.

표 1-34 채 소 생 산

구 분	65		68		69		70		70/65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천ha	천톤	천ha	천톤	천ha	천톤	천ha	천톤	%	%
계	151	1,577	192	2,150	227	2,427	254	2,520	168	160
엽 채 류	42	522	54	751	75	894	78	890	186	171
근 채 류	42	589	50	693	55	727	67	767	160	130
과 채 류	30	280	31	445	36	476	37	477	123	170
조 미 채 소	35	169	55	272	57	302	63	292	180	173
기 타	2	17	2	19	4	28	9	94	450	553

자료 : 농림부 농업생산국

과수재배면적과 생산

표 1-35

구	분	65		67		68		69		70		70/65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ha	%	ha	%	ha	%	ha	%	ha	%	ha	%
사	계	42,864	310,033	48,146	358,944	51,204	392,419	55,700	416,849	60,185	423,259	140	137
	과	19,006	166,778	19,799	189,651	20,202	198,711	20,798	219,411	21,033	212,041	111	127
부	배	5,175	39,541	5,885	40,799	6,169	47,796	6,237	46,040	6,701	52,041	130	132
	송	10,607	54,345	11,398	70,663	11,633	71,538	11,566	68,341	11,834	78,098	112	144
포	도	3,463	18,563	4,314	25,083	4,520	27,537	5,223	37,407	6,198	34,145	179	184
	감	2,683	23,510	3,801	23,607	4,533	34,579	4,980	33,850	5,192	30,310	194	129
기	팔	581	1,090	1,341	1,640	2,275	3,593	4,018	2,769	5,901	5,141	1,016	472
	타	1,349	6,206	1,608	7,501	1,872	8,665	2,878	9,027	3,326	11,483	247	185

자료: 농림부 농업생산국

시장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채소류 및 과채류 생산은 계절적 가격의 변동폭이 큰 관계로 이에 따라 농가의 생산량이 변화되고 있으며 아직도 부작용으로 생산하는 영세규모가 큰 비중을 점하고 있다. 특히, 교통수단의 급격한 발달과 공급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생산 출하를 조절하고 선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품종과 가격통일, 생산기반정비, 공동보관 및 출하등 유통의 현대화가 자주적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가공수출용인 저림채소, 양송이와 군남 청정채소는 농가소득증대 특별사업등 지원시책의 강화로 재배면적이 매년 증가되고 있는데 양송이는 70년에 5,658ㄹ이 생산되어 3,065천 \$의 외화를 획득하였다.

(3) 과수

70년 과수재배 면적은 65년 보다 40%가 증가된 60,185 ha이며, 생산량은 37%가 증가된 423천ㄹ으로 전반적인 단위수확량의 변동은 크지 못하였으나 품목별 차이는 컸다.

즉, 사과, 복숭아, 포도와 같이 오래전부터 재배되어 왔고 근래에 와서 수요가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시장조건이 유리해진 품목들은 품종개량이 빨랐고 단위 수확량 증가도 급속하였으나, 성수목이 많은 감, 배등과 재배의 지역적인 제한성이 큰 감귤 등은 재배면적 단위당 수확량 증가 속도가 저조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기상조건 변동에 따른 생산량 변동이기 보다는 영년생 작물인 과수가 가지는 특성으로서 새로 식재·보식한 면적증가가 바로 생산증가로 나타나지 않고 연령에 따라 생산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식용수요와 가공부문의 수요가 크게 늘어난 포도, 감귤의 재배면적은 65~70년간에 각각 79%, 916%씩 늘어났다.

다. 전전환 작물

가뭄의 피해면적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한 영농대책으로 용수해결이

표 1-36

전전환계획및실적

단위: ha

영구전담지파	전전환작목별생산													
	휴면	휴반	대면	상	공	우	수	수	고	추	참	기	타	
총면적	면적	면적	면적	면적	면적	면적	면적	면적	면적	면적	면적	면적	면적	면적
100,892	6,054	94,838	15,707	7,895	6,589	4,880	1,462	1,648	1,021	1,100	725	267	5,912	
			24,705	21,504	12,027	7,180	4,245	3,509	3,031	1,327	2,202	355		
			73	64	55	68	34	47	34	83	33	75		
			계획	실적	%									

자료: 농림부 농업생산국

주: 1. 휴면면적은 총면적의 6%공제

2. 전전환 대상면적에는 휴면면적 및 목야지조성면적은 제외

불가능한 125천ha 중 전전환이 불가능한 100천ha의 천수답은 영구적으로 전답직파하고 나머지 25천ha는 밭으로 전환하여 수익성이 높고 국내생산이 부족한 옥수수, 콩, 고추, 참깨등의 작물을 계약재배하고 생산된 전량을 정부가 구매하였다.

이 가운데 벼보다 수익성이 낮은 품목에 대하여는 수도 평년작의 순수익과의 차액을 보상(생산장려금)하므로써 안정 생산체제를 확립하여 농가소득을 보장하고 농산물증산에 기여하였다.

당초의 전전환계획 총면적 21,504ha의 73%인 15,707ha가 파종되어 7,895%를 생산하였는데 작목별로는 콩이 6,589ha에서 4,880%, 옥수수가 1,462ha에서 1,648%, 고추가 1,021ha에서 1,100%, 참깨가 725ha에서 267%를 각각 생산하였다.

이와 같은 전전환 실적의 부진은 전 전환사업이 처음실시된 결과 농가의 이해부족으로 호응도가 낮았고, 벼 이앙기의 순조로운 강우로 수도를 이앙하였으며, 전전환계획에 따라 파종한 전작물의 생산이 심한 습해로 인하여 감소된데 기인한다.

따라서 앞으로의 전전환사업 추진을 위하여는 밭으로 전환된 논에의 계약재배의무를 지양하여 작목선택의 자율화를 기하고 밭작물 파종면적에 대한 생산장려금을 사전에 지급하는등 다각적인 시책이 연구검토 되어 적절한 지원시책이 강구 되어야 할 것이다.

3. 증산을 위한 자재투입

가. 지력증진

농토의 산도교정과 저위생산지, 추락담등의 물리적 조건 개량을 위하여 농용석회, 규산질 비료를 공급하고 농가 지붕개량등으로 퇴비를 증산하며, 객토를 하므로써 단위생산량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력증진사업

을 실시하여 왔다.

70년에 농용석회는 69년보다 159천ㄲ이 증가된 443천ㄲ을 공급하였다.

농용석회의 보급은 농가부담을 줄이고 시용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70년에는 정부보조율을 70%로 하고 종래의 농가부담 30%를 지방비로 보조함으로써 농가에는 무상으로 공급하였고, 생산공급을 도 단위로 분산하고 일부는 포장하여 공급하므로써 농민들의 사용과 수송, 공급을 원활히 하였다.

규산질비료 시용량은 비보조사업으로 전환되면서부터 시용량이 매년 줄었으나 토지개량을 위한 기술보급 및 농민의 인식도 향상에 따라 최근에 와서는 점차 증가되고 있다.

70년에는 토양중의 유효규산 함량이 가장 적은 지대에 우선적으로 14천ㄲ을 공급하였다.

퇴비는 농가지붕개량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얻어지는 벼짚 퇴비생산량의 증가로 66년의 31,873천ㄲ에 비하여 69년에는 43,380천ㄲ, 70년에 41,506천ㄲ을 생산하여 66년대비 각각 36%, 30%가 증가되었으나 최근 4개년간에는 4만ㄲ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70년생산량은 전년보다 줄었다.

객토사업은 66년의 14,779천ㄲ에 비하여 69년에는 25.2% 증가된 18,522천ㄲ, 70년에는 19.7%가 증가된 17,699천ㄲ으로 증가되었으나 68년 이후부터는 오히려 감소 경향을 보이고 있다.

표 1-37

저 위생 산 지 개 량 사 업

단위 : 천ㄲ

구	분	66	67	68	69	70
석	회	174	192	155	284	443
규	산	20	19	5	7	14
퇴	비	31,873	40,120	40,465	43,380	41,506
객	토	14,779	13,262	23,731	18,522	17,699

자료 : 농림부 농업생산국

나. 비 료

비료는 농경지의 단위면적당 시비량증가로 소비량이 매년 증가되고 있다.

즉, 65년의 393,098M_t에 대해서 70년에는 43.2%가 증가된 562,902M_t으로 5개년간 연평균 8.6%씩 증가되었다.

한편, 농가에서는 아직도 질소질 비료를 편중사용하므로 병충해와 도복을 유발하여 증수를 저해하는 실정에 있어서, 이를 시정하기 위해 복합비료 공급을 통한 균형시비를 적극 권장한 결과 복합비료소비량이 68년의 120,382M_t에서 69년에 183,490M_t, 70년에 215,683M_t으로 증가되어 전체 소비량중 비중이 각각 25%, 34%, 38%로 확대되므로서 효과적인 균형시비가 촉진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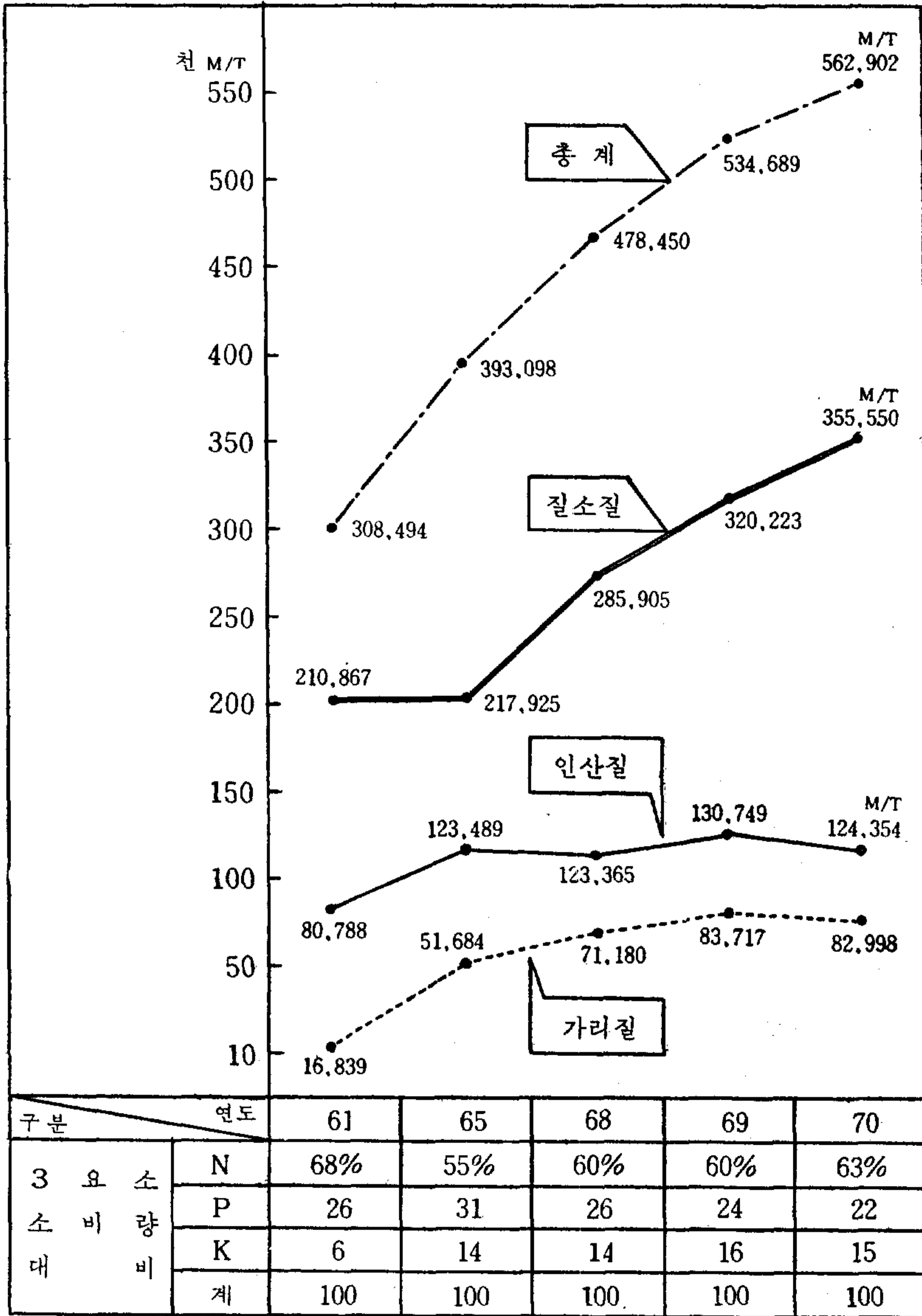
이와 같은 비료소비량의 증가와 복합비료 사용증가는 69년 4월 16일 비종별 판매가격을 조정하여 복합비료와 인산질 가리질 비료가격을 20~10% 인하 조치한 이외에 70년 10월 1일부터 종래 이동조합단위로 농민에게 작물별·시기별로 할당하여 판매하던 공동차주제판매제도를 개선하여 실수요자인 농민이 비료를 지정된 비료판매비율에 의거 자유롭게 개인적으로 언제든지 구입할 수 있게 한 개선조치가 크게 주효하였다.

한편, 비료공급 취급업무에 있어서는 자립능력이 있는 이동조합에 판매업무를 이관하고 자립능력이 없는 이동조합에는 시·군농협 및 지소에서 성수기에 현지 출장하여 판매하므로서 농민의 비료수매에 편의를 제공하였다.

비료의 국산화 자급율은 계속 향상되어 66년의 질소질 33%, 인산질 13%, 가리 19%가 68년에는 질소질 110%, 인산질 100% 가리질 59% 전체 100%로 질소질은 잉여량이 생겼으며, 70년에는 질소질이 124%, 인산질 96%, 가리질 47%, 총량 105%로서 자급도가 크게 증대되므로서 자급되고 남은 요소비료는 67년에 9천M_t, 68년에 12천M_t, 69년 45천M_t,

표 1-38

화학비료 소비 실적



자료: 농림부 농정국

70년 61%를 각각 수출하여 총 1,507만 \$의 외화를 획득하였다.

비료가격은 비료구매원가가 매년 상승하여 판매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나 농가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정부보조로 가격수준을 그대로 유지시키고 있는데, 이결과 비료계정의 적자가 매년 30억 이상씩 발생하여 70년말 현재 적자액이 99억6천만원으로 누증되었다.

다. 농약 및 기재확보

농약소비는 61년 5,557M%에서 69년 17,482M%, 70년에 25,024M%으로 각각 3.1배, 4.5배로 증가되었는데 이러한 농약소비 증가는 농작물 병충해방제가 사후방제에서 사전 예방체제로 전환한데 기인한다.

즉, 수도병충해 예방면적은 65년에는 전방제면적 1,294천ha의 91%인 1,178천ha, 69년에는 전방제면적 5,740천ha의 99.6%인 5,710천ha, 70년에는 전방제면적 3,774천ha의 98.0%인 3,698천ha를 예방하였다.

70년 수도병충해 발생면적은 75,500ha로 69년의 33,700ha보는 124%가 증가되었는데 이는 출수기 이후 기온이 높고 일조가 부족하여 과습하였고 전남, 경남지방에서 빌리호 태풍이후 벼멸구가 41천ha에 발생된데 연유되었다.

특히, 병충해 예찰 강화를 위하여 예찰업무를 농촌진흥청 산하 172개시, 군 농촌지도소에서 실시하여 각 지역에서 병충해 발생을 조기발견하고, 이동단위로 방제기동반을 편성하여 병충해 발생시에 행정기관장 책임아래 효율적으로 방제하였으며 70년에 경기, 충남·북, 전남·북 및 경상남도의 대평야지구 8천ha를 항공방제하여 기동성있는 방제실시와 정확한 방제효과 거양으로 인근 농민의 방제의욕을 고취시켰다.

수도용 농약중 70년에는 소요량의 87.6%를 농협에서 확보 공급하고 잔여를 시판으로 공급하였으며 공동집단방제 농약대는 국고 및 지방비

로 33.3%를 보조하고 나머지를 의상공급하므로서 농민의 부담을 경감시켰다.

표 1-39 농약 소비 실적 단위: %

구분	연도	61	65	67	68	69	70
	계		5,557	12,729	9,989	9,983	17,482
살균제		3,422	9,433	1,965	2,159	8,555	11,058
살충제		2,121	3,200	7,676	7,285	7,511	8,864
제초제		10	25	275	471	1,305	4,957
기타		4	71	73	68	111	145

자료: 농림부 농업생산국

농약기재는 70년에 71,479대를 추가 공급하여 69년의 123,521대에서 207,193대로 증가 확보하므로서 수도생산계획면적의 일제방제에 소요되는 일수를 15일에서 8.3일로 단축시켰다.

70년의 방제기구 공급은 동력살분무기는 보조 12%, 용자 82%, 자기 부담 6%로 공급하였고, 고압식분무기는 70% 용자로 공급하였다.

1-40 농약기재 확보 상황 단위: 대

구분	69년도까지 확보분	70		합계	
		농협	시판	대수	방제가능면적 ha
동력분무기	2,179		120	2,299	59,314
동력살분무기	17,031	20,542		37,573	428,332
고압식분무기	16,370	27,167	12,073	55,610	172,391
인력살분기	14,655	—	—	14,655	87,930
인력분무기	73,286		23,770	97,056	116,467
계	123,521	47,709	35,963	207,193	864,434

자료: 농림부 농업생산국

증가되었고 병충해방제기구는 61년의 30.9천대에서 70년에는 494.5천대를 확보하여 16배가 증가되었다.

4. 잡업

잡업은 일본이 종전의 생사수출국에서 수입국으로 전환한 결과 우리나라가 생산하는 생사의 판매시장이 크게 확대되어 70년에 잠사류는 50,895천\$의 수출을 하였다.

이와같이 생사수출이 증가된 것은 농어민소득증대특별사업과 일반사업을 통하여 잡업증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데 기인된다.

재래의 뽕밭은 대부분이 해방이전부터 밭 이랑이나 산지 두렁에 심어온 것으로 생산능력이 낮았는데, 이것을 순 상전의 집단 상전지대로 전환하여 생산성이 높은 기반으로 조성하는데 역점을 둔 결과 65년 이후 매년 평균 12천ha의 상전면적이 증가되어 69년까지 99천ha가 조성되었는데 70년에는 14천ha가 감소되었다.

양잠농가 1호당 상전규모는 65년의 1.3 단보에서 70년에는 1.7단보로

표 1-42 잡업 생산

구분	단위	65		68		69		70	
		실적	대전년도 증가율	실적	대전년도 증가율	실적	대전년도 증가율	실적	대전년도 증가율
상전면적	ha	50,477	% 19	94,443	% 33	99,264	% 5.1	84,977	% △14.4
양잠농가	호	403,134	18	480,540	5	499,699	3.9	492,734	△ 1.4
잠견생산	㎏	7,768	33	16,616	52	20,748	24.8	21,409	3.2
생사류수출액 (적수출)	천\$	21,963 (8,622)	66 (28)	24,745 (21,098)	13 (22)	31,286 (28,766)	26.4 (3.6)	50,895 (40,392)	62.6 (40.4)

자료: 농림부 농업생산국, 수출진흥관실

늘어났고 잠견 생산량은 65년부터 연평균 35%씩 증산되어 70년에는 21,409㎏을 생산하므로써 우리나라(북한제외)의 잠견생산 최고 기록인

16,394㎏보다 30.6% 상회하였다.

이와 같은 잠전증산은 상전면적 증가를 비롯하여 잠실 및 잠구류의 대량보급과 사육환경 개선에 의한 고치증수와 적정가격이 계속보장된 데 연유되었다.

생사의 직수출도 65년이후 연평균 6,000천\$씩 증액 수출하였으며 70년에는 40,392천\$에 달하였다.

한편, 70년은 상전면적과 양잠농가수가 전년보다 각각 14.4%, 1.4%가 감소되었는데 이는 뽕밭의 자연 감모(재해, 병충해) 및 공공사업, 용도변경등에 의한 것이며, 양잠농가수는 규모확대로 인한 소규모농가의 감소에 기인된다.

앞으로는 뽕밭의 비배관리와 병충해 방제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는 동시에 경제성이 낮은 뽕밭을 가꾸어 감모를 방지하여야 할 것이며 생산비 절감대책이 요청되고 있다.

5. 축 산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라 육류, 계란, 우유, 유제품등 축산물 수요가 급속히 늘어나서 쇠고기의 공급이 부족되고 우유 및 유제품수요에 대응한 젖소의 도입이 필요하였다.

이에 따라 68년을 기점으로 「축산진흥 4개년계획」을 수립하여 소득증대 및 일반사업으로 한우의 육성 및 비육사업을 실시하고, 협동축산단지와 기업축산을 장려하는 한편, 우량종축의 개량보급과 양축기술의 보급을 위하여 시범목장을 육성하는 등 생산기반을 구축하여 축산물 증산을 도모하였다.

축산물의 생산량은 69년에 육류 151,464㎏, 계란 2,430백만개, 우유 35,470㎏에 비하여 70년도에는 각각 6.6%, 5.3%, 51.9%가 증가한

161, 212M%, 2, 560백만개, 53, 888M%으로 늘어났다.

특히, 우유 및 유제품의 공급량은 급증되는 수요에 따르지 못하여, 계속 낙농차관 등으로 젖소 도입을 추진하였다.

표 1-43 축산물 생산 실적

품 목		연 도			
		68	69	70	70/'69
육 류	쇠 고 기	35, 809 ^{M%}	33, 133	37, 340	12.7 [%]
	돼 지 고 기	61, 080	76, 080	79, 166	4.1
	닭 고 기	33, 696	42, 251	44, 706	5.8
계		131, 265	151, 464	161, 513	6.6
계	란	1, 504 ^{백만개}	2, 430	2, 560	5.3
우	유	24, 360	35, 470	51, 888	51.9

자료 : 농림부 축산국

가. 가축증식

한우의 사육은 쇠고기의 수요 증가와 아울러 농촌의 현금수요 증가에 따라 65년 이래 그 사육 두수가 감소되어 68년에는 1, 193천두로 120천두가 감소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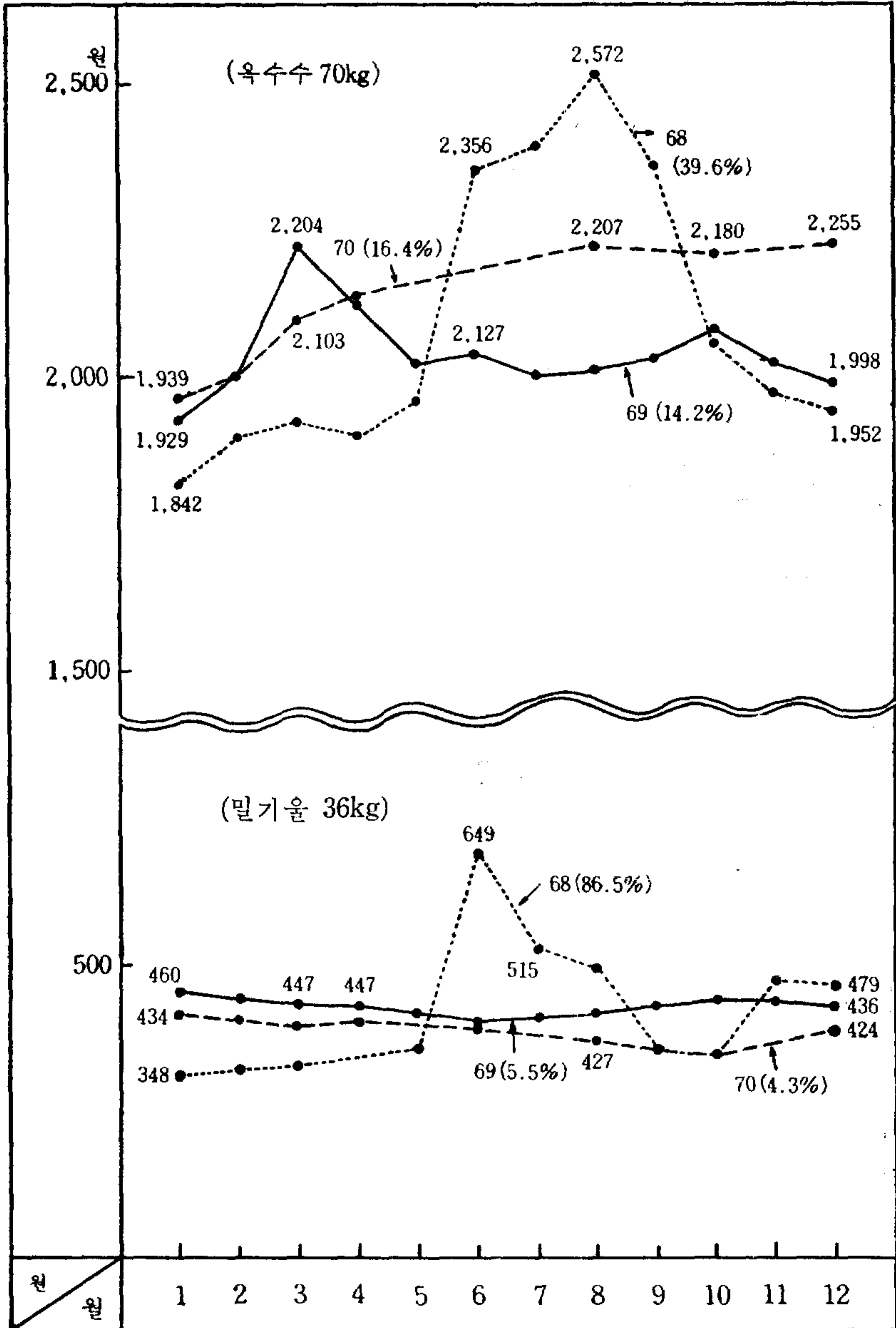
한우의 이같은 급속한 감소 추세는 기본두수 유지를 위한 증식보호의 지원시책을 추진한 결과 69년부터 점차 개선되어 70년에는 1, 270천두로 69년보다 6, 800두가 증식되었다.

젖소 사육두수는 매년 급증세를 보여 65년의 6, 612두에서 70년에는 3.5배가 늘어난 22, 827두가 되었다.

젖소의 증식경향은 식생활이 식물성 단백질 섭취에서 동물성 단백질의 섭취경향으로 변동되므로서 부족되는 우유공급을 위해 젖소의 기본두수를 증가하기 위하여 계속 젖소를 도입하였으며, 낙농의 수익성이 높

표 1-45

사료 가격의 동향



자료 : 농림부 축산국

표 1-46

초지 조성 실적

단위 : 천ha

연도	계	67 말	68	69	70
야 초지 개량	5.0	—	—	5.0	—
간이 초지 조성	16.7	—	—	8.7	8.0
집약 초지 조성	19.9	4.4	5.0	5.8	4.7
사방 초지 조성	2.6	—	—	1.0	1.6
계	44.2	4.4	5.0	20.5	14.3

자료 : 농림부 축산국

사료가격은 가격진폭이 심하여 많은 농가들이 손해를 보고 축산물 공급에 차질을 초래케 하였으므로 이러한 폐단을 없애기 위한 대책으로 사료수급 조절자금을 확보하고 정부가 일정량의 유통사료를 직접 조절하여 가격안정을 도모하였다.

이에 따라 69년에는 사료용 옥수수과 밀기울의 가마당 가격 진폭율이 각각 14.2%, 5.5%가 되었으며 70년에는 가격진폭율이 16.4%, 4.3% 선에서 유지되어 가축사양의 안정기반을 조성하였다.

제 5 장 농업생산기반

1. 향상된 수리 안전도

69년 부터 농업용수 개발을 대대적으로 시행하여 70년까지 수리안전율은 80%에 달하였다.

67년말 현재 총담면적 1,301천ha 중 수리안전담은 757천ha로서 수리안전율이 58% 미만이었으므로, 한해상습지 544천ha에 대하여 100천ha는 전담적파하고, 25천ha는 밭으로 전환하는 한편, 나머지 한해상습지 419천ha와 개담면적 16천ha를 합한 435천ha에 대하여 농업용수개발사업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매년 담면적이 공장 및 도시계획에 따라 주택지로 전용되어 69년말 현재 논면적은 1,294천ha로 감소되었으며 당초의 농업용수개발

표 1-47 농업용수개발계획

구분	개발면적 (천ha)							수리안전담		사업비 백만원	
	수리불안전담	개담	기안전담	배수강개선	간척지내용수개발	기타	계	누계실적	안전율		
총담면적	1,294								%		
67까지 안전담	757							757	58		
수리안전담화소	68~70까지개발	273	(4)	(27)	(2)	—	(8)	273 (314)	1,030	80	28,023
	71계획	14	(1)	(2)	(3)	—	—	14 (20)	1,044	81	8,113
	72이후개발	121	(16)	(25)	(30)	(8)	—	121 (200)	1,165	90	70,465
	계	408						408 (534)			106,601
전전환및전담적파	125										

자료 : 농림부 농지국

계획은 시공을 통하여 시설변경, 개발 부적지의 발견, 공사비의 인상, 기존시설의 보충수원 확보, 배수시설 등이 추가되어 수정이 필요하게 되었다.

수정된 농업용수 개발계획은 69년말 현재 총답면적 1,294천ha 중 67년까지의 수리안전담 757천ha를 제외한 537천ha에서 125천ha를 전답직파 및 전전환 하고, 408천ha를 수리안전담으로 개발하여 수리안전율을 90% (1,165천ha) 까지 제고할 계획이다.

68년부터 70년까지 농업용수 개발을 위하여 28,023백만원을 투입하여 수리불안전담 신규개발 273천ha와 개담과 기안전담의 보충수원개발, 수리배수개선 등 보충개발 41천ha, 도합 314천ha를 개발하여 1,030천ha를 수리안전담화 하므로써 수리안전화율을 80%로 제고시켰다.

신규개발은 시설별로 관정사업이 4,483백만원을 투입하여 49,385개소에 126.7천ha, 집수암거는 5,634개소에 6,385백만원을 들여 82.3천ha를 실시하였고, 양수장은 4,316백만원을 들여 515개소에 18.5천ha를, 도수로는 1,232백만원을 투입하여 498개소에 11.3천ha를 보는 584개소에 1,052백만원을 들여 10.5천ha를 저수지는 6,186백만원을 투입하여 838개소에 23.7천ha를 개발하였다.

이미 개발한 지하수 시설물에 대하여는 정확한 양수시험에 의한 관정기능을 측정하여 관정속의 퇴적물을 제거하고 노후, 파손된 시설을 정비하여 양수기를 점검하는 등 철저한 사후관리로 시설물의 성능이 완전히 보존되도록 하여 관개기에 급수에 지장이 없도록 특별한 조치를 강구하였다.

2. 경지정리 및 확장

경지정리 사업은 대상면적 588천ha중 69년까지 이미 정리된 135천ha를 제외한 453천ha에 대하여 70년도 부터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하

였다.

70년까지 대상면적의 26.8%에 해당하는 149천ha를 정리하였는데 64년까지 44천ha를 실시하였고, 65~70년간 105천ha를 정리하였다.

68년부터 경지정리사업 실적이 저조한 것은 농업용수개발을 중심으로 수리안전도를 먼저 향상시켜 놓고, 이러한 수리안전화의 기반위에 경지정리 사업을 실시코자한 정책적인 배려와 수혜 농민의 부담인 노력동원(전체 사업비의 평균 36%)에 대한 농민들의 참여 결여 및 경지정리 후의 환지처분 및 등기처리 지연에 따른 농민들의 자발적 참여의 감소 등에 원인이 있다.

따라서 사업시행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적인 중점지원과 사업완료 후의 환지 및 등기처리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강구할 것이 요구되고 있다.

표 1-48 경지정리사업실적

구분	연 도								
	64까지	65	66	67	68	69	70	65~70	계
면 적(천ha)	44	18	19	23	16	14	15	105	149
사 업 비 (백만원)	176	1,100	1,570	2,348	2,301	2,167	2,605	12,091	12,267

자료 : 농림부 농지국

개간사업은 62년부터 66년까지 국고보조사업으로 총 5,337백만원을 투입해서 111천 ha를 개간하여 경지를 확장하였으나 시공기술의 부족과 부적지를 산발적으로 개간한 결과 산지가 황폐화 되어 국토이용상 불리한 점이 적지 않았다.

이와같은 폐단을 지양하기 위하여 비보조사업으로 전환하였는데, 이 조치가 취해진 이후 부터는 영세민의 자발적 노력동원에 의한 소규모의 개간사업을 산발적으로 실시하게 되었다.

그러나 농어민소득증대 특별사업의 일환으로 야산개발, 협동축산단지
 잠업단지 등 산지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3강유역 개발을 비롯한 대단지
 종합개발사업들이 추진되면서 부터 개간사업은 이들 사업의 일부로서
 지원을 받게 되었다.

70년에는 3강유역 개발에 의한 개간 1천ha를 비롯하여 총 3천ha를
 개간하였는데, 이로써 70년말 현재 총 개간면적은 152천ha로 증가 되었
 다.

표 1-49

개 간 사 업 실 적

연 도	62	63	64	65	66	67	68	69	70	계
구 분										
면 적 (천ha)	13	16	22	37	22	17	14	8	3	152
사 업 비(백만원)	308	357	1,079	2,301	1,292	1,300	927	592	251	8,407

자료 : 농림부 농지국

제 6 장 시험연구사업과 농촌지도

1. 신제품개발에 중점을 둔 시험연구 사업

가. 식량작물 신제품 육성

(1) 벼 신제품 육성 보급

69년에 육성한 통일 (1R 667)을 전국에 걸쳐 지역적응성을 검정한 결과 10a당 소출이 전국평균 506kg로 (최고소출 614kg/10a) 대비품종 보다 32% 증수되는 좋은 결과를 얻었었으며, 71년도에 2,750ha의 논에 벼 “어울려 가꾸기”를 하기 위한 종자 82.5%를 생산했다.

한편, 새로 육성된 통일품종이 농가에 보급될 때 까지 벼의 소출을 보다 높이기 위하여 69년과 70년에 일본에서 소출이 많은 9품종을 도입하여 지역적응시험을 통해 아끼바레, 계곤, 스스가제, 사도미노리 등 4개 품종을 선발 6천%의 종자를 확보하여 71년도에 150천ha의 농가포장에 보급토록 하였다.

한편, 시험연구에서 얻어진 시험결과의 실증과 농가보급을 촉진하기

표 1-50 70-71 농사시험연구제 목 총괄

시 책 별	제 목 (주제 목)		항 목 (부제 목)		시 책 건 의		지 도 사 업 반 영	
	70	71	70	71	70	71	70	71
식 량 증 산	103	67	343	342	7	7	49	46
축 산 진 흥	55	41	157	136	6	2	13	18
소 득 증 대	82	76	255	180	6	8	50	40
계	240	184	755	658	19	17	112	104

자료 : 농촌진흥청

위하여 주요작물의 다수확 농가 실증시험을 실시한 결과 일반농가 재배에 비하여 41%의 벼를 증수(밀 122%, 콩 194%, 옥수수 19% 증수)하게 되었다.

(2) 밭작물 품종육성

국내 수요량이 급증하고 있는 밀의 품종육성에 있어서는 중남부 지방에서 표준품종에 비하여 숙기가 3~4일 빠르고 특히 답리작 재배에서 5~18%가 증수되는 수원 158과 소출은 다소 낮으나 숙기가 5~7일이 빨라 벼의 적기 모내기가 가능하고 가공적성이 높은 “라마로조” “이니아66” 등 우량품종을 선발하였다.

콩에 있어서는 광지역 다수성인 “광교”(33% 증수) 및 “봉의”(23~28% 증수)의 농가보급과 아울러 제주도 지방에서 표준 품종인 “힐콩”에 비하여 18%가 증수되는 내병성이 강한 “은대두”를 선발하였다.

한편, 고구마에 있어서는 저장력이 강하고 표준품종인 “신미”에 비하여 18% (전국 평균)가 증수되는 신품종 “황미”를 육성하였다.

나. 축산진흥

전국 풀자원 조사 대상면적 123천ha에 대한 풀종류, 생산성, 식생분포 토양 정밀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국적으로 584종의 풀종류 분포사항이 파악되었고, 이중 먹을 수 있는 풀 종류는 225종이고, 이용가능한 풀 종류는 83종임이 구명되어 이 조사자료를 기초로 하여 꼴밭 적지 선정과 낙농 및 육우 단지 조성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고 우량 초종을 선정 보급하는 데 기여토록 하였다.

꼴품종 육성에 있어서는 도입품종은 소출이 많고 영양분도 많으나 7~8월의 더운 여름에는 시드는 결점이 있으므로, 한 여름 더위에 잘 자라는 우리 품종의 장점만을 결합시켜 연중 생산할 수 있는 우량 품종을 육성하기 위하여 70년에는 이미 수집된 56종의 산풀의 품종 선발과 X-Ray 처리에 의한 11종 3,733개체의 계통선발과, 6종 2,139개체의 산풀

순계분리를 실시하여 새 품종 육성의 기초를 확립하였다.

한편, 가축품종 개량에 있어서는 잡종 강세를 이용한 한우 사육의 경제성 향상을 목표로 64년 부터 70년까지 7개년간 한우를 육우(Hertford, Aberdeen, Angus)와 교잡하여 후대능력을 검정한 결과 한우보다 18개월령 체중이 12~24%의 증체를 나타냈으며 이들 자료는 금후 한우의 육우능력 개량을 위한 자료로 활용토록 하였다.

가축질병 예방약 개량에 있어서는 새로운 “뉴켓슬” 음수 예방약을 개발하여, 닭 천마리당 접종시간을 16시간에서 1시간으로 단축할 수 있게 되어 기업양계에 크게 이바지 하였다.

다. 경제작물 개발

경제작물 개발에 있어서는 농작물의 수출증대와 수입대체를 꾀하고 농가소득을 높이기 위하여, 특히 수익성이 높은 작물을 선정하여 중점적으로 품종개량과 재배법 개선에 주력한 결과 공업원료로서 수익성이 높아진 유채에 있어서는 66년도에 육성한 “유달” (52% 증수)을 72년도에는 27,800ha의 포장에 보급할 수 있도록 보급체계를 확립하였고 제주도지방의 현 장려품종인 “제주재래”보다 34%가 증수되는 “아사히”를 선발 보급토록 하였다.

근래 수입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는 고추에 있어서는 내병성품종으로서 각 용도에 적합하고 수량이 높은 우량품종인 “김장고추” “꽃고추” “새고추”의 종자보급체계를 개선하고 전 농가 포장에 보급토록 하여 각각 35%, 60%, 25%의 증수를 가져 오도록 하였다. 양송이 우량종균선발에 있어서는 현재 보급되고 있는 우량종균 “304호”보다 13%의 순수익을 더 올릴 수 있는 “501호”를 선발하였고, 양송이 퇴비재료의 새로운 배합법을 구명 보급시켰다.

한편, 참깨에 있어서는 현 우량품종 “안동”보다 기름지닌량이 많고 32%의 증수를 가져올 수 있는 내병다수성인 “수제 5호”를 육성 선발하였

고, 땅콩에 있어서도 현 우량품종 “여주오뚜기” 보다 35%의 증수가 가능한 “천엽반립”을 선발하여 농가에 보급토록 하였다.

라. 잠업증산

잠업증산을 위하여 품종개량과 사육법 개선에 중점을 두고 시험 사업을 실시하였던 결과 주요 성과로는 잠품종 육성에 있어 춘잠용으로 현 장려품종인 “잠 103×잠 104” 품종보다 수전량이 6%, 생사량 비율이 3%가 더 증수되는 “잠 107×잠 108”을 육성하였으며 추잠용 장려품종인 “잠 105×잠 106”은 춘잠용으로서도 현 춘잠 장려품종인 “잠 103×잠 104” 품종보다도 수전량이 8%, 생사량 비율이 3%나 증수됨을 확인하고 “잠 105×잠 106”을 춘추 겸용 장려품종으로 선발하였다.

사육법 개선에 있어서는 1년에 2회씩 사육하던 종전의 방법을 개선하여 4회 사육의 방법을 확립함으로써 6%의 농가소득과 효율적인 노동분배 잠실잠구 활용증진을 기할 수 있게 하였다.

한편, 뽕주는 회수를 절 감키 위하여 애누에 때의 방견지 및 상자치기 큰 누에 때의 가지뽕치기 방법과 같은 생력사육방법의 도입으로 보통치기에 비하여 상자당 1,164원의 순수익을 올릴 수 있게 하였다.

2. 증산시책과 연결된 농촌지도사업

가. 벼 집단재배

미곡 증산 기술의 높은수준 평준화와 협업에 의한 생산비 절감으로 획기적인 증산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국 300천 ha에 시범단지 1,000개소와 이를 핵으로 한 일반단지 21,896개소 등 총 22,896개소의 벼 집단재배 단지를 조성 지도하고 단지의 효과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단지당 1인씩 23,035인의 농업증산 요원 확보 활용과 농업고등학교와의 자매 결연을 통한 증산운동의 전개 결과 시범단지의 생산실적은 10a 당 평균

462kg 으로 개별재배 실적 384kg 에 비하여 20%의 증수효과를 거두었다.

또한, 석당 생산비에 있어서 일반답의 4,980원에 비하여 시범단지에서는 4,633원으로서 약 7%의 생산비가 절감되었다.

나. 논 앞그루 사료작물 생산

동계 유희답을 활용한 사료증산으로 유축농을 육성하고 유기물공급으로 지력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경기도 안성군 농촌근대화 시범지역에 논 앞그루 사료작물(이탈리안 라이 그라스) 재배시범단지(규모: 10ha)를 조성한 결과(70. 3. 25 파종~5. 25 수확) 10a당 생초수량이 평균 2,500kg, 최고 3,480kg의 소출을 내었다.

대맥과의 수익성 비교에서도 10a당 4,666원으로 월등하게 높은 결과를 올리어 중북부지방의 논 이용도 향상과 유축농 육성에 크게 기여토록 하였다.

다. 주재지역 종합개발 사업

지역사회의 종합개발로 농촌근대화의 거점을 육성하기 위하여 3~4개 리·동을 단위지역으로 한 전국 317개의 시범지역에 훈련된 지도자 317인과 함께 기술과 자금의 집중적 투입으로 행정, 교육 기능의 삼위일체를 이루게 하고 지역내 제자원의 개발을 촉진하여 인근지역에 파급효과를 거양하였다.

라. 농촌 부업단지 조성

농한기를 일소하고 영세농가의 소득증대와 농촌 공업화의 기반구축을 위하여 70년까지 조성 지도한 진흥청주관 부업단지수는 70년에도 38개소의 신규단지를 조성함으로서 도합 231개소에 달하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각종 기술지원으로 농가의 부업소득증대에 노력하고 있다.

한편, 신규 및 기존단지 지역민 1만명에 대한 부업기술훈련을 실시하여 제품의 질적향상 및 규격화로 수출증진에 크게 기여토록 하였다.

마. 메탄가스 이용시설 보급확대

농촌연료자원 개발을 위하여 농가에서 생산되는 가축분뇨를 이용한 메탄가스 이용시설은 69년도의 504개소에 이어 70년도에는 796개소를 설치 지도한 결과 연간 농가 취사연료비 호당 15,115원중 남부지방 11,334원(75%), 중부지방 8,816원(58%)를 절약하고 농가 주부의 가사노동(취사) 시간이 1일 1시간 절약되고 주부들의 생산활동 참여시간이 연장되었으며 본 사업 추진에 따른 연관 효과로는 축산장려, 맑은 채소재배 및 임산연료 절약으로 산림복화 등 많은 효과를 거양하였다.

바. 응용영양 시범사업

농촌에서 자가생산 가능한 영양식품의 개발 및 효율적 이용으로 미백편중의 식생활 형태에서 탈피하고 균형 식생활로의 전환으로 미곡 소비 절약과 아울러 국민영양 개선을 위하여 68년부터 70년까지 전국 171개 시범부락을 설치 지도한 결과 사업 실시전에 비하여 시범부락내 농가의 식물섭취 비율이 단백질 8.1%, 칼슘 23.2%, 비타민 16.5%가 각각 높아지므로서 국민보건향상에 이바지 하게 되었다.

사. 4-H 훈련강화

감수성이 예민한 농촌 청소년들에게 영농주로서의 자질과 기술을 습득시켜 장차 농촌근대화의 역군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중앙농업기계훈련소를 설치하고 70년도에 4-H 우수부원 196명(1기당 30명)을 선발하여 동력 농기계의 운전 정비기술을 습득시켜 농업기계화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기술요원을 양성하였으며, 71년도에는 훈련시설을 대폭 보강하고 민간 210명을 선발 훈련할 계획이다.

한편, 축잡 고등원에 및 농기계 취급을 주과제로 한 고도의 경영기술을 이들 청소년들에게 습득시키기 위하여 69년도에 4-H 연수농장을 설치하고, 70년도에 47명, 69년도에 45명의 4-H 우수부원을 선발하여 10개월간의 입주자 영농훈련을 실시하므로서 영농구조 개선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케 하였다.

훈련시설의 확장에 있어서는 70년도에 4개소(충북, 전남, 경남, 경북)를 확대하여 연간 450명을 훈련할 계획이다.

표 1-51 연도별 학습조직 및 자원지도자

연도	구 락 부 수				부 원 수	
	농사개량	생활개선	4-H	계	농사개량	생활개선
65	25,031	13,122	27,991	66,144	332,954	213,531
66	26,548	15,482	29,233	71,263	343,134	239,942
67	28,323	17,575	29,821	75,719	368,654	261,628
68	29,064	18,067	29,818	76,949	373,040	265,711
69	28,661	18,126	29,171	76,158	329,603	267,330
70	28,949	18,189	29,803	76,941	356,140	266,648

연도	부 원 수		자 원 지 도 자			
	4-H	계	농사개량	생활개선	4-H	계
65	720,003	1,266,488	29,492	16,240	62,771	108,504
66	724,266	1,307,342	30,923	17,637	64,609	113,169
67	726,182	1,356,464	33,001	19,352	63,516	116,369
68	703,111	1,341,862	33,494	20,055	63,410	116,959
69	662,765	1,259,698	32,582	20,032	63,208	115,822
70	633,481	1,256,269	32,582	20,032	63,208	115,822

자료: 농촌진흥청

아. 농촌 자원지도자 육성

농림시책 수용기반 조성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115.8천명의 농촌자원 지도자들의 자율적인 활동촉구와 각급 단위 연합회의 운영 강화를 위하여 사단법인 「농촌자원지도자 중앙회」를(70.2.14) 설립하여 자원지도자의 활동을 체계화하는 동시에 우수지도자를 선발하여 정착지도사 1,350명, 농업증산 요원 23,035명을 임명하여 새 기술의 시범·실천으로 파급효과와 부락단위의 자조 자립적인 개발계획 추진에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토록 하였으며, 농촌 자원지도자의 자질향상과 활동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50천명에 대한 훈련을 실시하였다.

자. 농업 산학 협동체제 확립

70년 2월 20일 농촌 진흥청 주관하에 전국 시, 군농촌지도소장 및 농업고등학교장이 참가한 산학 협동 회의를 개최하고 중앙, 도, 시, 군 단위 「농업산학 협동 협의회」를 구성하였으며, 농업교육을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10개 시범 농업학교에 대한 육성자금 융자지원과 농고 우수졸업생 65명을 지도 공무원으로 채용하여 시험장 실기연수를 실시토록 하였다.

한편, 농민 훈련에 학교 실과교사를 참여케 하여 학교 시설을 적극 활용토록 하고 시책단지와 농고와의 자매결연을 맺게하여 영농에 직결되는 농업교육의 발전과 농촌지도 사업의 강화에 기여토록 하였다.

3. 토양조사 및 토양비옥도 조사 사업의 계속 실시

토양의 종류별 분포를 파악하여 적지적작 및 토지의 합리적 이용관리와 적정시비량을 규명하기 위하여, 64년 부터 69년까지 UN특별기금에 의하여 FAO와 공동으로 토양 및 비옥도 조사를 실시하여 왔으며, 70년에는 정부가 이 사업을 인수하여 국토 9,840천ha에 대한 개략조사와 이

이의 11%에 해당되는 1,084천ha에 대한 정밀조사를 끝마쳤다. 앞으로 이 조사를 토대로 토양도 및 보고서를 작성, 국토종합개발에 활용토록 하고 이 사업은 계속 실시하여 주요작물에 대한 적정 시비량과 시비법을 구명토록 할 것이다.

제 7 장 농산물 수급과 가격

1. 수요압력에서 발생한 수급 경직화

농산물의 소비수요는 비농업부문의 구매력이 질적·양적으로 증가 되고 농촌지역에서의 소비수준도 향상되므로서 계속 증가되고 있는데, 이와같은 수요의 증가추세에 비하여 공급능력의 신장은 상대적으로 경직화 되어 있기 때문에 농산물의 수급이 긴박성을 들어내게 되었고, 수급의 긴박에서 오는 가격등귀의 압력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물량공급을 증대 하게된 결과 도입량이 증가되었으며, 가격의 제절변동을 평준화하기 위한 노력은 유통조직의 개편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으로 발전되었다.

69~70년간 비농업인구는 11.4%가 증가되어 전체 인구의 1.8% 증가를 9.6% 포인트 상회하여 증가되었으며, 도시가구원의 1인당 실질 소비수준은 전년대비 2.8%의 실질증가를 나타내었는데, 도시가구의 식료비용지출은 전년대비 4.1%의 실질증가를 나타내었다.

이와같은 농산물 소비수요증가요인의 영향력증대로 인하여 잡곡을 제외한 주요곡물의 소비는 65년보다 29.2%가 늘어난 10,274천 $\%$ 으로 늘어났는데 이것은 전년대비로 6.3%가 증가된 것이다.

한편, 도시화의 진행에 따라 수요가 주년화 되고 양적으로 증가되는 채소, 과일, 식용유지 등 특용작물의 소비는 65년대비 57.3%가 증가된 2,995.9 $\%$ 으로 늘어났는데, 전년의 2,888.2 $\%$ 보다는 3.7%에 불과한 근소한 증가를 실현하였다.

채소는 전년대비 3.8%가 증가된 2,520.0 $\%$ 이 소비되었고, 과실은 전년대비 16%가 증가된 423.3 $\%$, 식용유지는 전년대비 18.5%가 증가된

표 1-52

주요농산물소비

연도		65	66	67	68	69	70
구분		천%	천%	천%	천%	천%	천%
주요 곡물	계	7,950 (100.0)	7,835 (98.5)	8,757 (110.2)	9,163 (115.3)	9,661 (121.5)	10,274 (129.2)
	쌀	3,997	3,603 (Δ 9.9)	4,041 (12.2)	3,906 (3.4)	4,034 (3.3)	4,719 (17.0)
	보리	2,708	3,001 (10.8)	3,043 (1.3)	3,148 (3.5)	3,175 (0.9)	3,007 (Δ 5.3)
	밀	985	984 (Δ 0.1)	1,400 (42.2)	1,689 (20.7)	1,907 (12.9)	1,897 (Δ 0.5)
	콩	163	174 (6.7)	190 (9.1)	223 (17.3)	269 (20.6)	272 (1.1)
	옥수수	97	(Δ 24.8)	83 (13.7)	197 (138.5)	276 (40.0)	379 (37.3)
특 작 물	계	1,905.1 (100.0)	2,063.4 (108.3)	2,247.9 (118.0)	2,573.9 (135.1)	2,888.2 (151.6)	2,995.9 (157.3)
	채소	1,576.0	1,717.2 (8.9)	1,869.4 (8.9)	2,150.2 (15.0)	2,427.0 (12.9)	2,520.0 (3.8)
	과실	310.0	331.1 (6.8)	358.9 (8.4)	392.4 (9.3)	416.8 (6.2)	423.3 (16.0)
	식용유지	19.1	15.1 (Δ 26.2)	19.6 (29.8)	31.3 (59.6)	44.4 (41.8)	52.6 (18.5)

52.6%이 각각 소비되었다.

특용작물의 소비실적이 전년대비로 근소한 증가를 실현한 것은 채소 등의 국내생산이 전년보다 일반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른데 기인하는데, 이러한 공급의 경직성으로 인하여 특용작물의 가격수준은 크게 등귀되었다.

70년의 청과물 농가판매가격은 69년에 비하여 84.0%가 상승되었는데 이것은 상당한 강등세를 나타냈던 68~69년간의 등귀율 15.9% 보다 훨씬 높은 것이었다.

축산물의 소비는 공급능력이 최근에 와서 크게 신장된 우유의 소비가

구분			연도					
			65	66	67	68	69	70
축	육	계	천M _T 99.7 (100.0)	천M _T 149.5 (149.5)	천M _T 130.4 (130.8)	천M _T 133.9 (134.2)	천M _T 154.7 (154.4)	천M _T 164.6 (165.1)
		쇠고기	27.2	29.4 (8.1)	31.9 (8.5)	35.8 (9.1)	33.1 (△9.2)	37.3 (11.8)
		돼지고기	55.8	95.8 (70.8)	72.1 (△24.4)	61.7 (△14.4)	76.1 (23.3)	79.2 (4.1)
		닭고기	14.4	18.7 (29.8)	23.9 (27.8)	33.7 (41.0)	42.2 (25.2)	44.8 (6.2)
		류기타	2.3	5.6 (143.4)	2.5 (△55.4)	2.7 (8.0)	3.3 (22.2)	3.3 (10.0)
산	계	백만개 832.5 (100.0)	백만개 1,270.4 (152.5)	백만개 1,315.4 (158.3)	백만개 1,504.0 (180.7)	백만개 2,430.0 (291.1)	백만개 2,560.0 (307.5)	
	물	천M _T 8.6 (100.0)	천M _T 11.9 (138.3)	천M _T 17.0 (197.1)	천M _T 21.9 (254.7)	천M _T 31.7 (368.6)	천M _T 49.6 (576.7)	
잠	계	M _T 851 (100.0)	M _T 1,160 (126.5)	M _T 1,625 (191.0)	M _T 1,980 (232.7)	M _T 2,775 (326.3)	M _T 3,127 (367.5)	
	사	국내소비	222	223	397	322	227	160
	수출	629	854	1,124	1,444	2,447	2,746	
	재고		83	104	214	10.1	221	

- 주: 1. 계의 ()는 65년기준 지수이고 다른 ()는 전년비 증가율
 2. 우유 및 가공품수량은 농림부소관분만 제산함.
 3. 축산물 70년 숫자는 계획임.

가장 많이 증가되었으며, 수요변동에 대한 공급의 탄력도가 높은 달걀의 소비가 전년보다 증가되었고, 육류의 소비는 증가세가 둔화되었다.

육류의 총소비는 65년 수준 보다는 65.1%가 증가된 164.6천M_T에 이르렀는데 이것은 전년대비 6.7%가 증가된 것이다.

종류별로는 전년도에 도살의 제한조치로 인하여 공급이 줄어든 결과 가격등귀와 일시적 품귀 현상을 유발했던 쇠고기가 전년보다 11.8%가

늘어난 37.3천%이 소비되었고, 쇠고기의 공급신장에 따른 수요의 현재화에 따라 급격히 증가되었던, 돼지고기, 닭고기의 소비가 전년대비 4.1%, 6.2%의 완만한 증가를 나타내어 각각 79.2천%, 44.8천%씩 소비되었다.

계란의 소비는 전년보다는 5.4%가 증가되었고, 65년수준 보다는 3배가 증가된 2,560백만개가 소비되었으며, 우유 및 그 가공품은 원유로 환산하여 전년대비 56.5%가 증가되었고, 65년 수준보다는 5.8배가 늘어난 49.6천%이 소비되었다.

전반적으로 축산물의 수급도 공급의 비탄력성으로 가격이 등귀세를 나타냈는데, 축산물의 농가판매가격은 69~70년간 18.8%가 상승되었다.

잡사의 소비는 작년보다 350%이 늘어난 3,127%으로 증가되었는데, 주로 수출용이 많이 증가된 반면 국내소비는 감소되었다.

70년의 생사 수출량은 69년보다 299%이 증가된 2,746%으로 늘어났고, 국내소비는 69년보다 67%의 줄어든 160%으로 감소되었으며, 생산의 증가에 따라 재고량이 69년보다 118%이 많은 221%으로 증가되었다.

잡사의 국내소비가 계속 감소되고 있는 것은 견직물의 국내소비가 각종 화학섬유 공급의 증가로 인하여 크게 증가되지 못하는데 주된 원인이 있다.

이러한 농산물의 소비에 대한 공급은 채소와 축산물을 제외 하고는 대부분의 농산물의 도입증가를 통하여 이루어 졌다.

70미곡년도의 쌀, 보리, 밀, 콩, 옥수수등 주요 농산물은 69년의 생산이 68년 수준보다 높았기 때문에 생산공급이 69미곡년도보다 13.1%가 증가된 6,713천%으로 증가되므로서, 이월량이 전년보다 552천% 감소된 것을 반영하고도 이월량과 국내생산의 공급량이 전년보다 3% 증가된 8,159천%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수요증가에 따라 2,115천%이 도입되었다.

식용유지는 국내생산이 69년도와 거의 같은 23천% 수준에 머물렀기

때문에 도입량이 69년보다 8천% 증가된 29.5천%으로 늘어났다.

쇠고기의 생산공급은 비육우의 장려와 도살수의 증가를 통하여 69년보다 6천%이 증가되었고, 돼지고기는 1천%, 닭고기는 11천%이 각각

표 1-53 주 요 농 산 물 의 공 급

구 분		연 도	65	68	69	70
쌀	생 산		3,954 천%	3,603 천%	3,195 천%	4,090 천%
	이 월		43	87	84	88
	도 입		—	216	755	541
보 리 쌀	생 산		1,807	2,084	2,066	1,974
	이 월		830	958	1,042	1,033
	도 입		71	106	67	—
밀	생 산		300	345	366	357
	이 월		168	277	172	286
	도 입		496	1,026	1,369	1,254
콩	생 산		161	201	245	229
	이 월		—	5	—	7
	도 입		—	17	24	36
우 수 수	생 산		35	60	63	63
	이 월		—	6	39	32
	도 입		62 M _T	130 M _T	174 M _T	284 M _T
식 용 유 지	생 산		18,194	16,484	23,300	23,094
	도 입		97.8	14,389	21,140	29,516
쇠 고 기	생 산		27,261	35,809	33,133	39,401
돼 지 고 기	"		55,881	61,760	76,086	77,447
닭 고 기	"		14,458	33,696	42,251	53,696
난 류	"		855,786 천개	1,504,160 천개	2,362,417 천개	2,560,000 천개
우유및그제품	"		10,685 M _T	24,360 M _T	35,470 M _T	51,888 M _T
	도 입		58,604	75,600	50,400	73,364

- 주 : 1. 곡류는 미곡년도기준
 2. 축산물의 70년도는 계획(단, 우유 및 그제품제외)임
 3. 우유 및 그 제품 도입은 아동용 구호품임.

증가 공급되었다.

계란은 2억개가 증가된 2,560백만개가 생산되어 군납을 통한 외화 획득에 크게 기여하였다.

우유 및 그 제품은 우유의 국내생산에 의한 공급이 그 동안의 낙농진흥에 따라 69년보다 약 17천%이 증가되었으며, 도입은 일반 분유 도입의 금지조치가 취해지므로서 구호 및 아동급식용 73천%의 원조분유도입에 머물렀다.

2. 양곡수급

70미곡년도의 양곡수급의 특징은 국내공급이 전년보다 증가되었으나 수요 증가에는 미치지 못하여 도입이 계속 되었으며, 특히, 가격안정의 필요에 따라 소요물량을 확보하기 위한 도입량증가가 가세된 점과 소비자가 가격의 안정도모와 생산자수익의 보장을 위한 가격지지가 동시에 추진되므로서 정부가 결손을 부담하고 거래하는 2중곡가 제도가 부분적으로 확대 되었으며, 가격안정을 위한 물량조작이 유통조직의 개편에까지 확대되었고 곡가의 유지목표가 달성되는 속에서 추수기의 추곡수매가격이 이례적으로 인상된 점이다.

70미곡년도의 쌀 당년소비는 69년보다 11.4%가 증가된 4,394천%으로 국민 1인당 소비량은 69년의 127kg에서 138kg으로 증가되어 가장 많은 소비수준을 실현하였다.

쌀의 소비가 공급의 증가와 가격의 안정으로 크게 증가된데 영향을 받아 보리와 밀은 소비가 전년보다 감소되었다.

보리쌀의 70미곡년도 당년소비량은 1,880천%으로 69미곡년도의 소비량 2,140천%보다 12.2%가 감소되었는데, 식량용 소비는 69미곡년도와 거의 같은 수준인 1,499천%이 있으며, 가공수요는 69미곡년도 보다 20.8%가 감소된 155천%으로 크게 감소되었다.

밀의 70년 당년 소비도 69미곡년도와 비슷한 수준인 1,559천%이 있

단위 : 천원

연도별 주요 양곡 수요

표 1-54

구분	66			67			68			69			70							
	계	당년 소비	수출	이월	계	당년 소비	수출	이월	계	당년 소비	수출	이월	계	당년 소비	수출	이월				
환	3,603	3,531	63	9	4,041	3,954	—	87	3,906	3,822	—	84	4,034	3,946	—	88	4,719	4,394	—	325
보	3,001	1,874	—	1,127	3,043	2,085	—	958	3,148	2,106	—	1,042	3,175	2,140	—	1,033	3,007	1,880	—	1,127
리	—	1,419	—	—	—	1,328	—	—	—	1,341	—	—	—	1,456	—	—	—	1,499	—	—
쌀	—	227	—	—	—	537	—	—	—	496	—	—	—	382	—	—	—	155	—	—
	—	68	—	—	—	63	—	—	—	103	—	—	—	147	—	—	—	226	—	—
	—	160	—	—	—	157	—	—	—	166	—	—	—	155	—	—	—	—	—	—
민	984	816	—	168	1,400	1,123	—	277	1,689	1,517	—	172	1,907	1,621	—	286	1,897	1,559	—	338
	—	192	—	—	—	181	—	—	—	471	—	—	—	458	—	—	—	301	—	—
	—	596	—	—	—	911	—	—	—	987	—	—	—	1,069	—	—	—	1,158	—	—
	—	8	—	—	—	8	—	—	—	33	—	—	—	66	—	—	—	68	—	—
	—	20	—	—	—	23	—	—	—	26	—	—	—	28	—	—	—	32	—	—
공	174	174	—	—	190	190	—	—	223	223	—	—	269	269	—	—	272	266	—	6
	—	102	—	—	—	94	—	—	—	104	—	—	—	107	—	—	—	110	—	—
	—	41	—	—	—	63	—	—	—	88	—	—	—	129	—	—	—	101	—	—
	—	10	—	—	—	10	—	—	—	7	—	—	—	7	—	—	—	8	—	—
	—	21	—	—	—	23	—	—	—	24	—	—	—	26	—	—	—	47	—	—
육	73	73	—	—	83	77	—	6	197	158	—	39	276	246	—	30	379	335	—	44
	—	21	—	—	—	8	—	—	—	11	—	—	—	10	—	—	—	7	—	—
	—	36	—	—	—	30	—	—	—	11	—	—	—	17	—	—	—	59	—	—
	—	12	—	—	—	35	—	—	—	132	—	—	—	215	—	—	—	263	—	—
	—	4	—	—	—	4	—	—	—	4	—	—	—	4	—	—	—	6	—	—

자료 : 농림부 양정국

으며 식량용소비가 458천ㄲ에서 301천ㄲ으로 34.3%나 감소된데 반하여 가공용수요가 69미곡년도의 1,069천ㄲ에서 1,158천ㄲ으로 89천ㄲ이 증가되었다.

보리쌀과 밀의 당년소비감소에 따라 이월량은 각각 69미곡년도 보다 9.1%, 18.2%씩 증가된 1,127천ㄲ과 338천ㄲ으로 늘어났다.

콩의 당년소비는 69미곡년도 보다 3천ㄲ이 줄어든 266천ㄲ에 머물렀는데, 식량용 수요가 증가된데 반하여 가공용이 감소되었다. 옥수수의 소비는 69미곡년도 보다 37.3%가 증가되었는데 이것은 68, 69미곡년도의 증가 추세보다는 상당히 안정된 것이다.

옥수수의 70미곡년도 당년소비량은 335천ㄲ으로 69년의 당년 소비량 246천ㄲ보다 89천ㄲ이 늘어났는데, 식량용은 3천ㄲ이 감소된 반면 가공용이 42천ㄲ, 사료용이 48천ㄲ, 기타 2천ㄲ씩 각각 증가 되었다.

이러한 주요양곡의 소비에 대한 공급은 국내생산량 6,713천ㄲ, 전년도로 부터의 이월량 1,446천ㄲ과 도입량 2,115천ㄲ으로 충당되었다.

쌀은 69년산 미곡의 풍작으로 국내생산공급이 4,090천ㄲ으로 증가 되었고, 이월량 88천ㄲ과 도입량 541천ㄲ으로 공급하였는데, 도입량이 전년보다 감소된 것은 주로 국내생산공급량이 69미곡년도 보다 크게 늘어 난데 기인한다.

보리쌀의 국내생산공급은 1,974천ㄲ, 밀의 국내생산공급은 357천ㄲ, 콩의 국내생산공급은 229천ㄲ으로 모두 전년도보다 낮았으며, 옥수수는 전년도와 같은 수준인 63천ㄲ이 국내생산에 의하여 공급되었다.

이월량은 보리쌀이 1,033천ㄲ, 밀이 286천ㄲ, 콩이 7천ㄲ, 옥수수가 32천ㄲ으로 밀을 제외하고는 69미곡년도 보다 적었다. 도입량은 보리쌀은 도입이 없었으며, 밀의 도입은 1,254천ㄲ으로 전년보다 감소되었고, 옥수수의 도입은 284천ㄲ으로 69미곡년도 보다 증가되었고, 콩의 도입도 36천ㄲ으로 전년보다 증가되었다.

이와 같은 도입은 밀과 옥수수는 주로 실수요자측인 민간에서 도입하

였고, 쌀, 콩은 조절용의 필요에 따라 정부가 도입하였다.

즉, 민간에서는 밀 1,102천ㄲ, 옥수수 284천ㄲ으로 총 1385천ㄲ을 도입하였고 정부에서는 쌀 541천ㄲ, 원조분 밀 83천ㄲ, 콩 36천ㄲ, 원조분 밀가루 69천ㄲ으로 총 729천ㄲ을 도입하여, 총 도입량은 69미곡년도의 2,389천ㄲ 보다 감소된 2,115천ㄲ을 도입하였다.

표 1-55

70 미곡년도의 양곡도입

단위 : ㄲ

재원별	곡종별	쌀	잡			곡		합 계
			소 맥	소 맥 분	옥수수	대 두	소 계	
관 수	K. F. X.	19,800				36,291	36,291	56,091
	PL480# I	242,887						242,887
	PL480# II		45,781	37,446			83,227	83,227
	일본미대차	271,634						271,634
	일본기증	6,679						6,679
	캐나다 "		36,727				36,727	36,727
	서독 "			4,320			4,320	4,320
	W. F. P.			27,895			27,895	27,895
소 계	541,000	82,588	69,661		36,291	188,460	729,460	
민 수	PL480# II		733,266		130,567		863,833	863,833
	K. F. X.		353,562		119,603		473,165	473,165
	민간차관		14,993		33,430		48,423	48,423
	소 계		1,101,821		283,600		1,385,421	1,385,421
합	계	541,000	1,184,329	69,661	283,600	36,291	1,573,881	2,114,881

자료 : 농림부 양정국

양곡도입의 재원은 PL480# II 에 의한 도입이 감소됨에 따라서 대여와 차관에 의한 도입이 증가되었다.

이러한 수급을 통하여 주요곡물의 가격수준은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유

지하였는데, 69미곡년도에 비하여 쌀과 콩의 가격진폭이 축소된 반면 보리쌀의 가격진폭은 확대되었다.

쌀의 도매가격 월별진폭은 69미곡년도에는 11.2%이었던 것이 70미곡년도에는 7.2%로 줄어들었으며, 보리쌀은 69미곡년도의 11.6%에서 70미곡년도에는 23.9%로 확대되었고, 콩은 69미곡년도의 62.7%에서 20.2%로 줄어들었다.

밀가루의 가격은 고시가격이 그대로 유지되므로서 전년도와 같이 포대 당 708원 수준을 유지하였다.

콩의 가격진폭이 줄어든 것은 전년도의 심한 가격진폭에 대비하여 도입을 69미곡년도 보다 늘려서 조절용을 증가확보하고 식용유지의 도입을 늘려서 유지 수요에 대한 공급능력을 증대시킨데 연유되며, 쌀의 가격진폭이 줄어든 것은 70년산 추곡의 수매가격의 대폭인상과 단경기의 출회량 감소로 급격한 상승세를 나타낼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비하여 정부미를 무제한 증량 방출한 결과 가격이 안정된데 기인하고, 보리쌀의 가격진폭이 늘어난 것은 70미곡년도의 보리쌀 절대량공급이 3,007천 $\%$ 으로 69미곡년도보다 168천 $\%$ 이 감소된데서 결과되었다.

곡물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70년도에는 조절양곡의 판매조직을 계열화 하였고 방출지역을 46개도시로 확대하였으며, 조절양곡의 방출은 소비자미가의 안정유지를 위하여 판매원가보다 싼값으로 판매하였다.

조절양곡의 유통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조절양곡판매 대행기관으로하여 농협이 직접 직매장을 개설하고 소비자에게 양곡을 정부가 지정한 가격으로 팔도록 하는 한편, 등록된 소매상에 한해서 조절양곡을 공급하고 정부로부터 매수한 가격에 80kg 가마당 300원 이하의 마진을 첨가하여 팔도록 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서울을 중심으로 실시하였는데 농협직매장의 수적인 분포가 적고 등록소매상이 정부미와 일반미를 혼합판매하므로서 정부미의 재도정을 통한 일반미로의 판매, 일반미와 정부미의 가격 2원화 등

표 1-56

주요 곡물 도매 가격 월별 변동

단위: 원, %

곡종	월		11	12	1	2	3	4	5	6	7	8	9	10	진폭	
	가격추세	별														
쌀	64~68 (평균)	{가 변동폭	3,130	3,127	3,242	3,469	3,455	3,619	3,845	3,977	3,852	3,891	3,831	3,719	3,719	26.1
			100	99.9	103.5	110.8	110.3	115.6	122.8	127.0	123.0	124.3	122.5	118.8	118.8	
			4,953	4,655	5,054	5,112	5,054	5,034	5,108	5,176	5,168	5,158	5,159	5,161	5,161	11.2
보리쌀	64~68 (평균)	{가 변동폭	5,158	5,333	5,358	5,457	5,447	5,498	5,528	5,474	5,428	5,442	5,422	5,451	5,451	7.2
			100	103.4	103.9	105.8	105.6	106.6	107.2	106.1	105.2	105.1	105.7	105.7	105.7	
			2,306	2,384	2,410	2,566	2,617	2,606	2,657	2,336	2,188	2,184	2,195	2,277	2,277	20.9
콩	64~68 (평균)	{가 변동폭	2,700	2,755	2,833	2,835	2,650	2,683	2,580	2,541	2,584	2,624	2,636	2,629	2,629	11.6
			100	102.0	104.9	105.0	98.1	99.3	95.5	94.1	95.7	96.8	97.6	97.3	97.3	
			2,742	2,708	2,855	2,878	2,882	2,941	2,992	2,979	2,969	3,026	3,302	3,302	3,337	23.9
밀가루	64~68 (평균)	{가 변동폭	3,317	3,347	3,489	3,857	3,894	4,043	4,186	3,967	3,824	3,974	4,027	3,595	3,595	26.2
			100	100.9	105.2	116.3	117.4	121.9	120.2	119.6	115.3	118.9	121.4	108.4	108.4	
			3,384	3,085	3,021	3,140	3,207	3,122	3,223	3,369	3,826	4,083	4,856	4,916	4,916	62.7
밀가루	64~68 (평균)	{가 변동폭	4,795	4,975	5,293	5,920	5,958	5,752	5,740	5,752	5,828	5,978	6,582	5,455	5,455	20.2
			100	103.8	110.4	123.5	124.3	120.0	119.7	119.9	121.5	124.7	137.3	113.8	113.8	
			624	618	626	634	645	674	678	699	761	749	753	752	752	22.9
밀가루	64~68 (평균)	{가 변동폭	708	708	708	708	708	708	708	708	708	708	708	708	708	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708	708	708	708	708	708	708	708	708	708	708	708	708	708

자료: 농림부 양정국

일부 절차상 부작용이 없지 않았으나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70미곡년도의 정부미 방출량은 5,199천석으로 69미곡년도와는 달리 출회기인 11, 12월에도 방출을 계속하였다.

방출지역중 서울시에 있어서 시기별 방출량 변동은 표1-58에서와 같이 소비가격이 미등세를 나타내기 시작한 70년 2월부터 늘리기 시작하여 3~5월동안 200천가마 미만수준에서 750천가마 수준까지 급격히 증가시켰다.

이결과 상반기의 쌀도매가격은 극히 미미한 변동을 나타낸 이외에는 일정한 안정상태에서 곡가유지목표를 압박하지 않았는데, 일반미 소매가격은 8월에 6,500원선을 넘어섰다.

이에 대응하여 9월중에는 쌀의 방출량을 크게 늘려서 한달동안에 1,009천가마(1일 평균 33.6천가마) 방출하였는데, 이 성과로 9월에 가마당 7,050원까지 올라갔던 쌀값이 10월에는 6,500원으로 안정되었다.

이와 같은 정부의 곡가조절기능의 확대에 따라 정부의 보유조절양곡량이 크게 늘어났고 전체 유통량중에서 조절양곡이 점하는 비중과 영향력이 증대되었을 뿐아니라 정부의 관리 조작비용부담이 늘어났다.

특히, 가격의 평준화시책이 연중의 가격진폭을 극소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정부의 방출가격은 판매원가보다 낮게 유지되므로

70 미곡년도의 양곡판매 결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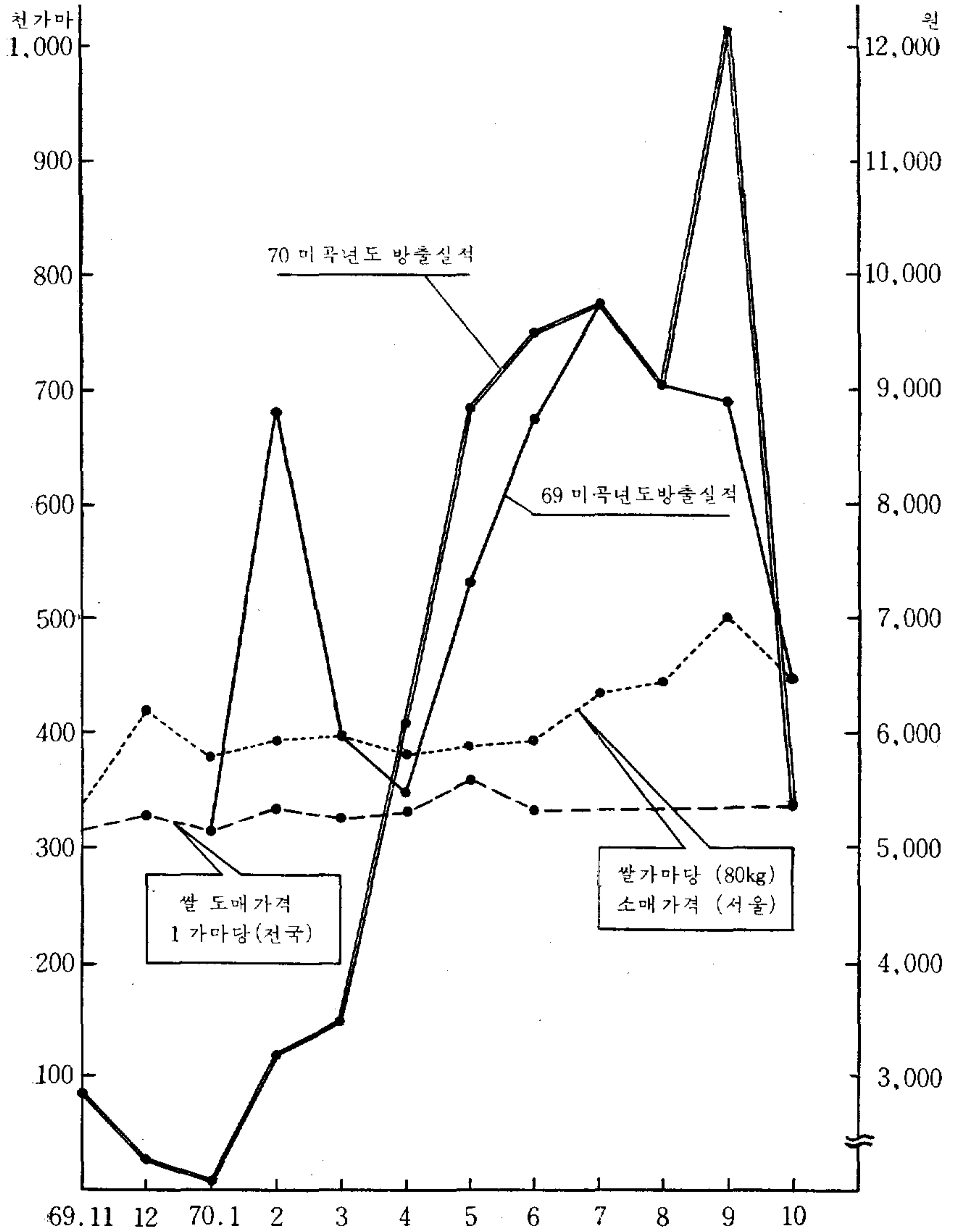
표 1-57

곡종	매입가격	판매원가	방출가격	가마당결손	방출량	결손총액
보리쌀	3,348 ^원	3,787 ^원	2,750 ^원	1,037 ^원	1,114 ^{천석}	22 ^{억원}
쌀보리쌀	2,827	3,366	2,200	1,166	—	—
쌀	5,150	5,728	5,400	328	1,500	9
계	—	—	—	—	—	31

자료: 농림부 양정국

표 1-58

쌀값안정과 정부미방출(서울)



자료 : 방출량 · 농협시장조사
가 격 · 한국은행 지역경제 통계

서 결과적으로 부분적이며 점진적인 2중곡가제도가 형성되었다.

70미곡년도에 쌀과 보리쌀의 조절을 통해서 생긴 정부의 결손은 표 1-57과 같이 31억원에 이르렀다.

3. 가격관리에 따른 농산물가격상승

근년에 와서 농업생산 의욕을 증진시키고 농업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한 가격지지정책이 실시되면서부터 정책적인 가격관리가 가격상승의 새로운 요인으로 대두되었다.

종래에는 농산품이 생활의 기본적인 필수품으로서 수요가 주년화 되어 있을뿐 아니라 소득의 향상과 인구의 증가에 따라 절대량이 늘어난 결과 전체 물동량 가운데 점하는 비중이 컸고, 도시의 소비생활에 대한 영향력도 컸기때문에 농산물가격은 대체로 경제안정을 위한 저물가정책의 주된 대상이 되어왔다.

그러나 최근에와서는 소비생활이 다양해지고 경제의 물동량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에 전체 유통물량이나 가계의 소비지출중에서 농산물이 점하는 비중이 줄어든데 더하여, 소비수요의 급격한 증가에 대응하는 충분한 물량의 공급과 도시·농촌간에 발생한 격차의 시정을 위해서 농산물가격이 지지되어야 할 필요가 증대되었기 때문에 고미가정책등 농산물가격지지정책이 실시되게 되었다.

70년의 농산물가격 변동은 이러한 영향을 받아서 주요곡물의 가격이 생산기 이전에는 저물가정책에 따라 안정수준을 유지하였다가 생산기를 통한 정부수매가격의 인상으로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므로써 연말대비 또는 연평균 수준대비로는 농산물가격이 크게 등귀하였다.

한편, 이러한 가격지지에서 제외된 농산물들 가운데 콩, 고추 등과 같이 수요증가가 현저했던 품목들에 있어서는 도입에 의한 물량공급의 증대에도 불구하고 수급의 경직화에 따라 가격이 강등세를 실현하였다.

70년도에 쌀가격은 연평균 수준으로 69년에 비하여 9.6%가 상승하였고, 연말대비로는 24.1%가 상승하였는데, 이러한 등귀는 주로 11월에 취해진 추곡수매가격의 전년대비 35.9%라는 대폭인상에서 결과되었다.

쌀값이 대폭인상되게된 것은 미곡수입이 농업수입의 50%선을 점하고 있는 현금의 실정에서는 쌀값인상이 가장 많은 소득증대 효과를 나타낼 수 있고, 증가되는 쌀수요를 국내생산으로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증산 속도를 가속시켜야 하는데 이를 위한 각종 기술혁신은 적극적인 증산유인으로서 가격지지가 결여되고서는 크게 촉진될 수 없다는데 있었다.

이에 따라 70년의 추곡 정부수매가격은 쌀 2등급 1가마(80kg)당 가격을 70년중을 통하여 가장 높았던 9월의 평균 소매가격(서울) 7,050원과 비슷한 수준인 7,000원으로 결정하므로써 수매가격의 적극적인 현실화를 기하였다.

추곡수매가격의 인상이 가저을 가격등귀요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가마당 5,400원으로 정부보유미를 소비지에 계속 방출하였고, 농민들에 대한 가격지급을 가마당 6,319원은 현금으로 681원은 요소비료 1포대로 현물 지급하였는데,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70년 1/4분기에 2.1%, 3/4분기에는 전기말대비 0.9%가 하락되었던 쌀 값이 4/4분기에는 전기말대비 22.0%나 등귀하였다.

이러한 가격동향은 생산기의 가격인상이전의 시기에는 가격안정을 위하여 외곡의 도입으로 공급을 늘려 정부보유미를 연중 동일수준가격으로 판매하고 직매장설치, 등록소매상 관리등의 안정화 조치를 강구하므로써 이에 따른 제반 비용을 부담하였고, 생산기에는 이와는 달리 가격의 등귀를 선도하므로써 정부가 가격관리에서 2중적인 부담을 가지는 속에서 이루어졌다.

전년보다 48.1%의 높은 가격등귀를 나타낸 두류는 연말대비로는 13.9%밖에 상승하지 않았는데, 이러한 현상도 도입에 의해 확보한 물량을

표 1-59

농 산 식 료 품

	도매물가총지수		식료품		농 산					
	지 수	증가율	지 수	증가율	평 균		미 곡		백 류	
					지 수	증가율	지 수	증가율	지 수	증가율
68	125.2		129.2		136.7		133.0		119.2	
69	133.7	6.8	146.8	13.6	156.8	14.7	159.4	19.9	125.4	5.2
70	145.9	9.1	166.2	13.2	175.7	12.1	174.7	9.6	135.6	8.1
(69.12)	(137.5)	1.6	(155.4)		(161.2)		(165.4)		(126.0)	
70.1	139.7	1.6	157.2	1.2	163.6	1.5	166.2	0.5	125.5	-0.4
2	141.9	1.6	160.9	2.4	168.9	3.2	163.9	1.9	126.4	0.7
3	143.4	1.1	161.1	0.4	170.0	0.7	169.0	-0.2	126.8	0.3
4	144.8	1.0	162.7	0.7	172.4	1.4	170.5	0.9	128.9	1.7
5	145.8	0.7	165.1	1.5	176.1	2.2	171.5	0.6	130.4	1.2
6	145.6	-0.1	164.7	-0.2	175.4	-0.4	169.8	-1.0	129.7	-0.5
7	145.5	-0.1	164.5	-0.1	173.6	-1.0	168.4	-0.9	129.3	-0.3
8	145.8	0.2	165.6	0.7	176.1	1.4	168.8	0.2	131.5	1.7
9	146.7	0.6	166.6	0.6	172.3	-2.1	168.2	-0.4	142.4	8.3
10	147.5	0.6	165.5	-0.7	190.5	10.6	169.1	0.5	144.6	1.5
11	151.4	2.6	178.3	7.7	190.5	0.0	199.8	18.8	150.1	3.8
12	152.6	0.8	182.2	2.2	195.9	2.8	205.2	2.7	161.6	7.7
70.1/4		4.3		4.0		5.5		2.2		0.6
2/4		1.5		1.9		3.2		0.5		2.3
3/4		0.8		1.2		-1.8		-0.4		9.8
4/4		4.0		9.4		13.7		22.0		13.5

자료 : 농협중앙회, 농협조사월보 1971. 7.

가격의 변동에 따라 조절공급한 결과 1/4분기에는 전기말 대비 19.8%가 상승하고, 2/4분기에는 기말 대비 3.5%의 하락을 나타냈다가 3/4분기에는 다시 기말 대비 14.4%가 상승하였으며, 4/4분기에는 다시 13.9% 하락 하므로서 연유되었다.

가 격 지 수

식 료 품									
잡 목		두 류		서 류		축 산 물		과 실 류	
지 수	증가율	지 수	증가율	지 수	증가율	지 수	증가율	지 수	증가율
123.9		106.8		132.0		170.1		114.3	
137.1	10.6	118.5	11.0	144.9	9.8	183.1	7.6	132.2	51.7
155.4	13.4	175.5	48.1	183.9	26.9	204.3	11.6	159.9	21.0
(139.8)		(149.1)		(137.6)		(190.2)		(121.2)	
141.7	1.4	157.7	5.8	149.3	8.5	192.5	1.2	131.9	8.8
146.2	2.2	173.9	10.3	173.7	16.3	199.0	3.4	140.2	6.3
150.0	2.6	175.8	1.1	184.7	6.3	199.8	0.4	145.3	3.6
151.1	0.7	171.9	-2.2	200.2	8.4	200.5	0.4	153.3	5.6
150.6	-0.3	173.5	0.9	223.0	14.4	204.5	2.0	169.3	10.4
150.2	-0.3	175.5	1.2	220.2	-1.3	204.9	0.2	175.0	3.4
152.6	1.6	180.0	2.6	205.0	-6.9	203.7	-0.6	175.0	0.0
156.9	2.8	187.4	2.4	204.1	-0.4	201.0	-1.3	175.0	0.0
161.3	2.8	199.3	8.1	191.0	-6.4	212.0	5.5	175.0	0.0
164.7	2.1	167.1	-13.4	146.9	-23.1	212.4	0.2	152.1	-13.1
169.4	2.9	172.2	3.1	148.9	1.4	210.9	-0.7	159.3	4.7
169.9	0.3	174.7	1.5	160.2	7.6	210.6	-0.1	168.0	5.5
	7.3		17.9		34.2		5.1		19.8
	0.1		-0.2		16.2		2.6		20.5
	7.4		13.6		86.8		3.5		0.0
	5.3		-12.4		83.8		-0.7		-4.0

맥류는 쌀의 공급량이 많았던 1/4분기에는 수요가 감퇴하므로서 6.4% 밖에 가격이 상승하지 않았는데, 시장 출회량이 줄고 쌀 출회량 역시 감소된 3/4분기에는 10.8%, 당년산 하곡 출회량이 적어지고 쌀값이 등귀된 4/4분기에는 13.1%의 가격등귀를 나타냈다.

이러한 특징을 보인 농산품의 가격변동이 전체 물가수준에 준 영향은

표 1-60

농산물 가격과 물가

구분	가중치	65~68 연평균		68~69		69~70	
		증감율	기여율	증감율	기여율	증감율	기여율
총지수	1,000.0	7.8	100.0	6.8	100.0	9.1	100.0
식료품	276.2	8.9	31.43	13.6	55.48	13.2	45.1
농산식료품	186.6	10.9	26.01	14.7	40.45	12.1	33.0
미곡	105.0	10.0	13.47	19.9	30.74	9.6	5.5
맥류	19.4	6.0	1.49	5.2	1.48	8.1	6.73
잡곡	1.7	7.1	0.16	10.7	0.27	13.4	0.25
두류	4.5	2.2	0.13	11.0	0.73	48.1	0.23
서류	10.9	9.7	1.35	9.8	1.57	26.9	3.22
축산물	34.8	19.4	8.65	7.7	3.96	11.6	4.43
과실류	10.3	4.5	0.59	15.7	2.38	21.6	2.38

자료 : 한국은행 통계월보 제24권 2호

주 : 총지수는 전국도매물가 총지수이며 65~68 연평균 증감율은 복리증가율이고, 증가율 계산은 도매물가 지수기준 환산한 것임.

상대적으로 컸다.

70년 전국도매물가의 상승은 9.1%이었는데, 농산식료품은 전년 보다 13.2%가 등귀되므로서 전체물가수준의 등귀에 대하여 33.0%에 해당하는 3.0%포인트의 기여를 하였다.

품목별로는 가장 비중이 큰 쌀이 전년대비 9.5%의 가격등귀를 나타냈기 때문에 전체물가수준의 등귀에 대하여 5.5%에 해당하는 0.53%포인트의 기여를 하였다.

4. 농수산물 수출

총수출은 65년 180백만\$에서 70년에는 1,004백만\$로 5.6배가 증가되었으며, 69년~70년간 42.8%가 신장되었다.

이중 농수산물수출의 비중은 68년 31.7%, 66년 28.8%에서 70년

26.3%로 수출구조면에서 점하는 비중은 감소경향을 나타내고 있으나, 그 절대액은 68년의 158,031천\$에서 69년에는 202,135천\$로 전년대비 27.9%, 70년에는 264,171천\$로 전년대비 67.1%가 증가되어 가득액이 많은 농수물의 수출증대가 국제수지개선 큰기여를 하고있다.

가. 농축산물 수출

농산물 수출은 65년을 기준으로 할때 69년에는 2.8배, 70년에는 4.6배

표 1-61 농수산물수출실적 단위:천\$

년 도	65	66	67	68	69	70
총 수출액 (A)	180,450	255,751	358,592	500,408	702,811	1,003,80
농수산물수출액 (B)	64,652	100,453	128,454	158,031	202,135	264,171
농수산물의증가율	100	155.2	198.7	244.4	312.6	408.6
B/A (%)	35.8	39.2	35.8	31.7	28.8	26.3
농 축 산 물	15,301	24,927	26,751	29,141	40,678	64,289
농 산 통 조 립	8	335	568	401	1,624	3,436
생 사 류	8,312	13,232	21,963	24,745	31,286	50,895
축 산 물	1,746	1,752	1,702	1,631	2,815	1,843
기 타	5,335	9,608	2,510	2,364	4,953	8,115
입 산 물	20,859	33,490	44,204	71,567	87,541	109,830
합 관	19,055	30,683	41,404	67,408	81,758	102,395
표고및기타버섯	309	342	506	594	929	1,411
기 타	1,495	2,465	2,294	2,747	4,854	6,024
수 산 물	28,492	42,036	57,499	57,323	73,916	90,052
활 선 어	7,389	6,967	6,721	7,232	6,764	11,353
참 치	2,404	7,917	11,969	15,559	24,072	37,663
해 태	3,781	6,838	14,371	17,054	21,721	11,592
기 타	14,918	20,314	24,834	17,478	21,359	29,444

자료: 농림부 수출진흥관실

로 각각 증가되었다.

이는 생사와 양송이, 과일, 통조림등의 수출이 새로운 수출시장의 개척, 생산기반 확대조성과 기술향상에 따른 생산증가, 가공시설의 확충 등에 따라 크게 늘어난데 주로 기인되었다.

특히, 농산물의 수출증대를 위하여 수출에 따른 결손보상방안으로 링크수입제를 실시하였으며 D/A 수입비율은 농수산물의 경우 가득율이 높은 점을 반영하여 수출실적의 50%까지 인상했고 과당경쟁을 방지하는 등 지원을 강화하였다.

주요품목별로는 곡물 및 그 제품은 메밀 등 잡곡의 대일본수출을 제외하고는 국내 수요증가로 수출의 절대액이 감소되었다.

특용작물 과실채소류의 제품 및 가공품의 수출은 68년에 비하여 약 9배가 증가되었는데 이는 서독, 미국, 일본등의 시장에서 수요가 증가된 데서 연유되었다.

생사류 수출은 50.9백만\$로서 69년보다 63%가 증가하였고, 농축산물 총수출액의 82%를 점하여 계속 농·축산물 수출에 있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생사류 수출이 이와같이 증가하고 있는것은 생산기반 조성에 의한 생산증가와 아울러 주요 경쟁국인 일본이 종전의 수출국으로 부터 수입국으로 전환한데 기인되고 있다.

생사의 주된 수출 대상국은 일본, 미국, 서독의 순위로서 일본과 미국이 큰 비중을 점하고 있는데, 최근 중공생사의 대량진출과 미국의 섬유류 수입금지조치의 강구에 따라 앞으로는 시장을 다변화하고 생산비 절감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이루어야 할것이 요구되고 있다.

축산부문의 수출은 69년수준에 비해서 34.5%가 감소되었는데 이것은 돼지고기의 국내가격 등귀와 주수출 대상국인 일본에서의 돼지고기가격 하락이 동시에 발생한 결과 수출이 격감된데 기인한다.

나. 임산물 수출

농수산물 총수출액중 임산물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65년의 32%에서 70년에는 42%로 확대되었다.

이는 임산물 수출액의 90%이상을 차지하는 합판의 수출이 급격하게 증가해온데 기인한다. 합판수출은 65년에 19,055천\$이던 것이 70년에는 102,395천\$로 증가되어 5년만에 약 5.4배의 수출신장을 이룩하므로서 우리나라 전수출상품중 단일품목으로서는 제 1위를 점하게 되었다.

합판은 대부분이 미국으로 수출되고 있으나 70년도 부터는 구라파, 북미, 일본등으로 수출시장이 다변화되고 있다.

합판생산을 늘리고 수출을 신장하기 위해서 국내임산자원이 충분히 축적되기전에는 해외임지를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원목을 원활히 공급하여야만 하는데, 현재 합판원료로 공급되는 활엽수재의 주된 공급원인 인도네시아(카리만탄지역), 마레이시아(사라와크), 파프아, 뉴기니아 등이 최근에 와서 목재 가공업 육성책을 강화하고 있기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이들로부터의 원목확보가 어려울것이 예상되고 원목 수입가격도 상승하고 있기때문에 개발지역을 확대하여 원목 공급원을 장기적으로 확보해야 할것이 요청되고 있다.

갈포벽지 수출은 65년에 1,458천\$, 69년에 2,500천\$, 70년에 3,000천\$로서 65~70년간 수출액이 2배나 증가되었다. 이와같이 갈포벽지 수출이 수년간 급속히 증가된 것은 타벽지에 비하여 내구성과 보존상태가 우수한데다가 자연적인 색감이 외국인의 고급벽지 수요 및 기호에 적합한 점과 갈포벽지 주원료인 갈저 및 갈포의 대일 수출억제조치와 갈포 가공업 육성을 통하여 종래 일본이 지배하고 있던 수출시장인 미국, 일본, 서독, 영국, 홍콩등지에 우리나라 상품을 수출하게 되는데 기인한다.

다. 수산물 수출

수산물의 수출은 69년에는 73,916천\$, 70년에는 90,052천\$로 증가하였다. 품목별로는 활선어, 해태, 참치등이 전체 수출액의 7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 주요품목의 수출은 69년에는 참치 24,072천\$, 활선어 6,764천\$, 해태 21,721천\$이던것이 70년에는 각각 37,663천\$, 11,353천\$, 11,592천\$로 변동하였다.

70년도 해태수출이 전년보다 46.4%가 감소된 것은 수출대상국인 일본의 해태생산 풍작과 대일수출 가격인하 및 쿼터제 실시에 따른 일본의 수입제한 조치에 원인이 있다.

대상국별 수산물 수출은 연근해 어업의 어획인 활선어, 해태등은 일본으로 원양어업의 어획인 참치는 미국으로 대부분이 수출되어 이들 양국에 수출된 것이 전체 수산물 수출액의 80%를 점하고 있다.

또한, 63년에 처녀수출된 어망은 6년이 경과된 69년에는 5,969천\$로 증가되었으며, 70년에는 7,313천\$로 전년보다 22.5%가 증가되었다.

이와같이 매년 수산물 수출액이 급격히 증가되고 있는 것은 어획물의 생산증대, 집하체계의 개선, 품질의 고급화, 수출창구의 조정, 다각적인 시장개척, 신규상품에 대한 시장개발등에 기인한다.

제 8 장 농촌물가와 임료금

1. 향상된 농가 판매가격 조건

농가의 판매가격수준은 근래에 들어와서 농산물의 시장수요가 증가되어왔고 정책적인 가격지지가 강화되므로서 향상되어 왔는데, 70년에는 연도말의 쌀수매가격 인상과 김장채소의 생산부진으로 인한 가격등기, 축산물의 수급 경직화로 인한 가격등기에 영향을 받아 전년대비 17.92%의 높은 상승율을 실현하였다.

쌀의 농가판매가격은 중품 1가마(80kg)당 연평균 6,000원으로 69년보다 565원이 상승하여 전년대비 12.43%의 증가를 나타냈는데, 연말대비로는 70년말의 가마당 가격이 6,640원으로서 69년말의 5,409원보다 22.7%가 등기하였다.

쌀의 농가판매가격이 연평균 수준보다 연말대비 수준이 훨씬 높은 가격상승을 실현한 것은 연중을 통하여 주요 도시에 정부보유미가 계속 방출되어 왔기 때문에 상반기의 쌀 농가판매가격이 약 8%에 불과한 가격변동 밖에 실현하지 못한데 있다.

농가의 쌀판매가격이 등기되기 시작한 것은 농촌지역 자체내에서도 쌀의 구입수요가 증가되고 전년산 재고가 크게 줄어들어서 농가의 출회량이 절대량수준에서 적어진 3/4분기 이후의 현상이다. 1/4분기와 2/4분기를 통한 연도상반기중의 판매가격 상승폭이 5,471원에서 5,903원으로, 6개월간에 432원이 상승했음에 비하여 7~9월간에는 3개월동안에 6,072원에서 6,404원으로 332원이 상승하였다.

4/4분기에 들어가서는 9월중의 정부미 방출량이 많아서 주요도시에서의 소매가격이 하락한데 영향을 받아 분기초인 10월에는 전월보다 118원

표 1-62

농가 판매가격지수의 변동과 품목별 기여도

구	분	가 중 치	65~68 연평균		69/68		70/69	
			증감율	기여율	증감율	기여율	증감율	기여율
총	지 수	1,000.00	12.5	100.0	14.13	100.0	17.92	100.0
곡	물	635.95	10.1	51.60	21.63	94.63	12.43	42.2
미	곡	498.90	11.0	44.10	24.43	83.32	10.14	25.3
백	류	64.28	6.7	3.60	17.60	8.02	11.97	3.8
잡	곡	10.66	8.9	0.65	7.30	0.55	11.25	0.6
두	류	37.92	3.7	1.21	5.03	1.35	56.63	10.7
서	류	24.19	9.5	2.04	8.09	1.39	14.89	1.8
청	과 물	62.16	5.3	2.80	15.85	6.58	84.02	27.9
채	소	51.51	2.4	1.02	12.10	4.41	103.00	27.2
과	실	10.65	14.4	1.78	28.75	2.17	12.07	0.7
축	잡 류	232.43	22.2	42.60	△2.14	△6.48	18.26	22.7
축	산 물	223.86	22.4	41.13	△2.30	△6.68	18.76	22.4
잡	견	8.57	16.0	1.47	3.24	0.20	4.92	0.3
기	타	69.46	3.4	3.00	20.31	5.27	19.29	7.2
특	용 작 물	41.00	0.00	0.00	17.35	0.00	15.13	3.4
벼	짚 및 가공 품	11.29	13.9	1.27	33.69	2.69	20.98	1.3
임	산 물	17.17	3.8	1.73	15.04	2.58	26.38	2.5

자료: 농협중앙회 농협조사월보 71. 7.

주: 두류 68지수는 67, 68의 평균치 사용

이 떨어졌고 11월에는 정부수매가격의 인상에 따라 6,474원으로 12월에는 다시 6,640원으로 상승하였다.

이와 같이 70년도의 쌀 농가판매가격이 나타낸 특징은 정부미의 소비지에 대한 집중적 방출에 따라 월간 등귀는 극히 미미하였으나, 절대액 수준은 전국 도매가격의 평균수준보다 높은 수준에서 형성되었고, 농가 재고의 감소에 따른 물량감소에 따라 내재된 가격등귀의 압력이 수매가격인상으로 현재화한 점이다.

청과물은 수요의 증가가 현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무우, 배추 등 김

장채소의 생산이 발아기를 통한 기후조건에 불순에 기하여 전년보다 낮은 수준으로 떨어진 결과 수급이 경직화되므로써 가격이 크게 등귀하여 전년대비 84.02%의 상승율을 실현하였다.

가을 무우의 가격은 중품 1관이 10월에 78원, 11월에는 75원 했던것이 12월에는 115원으로 급등하므로써 연평균 가격수준이 전년대비 63.8%의 등귀를 나타냈고, 배추값은 중품 1관이 9월에는 62원, 11월에는 88원 하던것이 12월에는 164원으로 등귀되어 연평균 가격수준이 전년보다 77.1% 상승하였다.

무우, 배추 이외에도 파값이 관당 69년에는 66원이었던 것이 170원으로 157.6%, 고추값이 마른고추 관당 69년에는 1,147원 하던 것이 2,829원으로 각기 등귀되므로써 전반적으로 채소의 농가판매가격수준은 전년 대비 103.0% 등귀를 실현하였다.

채소판매가격의 이러한 등귀와는 대조적으로 과실가격은 전년도 재고의 이월과 당년생산이 전년수준을 상회한 결과 수급에 큰 차질이 없어서 전년대비 12.07%의 상승에 머무름으로써 68~69 년간의 등귀세보다 둔화되었다.

축산물은 69년에 전년대비 하락세를 실현하였던 한우, 육계, 육돈, 말등의 가격과 미등세를 나타냈던 계란값이 70년에는 다시 등귀되기 시작하여 전반적으로 69년대비 18.76%의 가격상승을 실현하였다.

이와 같은 가격상승은 68년의 쇠고기값 파동과 소등 대가축의 연말수감소에 따라 쇠고기값 상한조치가 폐지되고, 대가축의 도살이 제한된 결과 68년에 주요 가축의 가격이 강등세를 나타낸데 비하여 69년에는 이러한 추세가 돼지, 닭 등의 공급신장으로 크게 완화되었던 것이 수요의 증가에 비한 공급증대 속도의 상대적 둔화로 다시 상승한데 기인한다.

이와 같이 70년의 농가판매가격수준 향상은 주로 청과물, 축산물등 수요의 소득탄력성이 상대적으로 큰 품목들의 공급경직화에 따라 등귀되었는데 전체 가격 수준의 상승에 대한 기여는 축산물이 22.4%에 해당

하는 4.0% 포인트, 청과물이 27.9%에 해당하는 5.0% 포인트, 곡물이 42.2%에 해당하는 7.6% 포인트의 기여를 하였는데, 비중이 가장 큰 미곡의 기여도는 25.3%에 해당하는 4.5% 포인트로 상대적으로 적은 수준에 머무름으로써 정책적 가격관리에 따른 가격지지 효과가 수급기구의 자동조절 작용에 의한 가격의 등귀를 뒤따르지 못하였다.

농가판매가격수준의 이같은 등귀에 따라 농가교역조건은 개선되었고 70년의 농업소득이 실물생산면의 감소에 불구하고 실질수준의 증가를 나타내었다.

2. 상대적으로 둔화된 농가구입가격 상승

70년도의 농가 구입가격은 전년도의 상승율 9.85%보다는 높은 15.15%의 가격등귀를 나타냈으나 농가판매가격수준의 등귀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등귀율이 둔화되었다.

농가구입가격의 등귀에서 품목별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나타낸 것은 예년과 같이 농촌임료금으로써 전년대비 25.89%의 등귀를 실현하였는데 특히 비농업용임금의 등귀는 31.29%로 가장 높이 상승하였다.

가계용품 가격은 전반적으로 14.15%가 등귀하여 68~69년간의 등귀율 8.58%보다 훨씬 높이 등귀되었는데, 잡품의 가격이 26.61%로 가장 많이 상승하였다.

농업용품의 가격은 정책적인 가격보조가 많이 실시된 비료, 농약, 사료등 품목들의 가격은 미등 내지는 하락을 실현하였음에 비하여 가축, 종자류 등과 발동기, 양수기, 동력탈곡기등 원자재가격 등귀의 영향을 받은 농기구류의 가격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전년대비 12.20%의 상승을 실현하여 68~69년간의 등귀율 6.30%보다 높은 가격 상승을 실현하였다.

표 1-63

농가 구입가격지수의 변동과 품목별 기여도

구분	가중치	65~68 연평균		69/68		70/69	
		증감율	기여율	증감율	기여율	증감율	기여율
총지수	1,000.00	15.0	100.0	9.85	100.0	15.15	100.0
농업용품	245.86	17.8	29.03	6.30	20.52	12.20	19.9
비료	114.40	△34	△2.59	7.22	8.47	3.32	2.5
농약	8.49	4.4	0.25	1.06	0.10	△4.52	△0.3
농기구	13.50	11.5	1.03	7.30	1.00	15.75	1.4
가축사료	88.58	41.3	24.39	4.20	3.78	15.44	9.1
사료	7.37	17.7	0.87	10.18	0.76	△5.46	△0.3
가계용품	631.36	13.4	56.40	8.58	51.18	14.15	59.1
음식품	246.24	12.9	21.18	11.95	29.90	15.35	25.0
피복 및 섬유	151.68	11.3	11.43	4.71	7.25	4.71	4.7
잡품	164.18	16.0	17.51	7.69	12.82	26.61	28.9
농촌임금	122.78	17.8	14.57	22.40	28.30	25.89	21.0
농업노동임금	81.00	21.3	11.50	21.37	17.80	24.49	13.1
기타임금	10.76	19.6	1.41	24.34	2.65	31.29	2.2
농업용요금	25.99	4.8	0.83	25.26	6.67	28.37	3.2

자료 : 한국은행 통계월보 제24권 5호

주 : 65~68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복리증가율임

각종 농가 구입 가격의 등귀가 69년에 비할 때 높은 증가를 나타낸 것은 70년의 소비자 물가 상승이 69년 보다 현저히 높았던 일반적인 경제의 동향에 영향을 받은 것이다. 분기별로는 1/4분기의 기말대비 상승율이 7.0%로서 가장 높았는데 이것은 연말과 구정을 통한 물가상승으로 가계용품이 기말대비 6.4% 등귀되고, 농가 구매의 증가와 원가등귀의 반영등으로 농업용품가격이 기말대비 10.5% 등귀된데서 연유되었다.

2/4분기와 3/4분기에는 각각 3.7%와 2.9%씩 등귀되어 안정세를 유지하였으며 4/4분기에는 0.3%의 등귀에 그쳐서 일단의 보합상태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추세는 농업용품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였는데, 1/4분기에 10.5%, 2/4분기에 5.6%, 3/4분기에 1.2%, 4/4분기에 0.7%의 상승을 나타내어 영농기에 들어서면서 부터 가격이 안정세를 유지해 왔다.

농가구입가격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를 나타내고 있는 임료금은 65~68년간에는 연평균 17.8%, 68~69년간에는 22.4%, 69~70년간에는 25.89%로서 등귀의 속도가 계속 가속되고 있는데, 이 현상은 앞서 고찰한 바와 같이 이농의 증가가 영농방식의 개선이 뚜렷하게 이루어 지지 못한 속에서 이루어 지고 있으며 도시지역의 임료금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데서 연유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농촌임금은 1/4분기에 3.9%, 2/4분기에 9.6%, 3/4분기에 1.0%, 4/4분기에 7.9%가 각각 등귀되어 주로 전답작 노동의 피크기를 이루는 5~6월과 10, 11월간에 등귀가 현저하였다.

이에 따라 70년도의 농가구입가격 등귀에 대하여는 농촌 임금과 가계용품의 가격 등귀가 주로 작용하였는데, 농촌임금은 21.0%에 해당하는 3.2%포인트, 가계용품은 59.1%에 해당하는 9.0%포인트의 기여를 하였으며 정책적인 가격보조가 지속되고 있는 농업용품의 구입가격등귀 기여도는 크게 줄어들고 있다.

3. 개선된 농가교역 조건

농가교역조건은 69년에 이어 70년에도 판매가격의 등귀가 구입가격의 등귀보다 상대적으로 높았기 때문에 교역패리티율은 전년수준대비 0.7%포인트가 개선된 99.1%로 향상되었다.

이에 따라 농가의 전반적인 교역조건은 65년과 거의같은 상태로 되었는데 이과정에서 특이한 현상은 판매가격의 상승이 수급의 경직화에서 오는 가격등귀와 68년 이후의 고미가시책 실시에 영향을 받아 등귀되었고, 구입가격은 농촌 임료금과 가계용품의 가격상승에 따라 등귀되

었으나 비료·농약등 농업자재의 저렴한 가격수준 유지라는 정책효과로 농업용품 가격이 안정화되어 구입가격수준이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하
 므로서 이 양면적 요인의 작용으로 교역조건이 개선되어 왔다는 점이다.

표 1-64 농 가 교 역 조 건

구 분	68		69		70	
	지 수	등락율	지 수	등락율	지 수	등락율
농가판매가격지수		%		%		%
총 합 지 수	142.3	17.7	162.4	14.1	191.4	17.9
곡 물	133.6	13.4	162.5	21.6	182.7	10.1
곡 물 제 외	157.4	22.9	162.4	3.1	206.8	27.3
농가구입가격지수						
총 합 지 수	152.2	19.8	167.7	9.9	193.1	15.2
농 업 용 품	163.4	28.3	173.7	8.5	194.9	12.2
가 계 용 품	145.7	15.3	158.2	8.6	181.5	14.5
농 촌 임 금	163.4	22.1	200.0	22.4	248.6	34.3
임 료 금 제 외	150.7	19.7	163.2	8.3	185.3	13.5
패 리 티 율	93.5	2.3	96.8	3.5	99.1	0.7
임 료 금 제 외	94.4	19.7	99.3	8.3	103.3	13.5

자료 : 농협중앙회, 농협조사월보 71. 7.

즉, 67년 이후 농가교역 조건의 개선은 가격지지를 통한 판매가격 수
 준의 향상과 농용자재의 염가공급을 통한 구입가격 수준의 안정화를 통
 해서 이루어지므로서 직·간접적인 양면지원이 주효 하였다.

그러나 70년에 들어와서는 곡물판매가격 등위가 소비자 가격의 연중
 평준화를 위한 시장조작의 영향을 받아 10.14%밖에 증가되지 못한데
 반하여 생산의 부진과 수요의 증가에 영향을 받은 비곡물의 가격상승이
 현저하여 전년 대비 27.34%의 높은 증가를 나타내므로서 판매가격 수
 준의 등위가 전년과는 달리 비곡물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참조, 농가
 판매가격 상승)

또한 구입가격의 등귀는 농촌임금 수준의 등귀에 따라 주로 상승하였는데 이러한 현상은 농업용품가격 상승의 안정화를 통하여 상쇄되어 왔다. (참조 : 농가구입 가격 상승)

농촌임금의 등귀가 가져온 영향은 구입가격수준에서 농촌임금을 제외하여 평가할 경우에 더욱 현저하게 나타나는데, 70년 임료금을 제외한 구입가격지수 수준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교역 패리티율이 103.3%가 된다.

따라서 앞으로의 농가교역 상태는 농촌지역 자체의 노동임금 및 서비스요금 수준에 의하여 보다 많은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기된다.

제 9 장 농업신용과 농협육성

1. 농업대출금의 증대

농협의 대출규모는 70년에는 농어민 소득증대 사업을 비롯하여 식량 증산, 수출단지의 조성, 단위조합육성 등을 금융면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므로서 크게 증대되었다.

70년중 대출누계액은 184,668백만원으로 지난해에 비하여 21.5%인 32,695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70년말 현재 대출금은 지난해보다 24.8%가 늘어난 105,360백만원에 달하였다.

농협의 대출금을 부문별로 보면 예수금, 한국은행 차입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금융부문 잔액은 70년말 현재 70,988백만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3.3%인 17,629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이것은 62년 보다 10배가 증가한 셈이다.

이와같은 금융자금의 대출증가는 농어민 소득증대사업, 잠업, 축산, 경제작물 등을 지원하기 위한 중기 생산 및 시설자금이 대폭적으로 증가한 위에 농산물 수출을 위한 무역금융과 농기업자금, 일반대출금 등이 증가한데 기인한다.

또한, 대충자금과 정부 재정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재정부문의 연말 대출잔액은 34,372백만원으로 지난해에 비하여 11.0%가 증가하였으며, 62년보다는 3.1배가 늘어났다.

한편, 농협의 총대출금중 수신자금과 저축 추진자금(일반자금)을 제외한 농림수산자금의 대출잔액은 70년말 현재 81,930백만원으로 지난해보다 13,217백만원이 증가 하였다. 이것은 62년에 비하여 4.5배가 늘어난 것이다.

표 1-65

농협의 대출금 상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62		69		70	
	연간대출액	연말잔고	연말대출액	연말잔고	연간대출액	연말잔고
금융자금	6,922	7,417	132,268	53,359	174,177	70,988
재정자금	7,053	11,193	15,273	26,985	10,759	30,581
차관자금			4,432	4,069	△268	3,791
계	13,975	18,610	151,973	84,413	184,668	105,360
농림수산자금	13,003	18,110	73,232	68,713	84,383	81,930

자료 : 농림부 농정국

2. 중장기·저리자금 공급의 증대

농협은 정부자금을 재원으로 수리자금을 비롯하여 중기농사자금, 농업근대화자금, 축산자금, 농촌진흥자금, 재특경제작물자금 등 각종의 중장기 저리자금을 공급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같은 중장기 저리자금은 67년도까지는 절대액에 있어 크게 미흡하였음은 물론 총대출금중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낮은 실정이었다.

즉, 농협이 공급한 총농업자금중 장기수리자금을 제외한 중장기 자금의 비중은 61년에는 불과 4.1%였으며, 65년에는 11.3%, 67년에는 24%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60년대 후반기부터 본격화된 농공병진과 중농정책에 힘입어 68년부터는 중장기자금의 규모가 크게 늘어나서 그 비중은 현저하게 높아졌다.

이에 따라 70년말현재 장기수리자금을 제외한 중장기 저리자금 총액은 38,071백만원에 달하여 총 농업자금의 59.8%라는 높은 비중을 갖게 되었다.

이것은 지난해보다 7,557백만원이 증가된 것이며 62년에 비하면 38배가 늘어난 것이다.

이와같이 중장기 자금이 특히, 68년부터 절대적인 규모나 상대적인 비중이 크게 확대된 것은 주로 다음의 두가지 요인에 기인되고 있다.

첫째는, 조달금리가 높은 농협의 예수금을 저리의 중장기 자금으로 활용하고 이에 대한 이차(利差)를 정부가 보상하여 주었기 때문이다.

농협은 이차보상에 의해 예수금을 재원으로 축산진흥, 한해지원, 풍수해지원, 양송이가공, 농업증산, 지역개발, 상호금융지원 등의 각종 자금을 농업개발 및 정책사업자금으로 공급하였으며, 이에 대한 이차보상으로 정부는 농협에 1,379백만원을 지원 하였다.

둘째는, 중장기 저리자금의 재원조달을 위하여 외국차관자금을 도입하였다는 것을 들 수 있다.

농협은 미국의 상품신용공사와 캐나다 정부로부터 13,714백만원

표 1-66

연차별 차관도입 현황

단위 : 천 \$

연 도	재 원 별	도 입 액	현 잔 액
68	캐나다 차관	CN 1,000 (US 910)	CN 1,000 (US 910)
	CLCC 차관	US 19,872	US 12,672
	소 계	" 20,782	" 13,582
69	C. C. C. 대액	US 7,082	US 3,541
	C. C. C. 현미	" 15,985	" 7,828
	소 계	" 23,067	" 11,369
70	C. C. C. 현미	US 3,212	US 3,212
	소 계	" 3,212	" 3,212
계		US 47,061	US 28,163

자료 : 농림부 농정국

(47,061천\$)을 도입하여 중장기 자금으로 총당 공급 하였다.

3. 상호금융의 확대

경제력이 미약한 농민들 상호간에 융통하는 호혜적(互惠的) 금융으로서 조합원들의 자금과부족(資金寡不足)을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상호금융은 농촌의 유희영세자금을 풀(Pool)화하고, 고리사채의 거래를 예방하므로서 농업자금의 공급확대를 가져오게 하는 한편, 농민조합원들의 저축의욕을 고취시켜주며 이제까지의 의존금융제 양태를 벗어나지 못하였던 미약한 조합 금융의 기반을 강화시켜 줌으로써 궁극적으로 단위조합의 자립을 촉진시킨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농협에서는 단위조합자립계획의 일환으로 69년 8월부터 면단위(面單位)의 대단위 조합에서 부터 상호금융을 실시하기 시작 하였다.

상호금융 실시 첫해인, 69년에는 150개 단위조합이 상호금융을 실시하였으며, 70년에는 모두 374개 단위조합이 상호금융을 실시하여 단기생산자금의 확대공급, 농촌지역의 사채흡수, 농민의 조합활동 참여의식의 고취등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70년말 현재 상호금융의 예수금실적은 2,366백만원으로 69년보다 7배 이상이 늘어났으며, 대출금 역시 69년의 348백만원에서 70년에는 2,824백만원에 달하여 8배로 늘어났다.

종류별로는 예수금으로서 자유계금이 70년말 현재 1,306백만원으로 13배가 증가하였으며, 일시예탁금이 약 7배의 증가를 나타내어 총예수금 가운데서 차지하는 비중도 자유계금이 55%, 일시예탁금이 37%이었다.

대출금은 일년동안에 자유계금이 10배, 일반대출금이 9배의 증가를 나타내었으며, 중앙회의 지원자금은 70년말 현재 1,268백만원에 이르렀다.

4. 저리금융 체계의 유지

농업금융은 농업생산이 갖는 특수성 때문에 저금리 체계유지의 필요성이 크므로 농협의 신용사업은 그 대출금리가 일반 상업금융 금리보다 상당히 낮은 금리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예수금과 한은차입금 등을 재원으로 하고 있는 금융자금의 대출금리는 단기영농자금이 연 15%이며, 중기생산 및 시설자금으로 공급되고 있는 소득증대, 잠업사업, 축산진흥, 양송이가공, 농업증산, 독농가지원, 가내공업 및 부업등의 자금은 연 9%의 저금리이다.

또한, 농수산물 수출준비자금이 6%, 제 2회 부채정리자금이 12%, 그리고 수산자금중 어선전조, 원양출어등의 자금도 각각 9%, 10%이다.

한편, 주로 중장기자금으로 공급되고 있는 재정자금에 있어서는 대충자금이 8~10%이며 농촌진흥, 경제작물, 잠업축산, 사료조절 인삼, 연초 등의 재특자금과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이 9%이다.

또한, 캐나다 낙농차관자금은 8%이며, 장기수리자금은 연 3.5%의 낮은 금리로 공급하였다.

5. 단위조합의 자립화와 육성

농협이 농민의 농협으로서 그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 협동적 경제단체로서의 기능을 다하기 위하여 단위조합의 자율적 기반조성이 선행되어야 한다.

즉, 농민주도형의 자조자립하는 농협으로서의 발전이 성취된 다음 비로소 농협은 농민의 이익기관으로서의 그 본연의 자세를 갖추게 되는 것이다. 특히, 64년 이후 실시된 농협 체질 개선운동은,

- (1) 지도 이념의 정립
- (2) 농민 주체의식의 양양

- (3) 농협적 경영자의 확보
- (4) 농업생산을 위주로 한 경제체질의 확립
- (5) 자조 자립적인 경영체질에의 순화
- (6) 기본단위조직의 강화

등을 중점시책으로 추진함으로써 농협이념의 구현, 자조·자립적인 경영체질의 확립을 기하였다. 또한 농민들에게 자립·과학·협동정신을 고취시킴으로써 이들이 스스로 농촌운동의 선구자가 되고 주인공이 되게 하는 새농민 운동을 병행 전개 함으로써 농협운동의 파급효과를 기하였다.

그 결과 단위조합의 사업활동과 조직기반은 어느정도 정비 강화되었고 자립발전 능력도 배양되었으나 아직도 자주 자립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따라서 단위조합의 영세성을 탈피하기 위하여 지난 68년 이래 경영규모의 확대를 위한 경제권중심의 통합운동을 추진함과 동시에 농민조합원의 적극적인 참여와 이용을 유발할 수 있는 상호금융, 생활물자 구매사업, 공제 후생의료사업등의 각종 기간사업을 개발 보급하였다.

통합운동의 성과는 68년말의 16,089개의 조합에서 70년말에는 5,859개의 조합으로 통합되었고, 이중 읍, 면 단위로 통합된 875개의 단위조합에 대하여는 경영능력을 감안하여 비료, 농사자금, 공제사업등을 점차적으로 이관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종합농협의 기능을 발휘

표 1-67

이·동 조합의 합병 실적

단위 : 개

구 분	68	69	70
단 위 조 합 수	16,089	7,525	5,859
(대 규모 통합조합수)	—	(671)	(875)

자료 : 농림부 농정국

게 하였다.

70년도에는 또 생활물자 구매사업과 공제후생의료사업을 개발하여 대 단위 통합조합에 보급함으로써 농민은 양질 저가의 생활물자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를 통한 농촌소비생활의 합리화를 기하였고, 공제후생 의료사업은 무의촌에 설치되어 실비에 의한 의료 혜택을 받게되어 농촌 보건과 위생의 향상에 기여하였다.

이와 같은 각종사업의 보급을 통하여 경영규모의 확대와 육성에 기여 하였으며 단위조합의 경영지도를 강화함으로써 경영의 합리화를 기하였다.

또 단위조합 지도자와 농민조합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농 협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켜 농민조합원의 적극적인 참여의식을 높였다.

제10장 농업부문 자금지원과 투자

70년도의 농림수산자금지원 규모는 69년의 지원실적 1,788억원보다 239억원이 증가된 2,027억원에 달하였다.

지원자금의 성격은 지금까지와 같은 보조등의 직접적인 투자에 중점을 두어왔던 방향을 전환하여 농민들이 스스로의 경제적 계산에 의하여 자립할수있도록 조장하기 위한 간접지원에 중점을 두도록하므로서 직접 지원은 전년대비 12% 감소되는데 반하여 간접지원은 14%가 증가되었다.

이에따라 정부의 직접적인 재정투융자액은 명목상 규모에서 감소되어 70년의 농림업에 대한 재정투융자액은 413억원으로 전년보다 6.3억원 줄었다.

그러나 실질적인 면에서 70년초현재 138억원까지 조성된 농수산물 가격안정기금을 비롯하여 양곡관리 기금등 각종 기금이 조성되어 회전자금으로 운용되고 있기때문에 이들이 투융자와 같은 차원의 지원을 계속하고 있으므로 농림수산부문에 대한 투융자는 증가되고 있다.

1. 농업부문에 대한 자금지원의 방향전환

70년도의 농림수산부문에 대한 재정 투융자와 금융차관, 지방비 및 양곡대전등을 소관 구분없이 합한 자금지원액 총규모는 2,027억원으로서 69년의 지원실적 1,788억원보다 13%가 증가 되었는데, 직접지원액이 69년의 985억원에서 867억원으로 12%가 감소되는데 반하여 간접지원액은 69년의 803.1억원에서 70년에는 1,161억원으로 14%가 증가되므로서, 직접지원과 간접지원의 전체에 대한 비율이 55 : 44에서 43 : 57으로 변동되었다.

직접지원액이 감소된 것은 양곡대전을 비롯한 각종 용자금의 지원규모가 69년의 420억원에서 70년에는 287.7억원으로 감소된데 기인한다. 총 자금 지원규모가 감소된 사업들은 토지 기반조성사업과 축산, 수산, 농어촌개발공사사업, 자조근로사업 및 단기성 농수산물자금으로서 토지 기반조성은 재정 투융자 등 국비투자는 증가 되었으나 지방비와 양수기 등 각종 기계시설에 대한 용자금의 감소가 컸고, 축산, 수산사업의 지원액 감소는 젖소의 도입과 각종 어로시설 지원이 감소되었으며 농어촌 개발공사 사업은 신규투자의 확대가 제한되었음에 기인하여 감소되었다.

이러한 지원규모의 감소와 달리하여 지원이 강화된 사업들은 농어촌 지역의 가내공업 및 부업에 대한 지원이 69년의 128백만에서 70년에는 950백만원으로 약 8배 증가된 것을 비롯하여, 농업자금 이자보상규모가 69년의 350백만원에서 70년에는 744백만원으로 늘어났고, 농어촌환경개선사업, 4대강유역개발 및 치산치수사업, 식량·경제작물, 잠업증산, 임업개발과 농사시험·지도에 대한 지원이 각각 전년수준 보다 확대되었다.

이와 같은 지원의 방향전환과 사업별 지원규모의 변동은 농업부문에 대한 지원양식이 지금까지의 직접지원 일변도에서 간접지원으로 변경되고 있음과 농어촌 지역에 대한 생활환경 개선과 부업사업의 확충 및 농업자금의 지원확대에 따른 이자보상이 점차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기 시작하였음을 나타내고 있다.

간접지원의 확충은 주로 각종 구매자금의 규모확대를 통하여 이루어졌는데 농수산물의 구매규모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농수산물 가격의 연중 평준화를 통한 물가수준의 안정으로 유통마진을 축소하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고자 하는데서 출발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 구매자금의 규모확대에 따라서 2중곡가제의 확대실시, 가격 예시제도의 실시등이 가능하게 될것이므로 크게 수정될

것으로는 예상되나 생산자인 농어가의 경영상태의 영세성에 비추어 볼 때 일정한 수준 이하의 계층에 대해서는 큰 성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으로 예기된다.

이같은 농업 의존도가 극히 낮은 계층의 농(어)가들을 위해서는 가내 공업과 부업의 확대를 통하여 타부문의 취업을 이끌어야 할 것이며,

표 1-68

70년도 농림 수산 자금 지원 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별	구분	합계	투자				융자			차관
			계	국비	지방비	양곡	계	국비	금융	
총	계	202,671	—	—	—	—	—	—	—	—
직접지원		86,597	49,627	29,395	16,116	4,116	28,774	14,375	14,399	8,196
	토지기반조성	16,692	14,040	10,795	2,853	392	1,926	1,926	—	726
	식량증산	14,089	7,846	2,894	4,952	—	6,243	6,238	5	—
	경제작물	2,345	720	720	—	—	1,625	723	902	—
	축산	7,901	3,018	1,046	1,972	—	4,883	556	4,327	—
	잡업	3,479	1,621	537	1,084	—	1,858	742	1,116	—
	농업자금이자보상	744	744	744	—	—	—	—	—	—
	수산	10,319	4,035	3,072	963	—	2,227	1,827	400	4,057
	임업	5,266	4,893	3,419	1,413	61	373	273	100	—
	농사시험지도	3,375	3,375	1,705	1,670	—	—	—	—	—
	농어촌개발공사사업	4,913	1,500	1,500	—	—	—	—	—	3,413
	자조근로사업	4,235	4,235	691	94	3,450	—	—	—	—
	치수	2,776	2,776	1,779	784	213	—	—	—	—
	농어촌전화사업	2,446	351	245	106	—	2,090	2,090	—	—
	가내공업및농가부업	950	473	248	225	—	477	—	477	—
	단기성농수산자금	7,072	—	—	—	—	7,072	—	7,072	—
간접지원		116,074	—	—	—	—	—	—	—	—
	수매자금	104,178	—	—	—	—	—	—	—	—
	의상비료대	11,896	—	—	—	—	—	—	—	—

자료 : 농림부 기획관리실

특히, 이러한 여건의 조성을 위한 환경개선사업은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70년도의 자금지원 실적은 연말기준으로 확정액 2,026.7억원의 83.2%에 해당하는 1,686.4억원으로서 주로 불용과 이월에 의하여 자금의 집행이 유보되었다. 지원의 내역별로는 직접지원이 확정액 865.9억원의 91.9%인 796.0억원으로 69.9억원이 미집행 되었는데 이 가운데 35억원이 불용되었고, 22.7억원이 이월 되었다.

간접지원은 당초 확정액 1,160.7억원의 78.6%에 해당하는 890.9억원이 집행 되었는데, 간접지원의 실적이 저조한 원인은 주로 수매계획의 차질에서 연유되었다. 당초의 수매계획은 1,041.8억원이었는데, 실적은 787.7억원으로서 254억원이 미집행되었다. 가장 많이 미집행된 것은 농업협동조합의 고구마, 옥수수, 잠깐, 유채 및 맥주맥 등의 수매사업이 부진하여 당초 확정액의 67.3%에 해당하는 260.7억원이 집행된 결과 126.8억원이 미집행된 것이며, 다음으로는 정부의 69년산 추곡수매가 계획에 미달한 결과 69.2억원이 미집행되었고, 농수산물 비축사업이 계획의 38.1%인 13.3억원이 집행된 결과 20.5억원이 미집행되었고, 수산업협동조합의 한천 및 해태수매가 계획에 미달하여 62.2억원이 미집행되었고, 전매청의 엽연초 및 인삼수매가 계획에 미달되어 26.9억원이 미집행되었다.

수매지원이 대부분 계획에 미달된 주된 원인은 출하량의 부족, 가격수준의 부적당, 수매절차의 번잡, 수매자금의 적기공급 차질등에 있는데 이같은 요인들은 앞으로의 지원양식 개선이 제대로 효과를 거두도록 하기 위하여 각별히 조정·개선되어야 한다.

특히, 농림수산부문에 대한 이같은 각종 자금지원의 집행체제가 기관별로 다원화되어 있어서 일관된 시행이나 집행체제의 질서있는 조정이 결여되는 사례가 없지 않기때문에 이에 대한 적절한 조정조치가 필요시 된다.

2. 농업부문 재정 투융자

70년도의 총 재정 투융자 규모는 재정지출의 긴축에 따라 69년의 175,551백만원 보다 10% 밖에 증가되지 않은 193,069백만원에 머물렀다.

67~68년에 48.8%, 68~69년에 49.3%의 증가를 실현한 재정투융자 규모의 이와같은 증가세의 급속한 둔화에 따라 산업별 투융자 증가도 완만해 졌는데, 특히, 1차산업(농림수산업)에 대한 재정 투융자는 전년대비 6.1%가 감소되었다.

이에 따라 총 재정투융자의 1차산업에 대한 투융자 배분비는 69년의 27.9%에서 70년에는 23.8%로 감소되었고, 수산업을 제외한 농림업에 대한 투융자 배분비는 69년 25.0%에서 70년에는 21.4%로 감소되었다.

2,3차산업에 대한 재정투융자가 총재정투융자 규모의 긴축에도 불구하고 각각 69년대비 10.7%, 17.2%씩 증가한데 비하여, 1차산업에 대한 재정투융자가 절대액에서 감소를 나타내게 된것은 비농업부문에서의 각종사업이 수익성이 높고, 사업단위별 투자결과의 확인이 보다 명확한 점

표 1-69 농업부에 대한 재정투융자(산업별분류기준) 단위: 백만원, %

구분	68	69	70 ②	증감율		
				69/68	70/69	
재정투융자총액(A)	117,588	175,551	193,069	149.29	109.98	
농림업부문재정투융자(B)	26,269	43,964	41,333	167.36	94.02	
B/A %	22.3	25.0	21.4	-	-	
GNP에 대한 비율 ①	A/GNP	7.5	8.6	7.6	-	-
	B/GNP	1.7	2.2	1.6	-	-

자료: 경제기획원, 1971년도 예산개요

주: ① GNP는 경상가격을 기준으로 하였음

② 예산액임

표 1-70 농업에 대한 재정투융자 내역 (농림부소관) (단위 : 백만원 · %)

구분	65		68		69		70		70/69 증감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토지기반조성	2,069	60.1	6,225	34.6	7,287	24.2	13,624	43.1	86.9
농업증산	481	14.0	1,516	8.4	3,726	12.4	3,339	10.6	△10.4
경제작물	190	5.5	63	0.3	870	2.9	549	1.7	△36.9
잠업사업	324	9.4	920	5.1	2,457	8.1	1,279	4.0	△48.0
축산사업	180	5.2	679	3.8	3,775	12.5	1,602	5.1	△57.6
농산물가격안정기금	—	—	5,100	28.3	5,298	17.6	3,400	10.8	△45.9
농업자금이자보상	—	—	48	0.3	350	1.2	1,311	4.2	274.6
비료자금	—	—	—	—	3,550	11.8	4,900	15.5	38.0
농어촌개발공사	—	—	2,000	11.1	2,728	9.0	1,500	4.7	55.0
농업진흥공사	—	—	—	—	100	0.3	100	0.2	0.0
농사자금	200	5.8	1,200	6.7	—	—	—	—	—
농산물가격보조	—	—	178	1.0	—	—	—	—	—
지붕개량	—	—	73	0.4	—	—	—	—	—
합계	3,444	100.0	18,002	100.0	30,141	100.0	31,604	100.0	46.3

주 : 1. 일반재정부문 결산임 68, 69는 청특포함, 70년도는 예산임.
 2. 70년도 농업자금 이자보상에는 수출비료손실보상이 포함되어있음

과 경제개발계획의 수행방향이 공업화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1~2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수행과정을 통하여 일관된 것인데 도시·농촌간의 지역격차 발생이 농업부문과 비농업부문간의 격차로 인하여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비농업부문의 성장지속과 부문간의 균형발전을 위하여는 농업부문에 대한 투융자가 보다 많이 확대되어야 할 필요를 제기시키고 있다.

농업에 대한 재정투융자가 감소된 사업들은 경제작물, 잠업, 축산등에 관한 지원과 농산물 가격 안정기금으로서 이들에 대한 지원액이 줄어든 원인은 제한된 재원을 배분함에 있어서 투자의 긴급도가 보다 높은 생삼기반 조성사업에 대한 투자가 불가피 하였기 때문이다.

농업부문 재정 투융자의 농림부 소관 주요사업별 변동내역은 토지기
 반조성에 대한 투융자가 69년의 7,287백만원에서 70년에는 13,624백만원
 으로 87% 증가되었고 수출비료의 손실보상을 제외한 농업자금의 이자보
 상액 774백만원이 대출액의 증대에 따라 69년보다 112.6%가 증가되었다.

토지기반 조성에 대한 재정투융자는 주로 농업용수개발과 경지정리에
 투입되었는데 물량면에서 이들 사업의 규모가 줄어든 것은 단가의 상
 승에 주로 기인되었다. (참조: 농업생산 기반조성)

이와 같은 농업에 대한 재정투융자의 감소와 사업별 투융자 경향의
 변동은 농업부문에서 민간자본의 형성이 극히 미미한 실정에 비추어 볼
 때 농업성장의 촉진을 위한 새로운 투융자 재원의 확보를 필요로 하고
 있다. (참조: 농가수지와 자산변동)

3. 농업부문에 대한 투자(자본형성)

70년도의 총투자는 재고감소와 정부부문의 투자감소를 반영하여 전년
 대비 15.6%의 증가에 머물렀으므로 투자의 확대 추세가 둔화되었다.

표 1-71 농업부문투자와 국민경제의 총투자 65년 불변가액 단위: 백만원

구	분	65	68	69	70
총 자본형성	고정 자본	117,643	325,634	407,760	416,760
	재고 증가	839	18,490	43,710	38,820
	(농산물재고)	(897)	(△9,028)	(28,877)	(14,107)
고정 자본형성	농림어업	13,670	23,820	24,260	26,970
	비농림어업	103,973	301,814	389,350	389,790

자료: 한국은행

농업부문의 총투자는 전년대비 22.9%의 실질감소를 나타냈는데, 고정 자본 형성은 전년수준보다 11.1%가 높은 269.7 억원으로 증가 되었으나 재고가 70년산 하곡과 추곡생산이 전년대비 크게 줄었기 때문에 69년의 288.8억원에서 141.1억원으로 감소되어 51.2%의 실질감소를 실현한데서 영향을 받았다.

이러한 농업부문투자의 감소는 앞에서 제시된 것과 같이 농업부문에 대한 투자재원의 주된 공급원이 정부인데 정부의 재정투융자 지원이 전년보다 감소된데서 영향을 많이 받았으며, 민간부문에 있어서도 농가소득증가의 둔화에 따라 자산상태가 전년보다 크게 개선되지 못한데서 연유되었다.

제11장 농업의 당면과제

1. 70년도 농업의 개관

70년의 농업은 기후조건의 불순에 따라 농작물 생산이 부진했던 영향이 여러부분에 작용 과급되는 속에서 전체경제의 공업화—도시화에 따른 구조적 변동이 진행되므로서 다음과 같은 특징적인 현상들을 나타내었다.

첫째, 농작물생산의 부진 현상

둘째, 농업소득 증대를 위한 가격지지와 경제안정의 상충

셋째, 농산물 유통량의 지속된 팽창과 유통행정 기능의 신장

네째, 고속도로망의 확장과 농촌의 도시화 진행

가. 농작물 생산의 부진

70년도 농업경제에 대하여 가장 큰 과급효과를 나타낸것은 70년산 하곡 및 추곡과 가을 채소등 각종 농산물의 국내생산 수준이 전년대비 감산을 실현한데 있다.

이와 같은 농작물 생산의 부진을 가져온 원인은 자연적 측면에서는 기후 변동의 영향력이 아직도 크게 지배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고, 경제적 측면에서는 도시화의 급속한 진행에 따라 농경지의 절대면적이 감소되었을 뿐 아니라 노동력이 감소되고 있으며, 행정적 측면에서는 각종의 생산지원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여 소기한대로의 충분한 성과를 거두지 못한 점을 들 수 있다.

70년의 농업기상이 나타낸 특징은 종래와 같은 한해나 수해가 아니라 일조 시수의 부족에 기인 되었다.

하곡의 등숙기와 수확기에 이와 같은 기상조건이 크게 작용하여 등숙율이 전반적으로 낮았으며, 가을 채소의 파종기와 발아기를 통한 일기불순으로 생육상태가 불량했을 뿐 아니라 추곡에 있어서도 봄철 이앙기에 큰 문제가 없었으나 생육기의 일조시수 부족에 따른 병충해의 증가와 등숙기의 등숙율 저하가 크게 작용하였고, 특히, 벼에 있어서는 수확기에 충남의 서해안 일대를 휩쓴 태풍으로 많은 결실된 벼가 유실되었다.

농업취업 노동력의 감소가 생산양식의 충분한 변동이 없는 속에서 속행되고 있기 때문에 노동집약적 재배체제에서 투입노동력의 부족이라는 현상을 제기시키고 있다.

농지의 타목적 전용은 도로, 주택, 도시권의 확대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최근에 와서는 도시근교지역의 지가상승에 따라 각종 생산공장들이 농촌지역에 부지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교통입지상 좋은 여건을 가진 고속도로변과 도시근교의 농지가 급속하게 타목적으로 전용되고 있어서 농경지의 감모속도가 급속해졌다. (참조: 농업경영)

특히, 이러한 공장, 주택, 도로등의 부지는 산지보다는 농경지를 확보할 경우 조성비용이 크게 절약된다는 이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농경지의 감모에 대하여 크게 압력을 주고 있다.

농업생산기반의 조성과 농업용자재의 공급은 아직까지 정부의 보조와 투자에 의존도가 큰데 이들에 대한 투자재원의 확보가 정부내에서 제한되어있고 행정적인 지원체계가 다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기획단계와 집행단계에서의 괴리가 발생하는 사례가 없지 않았다.

따라서 보다 알찬 생산증대를 위한 노력의 경주를 위해서는 이와 같은 제반 여건의 작용력을 극소화시키기 위한 충분한 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며, 농작물 수입외에 농가수입의존도를 조정하기 위한 구조적 대책이 필요하다.

나. 농업소득증대를 위한 가격지지와 경제안정시책과의 상충

농·공간의 격차는 소득면에서 더욱 분명하게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격차시정은 농업소득의 증대에 중점이 주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고미가정책을 비롯한 각종의 가격지지정책이 시행되고 있는데 고도성장 과정에서 누증되어온 투자의 증대 및 경제 규모의 확대가 안정기조 유지에 대하여 압력을 가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농산물의 가격 등귀는 심리적, 경제적으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체 경제의 안정유지 소요와 농산물 가격지지 소요는 상충된 성격을 노출하고 있다.

이러한 실정에 따라 각종 농산물의 수매확대는 불가피하게 가격수준의 연중 평준화라는 안정의 소요와 생산 출회기 수매가격의 인상이라는 가격지지 소요를 시기별로 반영하고 있는데, 소비기의 가격수준 평준화는 물량의 초과수요를 유발하므로서 도입증대를 유발하고 이 기간 동안의 농가출하량의 판매가격 수준을 일정수준에 안정시키므로서 농가의 재고보유 이익을 삭감시키고 있으며 생산기의 가격지지는 가격 인상의 효과를 나타내고 있으나, 시장가격의 급격한 등귀를 유인하여 수매수용을 부진케 하고 있다.

다. 농산물 유통량의 팽창과 유통행정 기능의 확대

70년도의 농가인구는 이미 총인구의 45.0% 수준으로 감소되었는데 농촌지역내에도 상당한 비농가가 존재하고 있을 뿐 아니라 소비수준의 향상, 도시생활영역의 확대에 따라 농산물 유통량은 크게 증가되었다.

농산물의 유통량 증가는 각종 가공품을 비롯하여 생선식료품(生鮮食料品)에 이르기까지 종류가 다양해 지고 있는데 이들의 유통량 증가에 따라 여러 가지 문제가 새로이 제기되고 있다.

라. 고속도로망의 확산과 농촌의 도시화 진행

최근에 와서 도시와 도시를 연결하는 고속도로망이 확산되므로서 철도 중심으로 연결되었던 도시—농촌의 연계체 형식이 도로 중심으로 재편성되고 이들의 상호 연관성이 시간적 거리의 단축으로 더욱 밀접하게 연결되므로서 농촌지역의 소유권들의 교역이 직접 대도시들에 연결되므로서 종래보다 빠른 변동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지역단위의 특성을 살린 지역개발을 위하여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 축성되어야 한다.

2. 70년도 농업이 제기한 당면과제

경제의 급격한 공업화 과정에서 농업경제의 내외적 여건이 계속 변동하므로서 지금까지와는 달리 농정의 주된 관심은 생산중심에서 유통중심으로 확대·변동하고 있으며, 농촌생활과 농업경영의 기본적 여건이 변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새로운 대응책이 필요시되고 있다.

특히, 지원의 중점이 유통으로 확대되므로서 농가의 농업경영에 대한 지원이 새롭게 수정되어야 할 필요가 제기되고 있다.

이와 같은 새로운 현상들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전제되는 당면한 과제는 다음과 같다.

가. 농업지대 구분과 지대별 표준 경종기준의 확립

농업생산의 수익성 증대를 위하여 「주산단지」조성시책이 농어민소득 증대 특별사업을 중심으로 추진되었는데, 이것은 자연자원의 기초조사에 입각한 기술적 적지성을 중심으로 한 것이기 보다는 경제작물, 잠업, 축산 등의 지역적 집산지 조성에서 오는 각종 지원과 유통의 경제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는 교통수단이 크게 확충되고 있고 앞으로 농어촌 도로망의 개발은 급속히 진전되지 않아선 안될 실정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지원과 유통의 경제화 보다는 기술적인 적지성에 따른 한계이윤의 극대화를 기하므로서 경영의 비교 우위성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는 방향에서 각 지역이 가지는 잠재적인 생산능력이 개발되어야 한다.

특히, 지금까지의 생산지원이 중앙에서의 획일적인 기획에서 결정되었기 때문에 실제로 이러한 지원의 성과가 나타나는 현장의 실태와 기획단계의 사후 판단이 연결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지원의 소요판단이나 영향력 반응에 따른 세부적인 정책결정이 시험성적 이외에는 기초를 찾지 못하고 있어서 현지 실정과 상당한 괴리현상을 노출하고 있다.

따라서 생산지원의 성과와 지원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정밀한 기초위에서 농업지대가 구분되고, 이러한 지대의 특성에 따른 지대별 표준 경종기준이 확립되어 모든 지원이 이에따라 특화 되도록하므로서 현재와같은 행정구역별지원이라는 차원을 극복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추진중에 있는 「토양조사」와 「토양비옥도조사」 사업이 조속히 완결되고, 이에 따른 각종 품종선택과 경종법에 관한 시험연구가 지역별로 실시되어야하며, 이러한 기술적인 여건위에 지역의 위치와 인구등 사회·경제적 여건을 반영시킨 지대별 농가 경영형태에 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나. 농경지보호와 경영규모의 확대

농경지의 절대면적은 개간 간척등에 의한 면적확장이 제한되어 있음에 비하여 주택·도로·공장등 타목적 전용에 따른 감모가 크며 도시지역의 확대에따라 주변농경지의 지가상승에 따른 유희화가 늘어나고 있어서 이러한 농경지의 감모와 유희화를 방지하기위한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다.

또한, 농촌지역의 이농 증가와 임료금 등기는 앞으로도 지속될것이므

로 이에 대응한 농업기계화가 조속히 추진되어야 한다.

농업기계화는 농기계의 생산공급에서부터 농가의 기계 구입능력, 활용 및 정비·수리 보관 등 운용관리와 농경지의 기계화 적격성등 허다한 선결과제를 가지고 있는데, 특히 현재와 같은 영세규모의 경작형태를 가지고서는 임경제도(賃耕制度) 조차 개발하기 힘든 상태에 있다.

따라서 현재 규제되고있는 농지소유상한제는 재고되어야 하며,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영세농의 이농증가에 대해서는 기술훈련, 농촌지역의 공업분산 등에 의하여 타부문취업을 알선하여 이농의 부작용을 극소화해야하고, 농촌지역내에 대해서는 경지정리등 기반정비는 물론 기계의 공동보유를 통한 생산의 협업화, 혹은 임경제도와 농촌 청장년에 대한 농기계 운용훈련 등이 실시되어야 한다.

이와같은 광범한 개혁은 새로운 「농지법」의 제정을 필요로 하고 있는데, 농가경영규모의 확대와 농업기계화는 농업생산성제고와 소득향상에 동시에 기여할 것이다.

다. 생산기반의 계속적 정비

농업생산기반의 정비는 60년대 후반기를 통하여 실시된 대대적인 농업용수개발사업을 중심으로 크게 진전되기는 하였으나, 아직까지 용수 개발에 한정되고 있을뿐 아니라 연차별 사업량의 증가가 확보재원의 부족으로 부진한 상태에 있다.

앞으로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경영개선을 통하여 생산성을 증대시키기 위하여는 용수개발뿐 아니라 경지정리, 농로개발, 배수시설, 초지조성, 상전조성, 싸이로 및 축사와 잠실등의 건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업들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생산기반조성사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라. 유통구조의 개선

농산물 유통문제는 독립적이고, 새로우며, 계속 팽창되는 정책과제로

대부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행정지원 기능은 사례별로 발전되어 왔기 때문에 현재의 실정으로는 일관성을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다.

농정의 지원체제를 외형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현재의 기구와 업무분장은 식산중심의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 이후에 발생해 온 유통상의 문제를 생산지원과 함께 복합시키고 있기 때문에 절차와 방향의 문제에 대하여 적지않은 혼선을 야기시키고 있다.

따라서 농산물의 유통상에서 제기되는 모든 정책적 과제를 기능적으로 일원화된 속에서 해결하고, 보다 전문적이고 유기적으로 조직된 속에서 전위적 개발시책을 수립, 실시할 수 있는 행정체제의 확립이 필요하다.

또한, 농산물의 수급이 양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므로서 기존의 유통조직만으로는 이와 같은 대량수급의 흐름을 원활히 할 수 없기 때문에 유통조직의 능력신장을 통하여 수급의 원활화를 기할 수 있도록 유통조직이 개편되어야 한다.

특히, 최근에 와서 농산물 유통 조직은 주체별로 다원화되고 있는데 이 결과로 예기치 않은 각종의 애로현상이 여러부문에서 표출되고 있기 때문에 이와같은 요인의 극소화를 위해서도 유통조직 개편은 장기전망 아래 포괄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마. 생산자 가격지지 강화와 농업관측 제도의 개발

농산물 가격 정책이 생산자의 이윤 극대화를 위한 생산자 가격지지로 방향이 전환되기 시작하면서 부터 생산자와 소비자 양자의 이익을 동시에 보호하기 위한 조정과정에서 정부의 부담은 예상외로 확대되고 있을 뿐 아니라 어느 한 방향에 대해서도 분명한 성과를 제시하는데 불충분한 상태에 있다.

특히, 최근의 경제동향이 국제적인 인프레 만연에 따라 수입된 인프레가 파급되고 60년대를 통하여 누증되어온 투자증대로 경제의 과열화

현상이 노출되기 시작하였을 뿐 아니라 급속한 도시화 과정에서 소비양태와 소비수준이 변동되어온 결과 임금등기 압력이 발생되고 있는 속에서 농산물 가격지지의 소요가 동시에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농산물가격정책의 방향을 명확히 제시하고 이에 따른 파급효과를 분명히 조정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다.

이와 같은 시책의 실시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현재 개발되고 있는 농업관측사업이 보다 보강, 정비되고 정밀화 되므로써 시책에 활용되어야 하며, 이러한 시책실시를 재정적으로 뒷받침하는 각종 기금들이 증대되고 원활히 활용되어야 한다.

사. 투자사업 심사제도 실시

각종 농업부문에 대한 투자 지원사업들은 아직까지 특정지역을 기준으로 실시되기는 하였으나 실제로 이러한 투자효과를 수용하는 핵심체로서 농가의 유형별로는 크게 고려되지 못하였다.

최근에 와서 농정의 관심이 소득증대로 집중됨에 따라 시책 성과의 판별기준은 개별농가의 수지개선과 생활수준 향상으로 세분화되므로써 종래와 같은 생산 수준의 총량판단은 큰 의미를 지니지 못하게 되었다.

이러한 실정에 즈음하여 농업부문에 대한 각종 투자 지원사업은 사업을 수행하는 수용측인 농가의 능력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의 실정으로는 경작 규모가 1.5ha 미만인 농가일 경우 순수한 농업소득 만으로는 가계비를 충당하지 못할 뿐 아니라, 농업생산을 증대시키기 위한 재투자여력도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들을 대상으로 지원을 수행할 경우 각종 자금은 투자 되기 보다는 시급한 생활상의 소요나 여타부문에 지출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농가의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하는 각종 투자를 대상 농가의 경영능력에 따라 효과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는 단위 농가의 경영능력을

장기적인 차원에서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방향에 따라 농업부문의 사업들을 중점으로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농어민소득증대특별사업등 여러 사업은 최소한도 농업부문에 전업할 수 있는 농가들을 기준으로 실시되도록 조정되어야 할 것이며, 농업소득에 의한 가계비등 수지충족이 곤란한 계층의 농가들에 대해서는 각종 부업사업의 규모확대로 겸업화 내지는 타부문 전업(轉業)을 유도하므로서 소기의 소득증대 성과를 얻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농업용수개발을 비롯하여 경지정리, 기계화, 농로개발 및 각종 생산지원 시설과 유통부문에 대한 투자는 소요가 전반적으로 증가되고 있음에 비하여 가용자원은 크게 제약되어 있기 때문에 최대의 경제성을 살릴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걸쳐서 선택되어야 하므로 추진 중에 있는 투자사업의 사전심사제도를 실정에 알맞게 발전시켜 실시토록 해야할 것이다.

제2 편 71년도 농업시책

여백

제 1 장 기본방향

71년도의 농림수산 시책은 60년대를 통하여 이룩한 경제발전의 속도를 더욱 가속시키고, 「조국근대화」의 역사적 과제를 보다 명확하게 구현하기 위하여 농정의 당면한 과제들을 과감히 타개하고 농어촌경제를 혁신적으로 개발하는 제3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추진의 토대를 닦는데 중점을 두었다.

이에 따라 71년도 농림수산시책의 기본방향은

첫째, 식량의 자급을 비롯하여 증가되는 농수산물의 수요에 대응하는 증산과 농·공간의 소득격차를 해소시키기 위한 농어민의 소득증대

둘째, 영농의 혁신적인 근대화와 생산성의 제고를 위한 농업용수개발·경지정리·농업기계화 등 생산기반의 지속적인 확대정비

셋째, 농어민의 자조정신과 증산의욕을 고취시킬 뿐 아니라 농수산물의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유통개선과 가격지지

넷째, 활기에 넘치고 운택한 새 농어촌의 건설을 위한 농어촌 환경 개선의 네가지로 설정하였다.

제 2 장 식량증산

1. 양곡수급의 추세와 자금전망

가. 양곡수급의 추세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양곡수급추세를 보면 60년대를 통하여 소비수요의 증가가 생산의 증가보다 빨랐었기 때문에 이로 인한 외곡도입이 증가되어 왔다.

즉, 전체양곡의 총소비량은 60 미곡년도의 570만 MT 에서 70 미곡년도에는 926만 MT 으로 62%가 증가되어 연평균 4.9%씩의 소비증가를 나타내어 왔다.

이에 비하여 생산의 증가는 61 미곡년도의 527만 MT 에서 70 미곡년도에는 774만 MT 으로 47%가 증가되어 연평균 4.4%씩의 증산을 이룩하므로써 소비증가의 속도를 뒤따르지 못하였다.

이로 인하여 60 미곡년도에는 468천 MT 에 불과했던 양곡의 도입량이 69 미곡년도에는 2,389천 MT 으로, 70미곡년도에는 2,115천 MT 으로 늘어나서 60~70년의 11년간에 4.5배가 증가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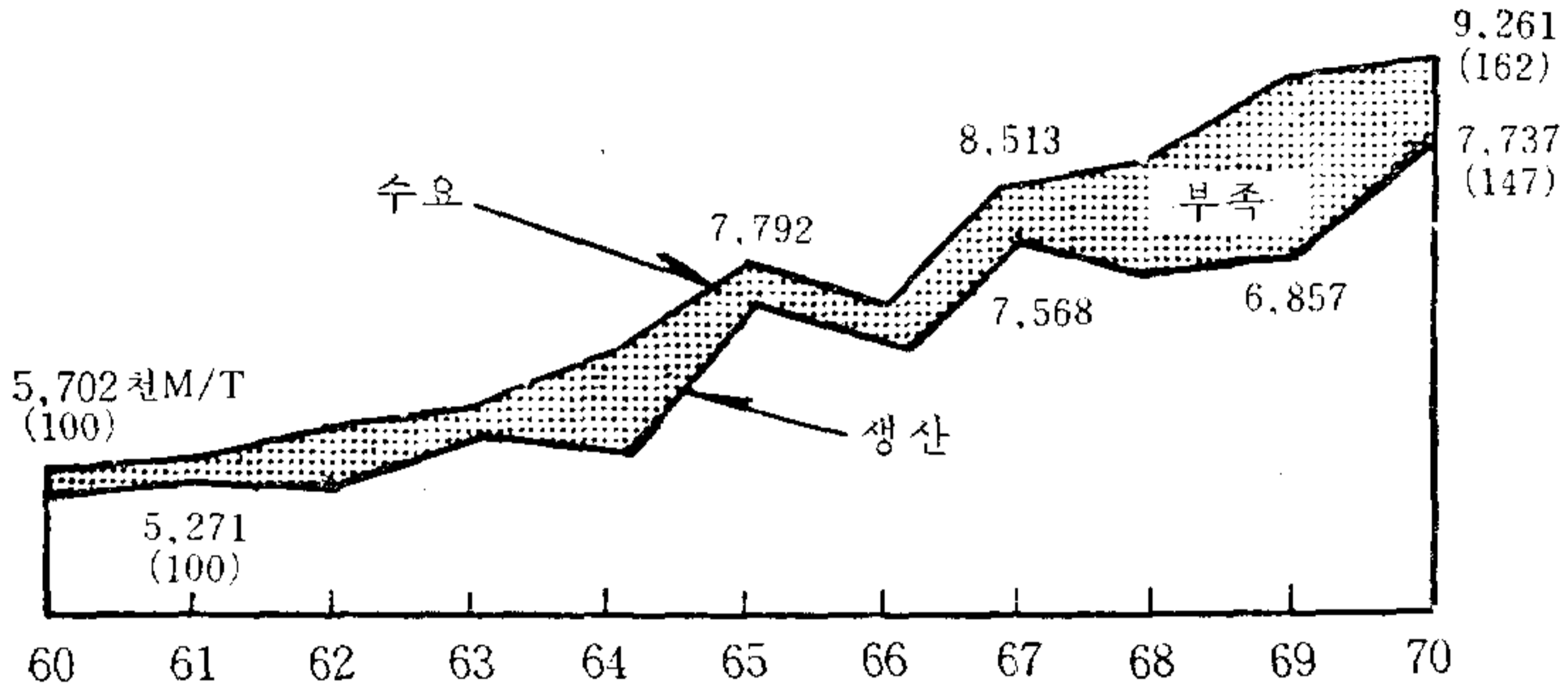
이러한 사정은 주곡인 쌀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서 60~70년간 쌀소비는 60 미곡년도의 3,179천 MT 에서 70 미곡년도의 4,394천 MT 으로 연평균 3.3%씩 증가된데 비하여 쌀생산은 61미곡년도의 3,047천 MT 에서 70년에는 4,090천 MT 으로 연평균 3%씩 증가하므로써 소비증가율이 생산증가를 0.3% 앞섰다.

이와같이 생산의 증가를 넘어선 소비증가로 외곡도입이 증가되게 된 이면에는 여러가지 원인이 있겠으나 대체로 소비수요증가의 측면과 생산의 측면에서 다음의 요인들이 주된 원인으로 지적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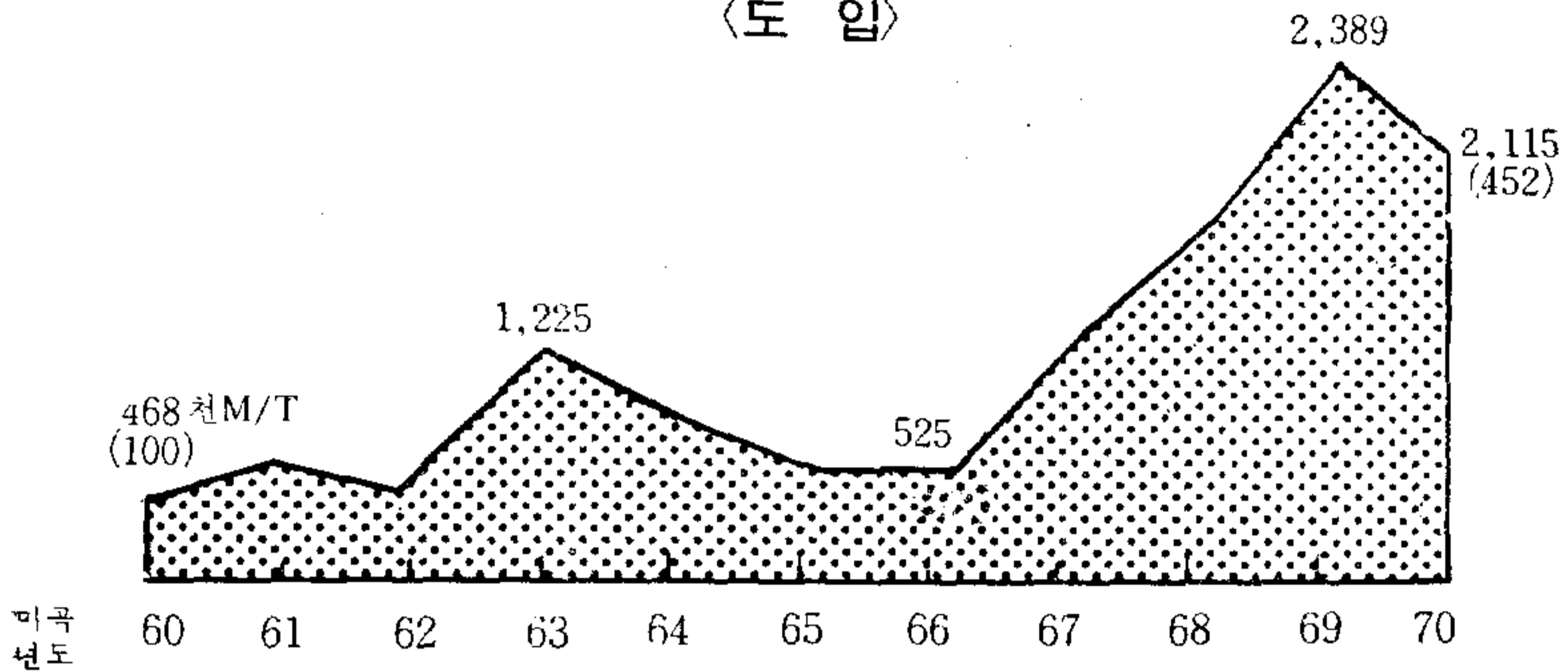
표 2-1

양곡수급추세

〈수급〉



〈도입〉



자료 : 농림부 양성국

지난 60년대를 통하여 식량의 소비수요가 급격한 증가를 보여 왔다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인구의 자연증가, 소득의 향상, 도시생활권의 확대, 식품소비의 고급화 및 새로운 수요로서 축산진흥에 따른 사료수요의 급증에 연유되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총인구는 경제개발계획의 일환으로 수행된 인구증가 조절 정책(산아제한 시책 등)의 성과로 증가속도가 둔화되기는 하였으나 61년의 25,700천명에서 70년에는 31,460천명으로 5,760천명이 증가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인구증가는 그대로 식량 수요의 증가요인이 되어 왔

다.

다음으로 소득의 향상은 50년대만 해도 1인당 가처분소득의 증가가 극히 미미하였으나, 60년대에 들어와서부터는 경제개발정책의 적극화로 증가속도가 급격하였다. 이 결과 소득의 저위로 인하여 소비수준이 억제되었던 계층에서 주곡소비량이 현저히 증가되었다.

이와 관련된 현상의 하나로 식품 소비양태의 고급화를 들 수 있는데 이것은 전에 비하여 현저하게 가공식품의 소비량이 늘어난 점이다. 빵의 생산량, 술의 생산량을 비롯하여 여러가지 곡물을 원료로한 가공식품의 생산·소비량이 크게 증가되었다.

축산업의 본격적 개발은 도시생활권이 확대되고 소득수준이 향상된 데 연유된 육류·유제품 등 축산물 소비증가와 농업근대화를 위한 축산진흥정책에 따라 60년대 후반기를 기하여 활발히 추진되었다. 이로써 전업적 양축가와 목장이 증설되었고, 여기에서는 주로 곡물을 중심으로한 농후사료를 소비하므로써 옥수수등의 사료수요가 격증되었다.

표 2-2

일본의 농산물 수입

단위 : 천톤

구	분	60	65	68	69
	쌀	104	647	166	38
	밀	2,678	3,645	4,073	4,328
육	수	1,249	4,343	5,145	5,489
	콩	1,128	1,847	2,421	2,510
바	나	42	358	638	739
파	인	18	43	52	65
쇠	고	6	11	14	19
돼	지	6	-	10	43
치	-	1	10	25	30
조	당(粗 糖)	1,264	1,693	2,045	2,225

자료: 식량관리월보, 1971. 1월호, (일본 식량청)

인근인 일본의 경우만해도 쌀은 자급되고 있어도 밀·콩·옥수수 등의 도입량이 1,230여만톤(69년도)의 규모에 이르고 있으며 육류까지 도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식량생산의 측면에서 보면 지난 60년대를 통하여 총생산량은 꾸준히 증가되어 왔으나, 특히, 주곡인 쌀의 경우에는 생산기반의 미비로 인하여 풍흉의 기복이 심하였다.

또한, 도시의 확장, 공장·도로·주택등 부지수요의 증가에 따른 경지이용 면적의 감소로 인하여 식량작물의 총 식부면적이 60년대 후반기를 기하여 감소되기 시작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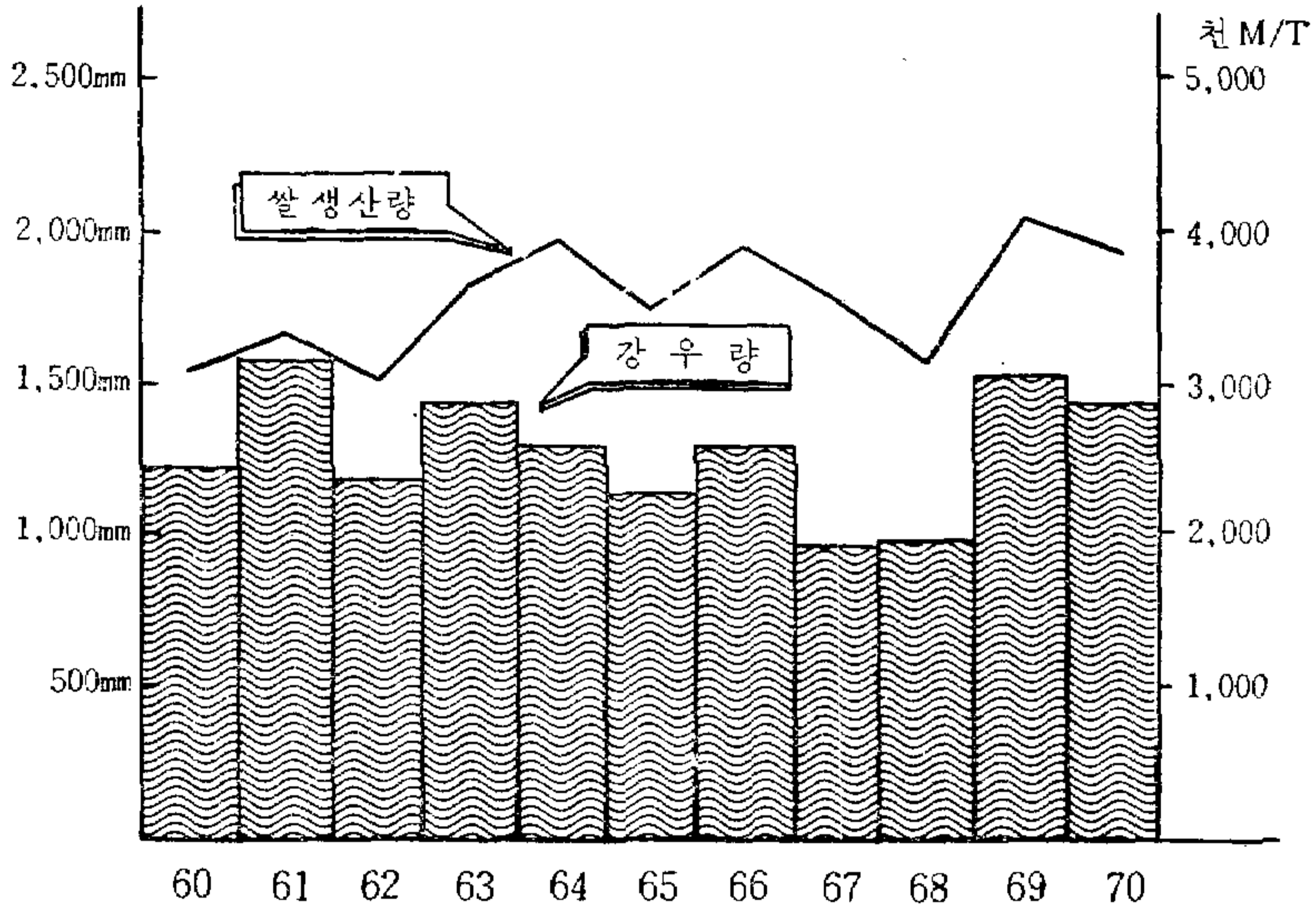
이러한 경지면적의 감소현상 때문에 생산기술의 혁신을 위한 지도사업이 강화되고 재정투자를 증가시켰음에도 생산증가가 소비증가를 미쳐 뒤따르지 못하게 된 것이다.

나. 자급향상 시책

양곡의 자급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강구할 자급향상시책은 농업용수개발과 과학적 물관리, 경지정리와 기계화, 농업자재의 증가투입, 종자갱신과 병충해방제, 고미가정책의 지속을 비롯한 가격지지, 새로운 영농기술의 보급에 중점 방향을 설정하고 경지이용을 고도화하는 동시에 단위 생산고를 향상시키도록 할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농업생산의 고질화된 특징의 하나는 장기적으로 볼때는 생산이 증가되는 추세에 있으면서도 단기적으로 천후조건의 변동에 따른 한·수해로 생산에 기복이 심하였다는 것이다. 이로써 계속된 생산증대를 위한 노력이나 비료·농약의 투입이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게 되는 예가 적지 않았다.

이에 대응하여 68년이래 농업용수개발사업이 지표수뿐 아니라 지하수까지 포괄하는 광범한 범위속에서 대규모의 재원과 기술을 집중 투입하면서 강력히 추진되어 왔으며 이러한 농업용수개발 사업은 근본적인 생



자료 : 농림부 농업생산국

산기반을 굳히기 위해 계속 추진하므로서 한해의 걱정을 일소토록 할것이다.

농업노동력의 감소화 현상에 대처하여 영농의 기계화를 도모하고, 생산비를 절감하며, 새로운 기술의 도입으로 증산을 이룩 하기 위하여 경지정리는 필수적인 전제조건이 되고 있기 때문에 농업용수 개발과 병행하여 경지정리사업을 집중적으로 계속 실시할 것이다.

기계화사업은 경제발전에 따른 산업구조의 고도화로 농업부문에 고용되어있던 노동력이 공업부문으로 유출되므로서 지금까지 노동집약적으로 경영되어 온 농사가 새로운 차원으로 전환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농업생산성의 획기적 증대를 위해서 필요한 각종 작업

량의 증가는 기계의 도입이 전제되고 있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내에 성취시키도록 할것이다.

이와같이 생산기반을 정비한 위에서 비료등 농업자재를 합리적으로 증가투입하고 새로운 다수확 종자를 개발하며 재배 과정에서 발생하는 병충해를 적극적으로 방제함으로써 증산시책 수단간의 상호간 질서있는 결합을 이룩하여 여러가지 증산요인의 증산 효과를 한데 뭉쳐서 극대화시킬 것이다.

또한, 앞으로의 자급시책은 생산의 증대를 위한 물리적 조건의 개선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농민의 증산 의욕을 고취시키는 동시에 과잉소비를 억제하고 식량의 합리적 소비를 유도하기 위하여 고미가시책등 가격지지 시책을 아울러 강구할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새로운 영농 기술을 개발보급하여 지속적인 생산성 향상을 기하도록 할 것이다.

이러한 중점 방향에 따른 제시책과 아울러 농경지의 이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경지 이용을 고도화하는 새로운 방안을 강구토록 할 것이다.

다. 자급의 장기전망

앞으로 양곡의 소비수요 증가추세와 강구될 증산시책에 비추워본 자급전망은 주곡인 쌀의 경우는 제3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목표년도인 '76년에는 자급하게 될 것이며, 수요가 격증하고 있음에 반하여 국내생산능력이 제약되어 있는 밀·옥수수류의 경우는 71미곡년도의 자급도 밀 22.0%, 옥수수 15.7%를 76년에는 각각 45.7%와 18.0%로 향상시키도록 할것이다.

이에따라 전체양곡의 자급도는 표에서와 같이 71미곡년도의 77.9%에서 76미곡년도에는 85.1%로 향상되게 될 것이다. 밀의 증가되는 수요는 주로 제과등 가공식품의 증가에 기인하고, 옥수수의 수요증가는 사료수요의 증가에 연유되고 있으므로 장래의 양곡자급문제는 쌀에서 밀·

옥수수료, 순식용 양곡에서 가공 또는 사료용 양곡으로 바뀌어질 것이다.

밀과 옥수수는 경작조건상 어느 지방에서나 유리한 작목이 되고 있지 못할 뿐 아니라 전량 농민들의 직접적인 소비작물이 아닌 관계로 생산

표 2-4 양곡 수급의 전망 단위: 천%, %

구	분	70	71	72	76
전체 양곡	소비	9,261	9,782	10,381	11,646
	생산	7,737	7,622	8,697	9,916
	자급율	83.5	77.9	83.8	85.1

자료: 농림부 양정국

이 크게 증대되지 못한 편이나 앞으로 이들 작물에 대해서는 새로운 품종의 개발과 경종법의 개선등을 통하여 수입을 가능한한 대체토록 할것이다.

2. 71년도 식량 증산시책

가. 증산 목표

71년도의 양곡증산목표는 70년도 생산에 비하여 7%가 증가된 8,007

표 2-5 71년도 식량 증산 계획 단위: 천%

구분	71 평년 (A)	70 실적 (B)	71 (C)	대비	
				B/A	C/B
미	3,815	3,939	4,104	103%	104%
떡	2,378	2,352	2,435	99	104
두	261	277	323	106	117
저	773	783	985	101	126
잡	129	124	160	96	129
계	7,356	7,475	8,007	101	107

자료: 농림부 농업생산국

천%으로 책정하였다.

이 가운데 쌀은 70년 생산보다 4% 증가된 4,104천%으로 계획한 것이다.

증산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시책은 농업용수개발, 경지정리등의 생산기반조성사업과 우량종자의 확대보급, 신품종개발, 비료의 균형시비와 적기적량공급, 병충해방제의 신속화, 지력증진, 벼집단재배기술의 보급에 주력할 것이다.

나. 우량종자의 확대보급

벼는 비올빈의 IR-8과 자유중국의 TNI, 일본의 유가라를 삼원교잡하여 새로이 개발한 「통일」의 보급을 중심으로하고, 병에 강하고 숙기가 빠른 다수확 도입품종들을 확대보급시키는 한편 국내의 장려품종들을 계속 보급토록 할 것이다.

「통일」은 포장재배시험결과 단수 506kg이 수확되었다. 이것은 70년의 쌀 전국 평균단수 325kg 보다는 181kg이 높은 것이며, 국내장려품종인 진흥·만경등의 단수 384kg 보다는 122kg이 높은 것이다.

71년에는 70년도에 포장재배하여 채종한 종자 82.5%을 2,750ha에 보급하여 지역적응시험을 겸한 재배로 72년도부터 적응지역 30만ha에 보급할 종자 12,400%을 생산토록 할 것이다.

도입품종으로서 이미 지역단위 시험을 마친 아끼바레, 스스가재, 사도미노리, 계곤 등 6개품종가운데 가장 우량한 아끼바레 등 3품종을 15만ha에 보급하고, 진흥·만경등 기존장려품종 20개품종을 작년과 같은 규모인 40만ha에 보급할 것이다.

맥류의 종자갱신은 벼에 비하여 관심과 지원이 미약했던 편이었으나, 금년도에는 쌀보리의 다수확품종 「수원 18호」의 23개 품종의 채종량 19,985%을 285.5천ha에 보급하여 증산을 기하도록 할 것이며, 콩은

「장단·백목」의 11품종의 종자 3,175M_t을 58.8천ha에 보급할 것이고, 옥수수에는 「황옥 1호」와 「북교잡종」을 8.4천ha에 보급하고, 감자는 「남작」의 2품종을 4천ha에, 고구마는 「신미」품종을 2.3천ha에 보급할 것이다.

종자갱신이 맥류·옥수수·콩·감자 등에 더욱 중점을 두게 된 것은 이미 설명된 것과 같이 식품소비수요가 전분질에서 지방질·단백질로 전환되고 사료용·가공용 양곡수요가 급증됨에 따라 이들의 도입량이 크게 증가되고 있으므로 이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노력의 일단이며 구체적인 계획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표 2-6 71년도 우량종자 보급 계획

구	분	70		71		
		보급량	보급면적	보급량	보급면적	단수
미	곡	M _t	천ha	M _t	천ha	kg
	통일 (IR 667)	—	—	82.5	2.75	506
	도입 품종	138	3.4	6,160	150	370
	장려 품	16,000	400	16,000	400	356
맥	류	20,623	294.6	19,985	285.5	216
	콩	1,023	20.5	3,175	58.8	103
옥	수수	435	8.7	420	8.4	231
감	자	9,293	9.3	8,430	8.4	243
고	구마	2,158	2.4	2,096	2.3	603
	계	49,670	738.9	56,348.5	916.15	

자료 : 농림부 농업생산국

다. 병충해방제의 신속과 철저

벼 농사가 병충해로 인하여 입는 피해는 연간 약 93만M_t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것은 총수확 목표량의 20.8%에 해당하는 것이며 병충해로부터 받는 이와같은 피해를 줄이는 방법은 신속하고 철저한 방

제에 있다.

71년도의 병충해로 인한 벼 감수의 방지목표는 45만¹/₁₀₀으로 설정하였으며 이것은 목표수확량의 약 10%에 해당되는 것이다. 병충해 방제는 수도 식부면적의 4배에 해당하는 4,776천ha에 대하여 실시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병해방제는 연면적 2,633천ha로, 총해방제는 연면적 2,143천ha로 설정하였다.

표 2-7 71년 병충해방제계획

구 분	70			71
	계 획	실 적	비 율	
병 해	천ha 2,483	천ha 1,979	% 80	천ha 2,633
총 해	2,341	1,795	77	2,143
계	4,826	3,774	78	4,776

자료 : 농림부 농업생산국

병충해의 방제를 신속히 하기 위하여 이미 확대 강화하여온 예찰체제를 강화해서 병충해가 발생한 후에 이에 대처하는 소극적인 자세를 버리고 병충해의 발생을 조기발견하여 만연되는 것을 미연 방지하는 적극적인 사전예방 태세를 갖추는 것이다.

병충해의 예찰은 농촌진흥청 산하의 172개 시·군농촌지도소에서 실시토록 하고, 즉시, 방제를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이동단위로 방제반을 편성하는 한편 읍·면단위로는 방제기동반을 편성하여 병충해 발생시에는 행정기관장 책임아래 효율적으로 방제토록 하였다.

특히, 지난 66년부터 실시해온 항공방제는 그 효과가 좋으므로 금년도에는 작년도보다 22천ha가 늘어난 30천ha에 실시토록 하되 방제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주로 평야지대에 실시토록 할 것이다.

공동방제는 작년에는 총해에까지 실시하였으나 금년부터는 병해에 한하여 실시토록 하였다. 따라서 금년도 병해공동방제면적은 1,193천ha가

따라서 금년도의 비료공급시책은 작년도와 마찬가지로 그 질적면에서의 사용방법과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판매방법을 개선하고 가격을 유지하는데 중점을 둘 것이다.

요소비료의 편중사용에서 오는 피해를 방지하고 시용효과를 올리기 위해서 3요소 균형시비를 계속 장려하고 복합비료의 공급량을 더 늘릴 것이다. 또한 식물의 생육과정으로 보아 이미 시비의 효과를 나타낼 수 없는 무효분얼기의 추비시용의 지양을 비롯하여 품종별·지역별 기상조건 등에 따른 시비의 합리화를 위해서 구체적인 재배력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지도·계몽하도록 할 것이다.

농민들의 비료구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비료가격은 원가상승에 불구하고 인상을 억제하여 왔으며, 금년도에도 비료의 판매가격은 현행가격을 그대로 유지시키도록 할 것이다.

실수요자인 농민들의 비료구입을 자유스럽게 하기 위해 지난 70년 10월 1일 실시한 비료판매방법은 앞으로도 계속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종전에는 비료를 농협을 통해서 이동조합 단위로 일괄 구입토록 하여 왔을뿐 아니라 농가의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현금과 외상의 비율을 6:4로 해서 판매하고 그중 외상비료대는 이동조합장을 대표로 하는 조합원 상호간의 연대보증에 의한 공동차주제로 일괄 회수해 왔다.

이것은 비료의 공급조건상 자유시장거래가 여러모로 불편한 점이 있어 정부가 일괄적으로 비료공급을 관리하므로서 지역별·작물별·시기별 소요량을 싼값으로 일괄 공급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농촌에서 농민들 스스로가 어떠한 비료가 필요하며 어느만큼이 필요한 것이냐 하는데 관한 스스로의 판단능력이 향상되어 왔기 때문에 이와같이 일괄적으로 공급하는 것은 오히려 적지않은 불편을 야기시켰다.

이러한 불편을 덜기 위해서 개선된 판매방법은 제한된 범위내에서의 자유판매로 변경하는 새롭고 획기적인 조치를 취한 것으로서 이 제도는

앞으로도 계속 발전 실시될 것이다.

새로 변경된 비료판매제도는 69년 4월 부터 8개도의 16개 지역을 선정하여 시험적으로 실시한 경험을 토대로 한 것인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비료판매는 조합단위에서 개별농가단위로 하고, 외상비료대도 농가개별책임으로 납부토록 했고,

둘째, 비료의 공급은 자립능력 있는 이동 농업협동조합에는 직접 그 판매업무를 이관토록 하고, 그렇지 못한 곳에는 시·군 농업협동조합이나 그 지소에서 현지에 출장하여 업무를 취급토록 하므로써 비료수배의 편의를 제공하도록 했으며,

셋째, 종래에는 농가에 한하여 비료를 판매하던 것을 원칙으로 하므로써 뒷거래를 막았는데, 농가가 아니더라도 비료의 실수요자이면 그에게도 판매할 수 있도록 했으며,

넷째, 질소·인산·가리를 5:3:2의 비율에 의하여 실수요자에게 시기와 량에 제한없이 무제한 판매토록 하므로써 질소편중구매에 의한 질소편중시용의 가능성을 해소하도록 했으며,

다섯째, 비료의 외상판매는 농가가 연간 구매하는 구매액의 40%이하로 하고 그 상환은 양비교환을 원칙으로 하므로써 농가가 상환기에 가서 너무 큰 외상값의 부담을 가지는 것을 미리 막고, 농가에 유리하도록 결정되는 양비교환율에 의해서 외상값을 상환케 하므로써 그 부담을 더욱 줄였다.

또한, 농가의 비료구입량의 대종을 이루는 미·맥용 이외의 비료는 전부 현금판매토록 하였다.

마. 벼 집단재배 단지의 지도 강화

벼 집단재배는 토양·기후 등의 조건이 같은 지역을 한개의 단지로 묶

어서 이곳에 적합한 종자를 단일화해서 보급하는 동시에 비료의 시비, 농약의 시용, 모판관리 및 모내기 등의 모든 작업을 통일하여 공동협업으로 시행하므로써 지역성을 살린 재배로 단위수량을 높이고 일관된 공동작업으로 능율을 올리는 새로운 방법이다.

이 방법은 68년에 일부지역을 중심으로 실시한 결과 그 성과가 좋았으므로 매년 그 범위를 넓혀왔다.

작년에는 22,896개 단지의 연면적 30만ha에 실시했으며 성적이 좋았던 지역에서는 단수가 평균 440kg까지 올라갔으나 일부지역에서는 평균 단수가 300kg으로 부진하였다. 그러나 전체 평균으로 계산해 볼때 전국의 집단재배단지 평균단수는 410kg으로 우리나라의 70년 평균단수 325kg보다는 85kg이나 높았고, 일본의 70년 평균단수 410kg과는 같은 수준이었다.

표 2-9 벼 집단 재 배

구 분	70	71
단 지 수	22,896 개소	22,896 개소
단 지 면 적	300 천ha	300 천ha
단 수		
최 고	440 kg	—
최 저	300 "	—
평 균	410 "	450 kg
증 수 량	171 천%	291 천%

자료 : 농림부 농업생산국

금년도에는 이러한 좋은 성적을 토대로해서 작년도의 미비했던 점을 더욱 보강·실시키로 하였다.

금년도 계획면적은 작년도와 마찬가지로 22,896개소의 30만ha를 그대로 유지하되 그 내용을 보다 충실히 해서 단수를 450kg선까지 올리므로써 총 291천%의 쌀을 증수할 것이다.

작년도보다 규모를 늘리지 않은 것은 작업을 통일하고 종자선택·병충해방제·비배관리 등을 공동으로 하는데 있어서 유능한 자원지도자나 독농가들을 손쉽게 확보할 수 없었음과 규모를 갑자기 확대시켜 농은결과 이에 대한 지원이 계획대로 뒤따르지 못한 경향이 없지 않았기 때문이다.

바. 지력 증진

최근에 와서 토성교정과 지력증진은 새로운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산성토양을 교정하기 위해서는 농용석회를 집중사용하고 저위생산답이나 추락답에 대해서는 토양에 부족한 규산질을 시용토록하고 있으며 근본적인 대책으로 퇴비의 시용을 장려하고 있다.

농용석회는 50만 μ 를 250천ha에 시용토록 하였으며, 이것은 작년도보다 시용량은 14%에 해당하는 62천 μ , 시용면적도 14%에 해당하는 31천ha가 각각 늘어난 것이다.

지금까지 석회석은 산지를 중심으로한 일부지방에서만 생산됨으로서 수송의 지연과 비용의 증가로 비효율적이었으므로 이것을 각 도단위로 소석회를 생산토록 하였으며, 포대에 단량별로 포장해서 공급하게 하므로서 길거리에 방치되어 소실되는 것을 막도록 하였다.

규산질 비료는 작년에 15천 μ 를 공급하여 8천ha에 시용하였는데 비하여 금년에는 40천 μ 를 20천ha에 시용하도록 그 규모를 대폭 확대시켰다.

또한, 퇴비의 생산도 그 목표를 작년보다 14% 증가된 40,385천 μ 으로 설정하고 이것을 연 3,078ha에 시용토록 계획하였다. 퇴비증산은 지력증진을 위하여 극히 필요한 사업이므로 올해에도 작년도보다 훨씬 강력한 증산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제 3 장 농가 소득 증대

1. 농어민 소득증대 특별사업

농어민소득증대 특별사업은 생산을 더 많이 하는 데에만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생산이 곧 소득증대로 연결되도록 주안하여 지역별 적성에 알맞는 생산물을 책정하여 재배에서 저장, 처리, 가공, 판매까지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지역의 여건으로 보아서 부근의 다른 지역의 발전에 대하여 선도적인 위치에 설 수 있는 지역들을 골라서 그 지방의 조건에 알맞으며 이익이 많고 잘 팔릴 수 있는 생산품목을 중심으로 주산 단지를 조성하고, 필요한 자금, 기술, 시설, 행정지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함으로써 생산의 특화와 집단생산에 의해 양산체제를 확립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생산의 조건을 소득에 직결시키기 위해서 지역내에 처리, 가공·저장시설을 설치 확장하고 수송시설을 개선, 보강하며, 판로를 개척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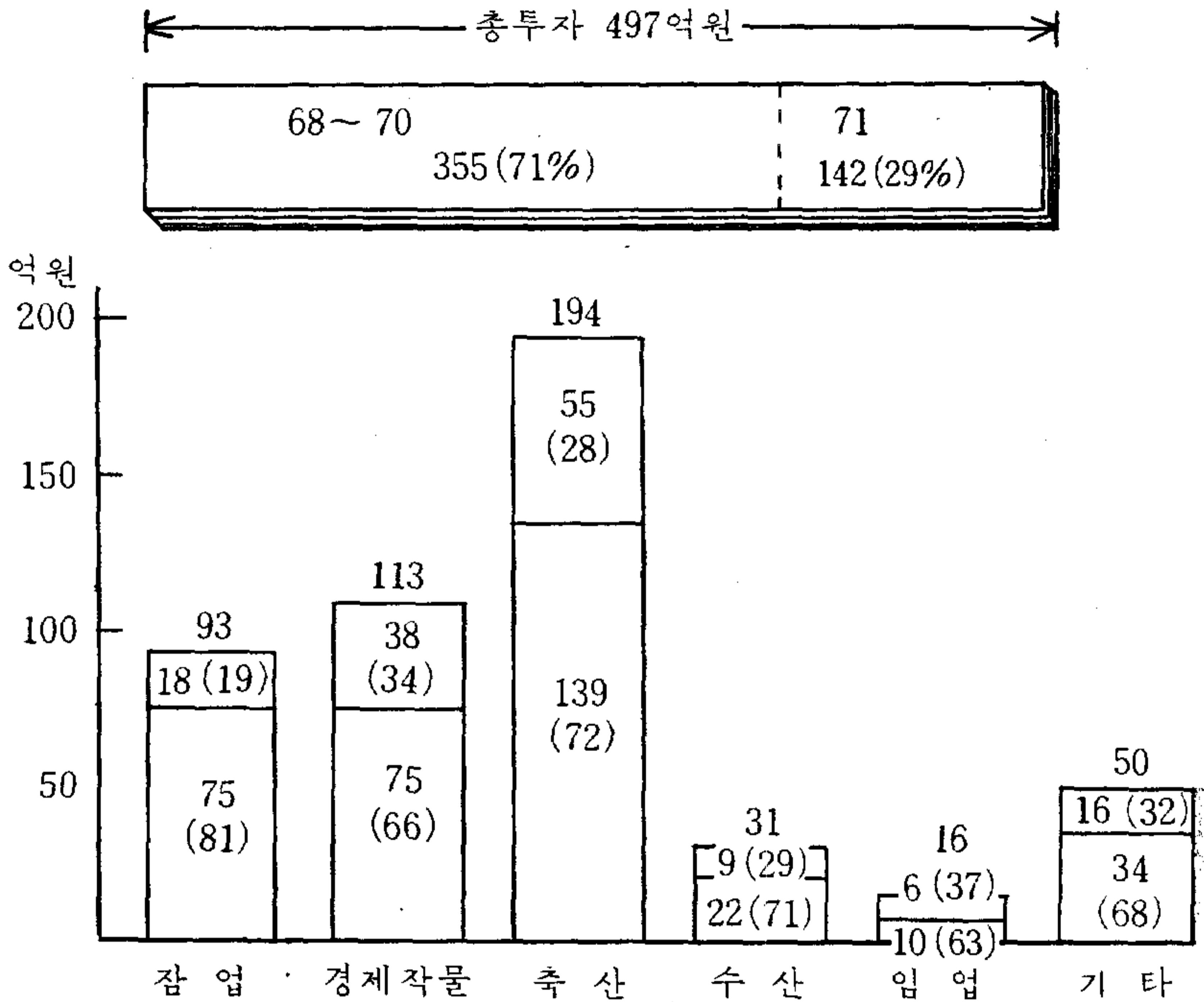
따라서 농어민소득증대 특별사업은 지역별 적성에 따른 생산·처리가 공·유통의 집중지원으로 전국의 농어촌을 지역단위로 발전시키고 소득을 향상시켜 주는 개발시책이다.

이 계획은 1차적으로 68~71년의 4년간에 90개의 주산단지를 조성하여 총 464천호의 농가를 참여시켜 497억원의 자금을 투입하고 있다.

70년까지 이미 자금의 71%에 해당하는 355억원이 투입되었으며, 18개 단지의 사업이 완료되었고, 금년도에는 나머지 72개 단지에 142억원을 투입해서 1차계획을 끝맺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표 2-10

71년도 농어민소득 증대 특별사업 목표



자료 : 농림부 농업개발관실

주요사업은 축산, 경제작물, 잠업, 수산, 산림 등으로서 지금까지의 1차계획 진도를 보면 경제작물이 66%, 잠업이 81%, 축산이 72%, 수산이 71%, 임업이 63%, 기타 사업이 68% 진척되었다.

금년도에는 우선 지금까지의 성과와 경험을 토대로 하여 사업추진 방향을 조정하여 1차계획을 완수토록 할 것이다.

먼저 성과가 없었던 품목들을 삭감조정하고 성과가 좋은 품목들에 집중지원토록 할 것이며, 단지내에 이미 설치한 가공공장의 가동율을 높이기 위하여 양송이 재배단지에 복숭아를, 잠업지구에 한우를 입식시키는 등 품목을 복합하여 상호보완되도록 할 것이다.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미 지원된 한우·젓소 의등 사후관리를 강화토록 할 것이며, 영농 및 기술, 경영지도를 적기에 할 수 있도록 농촌지도요원을 단지에 집중배치하는 한편, 생산물의 유통개선과 판로보장을 위하여 농수산물 가격안정기금 및 수출지원자금을 활용토록 하므로서 적정가격에 의한 판매를 보장할 것이다.

2. 축산 진흥

가. 주요시책

증가되는 축산물의 소비수요를 충족시켜서 국민의 영양수준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농업의 혁신적인 구조개선을 위한 축산업의 본격적 개발을 위하여 71년에 취해질 주요한 시책은,

첫 째, 현재 추진중에 있는 농어민소득증대 특별사업의 일환인 축산단지 조성사업을 계속 확대하고,

두 째, 축산업의 기업화를 위하여 기업양축가를 육성 지원하며,

세 째, 가축의 자질개량을 기하고,

네 째, 시범 목장을 운영토록 하며,

다섯째, 사료의 수급을 원활하게 하고,

여섯째, 축산물의 유통시설을 개선 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농어민소득증대 특별사업중 협동축산단지는 우리나라 특유의 계절적인 협업양축 형태로서, '소가 없는 무축농가를 유축농으로 조성하고 소의 양산 체제를 확립하여 농가의 소득증대와 쇠고기의 공급 증대를 동시에 성취할 수 있는 것이다.

금년에는 작년에 조성한 72개단지에 이어 18개단지를 증가 조성하고, 이 지역의 참여농가 592가구에 1,320두의 소를 입식시킬 것이다.

기업축산의 육성은 농업구조를 현대화하기 위하여 전업으로 축산에 종사하는 대규모 목장을 조성하므로써 도시자본의 농촌유치를 촉진하고

선구적인 기업영농의 문호를 개방하기 위한 것이다.

가축의 자질 개량은 축산의 수익성을 올리기 위하여 선결적으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미 보급된 우량종축을 보호하고, 더 많은 우량종축을 보급하는 동시에 인공수정사업을 강화하도록 할 것이다.

시범목장은 목장경영의 경험을 전파시키고 선도적인 양축가를 교육훈련하기 위해서 특별히 설치하는 모범목장으로 71년도에도 이 사업을 계속 추진 할 것이다.

사료는 조금만 규모가 큰 축산경영이면 바로 직면하는 중요한 문제인데 지금까지 사료의 가격이 불안정하거나 공급이 원활치 못해서 많은 농가들이 손해를 봤었다. 이러한 폐단을 없애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으로서 초지를 확대 조성하고 자급사료의 증산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사료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정부가 일정한 량의 유통사료를 직접 조절하도록 하였다.

올해에는 이미 확보된 930백만원의 사료조절기금을 활용해서 이러한 가격진폭을 더욱 줄이므로서 안심하고 가축을 기를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또한, 축산물은 다른 농산물과는 달리 부패성이 강하고 변질되기 쉬운 것이므로 이의 위생적인 처리와 공급이 필요하기 때문에 금년에는 이를 위한 가공·처리 시설의 확충에 중점을 둘 것이다.

나. 주요가축의 증식

주요가축증식은 우선 국내의 소비수요를 충족시키되 가축연말수의 계속적인 증가확보를 기하므로서 축산진흥의 실을 얻도록할 것이다.

소(한우)는 71년에 306천두를 생산하여 이중 281천두를 쇠고기 공급에 충당하므로서 총 43,874%의 고기를 공급할 것이며, 이것은 작년에 공급한 39,401%의 쇠고기보다 11.3%가 늘어난 것이다. 또한, 이와같

표 2-11

주요 가축 증식 목표

단위 : 천두(수)

연도		68	69	70	71 계획
가축					
한우	우	1,193	1,202	1,270	1,299
젖돼	소	13	19	23	29
닭	지	1,396	1,362	1,121	1,444
	합	25,968	23,817	23,477	27,787

자료 : 농림부 축산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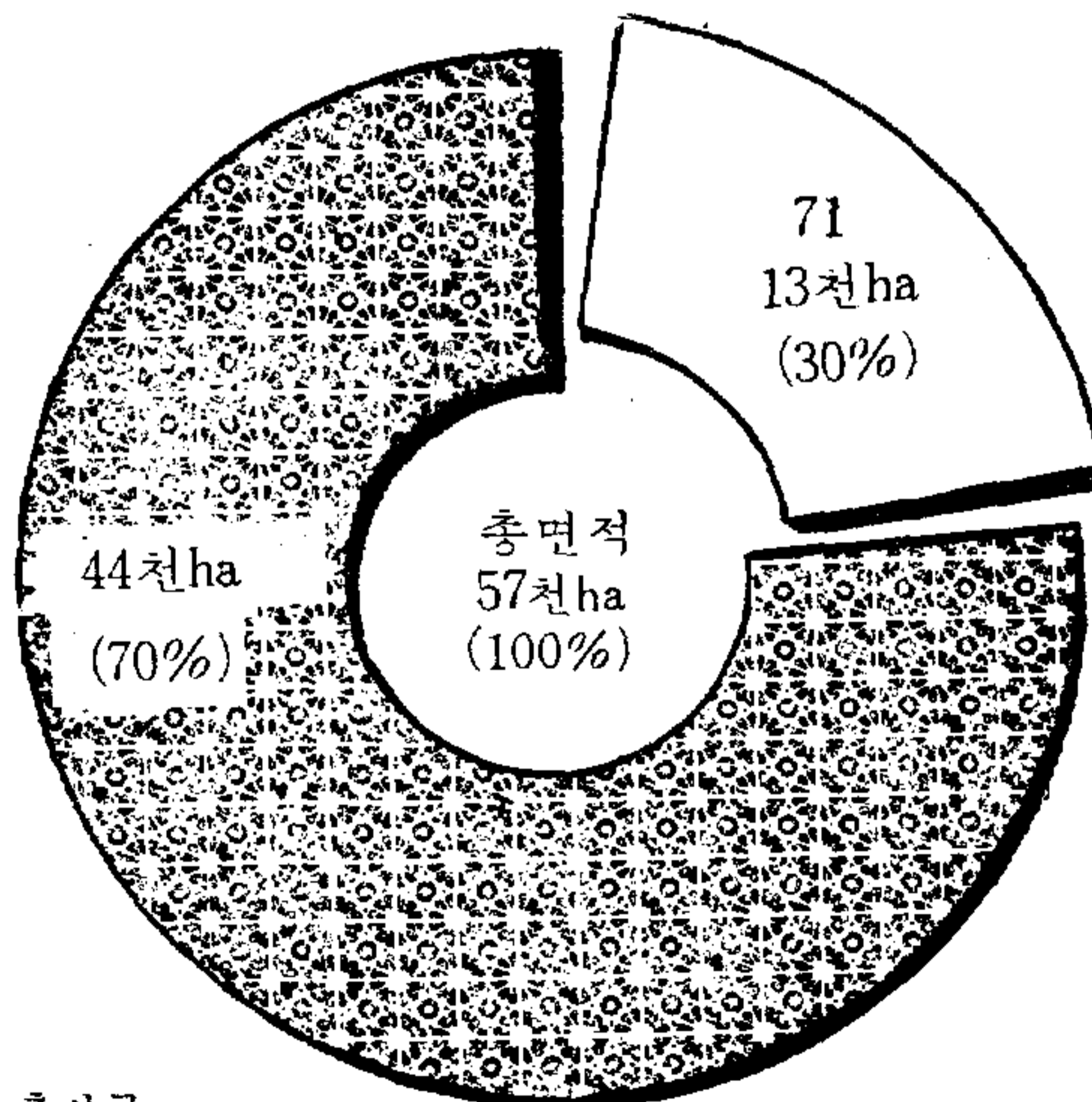
은 증식과 소비의 조정을 통하여 71년말의 한우 수는 70년말의 1,270천두보다 29천두가 증가된 1,299천두로 증가시킬 것이다.

한우의 증식을 위해서 한우를 역우로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육용에 쓰기 위한 비육(肥肉) 및 육성(育成) 사업을 시작해 왔다.

71년도에는 농어민소득증대 특별사업과 일반사업을 통하여 협동축산단지조성 및 취약지구 지원사업으로 총 47,509두를 입식하여, 38,009두를 비육하고 9,500두를 육성토록 할 것이다.

표 2-12

초지 조성



자료 : 농림부 축산국

또한, 이 지역에는 별도의 지원에 의해 초지 1,809ha 를 조성하게 할 것이다.

돼지는 일반농가가 손쉽게 기를 수 있으나 돼지고기가 쇠고기보다 덜 팔리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양돈사업을 시작했을때 시장수요의 부족에 따른 가격하락으로 피해를 입는 예가 적지않았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는 고기(肉類) 자체의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쇠고기 값이 올라서 쇠고기 소비의 돼지고기 소비로의 대체가 촉진되어왔기 때문에 71년에도 돼지 2,323천두를 생산해서 2,079천두를 소비에 충당케하므로써 총 83,163%의 돼지고기를 공급할 것이다.

이것은 70년도의 돼지고기 공급총량 77,447%보다 7.3%가 늘어난 것이 된다. 이에 따라 돼지의 연말수는 70년의 1,121천두에서 1,444천두로 증가될 것이다.

닭은 최근에와서 육용계의 소비수요가 증가된결과 양계사업의 규모가 크게 되었다.

71년에는 77,650천수의 닭을 생산하여 56,675천수를 육용으로 공급해서 총 60,364%의 닭고기를 공급할 것이며, 2,176백만개의 계란이 생산되도록 하고, 닭의 연말수를 70년의 23,477천수에서 27,787천수로 증가시킬 것이다.

젖소는 늘어난 우유소비에 대응하고 전업적인 기업축산을 일으키는 핵심으로 증식이 추진되어 왔는데, 금년에도 작년의 3,200두에 이어 3,500두를 도입하고 이미 확보되어 있는 젖소들을 자체증식시켜서 총두수를 70년의 22,800두에서 29,300두로 늘릴 것이다.

이에 따라 금년에는 우유를 작년보다 33.6%가 늘어난 56,860%를 생산하도록 할 것이다.

특히, 신선한 우유를 영양가가 유지되는 상태에서 공급하고 구매를 손쉽게 하기 위해서 가공·처리·저장시설을 태폭 확충할 계획이다.

70년도의 원유처리능력은 55천%이었는데 71년에는 4개소의 처리장과

2개소의 가공공장을 증설하여, 새로이 27천%의 처리능력을 추가하므로서 총 처리 능력을 82천%으로 늘릴 것이며, 시중에서의 신선한 우유공급을 위하여는 시유냉장고 800대를 설치하도록 할 것이다.

이러한 가공·저장·처리시설의 확충에는 490만\$의 엔(圓)차관과 700만\$의 IDA 낙농차관을 활용하게 될 것이다.

3. 경제작물 증산

경제작물은 도시인구가 늘어나고 소득이 올라갈뿐아니라 인구가 늘어나서 그 소비수요가 계속 증가되어 왔으며 수출 가능성도 커서 지금까지 농가소득의 향상, 수출의 증대, 국내 수요의 충족을 위해서 그 증산을 촉진해왔다.

71년에는 70년도의 생산량 3,023천%보다 4.7%가 증가된 3,166천%을 생산할 것이다.

채소생산은 70년보다 2.4%가 증가된 2,581천%을, 과일생산은 14.9%가 증가된 486천%을, 특용작물은 23.8%가 증가된 99천%을 생산하도록 할 것이다.

주요경제작물의 생산은 증산·소득증대·수출의 3면 효과를 통합시키기 위하여 농어민소득증대 특별사업을 중심으로 주산단지를 조성시킬 것이다.

농어민소득증대 특별사업에 의해 주산단지를 조성할 작목은 수출전망이 밝은 양송이와 수입대체효과가 큰 아마·저마·감귤 등 14개 품목으로서 총 72개의 주산단지를 조성할 것이다.

양송이의 생산에 대해서는 우량종균을 적기에 공급하고 재배사의 증축 및 신축을 지원해서 550만\$을 수출하도록 할 것이다.

감귤은 그 수익성이 극히 높은 편이나 재배의 적지가 제주도과 남해안지방에 국한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을 중심으로 묘목을 확대보급하도록 할 것이며, 아마와 저마도 증산하여 수입량을 줄여서 대체효과를

표 2-13

경제작물 생산 목표

단위 : 천%

구	분	71 목표	70 실적	71/70
특	용	99	80	123.8
과	작	486	423	114.9
채	물	2,581	2,520	102.4
	일	3,166	3,023	104.7
	소			
	계			

자료 : 농림부 농업생산국

거두도록 할 것이다.

경제작물의 생산이 언제나 판로의 확보가 문제시 되어왔기 때문에 수년전부터 농협 또는 실수요자와 농민간에 직접계약을 하여 재배하는 계약재배를 실시해 왔었다.

금년에는 정확히 수요가 예측되고, 이에 따라 책임매상이 보장되는 품목을 선정하고 계약재배농민에 대해서는 특별한 기술지도를 곁들이도록 하여 계약재배의 내용을 충실히 할 것이다.

특히, 71년에는 정부가 미리 생산물의 하한가격(下限價格)을 농민들이 작물을 심기 이전에 예시하고 생산물의 출회기에 가격이 이미 예시된 가격보다 낮아질 경우에는 정부가 책임지고, 그 산물을 예시된 가격으로 수매하도록 하는 예시가격제도를 확대실시할 것이다.

이것은 종래에 정부가 증산을 권장한 경제작물들이 때때로 너무 많이 생산된 까닭에 출회기에 그 값이 폭락하므로써 정부를 믿고 농사를 진 농민들이 뜻 하지 않은 손해를 본 경험이 없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미리 막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시책을 구현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미 정부는 163억원의 농수산물 가격안정기금을 확보하고 이것을 효율적으로 회전, 운용하므로써 이에 대처하고 있다.

4. 잠업증산

71년에는 70년보다 2,600%이 증가된 24천%의 잠견을 생산하여 5,400

만 \$의 생사류를 수출할 것이다.

특히, 생산성을 올리고 생사의 질을 높이므로써 같은 노력을 드리고서도 더많은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올해에는 작년에 56천상자 밖에는 보급하지 못한 우량잠종을 10배가 늘어난 561천상자로 대폭 늘려서 보급시킬 것이다.

뽕밭은 지금까지 조성해온 것들이 면적만 확장시켜 왔을뿐 그 단위생산성을 올리는데는 크게 힘을 기우리지 못한면이 있었으므로 70년부터는 확장을 지양하고 기존뽕밭의 비배관리와 보식을 통하여 그 생산성을 높이는데 주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올해에 총 5,000만주의 식상(植桑)을 하고 뽕밭용 4종복합비료를 증가사용하도록 할 것이다.

표 2-14 잠업 생산 목표

구 분	단 위	70			71	71/70
		계 획	실 적	비 율		
고 치 생 산	천%	23.4	21.4	92%	24	112%
생 사 수 출	백만 \$	38.5	40.4	105	46.4	112
식 상	만 주	5,000	5,000	100	5,000	100
우 량 잠 종	천상자	56	56	100	561	1,002

자료 : 농림부 농업생산국

양잠농가가 고치를 생산해서 판매할때 그 가격이 좋아야 수지가 맞고, 또 질이 좋은 고치를 많이 생산하게 되기 때문에 고치값을 예년보다 앞당겨 고시토록 했다.

이미 71년 2월 23일에 71년도 봄고치 가격을 작년 봄고치 가격보다 27.1% 인상하여 고시하였다.

또한 고치검사는 종래 육안검사에 주로 의존하여 왔으나 각도에 고치기계 검정시설이 갖추워졌기 때문에 이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여 보다 공정한 검사가 이루어지도록 적극지원할 것이다.

제 4 장 농업생산기반의 확충

1. 농업용수 개발

69년 말 현재로 우리나라 총 논 면적은 1,294천ha 이었고, 이 가운데 58.0%에 해당하는 757천ha 만이 수리안전답으로 나머지 533천ha는 한해 상습지로서 비가 안 오면 농사가 어려운 논이었다.

이 가운데 125천ha는 지하수나 지표수를 막론하고 농업용수를 개발하여 수리 안전화 할수 없는 논들이고, 나머지 408천ha는 농업 용수를 개발해서 수리 안전화할 수 있는 논으로 판명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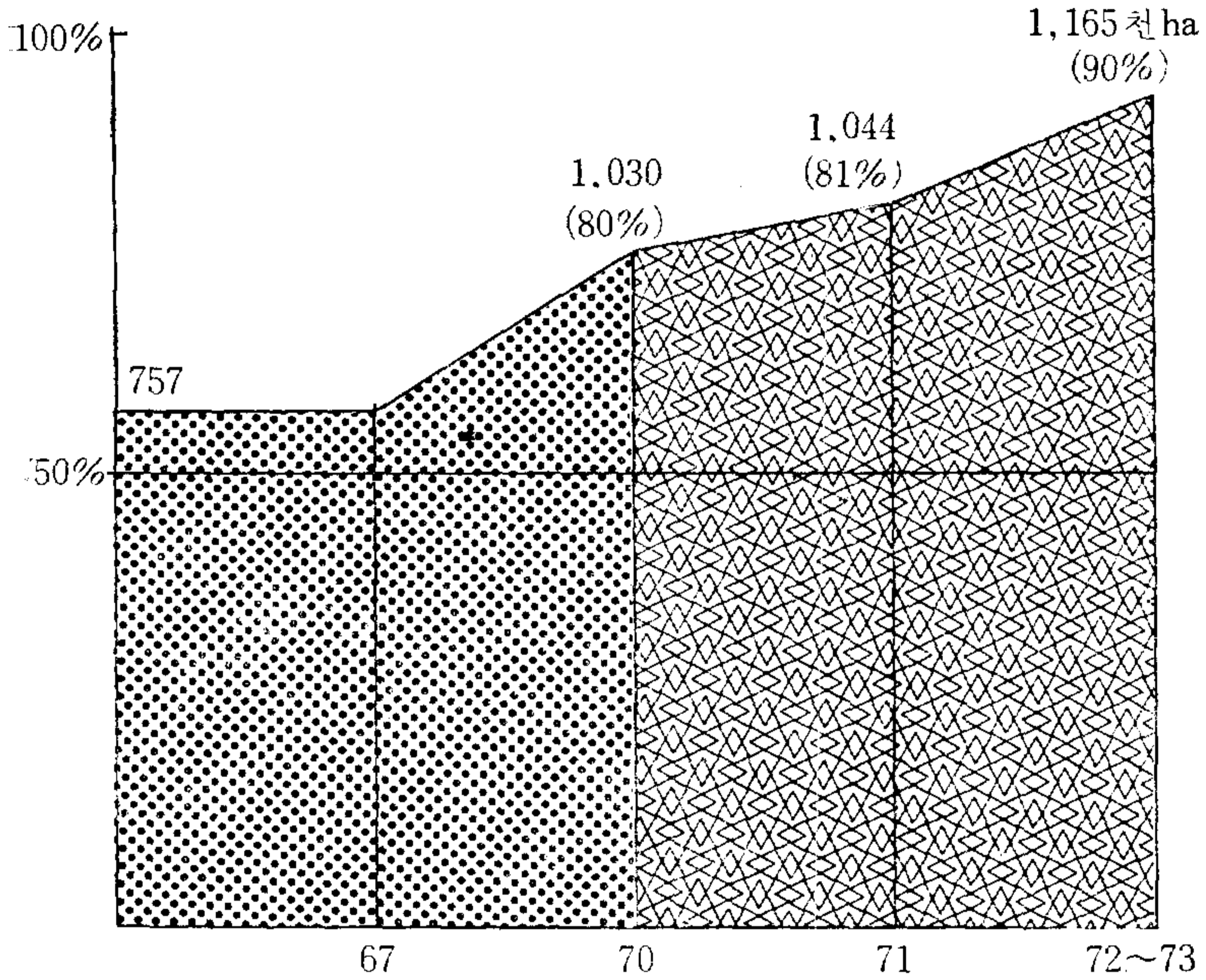
수리안전화가 불가능한 125천ha 중 25천ha는 아주 밭으로 전환하고, 100천ha는 건답직파(乾畚直播)하도록 하였다.

불안전답에 대한 수리 안전화 사업으로 408천ha에 실시하게 되었으며, 기존답의 보강 개발과 개답을 합한 목표는 534천ha가 되었다.

여기에 대하여 68년부터 관정(管井)·도수로(導水路)·양수장(揚水場)·저수지(貯水池) 등의 사업을 중심으로 농업용수 개발사업을 대대적으로 실시하여 왔는데 이 결과 68~70년의 3년 동안에 불걱정 없이 농사 지을 수 있는 논이 273천ha나 늘어 났으며 총 논면적을 기준으로 한 수리 안전화율은 80%로 향상 되었다.

71년에는 이와 같은 수리 안전도의 향상에 따라 농업용수 개발사업을 계속 추진하기로 하고 14천ha의 논을 새로이 수리 안전답으로 개발할 것이다.

이에 따라 총 논 면적 가운데 수리시설의 혜택을 받는 논 면적은 1,044천ha가 되어 수리 안전화율은 81%로 올라 가게 된다.



자료 : 농림부 농지국

또한 71년에는 지금까지 집중적으로 만들어 놓은 관정시설, 도수로 시설, 양수장 시설, 저수지 시설 등 수리시설들이 완전히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미리 시설을 점검하고 그 사후관리의 철저를 기하도록 할 것이다.

현재 관정은 전국에 49,441개소가 있으며, 집수암거는 5,632 개소, 양수기는 59,600대가 있는데 이에 대한 1차적인 점검을 1월말까지 끝내고 정비·보완작업을 모내기 이전인 5월 말까지 완료하여 벼 농사에 지장이 없도록 만반의 조치를 강구하였다.

2. 다목적 대단지 농업개발 사업

종래의 농업용수 개발사업은 한가지 공사의 시행으로 손 쉽게 물을 끌어 모을 수 있는 지역들만 골라서 실시 해 왔기 때문에 이와 같은 여건이 갖추어져 있지 못한 지역들은 그대로 방치되어 왔었는데 최근에 와서는 이러한 지역들까지 포함시켜 대단지로 묶어서 개발하는 대단지 개발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특히, 지하수의 개발이나 지표수 개발은 모두 지역이 한정 되는 것이므로 넓은 지역을 봉리지로 하는 대규모 사업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이렇게 할 경우 투자되는 돈의 효과를 가장 크게 하는 방법으로서 비단논 농사에 필요한 물만 해결 하는데 그치지 않고 사업지역내의 농촌에 전기를 넣어 주고 도로를 닦으며 주택을 개량하고 종자갱신, 경지정리, 농업기계화 등 각종 영농개선 사업을 집중적으로 통합 실시 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사업은 규모가 크고 소요자금이 많을 뿐만 아니라 기간도 긴 것이므로 주로 장기저리의 조건이 좋은 차관을 도입하여 투자 할 것이다.

가. 4대강 유역 종합개발

71년부터 실시되는 4대강 유역개발사업은 한강·금강·낙동강·영산강의 유역일대를 71~81년의 10년간에 총 3,140억원을 투자하여 댐을 건설하고 발전소를 설치하며, 기타 각종 사업을 통합·실시하는 사업인데 이중 농업부문 사업으로는 수리·배수·치산 등에 총 1,093억원을 투입하게 된다.

이 사업이 끝나면 17천 ha 가 관개 개선되어 약 342천%의 식량이 증산 된다.

또한 이 지방의 홍수피해는 반으로 줄어 들게 되며, 비가 올 때마다 침수되는 논들이 전혀 이러한 침수피해를 받지 않게 될 뿐 아니라 나무가 없는 험벗은 산들이 없어지게 된다.

나. 금강·평택지구개발

지난 69년부터 조사설계를 시작했고 70년에 국제입찰을 끝낸 금강·평택지구 개발사업은 69~74년간 총 305억원의 자금을 투입하여 32천 ha를 수리안전화하고 여기에 각종 개발사업을 집중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에도 작년과 이어 이 지역의 나머지 공사에 대한 국제 입찰을 끝내고, 아산 방조제와 배수갑문 시설 및 논산지구의 경지정리 등 4개지구사업에 3,215백만원을 투입할 것이다.

다. 영산강 유역개발

영산강 유역 개발사업은 이미 70년에 69백만원을 들여서 기초설계를 끝 냈으며 71년에는 145백만원을 들여서 세부설계를 완료하고, 부체도로를 신설하며 차관협정을 끝 맺도록 할 것이다.

현재 이 사업에 투자하기 위한 차관협정이 I.B.R.D와 추진중에 있으며 사업비 총액은 286억원이고, 이에 따라 수리안전화 되는 논은 총 22천ha이다.

3. 경지정리

특히 각종 영농작업을 하는데 있어서 이러한 조건에서는 리어카도 다닐 수없고 어떤 종류든 새로운 기계를 사용하기도 어렵다.

이와 같은 문제는 농촌에 일손이 모자라게 되고 병충해방제·비료시비 등 새로운 작업들이 자꾸 늘어 나게 되므로서 더욱 절실한 것이 되고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경지정리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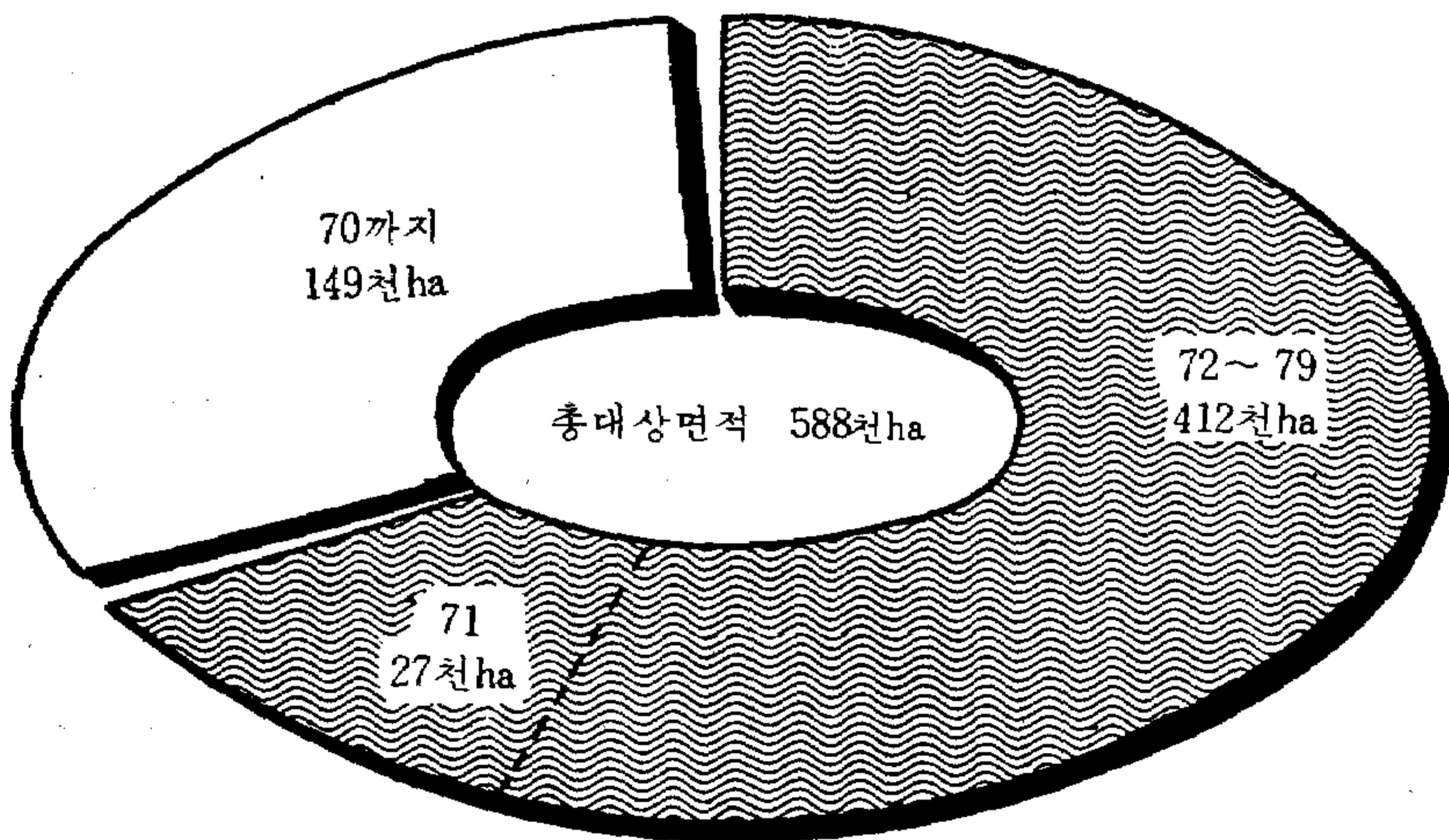
경지정리는 영농의 능률화와 기계화 및 물의 관·배수를 조절에 있어서 필수적인 전제조건이 되는 사업이다.

전체의 논 가운데 경지정리를 할 수 있는 논은 588천 ha이다.

이 가운데 해방전에 이미 38천 ha가 경지정리 되어 있었으며, 64~66년간에 43천ha가 경지정리 되므로서 대상면적의 14%가 정리 되었다.

표 2-16

경 지 정 리



자료 : 농림부 농지국

67년 부터 농업용수 개발사업과 함께 경지정리 사업을 실시하여 왔으며 67~70년간에는 종전의 정리면적의 배에 가까운 68천ha가 정리 되었다.

이에 뒤이어 71년에는 27천 ha의 경지를 다시 정리 하도록 하므로서 총 경지정리 담 면적을 176천 ha로 늘려서 대상면적의 3할이 모두 정리 되도록 할 것이다.

4. 농업 기계화

농업기계화는 생산성과 영농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꼭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서 71년에도 작년에 이어 동력 기계를 보급하는데 중점을 둘 것이다.

70년 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동력 경운기 수는 총 12,512대이며, 동력 분무기는 2,299대, 동력살분무기는 37,573대, 양수기는 57,447대, 트랙터는 99대 인데 71에는 동력 경운기 5,000대, 동력 분무기 1,700대, 동력살분무기 23,990대를 공급 하도록 할 것이다.

표 2-17

농업 기계화 계획

단위 : 대

구 분	70 누 계	71 보 급	계	72~76
동 력 경 운 기	12,512	5,000	17,512	38,740
동 력 분 무 기	2,299	1,700	3,999	13,500
동 력 살 분 무 기	37,573	23,990	61,563	84,300
양 수 기	57,447	—	57,447	22,995

자료 : 농림부 농지국

이에 따라 71년 말에는 동력 경운기 17,512대, 동력 분무기 3,999대, 동력살분무기 61,563대, 양수기 57,447대, 트랙터 99대가 될 것이다.

농업기계의 소요가 크고 앞으로 늘어 날 것이 예상 되는데 비하여 현재 국내의 농기계 생산공장 실태로는 이에 충분히 대응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될 뿐 아니라 기계의 국산화 비율이 낮아서 많은 외화를 들여야만 하게 되고 있다.

이에 새로이 개발되는 기계공업과 같이 해서 농업기계의 국산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장기 수급계획과 계획생산체제를 수립하도록 하였다.

즉, 농업기계 생산업체가 스스로 충분히 수지를 맞추게 되고 농민들도 기계를 구입 할 수 있게 되기까지는 원칙적으로 정부가 농업기계의 생

산업체나 이를 구매하는 농어민을 직접 지원하기로 하고 생산업체는 모체공장 중심으로 제열화 하도록 할 것이다.

농업기계는 작업량이 크고 관리 및 유지비가 큰 데 비하여 농가의 경작 규모나 이용연 면적은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규모가 큰 농기계의 운영은 공동구입에 의한 활용 또는 임대에 의한 활용에 의하여야 할 것이며, 각 지역에 기계수리소가 있어야 하고 농촌에 직접 기계를 움직일 수 있는 기술자들이 양성되어야 한다.

이에 대비하여 농업진흥공사에 농기계 운영관리 사업소를 두고 그 지소를 각 지방에 설치해서 대농기계의 운영과 수리에 종사하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농촌진흥청을 통하여 농촌 청소년에 대한 농기계 운용훈련을 실시 할 것이다.

제 5 장 유통개선과 가격지지

1. 양곡수급과 곡가안정

양곡의 수급은 국민의 기본적인 식생활에 직결되는 것이므로 어디까지나 기본방침은 국민식량을 확보하고 이의 수급을 원활히 하는데 중점을 두되 농가의 소득을 올리고 증산의욕을 고취시키며 필요없는 소비를 절약시키기 위해서 쌀에 대해서는 고미가시책을 지속시킬 것이다.

한편, 소비자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고 유통과정을 단축시킴으로써 마진을 줄일 것이다.

또한 양곡의 감모와 피해 방지를 위하여 70년에 실시해서 큰 성과를 본 쥐잡기사업을 71년에도 이어서 실시할 것이며 식생활의 합리화를 기하기 위한 소비개선운동을 적극 전개할 계획이다.

71년의 양곡 총수요량은 12,134천 ㄹ 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식량용은 작년보다 4.7%가 늘어난 6,873천 ㄹ 인데 비하여 가공용은 8.3%가 늘어난 1,734천 ㄹ , 사료용을 포함한 기타수요는 7.4% 늘어난 1,180천 ㄹ 이고 차년으로 이월될 것이 2,347천 ㄹ 이다.

식량용보다 가공용과 사료용등 기타수요가 더 늘어난 것은 이미 앞에서 우리나라의 양곡수급 추세변동에 언급한 것과 같이 현재 양곡수요변동은 식량용에서 보다는 다른 수요가 더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공급은 70년도의 곡물생산이 다른 해에 비하여 강우량이 별로 많은 것은 아니었음에도 일조시간이 줄어들어 수확량이 낮아져서 작황보다는 실제 수확량이 적었으므로 국내생산이 70 미곡년도의 7,631천 ㄹ 보다 9천 ㄹ 이 감소된 7,622천 ㄹ 으로 추정되었고, 전년도로부터 이월된 물량이 2,113천 ㄹ 으로 추산되므로 2,399천 ㄹ 의 양곡도입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외곡의 도입은 국내에서 수급의 차질로 인한 어려움을 막기위해 적기에 수입되도록 할 것이며 외화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장기저리의 차관을 이용토록 할 계획이다.

표 2-18 71년도 양곡수급계획 단위: 천톤

구분	연도	71	70	71/70	
				수량	%
수요	식량	6,873	6,565	308	104.7
	가공	1,734	1,601	133	108.3
	기타	1,180	1,099	81	107.4
	차년이월	2,347	1,937	410	121.2
	계	12,134	11,202	932	108.3
공급	전년이월	2,113	1,456	657	145.1
	생산	7,622	7,631	△9	99.9
	도입	2,399	2,115	284	113.4
	계	12,134	11,202	932	108.3

자료: 농림부 양정국

쌀값은 그 파동이 심할때에는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비교적 크므로 그 안정세의 유지가 필요시 되고 있다. 올해에는 미곡상들의 부당한 조작이나 반입량의 변동에 따른 가격 파동을 예방하기 위해서 정부가 직접 580만석의 쌀을 확보하고 이것을 도매가격 80kg가마당 6,500원, 소매가격 6,800원선에서 팔도록 하고 있으므로, 소비자들은 정부미의 판매상에서 6,800원에 쌀을 사감으로써 생활상 큰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할 것이다.

정부미의 방출은 지정된 등록소매상과 농협을 통한 직매장을 통해서 소비자에게 직접 팔게 함으로써 그 마진을 줄일뿐 아니라 쌀값의 안정을 도모할 것이다.

도매가격 6,500원에 방출되는 정부미는 등록소매상은 300원, 농협의

직매장은 250원의 유통비를 덧붙여 팔도록 하고 있으므로 소비자가 등록소매장에서 정부미를 사게 되면 6,800원, 농협직매장에서 사게 되면 6,750원을 지불하게 된다.

일반미의 유통은 산지의 수집상, 산지로부터 소비지로의 이출상, 위탁판매상, 도매상, 소매상등 여러 단계를 거치는 동안 평균 810원(가마당)이라는 중간경비가 발생하게 되고 이것이 소비자의 부담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이에 관한 행정지도를 가일층 강화하여 중간과정을 단축시키고 경비를 절감시키도록 할 것이다.

특히, 직매장과 등록소매상을 통한 정부미판매는 일반미로의 위장판매를 막기 위해서 그 제도정을 강력히 규제하고 대도시에서는 단량별로 포대를 만들어 봉해서 소포장품도 팔도록 하고 있다.

2. 일반농수산물 가격 평준화

농수산물의 유통량이 증가되고 있고 특히, 도시소비자들의 생활에서 농수산물은 기본식품인 까닭에 그 가격변동이 생활에 주는 영향이 크다.

이에 따라 중요농수산물 19개 품목에 대하여 비축조절사업을 실시하고 생산물의 출회기와 단경기(端境期)간의 가격진폭을 축소시켜 생산자와 소비자를 함께 보호하는 한편, 전체물가의 안정을 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결과 70년의 출회기와 단경기 사이의 가격진폭은 65~69년간의 평균진폭 42.7%에서 28.5%로 좁혀졌다.

71년에는 이미 확보된 농수산물가격 안정기금을 활용하여 수확기에 가격폭락을 막기 위해서 수매량을 늘리고, 단경기에 이것을 방출해서 생산자와 소비자의 손해를 막는 동시에 가격안정을 이루도록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우선 작년에 실효가 없었던 품목들은 대상에서 제외하고 기존품목에 유채와 전멸치등 새로운 품목을 추가하여 품목수를 20개로

늘렸으며 소비량이 크고 농민에 대한 가격보장의 필요성이 큰 쌀·고추·참깨 등 15개 품목은 직접 이를 구매하여 물량을 비축하므로써 물량조작을 통한 가격안정을 기하고 나머지 5개 품목은 가격통제를 통해서 안정시키도록 할 것이다.

비축을 위해서 필요한 창고시설은 정부가 소유하고 농협이 관리하는 양곡창고가 있고, 서울특별시와 농어촌개발공사가 가지고 있는 농산물창고가 있으며 수산업협동조합이 가진 수산물창고가 있다.

이들의 현재 보관능력은 양곡창고가 1,355천M³, 농산물창고가 11,470M³, 수산물창고가 1,569M³으로서 양곡창고와 농산물창고시설이 비축상 부족되는 것으로 계산되나, 실제로는 시기별로 비축되는 저장의 피크량을 볼때 무리가 없을 것이므로 이를 잘 활용토록 할 것이다.

3. 농수산물 수출증대

70년도의 총 수출목표는 10억\$이 었고 이 가운데 농수산물의 수출목표는 2억4천만\$이 었다.

그런데 농수산물의 수출액은 실제로 목표량을 10%나 초과한 264백만\$에 이르렀으므로 가장 좋은 성과를 올렸다.

이것은 69년에 비교하면 30.7%가 증가된것으로서 주로 과일·생사·농산통조림·버섯·참치 등이 국제시장가격의 상승 또는 수출량의 증가로 인하여 호조를 보인데 의존하고 있으며 새로운 품목들을 다방면으로 시장을 개척한데 기인한다.

71년에는 총수출목표를 13억 5천만\$로 설정하였으며, 그중 농수산물은 이의 22.3%에 해당하는 3억1백만\$로 책정하였다.

이것은 작년도의 실적 264백만\$보다 37백만\$이 늘어난 것이며,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금년부터는 계획수출체제를 확립토록 할 것이다.

또한, 수출품의 해외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수출창구를

표 2-19

농수산물수출

단위 : 백만\$

구분 \ 연도	62	65	69	70	71
계	34.2	64.6	202.1	264.0	301.0
농축산물	18.3	15.3	40.7	59.9	63.2
임산물	3.5	20.9	87.5	110.7	134.7
수산물	12.3	28.5	74.0	89.8	103.0

자료 : 농림부 수출진흥관실

조절하도록 하고 품질 및 포장의 개선을 기하도록 할 것이며 수출시장의 지역별 품목별 다변화를 이룩하도록 할 것이다.

71년도 농수산물 수출목표 301백만\$ 중 수산물은 34%인 103백만\$이고, 농산물이 21%인 63.3백만\$이며, 임산물이 45%인 134.7백만\$인데 전략품목별로는 합판이 125백만\$, 양송이가 5.5백만\$, 생사 46.4백만\$, 참치 53.0백만\$로서 이 네 품목만으로서 229.9백만\$이 되어 농수산물 수출목표의 74.6%에 해당된다.

합판수출을 위해서는 원료가 되는 목재의 확보를 위해서 추진되고 있는 해외 임지 개발사업을 확대해서 금년도에 39만m³를 조달하고 800만\$의 외화를 대부해서 원목도입의 기금으로 운용하도록 할 것이다.

양송이의 수출을 위해서는 양송이 재배사 건립에 자금을 지원하여 5만평을 신규로 확장하고 그 가공에 사용되는 공관을 국산으로 대체함으로써 가득율을 더욱 높이도록 할 것이다.

생사 수출을 위해서는 이미 구성되어 있는 뽕밭의 단위당 산출량을 늘리기 위해서 5천만주를 보식 또는 개식하고, 치잠공동사육장과 잠실을 20,501평 신축할 것이다.

참치수출을 위해서는 값이 비교적 싼 28척의 중고어선을 외화를 대부해서 사들이고, 기계공업육성 자금과 어업협력자금을 써서 새로 27척을 건조하여 총 55척의 원양어선을 늘릴 것이다.

제 6 장 농촌환경의 개선

1. 농촌 종합개발

농촌개발을 위한 지원이 종래에는 어느 곳에는 우물을 고쳐주고 어느 곳에는 지붕을 개량하고, 또 다른곳에는 농로를 개발하고, 다리를 놓는 등 모든 사업이 지역별로 분할 실시되어 온 결과 어느 한곳이고 뚜렷하게 변모된곳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슬한 사업들이 연결되서 종합되어 나타나는 성과가 뚜렷하지 못했다.

이러한 사정을 참작해서 작년부터 일정한 지역에 다리도 놓고 지붕도 개량하며, 길도 넓히며, 전기도 끌어 드리며, 공판장을 만드는 등 각종 사업을 집중 실시하므로서 이러한 사업들이 실시되면 우리가 살고 있는 농촌이 어떻게 변해지고 얼마나 살기 편하게 되는가 하는것을 실제로 한눈으로 보고서 알 수 있도록하여 이와같은 사업의 실시에 대한 농민들의 자발적인 협조와 관계공무원들의 이해를 촉구할 수 있게하는 종합 농촌 건설사업을 시작하였다.

이러한 계획의 하나로 경기도 안성 및 충청남도 천원지구와 충청북도 청원군 미호천 지구의 2개 지구를 선정하고, 여기에 70~71년간 총 32억57백만원을 투입하여 새 농촌상을 건설하기로 했다.

71년에는 69년에 이어 1,934백만원을 들여서 1,041ha의 천수답을 수리안전화시키는 농업용수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3,827ha의 논을 경지정리하며, 200동의 비닐하우스 건설을 지원하는 한편, 주택개량 4,317동, 농로개설과 하천개수 연85km, 농촌전화(電化) 5,742호를 실시할 것이다.

2. 농촌생활 환경의 개선

농어촌의 부락은 도시에 비교할 때 본질적으로 인구가 분산되어 살고 있기 때문에 전기를 끌어들이고 전화(電話)등 통신 시설을 가설하며, 마을로 들어가는 길 및 농사에 필요한 길들을 정비하고자해도 주민들의 수에 비교할때 아주 비용부담이 클뿐만 아니라 사용의 회수도 적다.

이러한 여러가지 이유에서 농어촌에 전기를 끌어들이든가 전화를 가설하며, 길을 넓히고 개설하는 일들은 뒤로 미루어져 왔으므로 농어촌은 과거의 상태와 변함없는 속에 있어서 생활의 편의가 도시에 비할 때 불편하였다.

이것을 보완시키기 위해서 농어촌의 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총 10만호의 농어가에 전기를 놓아주고, 1,200개소에 통신 시설을 갖추어 줄 것이며, 연장 7,400km에 이르는 농로를 정비·개설 하는데 지원할 것이다.

또한, 금년에는 농촌의 보건위생 시설 및 교육시설을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 전국 농어촌에 총 7,700개의 학교교실을 증축하고 507개소에 달하는 보건소들을 확장 또는 신축하도록 지원할 것이며, 100개소에 간이 상수도를 시설해서 위생적인 식수공급을 하도록 할 것이다.

한편, 이와함께 각 시도에서 주관하는 새마을 가꾸기 사업은 계속 적극지원하도록 할 것이다.

제 7 장 행정지원 강화

1. 농정추진방식의 개선

전보다 더 다양한 여러가지 농정의 시책들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년에는 다음과 같은 점에 중점을 두고 이를 개선해 나아갈 것이다.

가. 통계와 보고의 정확

통계는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현실에 맞는 정책을 마련함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므로, 그 정확을 기하여 시기를 놓치지 않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수 있게 되어야 한다.

71년에는 보다 과학적으로 통계처리를 하고 정확한 보고를 하기 위하여 일선통계요원들의 교육을 한층 강화하고, 지금까지는 시·도를 기초단위로 하여 표본조사를 실시한 식량작물 생산량 통계를 시·군단위로 보다 구체화 하는 한편, 농가경제 및 농산물생산비 조사는 지금까지의 전국단위 조사에서 도단위 조사로 구체화 하도록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전보다 자세하고 정확하며 지역별 특성이 밝혀지는 통계자료를 얻게 될 것이다.

또한 U.N. 식량농업기구(FAO)의 권장사업으로 작년 12월에 실시한 농업센서스의 실시 결과는 전자계산기를 이용한 과학적인 자료분석으로 신속히 그 결과를 알아 내므로써 앞으로 시책추진에 기초가 되도록 할 것이다.

나. 사후관리 철저

시급한 필요에 따라 여러가지 많은 사업들이 급하게 실시되어 왔으므로 이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므로써 본래 계획한 대로 그 성과가 지속되도록 할 것이다.

특히, 집중적인 농업용수 개발로 급격히 늘어난 관정, 양수기, 도수로 등의 각종 시설물과 이미 설치된 각종 농수산물의 가공·저장·유통 등에 관한 시설의 사후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도록 하고 사방·조립 후의 관리를 강화하므로써 사업효과를 올릴 것이다.

다. 완성·내실주의

하나·하나의 모든 사업이 적기에 완성되고 실속있고 알차게 이루어지도록 하므로써 투자된 돈의 값어치가 신속하게 나타나도록 할 것이며, 앞으로 새로 시작되는 모든 사업은 시행되기전에 충분한 분석을 거쳐 수익 전망이 좋고 나쁨을 미리 판단한 뒤에 사업이 시작되도록 하므로써 주어진 돈을 가장 효율적으로 쓰도록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모든 사업에 대한 수익성을 사전에 정밀히 분석하는 투자사업 심사제도를 도입하여 실시할 것이다.

라. 산학 협동 체제의 구현

농촌의 여러지역에 새로운 농사기술을 배우고, 교육하는 농촌지도소와 농업고등학교들이 많이 있으면서도 농민과 농업고등학교, 농민과 농촌지도소, 농촌지도소와 농업고등학교가 서로 긴밀하게 상보되어 일치된 속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이 이루어져 있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기관들의 역할이 지역사회 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였었다.

규모가 얼마나 늘어왔는가를 한눈에 나타내는 것으로서 금년도에 실시될 각 사업에 대한 지원능력이 크게 확대되었음을 표시하는 것이다.

사업별로는 토지기반조성이 가장 많은 181억원, 식량증산 135억원, 수산업은 130억원, 4대강유역개발 및 치수 140억원, 축산 64억원, 임업 56억원, 농사시험지도 50억원, 경제작물 34억원, 농어촌 생활환경개선 37억원, 농수산물수매자금 1,186억원, 외상비료대지원 123억원, 기타사업 363억원이다.

토지기반조성에 가장 많은 돈이 지원되고 있는 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우선 가뭄에 견디는 논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농업용수개발등 각 사업이 중점적으로 실시되는데 그 원인이 있으며, 농어촌생활환경에 대하여 농사시험지도에 다음가는 큰돈을 지원하는 것은 살기 좋은 농어촌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

특히, 과거와는 달리 농어민이 많이 생산해서 제값에 이익을 남기고 팔수 있도록 하기 위한 유통지원과 가격지지가 강화되었기 때문에 이에 필요한 수매자금이 전체 지원액의 47.5%나 되는 1,186억원에 이르고 있다.

여백

제 3 편 72년도 농업시책 방향

여백

제 1 장 시책방향

경제성장 과정에서 농업경제는 타부문의 성장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낙후되었기 때문에 많은 과제들을 대두시켜 왔는데, 장래의 농업은 현재와 같은 전통적 영농에서 상업적 영농으로, 노동집약적 경영이 자본집약적 경영으로, 저생산성의 과잉고용상태에서 고생산성의 적정 고용상태로 개선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같은 개혁을 촉진시키고 공업화과정에서 발생하는 농·공간의 격차를 시정하기 위하여 제3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에서는 「농어촌경제의 혁신적 개발」을 제1의 목표로 하고 대규모의 투자가 계획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제3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첫출발이 되는 72년도의 농업시책은 다음의 사항에 중점을 두고 추진토록 할 것이다.

1. 식량증산과 성장농업 개발

- 가. 식량증산
- 나. 축산진흥
- 다. 경제작물 증산
- 라. 잠업증산

2. 농업생산기반의 확충

- 가. 4대강유역 개발과 농업용수 개발
- 나. 경지정리
- 다. 농업기계화

3. 농어민소득증대 특별사업의 확대

4. 가격지지와 유통개선

가. 농산물의 가격지지

나. 유통조직 개편

다. 유통시설의 확충

특히 72년에는 쌀의 자급도 향상을 위하여 생산증대만 아니라 소비의 조절을 기하도록 맥류증산에 역점을 둘 것이며, 농가소득증대를 위해서는 지금까지와 같은 농업소득지원 일변도의 시책을 다원화하여 농한기 농외소득 증대를 위한 부업사업을 확대할 것이다.

또한 해방이후 농지개혁을 통하여 이룩된 현재의 농지제도는 경영규모의 적정성, 농경지의 보호등 여러면에서 새롭게 수립되어야 할 필요성이 크므로 앞으로의 농업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농지제도를 규정하는 농지법의 제정을 추진할 것이다.

제 2 장 식량증산

72년도 식량생산은 71년 평년작보다 13.2%가 증가된 8,327천ㄹ을 생산목표로 추진할 것이다.

표 3-1 식량작물생산계획

구분	71 평년작			72 계획			단수증가	생산량증가
	식부면적	단 수	생 산 량	식부면적	단 수	생 산 량	72/71	72/71
	천ha	kg	천ㄹ	천ha	kg	천ㄹ	%	%
미 곡	1,230.0	310	3,815.4	1,215	352	4,276.0	113.5	112.1
맥 류	1,137.8	209	2,377.6	1,074	238	2,552.0	113.9	107.3
두 류	375.1	70	260.8	370	90	335.2	128.6	128.5
서 류	191.0	405	773.3	200	499	997.3	123.2	129.0
잡 곡	147.7	88	129.5	137	121	166.5	137.5	128.6
계	3,081.6	239	7,356.6	2,996	278	8,327.0	116.3	113.2

자료 : 농림부 농산국

쌀은 단수를 71년도 평년작 310kg 보다 13.5%를 증수시켜 총 4,276.0천ㄹ을 생산할 것이며, 맥류는 71년도 평년작 2,377.6천ㄹ보다 7.3% 증가된 2,552.0천ㄹ을, 두류는 71년도 평년작보다 28.5% 증가된 335.2천ㄹ, 서류는 997.3천ㄹ 잡곡은 166.5천ㄹ을 생산토록 할 것이다.

이 계획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종자갱신을 비롯하여 농용석회, 규산질비료 시용에 의한 지력증진과 집단재배, 시비법 개선 및 병충해방제를 집중적으로 실시해서 단위수량 제고와 생산비 절하를 이룩할 것이다.

1. 우량종자의 확대보급

쌀은 71년도에 생산되는 12,357ㄹ의 「통일」법씨를 300천ha에 확대보급

하고 기존 갱신체계에 의한 장려품종 16천%의 보급종을 생산농가 자율 교환으로 보급하여 400천ha의 종자갱신을 기할 것이며, 70년도에 증식한 도입종인 아끼비레, 계곤등은 농가 자체교환으로 보급시켜 냉해지역과 병해 상습지에 우선 보급할 것이다.

맥류는 증식율이 낮기 때문에 종래 농가 위탁으로 증식포를 설치하였던 것을 72년 부터는 맥류 종자갱신체계를 개선하여 증식포 설치를 지양하고 미곡과 같이 원종포 면적을 확장, 원종을 확대 생산함으로써 보급종이 농가에 직접 교환보급토록 갱신체계를 개선할 것이다.

콩은 252ha의 채종포와 3,708ha의 증식포를 설치하고 3,062%의 우량종자를 생산하여 농가에 보급하게 될 것이다.

옥수수 국내 수요가 급격히 증가됨에 따라 우량종자 확대생산이 수반되어야 하므로 채종포산 종자를 800%으로 확대 생산 공급하여 6년 1기 갱신에서 4년 1기 갱신으로 갱신연한을 단축할 것이며, 감자는 해발 800m 이상의 고냉지에서 종서를 생산, 전국적으로 공급할 것이다.

2. 벼 집단재배

벼 집단재배는 68년도 부터 실시해온 결과 68, 69 양년간의 실적단수가 각각 전년도의 단수에 비하여 평균 23.0%, 70년에는 16%가 증가되는 성과를 가져왔으므로 71년도에도 계속 실시할 것이다.

집단재배의 규모는 지도력과 행정력을 고려하여 71년 규모대로 계속 이끌어 나갈 것이며, 집단재배지역의 단수는 집단재배실시전 단수인 353kg를 27.5% 향상시켜 450kg 수준으로 높임으로서 집단재배지역 300천ha에서 291천%을 증수토록 할 것이다.

3. 시비법 개선

비료의 3요소 균형시비를 위하여 기비는 전량 복합비료로 공급하고 단

비는 가지거름과 이삭거름의 추비로 사용토록 계속해서 장려할 것이다.

4. 비료공급

가. 화학비료 600천톤 공급

화학비료의 수요는 증량시비와 균형시비를 통한 식량증산을 도모하기 위하여 71년도 판매추정량 546천톤보다 10%증가된 600천톤으로 추정된다.

비료공급은 현재 국산비료의 생산능력이 연간 질소 410천톤, 인산 132천톤, 가리 43천톤 총계 585천톤이므로 질소질비료는 국내수요를 충족하고 잉여량을 수출할 것이며, 인산과 가리질 비료는 국내생산만으로는 수요를 충족할 수 없기 때문에 부족량을 수입하여 공급하여야 할 실정에 있으나, 인산질 비료만은 72년도의 국내생산량과 71년도말 이월량으로 72년도 소요량이 충족될 것으로 전망된다.

나. 토양 개량제 공급

산성토양 및 추락담등 저위생산지 개량을 위하여 72년도에는 석회비료 650천톤, 규산질비료 32천톤을 공급토록 한다.

석회비료 공급은 총소요량을 4등분하여 4년마다 1회씩 사용하는 4년 1기 공급체제를 도단위로 수립 집행토록 하고 적기공급을 위한 수송난해결과 보급촉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설자금 지원으로 건설된 도단위 석회비료 공장에서 생산되는 소식회를 위주로 71년도와 같이 무상공급한다.

규산질 비료는 토양중의 유효규산함량이 적어 소출이 적은 추락담 지대에 우선적으로 공급하여 시용보급효과를 점차적으로 높이도록 한다.

5. 병충해 방제

72년도 수도 병충해 방제는 식부면적의 500%에 달하는 연 5,965천ha를 방제목표로 하고 71년도와같이 식부면적의 1회에 한하여 공동방제하되 소요농약대는 전액 국고에서 보조하고 방제기구 사용료와 유류대는 지방비에서 부담하며 노력은 농민 자력부담으로 기동성 있고 효율적인 공동방제를 적극 실시토록 한다.

병충해 발생 예찰은 계속 172개 시군 농촌지도소에서 실시하고, 예찰 결과에 따라 발생전에 사전 예방하고 조기 방제토록 할 것이며 지도와 계몽을 강화하여 농민의 방제의욕을 고취시킬 것이며 항공방제는 72년에는 50천ha로 확대하여 평야지대에서 실시할 것이다.

병충해 방제는 방제시기가 한정되어 있어 매년 방제기구의 절대량 부족으로 병충해의 피해를 면치 못하고 있으므로 일제 방제 일수를 71년의 6일에서 5일로 단축시킬 것이며 이에 부족되는 기재는 국산기재로 충당한다.

농약은 계속 농협을 통하여 공급하되 수도용 공동방제용만 확보 공급케 하고 다른 농약은 시판화하여 농약을 적기에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므로써 예방위주의 병충해 방제를 실시할 것이다.

6. 맥류증산과 보리가격 예시

지금까지 쌀의 생산은 장기적으로는 계속 늘어나 왔는데 수요증가가 급속하였기때문에 도입량이 증가되어왔다. 이러한 과정에서 쌀값이 안정수준을 계속 유지하므로써 증가되는 소비수요의 현재화가 빨랐기때문에 쌀과의 소비대체관계에 있는 보리소비는 상대적으로 감소되었다.

특히, 보리의 경작은 다른 경제작물들의 경작과 경합관계에 있는데 수익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수확기의 노동력투입에서 벼농사와 경합되

어 노동력투입이 감소되는 등의 이유에 기하여 파종면적이 감소되어왔다.

표 3-2 보리 파종 면적 과 수확량

구 분	65	69	70	71
파 종 면 적	1,032 ^{천ha}	950	912	839
수 확 량	1,807 ^{천%}	2,066	1,974	1,858

자료 : 농림부 농업생산국

즉, 65년의 보리파종면적은 1,032천ha이었는데 그이후 계속 감소되어 71년에는 839천ha 수준으로 떨어졌고, 이에따라 생산량도 감소되었다.

보리공급의 이와같은 감소는 식량소비에서 사실상 쌀소비의 증가를 더욱 가속시킨요인의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보리생산을 늘려서 쌀소비에 대체하도록 보리증산에 힘을 기울일 것이다. 이러한 보리증산을 위하여 72년산 보리에 대해서는 파종이전에 미리 수매 하한가격을 예시하여 증산을 기하도록 할것이다.

즉, 보리의 가마당(76.5kg) 수매가격을 전년수준보다 27%(대맥)와 42.9%(과맥) 씩을 인상한, 71년산 하곡수매 가격보다 30%를 더 인상하므로써 보리(大麥)는 가마당 6,357원, 쌀보리(稞麥)는 가마당 6,040원씩으로 72년산 하곡수매 하한 가격을 결정 예시하였다.

이 예시가격은 하한 가격이기 때문에 72년 수확기에서 수매가격을 결정할 경우 최소한도 이수준 이상에서 결정하게 될것이며, 수매는 농민이 팔기 원하는 전량을 무제한 수매토록 할것이며, 맥파종농가에 대해서는 무이자 영농자금지원에 특별조치를 강구토록 할 것이다.

보리증산을 위하여 가격을 예시하게된것은 위에서 지적한것과 같이 수익성의 상대적 저하에서오는 경작포기를 막고우선 맥파종면적을 증가확보하므로써 증산을 기하고자 파종이전에 생산시의 수매가격을 미리 알리

는데 있다.

이에 따라 72년도의 맥류파종면적은 1,074.0 천ha 이상을 확보토록 하고, 단수를 71년평년작보다 13.9% 이상 향상시켜 총 2,552.0천^{1/4}의 맥류를 생산토록 할 것이다.

한편, 이러한 보리의 소비를 장려하기 위해서는 소비자 가격에서 쌀 값과의 격차를 늘리고, 보리를 싸게 공급하기 위하여 추진중에있는 「맥류에 대한 2중곡가제」를 더욱 확대 실시토록 할 것이다.

따라서 보리의 가격예시는 비단맥류의 생산증대 뿐만아니라 농업소득의 향상과 식량자급도의 제고에 공히 기여하게 될것이다.

제 3 장 농가소득증대

1. 농어민소득증대 특별사업

68년부터 71년까지 4개년 계획으로 추진한 1차 농어민소득증대 특별사업은 71년으로써 끝나치게 되었다.

경제작목의 장려방식이 주산단지조성을 내용으로 한 중·장기 계획지원을 골자로 한 특별사업방식으로 조성하는 것이 배분식방식으로 조성하는 것보다 효과적이라는 사실은 여러 차례에 걸쳐 실시한 농어민소득증대 특별사업의 평가에서 확인된 바 있다.

따라서 72년부터 76년까지의 5개년간에는 총규모 693억원에 달하는 2차 농어민소득증대 특별사업계획을 마련하였다.

2차계획 수립방향과 계획수립 과정에서 고려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계획목표

- (1) 국민경제의 고도성장에 따라 나타날 경제작목의 수요증대 현상을 본 계획에 의하여 생산 충족하고,
- (2) 적지 적작원칙에 의한 주산단지조성에 의한 지역개발을 실현하며,
- (3) 집단생산에 의한 생산성 향상과 합리적인 생산물의 유통대책으로 참여 농어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한다.

나. 계획기간

72년부터 76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하여 3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기간과 일치시켰다.

다. 계획의 성격

3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농림수산부문 경제작목 개발계획의 실천계획인 동시에 시군단위의 경제작목의 지역개발계획의 종합계획이다.

라. 1차계획의 미흡점 보완

대상사업을 경제작목의 주산단지 조성사업으로 국한하였으며, 단지규모를 1개군 1개단지 원칙으로 하되 지역여건에 따라 2~3개의 기간작목과 기간작목의 경영합리화에 필요한 보완작목(잠업사업의 상전유기질 구비 공급을 위한 한우지원)과 기간작목생산물의 처리, 가공시설의 가동을 향상을 위한 보완작목(양송이 단지에 있어 복숭아, 포도)을 도입하여 복합주산단지를 조성토록 하였으며,

적지적작의 실현을 위하여 품목별로 농업입지 이론에 의한 지대구분을 실시하여 기간작목에 한하여는 지대구분상의 적지작목을 선정토록 하였고,

품목별로 단년생작목은 76년까지 영년생작목은 81년까지의 수요를 추정하여 생산계획을 수요량에 접근하도록 시도하여 과잉생산에 의한 손실을 미연에 방지토록 하였고,

지원용자조건에 있어서도 품목별 성과년도를 충분히 고려하여 도입한 품목의 경영성과에 의하여 상환할 수 있도록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을 현실화 하였으며,

품목의 경영상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기업, 전업, 부업, 협업등 경영형태별 사업량 배정기준을 설정하는 한편 대상농가 선정에 있어서 본인의 영농의욕과 성실성을 검토, 선정토록 하고 대상자의 경영능력을 엄격히 판단하여 정량의 사업량을 배정하여 경영성과를 극대화 하도록 규제하였으며,

경제작목의 정부지원은 특별사업으로 일원화 하도록 하였다.

마. 대상작목 선정원칙

- 식량자급정책과 양립할 수 있는 품목
- 기술 또는 자금부족으로 가격정책에만 의존할 수 없는 품목
- 국내 및 수출수요가 국내 공급능력보다 큰 품목
- 국제비교생산성이 우위성품목으로 장기적 수출기여도가 높은 품목
- 가공공장의 원료권 형성품목
- 영세농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품목(한우, 잡엽)으로 엄선하여 1차 계획 대상품목 40여개를 22개 품목으로 제한하였다.

이를 기간작목과 보완작목으로 구분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 3-3 2 차 계 획 대 상 품 목

구 분	기 간, 작 목			보 완 작 목			계
	수출작목	국내 수요 작 목	작목수	수출작목	국내 수요 작 목	품목수	
잡 엽	잡 엽		1				1
경제작물	양 송 이	사과, 감귤,	3	저마, 인초	배, 단감, 포도	7	10
축 산		한우, 비육우, 낙농	3		복숭아, 생약		3
산 림	표 고	밤 나 무	2		나무딸기	1	3
수 산	굴, 백합		2	해태, 주요	미역	3	5
				패류			
계	5	6	11	4	7	11	22

자료 : 농림부 농업개발관실

이러한 계획작성 방향아래서 마련한 2차계획의 개요는 다음표와 같다.

표 3-4

업종별 투융자 규모 (72~76)

단위 : 백만원

업종	품목수	총소요액	국비	지방비	중장기 융자	단기융자	기타 (IBRD)	주민부담
전체	22	69,336	5,557	5,116	37,233	2,759	1,130	17,541
잠업	1	18,421	3,703	2,853	8,400			3,465
경제작물	10	12,935	584	734	5,559	2,125		3,933
축산	3	28,342	128	1,005	18,832		1,130	7,248
산림	3	3,680	455	324	996	634		1,270
수산	5	5,958	687	200	3,446			1,625

자료 : 농림부 농업개발관실

72년도에 추진할 135개 단지에 대한 투융자 규모는 약 136억원이며 각 업종별 재원별 투융자 규모는 다음 표와 같다.

표 3-5

72년도 업종별 투융자 규모

단위 : 백만원

업종	품목수	총소요액	국비	지방비	재특	금융중기	단기융자	기타	주민부담
전체	22	13,648	1,113	1,119	1,753	4,732	366	658	3,907
잠업	1	2,808	704	611	505				988
경제작물	10	2,555	72	128	360	868	318		809
축산	3	6,744	128	273	221	3,864		658	1,600
산림	3	701	112	83	184		48		274
수산	5	840	97	24	483				236

자료 : 농림부 농업개발관실

2. 경제작물 증산

경제작물은 증가되는 수요를 충족하고 농가소득을 향상시키며 수출을 증대하기 위하여 농어민소득증대 특별사업과 일반사업을 통해서 생산의 증가를 기하도록 할 것이다.

과실생산은 71년도 계획보다 22.4% 증가된 535천ㄲ을 생산할 것이며, 채소는 종래의 엽채류에서 영양가치가 높고 경제적 수익성이 많은 과채류생산으로 전환하여 2,630천ㄲ을 생산하고, 특용작물은 104천ㄲ을 생산토록 할 것이다.

이 계획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생산기반의 조성과 재배법의 개선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생산물의 판로 및 가격의 사전 보장과 유통체계의 합리화를 기할 것이다.

가. 생산기반의 조성

농어민소득증대 특별사업계획에 의하여 주산단지를 조성하고 수요판단에 입각하여 적정량을 계획 생산한다.

나. 경종방법의 개선

단위생산성의 제고를 위한 우량종자(묘)의 공급과 신기술의 개발·보급 및 경영의 협업화로 생산비를 절감시킨다.

다. 유통체계의 합리화

생산물의 판로 및 가격의 사전보장을 위한 품목(양송이, 아마, 저마, 인초, 참깨, 호프, 유채, 생약)은 농민과 수요자간에 계약재배(또는 구매계약)를 실시하며, 계절적으로 가격진폭이 심한 품목(고추, 마늘, 참깨, 양파)에 대한 가격평준화 시책을 계속한다.

특히, 양송이, 감귤, 저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시책지원을 강구할 것이다.

(1) 양송이

양송이는 농가소득증대와 통조림 가공원료 개발 및 수출의 유망작물로서 72년도에는 단위수량 증대와 생산권 확대를 위하여 우량종균 970.4천 Lbs를 공급하고 재배사 45천평을 신축하여 양송이 15천ㄲ을 생산한다.

(2) 감귤

감귤은 경제작물중에서도 수익성이 높은 작물로서 농가소득 증대와 더불어 급증하는 국내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제주도와 남해안 일부 적응지역에 1,750 ha의 재배면적을 확장한다.

여기에 소요되는 묘목 및 부대시설을 농어민소득증대 특별사업계획으로 지원한다.

(3) 저마

모시 옷감의 국내 수요 충족과 저마류의 수입대체를 위하여 전남 고흥의 주산지를 중심으로 400ha의 생산권을 확보하고 판로 및 생산자의 가격보장을 위하여 계약재배를 실시하므로써, 저마조피 560M_t을 생산한다.

3. 잡업증산

72년도의 잡업증산 주요 목표는 고치생산 27,550M_t, 생사수출 62,380천 \$로 책정하였다.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하여 잡업사업 전체를 농어민소득증대 특별사업으로 책정하여 다음과 같은 시책을 추진한다.

가. 생산기반의 유지보완

현재까지 조성되어 있는 뽕밭 10만ha 수준을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상묘 50백만주를 식상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뽕밭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3요소(인, 비, 유)의 균형시비와 유기질의 공급증대에 기여도가 큰뽕밭 전용비료 15,579M_t을 공급할 것이며, 최근 격증하는 뽕밭 병충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소요약제 1,250M_t을 공급한다.

또한 집단상전 조성으로 인한 노동력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 뽕밭 전용 경운기 500대를 공급하여 뽕밭관리의 기계화를 도모한다.

나. 고치생산

고치증산계획에 따라 이에 소요되는 잠실과 잠구의 부족현상을 초래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잠실 7,610동 증설을 지원하고 생력양잠을 적극 보급하기 위하여 시범치잠 사육소 설치를 목적으로 치잠공동사육장 20동을 건립하며 농가가 자급하기 어려운 개량잠구의 확보를 지원한다.

또한, 잠실잠구 및 잠체소독에 필요한 약제 879%를 잠업주산 단지에 중점적으로 공급하므로써 잠병의 예방과 잠작의 안정을 도모한다.

4. 축산진흥

가. 가축개량증식

(1) 한우증식

한우증식은 육성에 의한 생산증대와 비육에 의한 도살두수 절감효과를 기하기 위하여 2차농어민 소득증대사업의 추진과 축산업의 기업화를 위한 기업축산 육성 등을 추진한다.

이를 위하여 농어민소득증대 특별사업으로 한우육성 30천두, 한우비육 15천두를 입식시킨다.

(2) 낙농장려

IDA로 부터 7,000천\$의 차관을 공여받아 71~73까지 매년 1,700두의 젖소를 도입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축사 및 부대시설비 1,700두분을 지원한다.

(3) 기 타

가축의 자질개량을 위하여 전국 172개소의 인공수정사업소를 운영케 하고, 한우의 개량과 증식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가축품평회를 각도 별로 개최하고 도립 종축장을 신설·보완하고 우량종돈을 도입 입식시켜 가축의 개량·증식사업을 계속 실시한다.

나. 초지조성 및 사료대책

가축증식의 기반조성을 위하여 집약초지 4.5천 ha 를 조성하고 답리 작 사료작물 재배를 장려하여 자급사료 생산을 증가시키고, 유통사료 총수요량 1,436천톤의 15%인 244천톤을 비축, 조절하여 수급과 가격의 안정을 기할 것이다.

다. 축산물 유통

축산물의 소비확대를 위하여 P.R 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유통구조 개선을 위하여 제란 저장고, 도축장 시설, 도계장 시설을 각각 증설하여 축산물 유통을 원활하게 할 것이다.

라. 가축의 위생대책

양축경영의 안정, 가축진료, 가축방역등 위생대책을 위하여 가축보건소 등을 신설하는 한편, 축산물 검사를 강화하며 밀도살 단속에 주력할 것이다.

5. 농어가 부업의 장려

가. 현 황

지금까지 농가소득증대시책은 주로 농업소득을 증가시키는데 주력해 왔는데 영농규모가 영세하고 동계 유희노동력이 과다한 실정에서는 농업

이외의 수입원을 개발하기위한 부업진흥이 시급하므로 앞으로는 농어촌 부업사업을 본격화하여 종전의 산발적인 지원책을 지양하고 유관기관의 공동참여하에 종합계획을 수립, 자금, 기술지도, 행정력등의 제반지원을 집중적 할것이다.

부업사업의 조성방향은 동계농한기의 일반부업, 풍수해대상농가에 대한 재해대책부업과 장기계획에 의한 단지부업으로 나누어지며 특히 단지부업에는 수공업품류, 위탁가공품류, 농축산품류, 농용자재품류, 농산가공품류, 수산품류등의 62개품목에 달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농어가 부업사업의 실적 및 71년도계획은 다음과 같다.

표 3-6 농어가 부업사업 실적 및 계획

구	분	단	위	68	69	70	71 계획
품	목	수	개	58	57	59	62
단	지	수	개 소	18	148	229	353
종	사 호	수	천 호	1,191	965	1,014	1,319
종	사 연 인	원	천 명	—	62,081	77,831	81,177
추	정 소 득	단	백 만 원	3,411	10,177	13,668	20,516
	호	당	원	2,866	10,553	13,480	15,550
	1 일 1 인	당	원	—	163	176	253

자료 : 농림부 농정국

나. 기 본 방 향

(1) 부업사업조성대상은 경지규모 1ha미만 영세농어를 주대상으로 한다.

(2) 일반부업은 단기대책사업으로 추진하되 단계적으로 이를 단지부업으로 흡수, 겸업농으로의 항구적 기반을 구축하도록 지도육성 한다.

(3) 부업단지를 일개면 일개소 설치목표하에 전국적으로 1,528개소의 단지를 76년도까지 조성 완료하며 사업규모의 잠정적인 확대에 참여호수를 집중시키므로써 농외소득의 극대화를 기한다.

(4) 부업단지사업을 경제권중심으로 통합된 단위조합과 연결하므로서 효율적인 운영과 지도에 만전을 기한다.

(5) 기술의 도입과 훈련의 강화로 제품의 품질향상을 도모하며 판로개척에 힘쓴다.

(6) 지원자금 규모를 연차적으로 확대 투입한다.

(7) 농촌산품 및 노동력을 필요로하는 가공업체 및 공업의 농어촌 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8) 유관기관의 기능을 최대한으로 부업진흥에 주입토록 조치한다.

(9) 사후관리·평가를 철저히 실시하며 전시, 경진회를 개최하여 참여 농어민의 사기를 진작시킨다.

다. 72년도 사업계획

농한기를 활용한 영세농어의 부업소득을 높이기 위한 농어촌부업사업의 72년도사업 규모는

(1) 동계농한기(71. 12~ 72. 4)에 개별농어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부업사업을 71년도수준 이상으로 적기에 사업계획을 수립, 단기부업자금을 공급하며

(2) 수해에 의해 극심한 피해를 입은 충남지역에 중기저리 융자금 1억 원을 신용대출로 지원하여 재해대책부업을 추진토록하며

(3) 단지부업사업은 기존단지(353개소)에 대해서는 사업운영자금을 지원하는 한편 76년도까지 1,175개소의 신규 단지부업조성계획에 의거

표3-7 연 차 별 단 지 부 업 조 성 계 획

조 성 목 표	71말 현 재	72-76계획 (5개년간)	연 간 조 성 계 획
1,528	353	1,175	235

자료: 농림부 농정국

연간 약 235 개소를 연차별로 조성하되 이에 소요되는 중기저리자금 및 단기운영자금을 계속 지원한다.

(4) 한편 부업사업의 취약성(자금, 담보, 입지여건등)을 시정키 위한 조치로서 필요에 따라서는 부업조성진흥기금 설치와 신용보증제도 활용등을 내용으로 하는 『농어촌부업진흥법(가칭)』을 제정하여 더욱 더 본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므로서 전실하고 안정된 부업을 농어가가 영위케 하여 농공간 소득격차 해소에 기여코자 한다.

제 4 장 농업생산기반의 조성

1. 농업 용수개발

가. 농업용수

69년말 총담면적 1,294천ha중 67년까지 이미 개발된 수리안전담 757천ha를 제외한 한해상습지에 대하여 68년부터 70년까지 273천ha를 신규개발하고 보충수원개발, 배수개선등 41천ha의 보강개발을 실시하여, 67년도의 수리안전율을 58%에서 70년도에는 80%까지 제고 시켰고, 71년도에는 수리불안전담 신규개발 14천ha, 보강개발 6천ha 총 20천ha를 개발하여 수리안전담을 1,044천 ha로 개발하여 수리안전율을 81%로 제고시킬 것이며, 76년까지 수리안전율을 90%를 목표로 72년도에는 사업비 7,177백만원을 투입하여 수리불안전담 11천ha을 신규 개발함으로써 수리안전율을 82%까지 달성토록 한다.

표 3-8 농업용수개발계획 및 실적 단위 : 천 ha

구분	개발면적			사업비 억원	수리안전담		비고
	수리불안전담신규개발	보강개발	합계		누계면적	안전율	
총담면적	1,294					%	
67까지 안전담	757				757	58	
수리안전담화	68-70개발	273	41	314	280	1,030	80
	71개발	14	6	20	81	1,044	81
	72개발계획	11		11	72	1,064	82
전전환및파	125		125				

자료 : 농림부 농지국

표 3-9

72년도 농업용수 개발계획

단위 : 면 적 ha
사업비 백만원

시 설	면 적			사 업 비		
	준 공	계 속	계	국 고	지 방	계
집수암거	2,105	—	2,105	198	56	254
양 수 장	3,172	15,802	18,974	2,701	41	2,742
도 수 로	283	4,110	4,393	166	8	174
보	489	260	749	204	36	240
저 수 지	4,951	10,427	15,378	3,623	144	3,767
계	11,000	30,599	41,599	6,892	285	7,177

자료 : 농림부 농지국

나. 4대강유역 및 대단지 농업용수개발

한해대책 농업용수개발사업에 있어서 단일시설로서는 항구적 안전담화가 어렵고 사업규모와 투자 규모가 큰 지역에 대하여는 4대강 유역을 중심으로 종합적으로 개발이 가능하므로, 장기저리의 외국차관에 의한 대단위 다목적 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하여 항구적, 수리안전담을 조성하고 농경지확장, 경지정리, 농업기계화, 작부체계 개선 등을 이룩하여 획기적인 농업개발의 기반을 구축할 것이다.

표 3-10

계획의 개요 (72-76)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 업	사업량 (천ha)	투 자 (72-76)			
			중 앙	지 방	민 간	계
4대강 유역내	대단지종합개발(차관사업)	40	23,753		944	24,697
	단일용수원개발(한해대책)	44	11,537	3,000	2,000	16,537
	소 계	84	35,290	3,000	2,944	41,234
4대강 유역외	대단지종합개발(차관사업)	21	11,639		461	12,100
	합 계	105	46,929	3,000	3,405	53,334

자료 : 농림부 농지국

유역	지구	면적 ha	총 사업비		
			계	내자	외자
계		71,850	61,288	31,160	30,128
금강		37,350	32,665	16,961	15,704
	금강	15,650	12,065	6,076	3,989
영산강	평택	21,700	20,600	10,885	9,715
	영산강	34,500	28,623	14,199	14,424

자료 : 농림부 농지국

2. 경지정리

경지정리 총대상면적을 588천ha로 책정하고 70년까지 25%에 해당하는 149천ha를 개발하였고, 71년도에는 27천ha, 72~76년까지 3차 5개년 계획기간중에는 267천ha(금강, 평택, IBRD 사업지구 17천ha 포함)를 개발하여 총대상면적의 70%를 정리할 것이며, 72년도는 ha당 사업비를 237,500원으로 현실화 하는 한편 농민부담을 경감키위하여 국고 50%, 지방비 30%, 농민부담 20%로 배분하여 26천 ha를 정리할 계획이다.

3. 농업기계화

농업노동력의 기계화대체로 생산성을 높이고 적기적작 및 토지 이용의 고도화에 의한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농업기계화는 보다 시급히 요청될뿐 아니라 농업구조 개선을 위하여 점차 확대되어야 할 것이므로, 3차 5개년 경제개발계획 5개년 동안 일차적으로 수도작 부문에 동력경운기를 중심으로 농업기계를 보급하여 수도작의 기계화 일관 작업을 할

수 있는 농업 기계화 계획을 수립하였다.

72~76년까지 동력경운기 및 부속작업기 38,740대를 보급하여 경운
경지작업은 450천ha를 기계화 하며 병충해 방제작업은 동력살분무기
84,300대와 동력분무기 13,500대를 보급하여 1회 방제일수를 76년에는 5
일로 단축하고 양수기 22,995대를 보급하여, 이미 보급된 한해대책용 양
수기 57,447대를 계속 보유토록하며, 동력 탈곡기 26,800대를 보급하여
탈곡작업의 약 20%를 기계화 할 계획이다.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정부예산과 AID 등 국제기구로 부터 유리
한 차관자금을 도입하여 충당할 것이다.

이 사업비는 Pool 화하여 중장기 저리융자금으로 기계화를 조장할
것이다.

또한, 농업 기계공장을 제열화 하여, 보급되는 농기구는 완전 국산화
할 계획이며 이에 따른 농업기계요원 훈련은 농용트랙터를 제외한 일
체의 농업기계 기술요원훈련은 농촌진흥청에서, 대형 농업기계인 트랙
터는 농업진흥공사가 전담하여 실시할 계획이다.

72년도에는 동력경운기 및 부속작업기 5,500대, 양수기 2,880대, 동
력분무기 2,500대, 동력살분무기 13,800대, 사료절단기 310대, 탈곡기
2,000대를 보급하여 기계화를 촉진할 것이다.

제 5 장 농지제도의 개선

당면한 농정상의 과제인 농업구조의 개선, 식량의 자급, 경제작물의 증산, 그리고 농민의 소득향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합리적인 농지제도의 수립이 요청되는 실정이나 농지제도에 관한 근거법인 농지개혁법은 49년에 제정된 농지분배법으로서 농지개혁사업을 실질적으로 끝마친 현시점에서는 대부분의 조항은 존재 이유를 상실하였을 뿐 아니라, 동법 제정 당시와는 경제적, 사회적 여건이 달라져 획일적인 상한선의 설정등은 농업발전을 제약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무질서한 농지전용, 지가등귀에 편승한 비농가의 투기적 농지소유로 인한 농토의 유향화와 음성적인 소작 행위의 발생등을 합리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제도적인 대응수단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현행 농지개혁법을 폐지하고 농업의존도가 높은 농가의 농지 이용을 용이케하고, 이용의 효율화를 도모하며 구조개선 등을 위한 새로운 농지제도를 확립하기 위하여 농지법제정을 추진할 것이다.

농지법은 물적 적용대상을 지목여하에 불구하고 경작에 이용되는 토지와 그 토지의 이용에 제공되는 부속 시설로 하고, 농민과 농산 법인만이 소유할 수 있게 하되 3정보를 초과 경작할 수 있는 자에 대하여는 3정보 초과 소유를 허용하며, 농업지역을 설정하여 농지의 보전을 도모하고 농지의 타목적 전용을 사전에 규제하고, 타경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한편 농지의 고도이용을 위하여 경작을 의무화 하고 위반자에 대하여는 규제조치를 강구토록 할것이다.

제 6 장 농산물 유통

1. 양곡수급과 곡가안정

가. 양곡수급

양곡정책의 기본 방향은 종래와 같이 자유 거래를 원칙으로 하고 그 일부를 정부가 관리하는 이원 정책을 계속 실시하되 수급의 원활과 곡가 안정을 위해 적정 규모의 양곡을 정부가 관리한다.

72년도의 식량수급 원활을 위한 시책은,

첫째, 수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부족 양곡을 적기에 도입 확보하고 양곡도입 재원은 원조 또는 정부간의 장기저리 차관에 의할 것이다.

둘째, 양곡의 소비절약을 위하여 식생활 개선사업을 범국민적으로 전개하여 혼·분식을 자율적으로 여행함으로서 쌀 편식의 소비구조를 점차적으로 개선하여 쌀의 자급도를 향상한다.

셋째, 불요불급의 양곡소비를 억제하고 흉작 또는 국가 비상사태에 대비할 수 있는 일정수준의 양곡을 확보토록 양곡수급계획을 수립해서 수급의 안정을 기한다.

나. 곡가안정

곡가정책은 고미가 정책의 지속과 이중 맥가제의 확대 실시로 미·맥의 생산자 가격을 보장하는 한편 증산의욕을 고취하여 자급화를 촉진하고, 단경기 곡가를 적정선으로 유지하므로서 소비자 가격 안정을 도모하며, 특히 보리쌀의 소비자 가격 안정유지로 쌀소비 대체를 기한다.

또한, 양곡의 증산과 농업 소득증대 및 가격안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시책을 강력히 추진한다.

- (1) 수매가격은 농민의 증산의욕을 고취하고 농가소득증대를 기 할수 있는 수준으로 인상하여 고미가정책을 계속실시하고 맥류에 있어서는 파종전 예시가격제를 실시한다.
- (2) 정부의 수매규모는 출회기 과잉출회로 인한 가격하락을 방지할 수 있는 수준으로 증량 책정한다.
- (3) 충분한 물량을 사전 확보하여 정부의 양곡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민간양곡 유통 원활화로 시장가격의 안정을 기한다.

다. 양곡보관창고 건설

양곡의 보관은 정부창고와 민간창고에 보관하고 있으나 정부 창고는 15동(보관능력 125천ㄲ)에 불과하여 대부분의 양곡을 민간창고에 위탁 보관하고 있으며, 민간창고 4,354동(보관능력 981천ㄲ)중 50%이상이 정곡을 보관할 수 없는 노후창고이므로, 제3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기간에는 45동(보관능력 450천ㄲ)을 건설하여 노후시설을 점차적으로 대체할 계획이다.

2. 농산물 유통개선

농산물은 계절적 및 지역간의 가격차가 심할뿐 아니라 유통단계가 복잡하고 중간경비가 과다하다. 생산부문은 1~2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기간중에 생산기반의 구축과 성장농업개발로 급속한 발전을 이루었으므로, 이에 부응하여 제3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기간중에는 보관·저장·처리·가공시설을 확충하고 유통조직을 정비하여 중간마진을 축소하는 한편, 유통의 원활을 기하여 농수산물가격을 적정선에서 유지하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할 것이다.

가. 유통조직의 체계화

농산물 유통조직을 정비하여 중간과정을 단축시키고, 농수산물의 생

산시책과 유통정책을 연결시켜 수급과 가격조절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농수산물 도매시장법을 제정·운용할 것이다.

나. 고속 도로변 농산물 집하장의 활용 및 확장

농어민의 소득증대와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시책의 일환으로서 71년 6월부터 경부 및 호남고속도로상에 6개의 농산물집하장을 설치하였다.

이러한 집하장이 실효를 거두도록 시장정보 제공에 의하여 농민의 유리한 판매를 유도하고, 생산의 지역적 전문화를 위한 집단 주산단지를 조성하며 수송의 대량화와 고속화로 경비를 절감하도록 도모할 것이며, 앞으로는 국도변까지 확장 하도록 할 것이다.

다. 저온저장시설의 확장

기존저장시설을 체계화하여 농수산물 도매시장과 연결해서 활용토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한편, 유통저장수요증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제 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기간을 통하여 시설을 확장할 것이며, 농어촌 개발 공사의 한국 냉장시설을 중심으로 하여 전국망으로 확대되고 있는 cold chain 시설의 활용에 중점을 둘것이다.

표 3-12

저온저장시설 확장계획

단위 : %

구분 품목	소요	시설용량	과부족	72~76
농축산물	16,450	13,350	△3,100	
수산물	43,600	47,700	4,100	
계	60,050	61,050	1,000	4,000

자료 : 농림부 농업개발관실

라. 마케팅 정보 강화

유통구조 개선을 위하여 규격 및 품질의 표준을 정하여 생산기술 지도

에 의한 계약생산을 확대하고, 대량생산을 조장하며 기업농을 육성하기 위하여 시장동향과 일일의 시세등 시장정보의 홍보를 제도화하므로서 수급과 가격전망에 따른 계획생산 및 출하를 권장·지도토록 할 것이다.

마. 농산물의 가공시설 확충

72년도에도 농산물의 저장·처리·가공시설을 계속 확충할 것이며, 이미 설립된 기존 가공공장의 가동율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복합가공 및 원료권형성을 지원하는 한편, 가공제품의 판로확대를 위하여 해외시장 개척을 적극 추진할 것이다.

한편, UNDP 지원에 의한 식품연구소를 농어촌개발공사에 설치하여 농산가공식품의 신규개발과 품질관리, 기타 포장개선 등 제품의 질적향상을 기함으로서 농산가공업 육성과 수출증대에 기여할 것이다.

3. 농산물가격 평준화

72년도에는 70, 71 2개년간의 비축사업성과를 토대로 품목과 비축물량을 조정하여 사업을 수행하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수매는 품목별 적성에 따라 계약재배 또는 예시가격제 방식을 택하므로서 적정 생산량을 유도하고, 방출은 농수협 직판기구 이외 시·도 감독하에 있는 민간인 단체인 시장기구를 통하여 지방주요도시에까지 방출망을 확장함은 물론 비축품목이 집중적으로 거래되는 일반 대도시 상가에 비축품목 직매장을 설치하여 상인의 물가 조작을 조정토록 할 것이며, 비축품목 이외에도 국내 수요의 급격한 증가로 생산이 뒤따르지 못하고 있는 유채등 특수품목은 예시가격제를 실시하므로서 증산을 기할 뿐만 아니라 농가소득 향상을 도모할 것이다.

4. 농수산물 수출

농수산물의 수출은 71년도로서 3억\$을 돌파하여 본 궤도에 오르고 있는데, 72년도에는 농수산물 수출목표를 계속 늘려 71년보다 16.1% 증가된 360백만\$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의 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시책을 중점적으로 강구해 나갈 것이다.

가. 농수산물 수출진흥법에 의한 수출기반 조성

2차산품에 비해 여러가지 조건이 불리한 농수산물을 생산부터 수집, 가공, 수출에 이르기까지 계열화시켜 안정된 여건하에서 수출하므로서, 국제경쟁력을 강화키 위하여 앞으로도 유망한 수출전략품목에 대해서는 계속 지정품목을 확대하여 계획수출체제를 갖추므로써 확고한 수출기반을 구축해 나갈 것이다.

나. 수출 지원자금의 확대 및 적기지원

농수산물 수출진흥법에 의한 수출진흥 기금조성으로 수출에 따른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지원한다. 농수산물 수출준비자금에 의한 수집자금 지원은 용자대상품목을 현행 8개 품목(잠견, 해태, 천초, 송이, 갈저, 양송이, 오징어, 미삼)에 수출전망이 좋은 인초, 수산통조림, 냉동품 등을 추가하여 적기에 지원토록 하고, 모든 수출품에 대한 지원을 투자효과와 수출전망을 고려하여 집중화 할 것이다.

다. 동서 긴장완화에 대처하는 수출진흥 대책의 수립

동서간의 긴장완화와 이에 따른 중공등 공산국가의 자유진영 시장진출에 따라 그들과 경쟁적인 위치에 있는 생사, 돈모, 양송이통조림 등의

품목에 대해서는 수출기반 구축에서 부터 시작하여 품질향상, 포장개선 및 생산비절감에 이르기 까지 제반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동시에 새로운 수출경쟁국과 수출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대책을 신속히 강구해 나갈 것이다.

라. 수출제도의 개선

농수산물 수출제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출창구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현행 공산품 위주의 수출관계법령, 세제, 금융등을 농수산물의 특수성에 맞도록 개선하는데 주력할 것이다.

마. 신규품목의 집중개발 및 시장 다변화

국제시장에서 독점가격 내지 과점가격을 형성할 수 있는 우리나라 고유의 특산품을 집중적으로 개발하여 수출신장에 기여토록 할 것이며, 구라파등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새 시장을 개척하는데 적극 지원할 것이다.

제 7 장 농림행정지원

1. 농사 시험연구

가. 식량증산

현대적 실험시설인 세대단축온실과 인공기상실을 이용하여 질이 좋으며 수확이 많아나는 새로운 벼 품종 육성과 이미 육성하여 72년부터 보급시킬 벼 “통일” 품종의 단점인 찝빚성 및 밥맛 개선을 위한 시험연구를 계속 실시하고, 발작물에 있어서는 국내수요량이 급증하고 있는 밀, 보리, 콩, 옥수수등의 우량품종 육성시험을 보다 강화하며, 특히, 밀에 있어서는 익음때를 6월 20일에서 6월 10일로 단축하는 조숙성 품종을 육성한다.

노동생산성 향상과 생산비 절감을 위한 새로운 완효성 비료와 제초제의 개발로 생산성을 높이고 저위생산지 개량과 시비법 개선의 기초가 되는 토양의 비옥도 조사 사업을 조기완성하여 토지이용도를 작성해서 작물별, 지역별, 시기별, 적정 시비량을 구명하므로써 비료의 절약과 높은 시비효과를 올리도록 한다.

벼 소출의 저해요인중 가장 비중이 큰것이 병충해이므로 현재 병충해로 인한 연간 감수율 20.8%를 6.4%로 줄이기 위하여 UNDP와의 공동으로 전국적인 병충해의 분포 및 피해상황을 조사하여 방제법의 체계를 확립하고 연구조사 시설의 현대화와 방제기구의 개발로 효율적인 방제 성과를 거양토록 한다.

나. 축산진흥

영양가가 높고 가격이 싼 인공유를 개발하여 농가적응시험을 확대하
므로서 한우와 젖소의 비육효과를 증진시켜 농가소득을 증대시킨다.

서독과 기술협력으로 “초지연구소”를 설치하여 도입 목초품종의 적응
성 검정과 우량 산야초의 이용도 증진 및 토양개선, 사료의 저장과 가
공에 관한 시험연구를 실시하여 축산진흥의 기반을 구축한다.

가축품종 개량을 위한 가축능력 향상과 가축사양법 개선을 위한 사양
표준 제정에 관한 시험을 계속 실시하고 가축질병 예방약과 진단액의 질
적개량 및 생산비와 접종비절감을 위한 시험을 실시하고 전국적인 만성
질병에 관한 예방 및 치료법을 확립시킨다.

다. 경제작물 개발

농작물의 수출증대와 수입대체를 꾀하고 농가소득을 높이기 위하여 양
송이, 유채, 고추, 참깨 및 가공용 원예작물의 신품종육성과 생산성 향
상시험을 계속 실시한다.

라. 잠업증산

우량 잠품종의 육성, 생력 양잠법의 기술체계 확립, 생사의 품질향상
및 생사 가공비 절감을 위한 시험을 계속 실시하고, 뽕밭 생산성 향상
을 위한 뽕잎수확 기술의 체계 확립과 생력(省力)재배를 위한 상전기계
화, 지대별 시비관리에 대한 시험을 확대 추진한다.

마. 시험연구기관 통합 및 증설

시험지가 분산되어 있는 현 작물시험장 목포지장을 전남 무안으로 통
합 이전하여 시험포지 및 각종시설과 시험기계기구의 효과적인 활용으
로 시험연구의 운영의 적정을 기하도록 한다.

우리나라 사과재배의 중심지인 경북 대구에 원예시험장 대구사과지장을 신설하여 우량도입품종의 선발과 재배법 개선 및 저장, 가공, 병충해 방제, 생리장애 등에 관한 광범위한 시험연구를 실시하여 사과재배 기술의 개발과 품질향상에 기여토록 한다.

남해안 도서지방에 적합한 아열대 식물의 개발을 위한 원예시험장 남해안 출장소를 설치하여 아열대식물(과수, 채소)에 대한 품종의 육성 재배 및 생리 생태에 관한 시험을 실시토록 한다.

경기도 및 제주도 농촌진흥원을 비롯한 산하사업장을 이전 집결시킴으로써 노후시설의 대체와 활용도를 높여 지역시험사업을 강화토록 한다.

바. 시험연구결과 활용촉진

컴퓨터를 활용하여 시험연구사업을 보다 과학화 하고 얻어진 성적을 정확 신속하게 분석하여 연구결과의 활용도를 더욱 증진시키고, 농촌침투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우수한 농업고등학교 졸업생들을 각 시험연구기관에 배치시켜 전문적인 이론과 체험을 통한 실질적인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농고졸업생에 대한 기술훈련을 확대 강화한다.

2. 농촌지도

가. 벼 신품종 “통일” 집단재배단지 확대지도

벼 신품종 “통일”을 72년도에는 전국 300천ha의 집단재배 단지에 보급하고 재배기술 평준화와 협업경영지도에 역점을 두므로써 획기적인 미곡 증산을 기할 것이다.

나. 특수작목 신품종 증식보급

최근 육성되거나 도입된 원예, 특용작물 신품종의 종자 및 종묘증식을 겸한 새로운 재배기술의 전시교육장으로 활용할 전시포를 농어민 소득증대 특별사업지구에 집중 설치하므로서 농가보급의 신속화와 농가소득의 증대를 기한다.

다. 금강, 평택지구 개발지도

금강, 평택지구 다목적 농업개발지역에 주요작물 전시를 비롯한 지역 농민의 교육훈련을 중점적으로 실시하므로서 영농기술 혁신에 의한 단위생산성 증대와 생산권 확대에 의한 농가소득의 증대, 농촌사회 문화의 개발로 농촌근대화의 지표가 되도록 육성한다.

라. 농업기계 조작훈련 및 수리지도

농업기계화 시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시, 군단위 기존 농민훈련 시설을 활용하여 모든 농기계 수배(受配) 농민에 대한 철저한 사전조작훈련과 농번기 기술요원의 현지 순회수리를 실시하므로서 기계화작업 효율의 제고와 농업기계화의 촉진을 도모한다.

마. 메탄가스 이용시설 보급확대

농촌연료 자원개발을 위해 농가생산의 가축분뇨를 이용한 메탄가스 이용 시설을 69~71년도 까지 전국 4,300개 농가에 시범 전시하였는데 72년도에는 사업을 대폭 확대·보급하므로서 농촌생활환경 개선과 문화생활을 촉진할 것이다.

바. 4-H 영농 및 농기계 훈련강화

진취적인 농촌청소년들에게 중견 영농주로서의 자질과 기술을 함양시켜 장차 농촌근대화의 역군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첫째, 중앙농업기계 훈련과 지방 4-H 농공훈련을 강화하여 농업기계화 촉진에 기여케 할 것이며,

둘째, 한미기술협조 계획에 의하여 농촌청소년들을 일정기간 미국(2년간) 선진농장과 학교에 유학·훈련의 기회를 줌으로써 기업농의 경영방식과 실용적인 영농기술을 도입·보급케 할 것이며, 아울러 69~71년까지 3개년에 걸쳐 각도에 1개소씩 설치된 4-H 연수농장에서는 우수 4-H 부원을 1년간 입주·자영시켜 우리나라의 농업생산 구조개선을 위한 영농방법과 기술을 연수시키는데 주력할 것이다.

사. 농업 산학협동체제 강화

일선단위 농촌지도사업과 농업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산학일치 체제를 확립하고, 농림시책과 직결된 농업실기 교육의 실시 및 학교와 시책작목 단지와의 자매결연에 의한 증산운동의 참여로 농촌지도사업의 효율제고로 농촌근대화 촉진에 기여토록 한다.

아. 농촌 자원지도자 육성과 자조정신 고취

농촌의 자생적 농민학습 단체의 10만 농촌자원지도자에게 조직체제 확립에 의한 현지활동 의욕 고취를 위해 71년도에 착수된 농민회관 건축을 계속지원 완성시키는 한편, 주요농림시책의 수용자세 확립과 새로운 농업지식 및 영농기술혁신의 선도적 역할을 통한 자조, 자립, 자주정신 개발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 농민들의 자조정신을 고취하는데 핵심이 되도록 할 것이다.

3. 농업통계 개선

가. 식량작물 생산량조사

현재 시·도를 모집단으로 하여 조사하고 있는 미곡, 맥류 및 서류의

생산량 조사는 시·군단위의 지역통계 작성이 불가능하므로 68~71의 시험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앞으로 시·군을 모집단으로한 표본조사로 개선하여 통계정도(統計精度)의 제고와 지역통계의 발전을 기하도록 한다.

나. 농가경제 및 농산물 생산비

농가경제의 주요지표를 산출하고 농업생산구조의 변동상황을 파악하며 농산물의 적정가격 결정등에 실증적인 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국 모집단 표본조사 방법으로 조사하고 있는 농가경제 및 생산비 조사는 지역간의 비교 분석이 불가능하므로 지역통계 작성을 위하여 71. 7. 1부터 표본조사 지구를 160개 지구로 배증하여 시험조사를 실시중에 있으며 앞으로 제도화에 힘쓸 것이다.

4. 국제협력

국제정세의 변이에 따라 개별 국가간의 쌍방 협력체제로부터 국제기구 또는 우방 제국과 제3국과의 다변협력 체제로 전환하는 경향에 따라 국제 기구와 우방 제국과의 상호 긴밀한 관계를 유지, 강화하는 한편, 경제 및 기술 양면의 협력 사업에 적극 참여 하므로써 우리나라 농업개발을 위하여 계속 노력할 것이다.

국제 기구와의 협력관계에 있어서는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FAO), 국제연합 개발계획(UNDP), 세계식량계획(W.F.P), 국제연합 아동기금(UNICEF)등 국제연합 관련기구와의 관계를 개선하고 동 기구와의 협력사업을 강화할 것이다.

FAO와 UNDP의 공동 지원으로 이미 완료 또는 확정된 11개 사업(10,882천\$)의 지원에 의하여 시행할 6개사업을 신청중에 있으며, WFP 사업으로는 이미완료 또는 확정실시된 4개사업(19,099천\$)외에 439천\$

상당의 지원 사업을 신청하여 적극 추진중에 있을뿐 아니라 UNICEF의 지원에 의한 제2단계 사업 (337천\$)을 추진중에 있다.

우방국 또는 제3국과의 기술협력 사업에 있어서는 한독 양국의 기술협력 사업으로 추진될 초지연구소 설치 사업과 식용 미조류(Microalgae) 개발 사업을 계속 추진할 것이며, 우리 나라와 영국과의 기술협력으로 농업기계 훈련강화사업을 적극 추진할 것이다.

국내 농업기술의 향상을 위하여 선진국의 전문기술자를 초빙하여 발전된 새 기술 지원을 받으며 AID, Colombo plan, FAO 및 제 3국과의 기술협력 계획에 적극 참여하여 해외의 선진된 기술을 도입하므로서 국내 농업기술 개발에 기여코자 한다.

특히, 대 일본과의 기술 협력을 강화하여 직접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을 일본에 대규모로 파견하므로서 농업 기술의 일대 혁신을 기할 계획이다.

한·일, 한·중, 한·월등 정기 각료 회담에 있어서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여 유대의 강화와 아울러 특히, 일본과 협력하여 대단위 농업 종합 개발과 한·일 종합 농업 개발 연구소 설치등을 위한 사전 타당성 조사단을 초치하는 한편 외자의 지원을 적극 추진할 것이다.

AARRO, 식량비료 기술센터, 아시아 채소 연구 개발센터등 현존 국제기구와의 협력 증진으로 지소를 유치하고, 유대의 강화는 물론 국가 이익의 극대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5. 농협의 육성과 농업신용 제도개선

가. 농협의 육성

농업협동조합의 활동은 농촌경제의 집중 개발이란 농정의 기본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본적인 협동조직으로서의 의의를 지니고 있으므로 자조 자립적인 단위 농업협동조합의 육성이 시급한 과제이다.

이·동 조합의 경제권중심 통합계획은 그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72년에는 전국 이동조합을 1,500개의 경제권 중심 대단위 조합으로 통합하고, 경제권 중심으로 통합된 이동조합에 대하여는 군조합으로 부터 농사자금의 대출 및 비료업무등을 점차 이관케 하여 집중적 지원체제를 강화시킬 것이다.

한편, 단위조합의 기간사업인 상호금융을 확대하고, 연쇄점의 보급, 의료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확충, 경영자의 양성등에 집중적인 지원책을 강구할 것이다.

특수조합 보호육성책에 있어서는 70년말 현재 중앙회 가입 150개 조합중 단계적인 조직정비와 아울러 중점적 육성지원체제를 강화하여 전체 특수조합을 건전한 조합으로 육성토록 할것이다.

이와 같은 단위조합의 육성지원책을 강화하므로서 농촌조직의 근간 단위조직인 단위농협의 경영규모를 자주적 사업조직체로 확대시키도록 할 것이며, 이에 수반하여 단위조합 임직원의 경영관리능력의 배양과 대민 봉사 자세의 확립, 조합사업량의 확대와 조합원의 참여도를 제고시키므로써 단위조합 자립화기반을 구축하는 동시에 농협이 농민의 농협으로 면모를 갖추도록 적극적인 지원책을 강구할 것이다.

나. 농업신용 제도의 개선

농업생산의 효율화를 기하고 농민 소득증대와 농업근대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농업금융제도의 합리적 개선이 요구되고 있으므로 다음과 같이 농업신용제도를 개선 실시할 것이다.

첫째, 농업자금의 공급규모를 확대하기 위하여 농협의 예금조달자금의 적극적인 조성과 재정 및 금융자금의 규모를 확대 시키고, 외국차관

자금의 도입을 추진토록 할 것이며, 비수익성 운용자금의 수축을 위한 사업부문별 운용자금 한도제를 실시토록 할 것이다. 그리하여 농민조합원 위주의 자금공급의 중점화와 지도금융체제를 더욱 강화하여 여신자금의 투자효율을 극대화할 것이다.

두째, 용자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제도를 확립 할 것이다.

1. 중장기 농업자금의 투자효율을 높여 용자업무의 신속을 기하기 위하여 「팩케이지론」(Package Loan) 제도의 개발, 사업별, 지역별, 자금 배분, 용자조건 대상자 선정기준 등의 효율적 책정, 용자심사 제도의 개선등에 역점을 두게 될 것이다.

특히, 농협은 용자안내서를 작성하여 농민에게 사전 배부하고 수용태세와 신용력등을 바탕으로 용자대상자를 선정하고 수익성과 경제성을 바탕으로 하는 사업계획 타당성 검토를 철저히 하여 대상자별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자원조달 범위내에서 용자를 실행토록 한다.

2. 용자대상자의 선정은 결정된 대상자 선정기준에 의하여 농협의 용자 취급사무소 책임하에 선정토록 한다.

3. 대출실행에 있어서는 용자신청서 접수로부터 처리실행까지의 절차와 처리기일을 의무화 한다.

4. 징구서류의 간소화를 위하여 징구서류의 종류를 대폭 축소하고 징구서류안내서를 자금배정통지와 동시에 배부토록하여 농민의 부담과 시간을 절감토록 한다.

5. 신용대출에 있어 재산과 신용이 확실한 자에 대하여 보증인 2인의 입보제도를 1인 입보로 개정하고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에 의한 기금설치와 보증업무를 개시하여 농민부담을 경감시키도록 한다.

여백

제 Ⅱ 부

임 업 부 문

여백

제 1 편 70년도 임업 동향

여배우

제 1 장 국민경제와 임업

1. 임업의 위치

임야는 전국토의 67%를 차지하고 있으나 임업생산은 국민총생산액의 약 1.5%에 불과하며 농림어업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5.0% 정도에 지나지 않는 실정이다.

한편, 그 성장율은 65년부터 70년간에 연평균 7.3%로서 목표 성장율 7%를 상회하고 있으며 국민경제성장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그리 크지 못하다.

표1-1 임업성장 65년 불변가격 단위: 억원

연도	총 생산			구성비 (%)			성장율		
	국민총생산	농림어업	임업	국민총생산	농림어업	임업	국민총생산	농림어업	임업
65	8,058.5	3,116.3	151.8	100	38.7	1.9	7.4	△0.9	1.2
66	9,138.2	3,459.1	177.1	100	37.9	1.9	13.4	11.0	16.7
67	9,951.6	3,269.0	198.8	100	32.8	2.0	8.9	△5.5	12.3
68	11,273.2	3,308.4	187.9	100	29.4	1.7	13.3	1.2	△5.5
69	13,061.9	3,703.6	201.2	100	28.4	1.8	15.9	11.9	7.1
70	14,223.3	3,673.7	237.5	100	25.8	1.6	8.9	△0.8	10.7

자료: 한국은행

국토의 2/3를 임야가 차지하는 대표적인 임업국이면서도 임업이 국민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빈약한 것은 과거 혼란기에 자행된 무차별 파괴에 의한 것으로 황폐산림의 복구를 위해선 장기간의 투자와 부단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2. 임업과 다른 산업과의 관련

70년도의 임산물생산 총액은 218억원 (65년 불변가격)으로 농업원료가 57%, 임산연료 23%, 용재 9%, 기타가 11%로 구성되어 있다.

용재와 기타임산물이 전량 상품화하더라도 임업총생산의 20%만이 유통과정을 거쳐 화폐소득화되고 나머지 80%는 그대로 농촌에서 직접 소비되거나 농업생산재로서 제공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주로 녹비와 사료로 구성되는 농업원료가 57%를 차지하여 농업 생산에 기여하는 바는 대단히 크다.

한편, 농촌연료의 절반 이상이 임산연료로 공급되고 있으나 주산물인 용재생산이 9%에 불과하므로 공급절대량의 부족으로 합판, 팔프, 및 기타 목재 가공등 임업 연관산업의 생산활동에는 별로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산림의 황폐로 인한 홍수 및 한발의 피해는 연평균 145억원에 이르러 농지의 매몰, 인명의 손실, 국토의 유실 및 농업생산의 감퇴 등으로 농업의 발전 저해는 물론 타산업의 기반을 침해 하고 있다.

제 2 장 임업생산

1. 입산자원의 조성

가. 현 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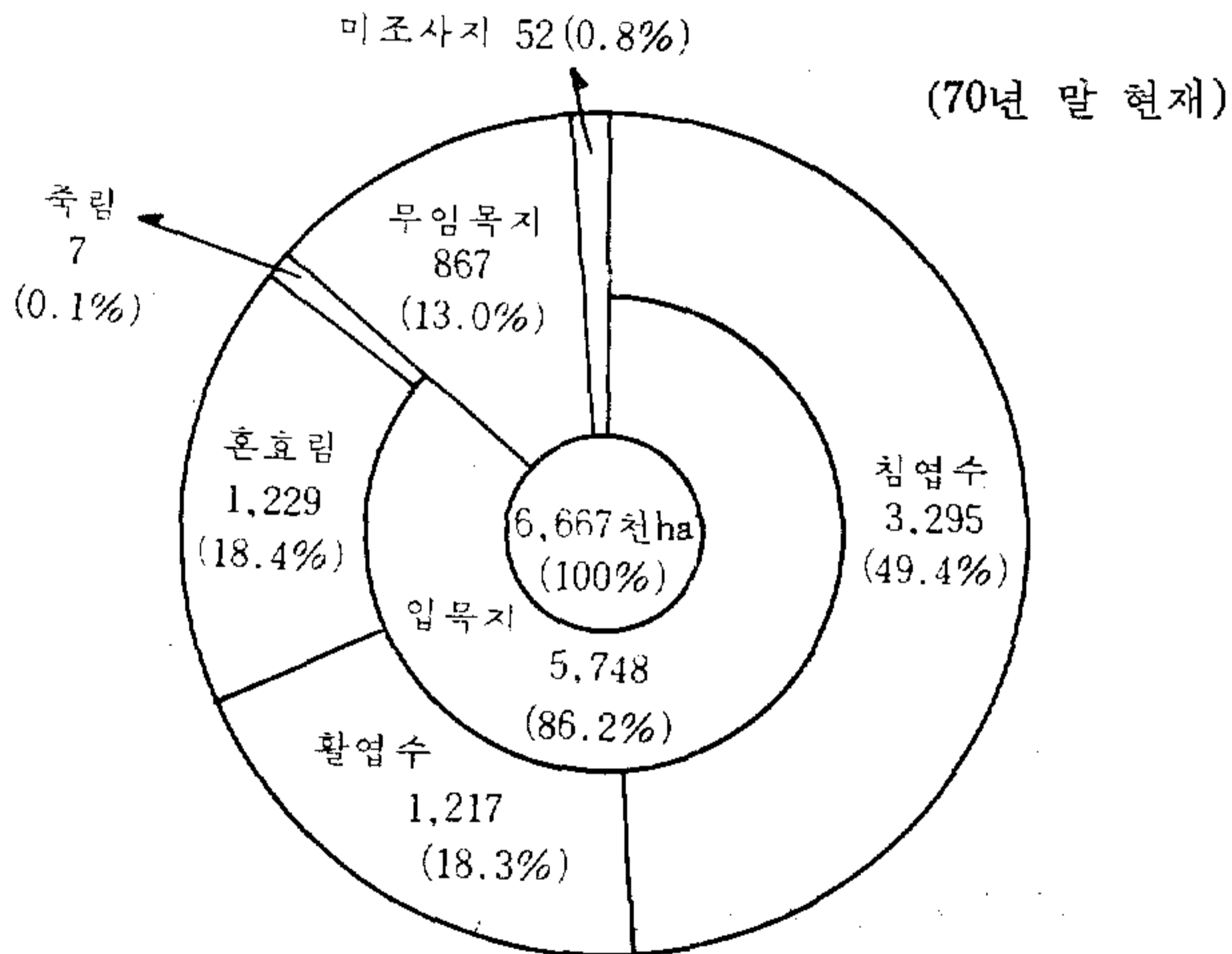
70년말 현재 산림면적은 총 6,667천ha이다. 그 중 임목지가 5,748천ha로서 전체의 86.2%를 차지하고, 무임목지 867천ha(13.0%), 미조사지 52천ha(0.8%)로 구성되어 있다.

임목지를 다시 임상별로 구분하면 침엽수가 3,295천ha(49.4%), 활엽수가 1,217천ha(18.3%), 혼효림이 1,229천ha(18.4%)로 되어 있다.

소유별 산림면적은 국유림이 1,287천ha로서 전체임야의 19.3%, 공유림은 494천ha로서 7.4%이고, 사유림은 4,886천ha인 73.3%로서 절대적

표1-2

임 상 별 면 적



자료 : 산림청

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70년말 현재 임목축적은 총 68,773천m³로서 ha당 약 10.3m³에 불과하다.

임상별 구성을 보면 침엽수가 32,285천m³로 약 절반을 차지하며, 활엽수가 24,145천m³, 혼효림이 12,343천m³로 각각 35%, 18%를 차지하고 있다.

표1-3 소유별 임상별 면적과 축적 단위 { 면적 : 천ha
축적 : 천m³

구분	계		침엽수		활엽수		혼효림		무임 목지	미조 사지	죽림 면적
	면적	축적	면적	축적	면적	축적	면적	축적			
계	6,667	68,773	3,295	32,285	1,217	24,145	1,229	12,343	867	52	7
국유림	1,287	34,307	368	9,870	473	17,456	219	6,981	175	52	
산림청	1,157	33,177	319	9,354	446	16,991	201	6,832	140	52	
타부처	130	1,130	49	516	27	465	18	149	35		
공유림	494	5,041	184	2,489	132	1,526	90	1,026	88		
도유림	145	2,515	41	1,011	68	907	17	597	19		
군유림	349	2,526	143	1,478	64	619	73	429	69		
사유림	4,886	29,425	2,743	19,926	612	5,163	920	4,336	604		7

자료 : 산림청 (70년말 현재)

우리나라의 임목축적을 세계주요국과 비교하면 서독이 138m³, 스웨덴 85m³, 일본 71m³, 미국이 66m³로서 선진 임업국의 약 1/10에 불과한 빈약한 실정이다.

나. 조 립

65년부터 70년까지의 총조립면적은 1,202천ha로서 연평균 200천ha를 실시하였다. 연차별 변동추이를 보면 65년에 131천ha를 기점으로 하여

점차 증가되어 67년에는 연료림 365천ha를 포함한 455천ha를 조림함으로써 예년의 약 3배의 증가를 이루었다가 그후 다시 줄어들어 70년에는 144천ha를 실시했다.

69년부터는 전국 14개지역의 대표적 산간지에 용재림 대단지를 확정하고, 용재자원의 집단조성에 주력하는 농산촌의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밤나무, 호도나무 및 대나무등 특수 수종의 주산단지조성에 역점을 두고 있다.

표1-4 조림면적추이 단위:천ha

구	분	계	65	66	67	68	69	70
	계	1,202.5	130.6	142.7	455.0	170.3	159.8	144.1
용	재	433.4	38.4	45.1	66.6	94.6	93.4	95.3
연	료	591.8	48.1	51.3	364.8	55.5	50.5	21.6
특	용	84.1	29.7	24.6	1.7	7.4	9.0	11.7
개	량	88.9	14.2	21.5	21.5	11.4	5.8	14.5
죽	림	4.3	0.2	0.2	0.4	1.4	1.1	1.0

자료:산림청

(1) 소유별 조림동향

임야소유별 조림면적 추이는 국유림이 65년의 10천ha에서 점차 늘어 68년에 19천ha까지 증가되었다가 다시 줄어 70년에는 10천ha로 감소되었다.

민유림 또한 연간 130천ha 정도를 유지하다가 67년에 연료림조성을 대폭 확대하여 439천ha를 실시한 후 다시 감소되어 70년에는 134천ha를 조성했다.

(2) 재원별 조림추이

65년부터 70년까지 총조림면적 1,203천ha중 국고조림이 7%, 국고보조 조림이 74%, 자력조림이 19%로 구성되어 있다.

표1-5

소유별 조림 실적

단위 : 천ha

구	분	합 계	65	66	67	68	69	70
	계	1,202.5	130.6	142.7	455.0	170.3	159.8	144.1
국	유림	82.1	10.5	13.8	15.7	19.2	12.5	10.4
민	유림	1,120.4	120.1	128.9	439.3	151.1	147.3	133.7

자료 : 산림청

표1-6

재원별 조림 실적

단위 : 천ha

재원	합 계		65	66	67	68	69	70
계	1,202.5	%	130.6	142.7	455.0	170.3	159.8	144.1
국고	82.1	7	10.5	13.8	15.7	19.2	12.5	10.4
국고보조	886.4	74	78.1	73.6	391.7	111.8	116.7	114.5
자력	234.0	19	42.0	55.3	47.6	39.3	30.6	19.2

자료 : 산림청

(3) 수종별 조림사업

65년부터 70년까지 총 조림본수는 3,618백만본으로 침엽수류가 54%, 활엽수류가 46%로 구성되어 있다.

경제성이 낮은 활엽수가 과반수를 차지하게 된 것은 농촌연료의 해결책으로 연료림 조성에 힘써 왔고 황폐지 복구에 오리나무등 생장력이 강한 수종의 식재와 포푸라 및 특용수종의 증식을 장려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70년부터는 용재 자원의 조기 증축을 위해서 침엽수 조림에 주력하고 있다.

(다) 종묘생산

(1) 종자생산

66년부터 70년까지 5개년간의 산림용 종자 생산량은 총 1,496㎏으로 연

평균 300%의 종자를 채취하여 왔다.

연도별 생산추이는 66년의 477%으로부터 점차 줄어들어 70년에는 1/3에 미달되는 133%으로 감소되었다.

종자생산이 줄어든 이유는 67년에 연료림 조성을 위한 조림면적의 대폭적인 확대이후 조림사업의 양적확대를 지양하고 질적향상에 중점을 기울인 결과 점차적으로 조립량이 감소된데 기인한다.

한편, 수종별 채취량은 소나무류가 66년에 51%에서 70년에 76%으로 증가되었고, 밤나무가 66년에 3%에 불과하던 것이 68년에 101%으로 증가되었다가 다시 줄어들어 70년에는 34%을 채취 공급하였다.

이와 같이 소나무와 밤나무 종자채취량이 증가된 반면 아까시아 및 상수리나무등 활잡수종은 대폭 감소되어왔는데 이는 연료림 조성이후 용재자원과 특용수종 증식에 주력하였기 때문이다.

표1-7

종자채취실적

단위 : kg

연	도	계	소나무류	낙엽송	밤나무	호도나무	삼나무	기타
	계	1,495,550	325,405	51,909	215,834	30,106	7,104	895,192
	66	477,165	51,112	16,370	2,530	3,771	1,748	401,634
	67	401,902	51,087	7,498	24,550	6,704	1,783	310,280
	68	331,196	94,283	25,975	100,703	5,484	353	104,398
	69	151,885	53,240	1,457	54,306	10,093	1,609	31,180
	70	133,402	75,683	609	33,745	4,054	1,611	17,700

자료 : 산림청

(2) 우량종자 공급원 조성

형질과 생장이 우량한 종자의 공급은 산림사업의 성패를 가름하는 가장 중요한 사업이다.

따라서 정부는 70년말 현재 2,492ha의 잠정채종림을 설정하고 조림용 종자를 이 지역에 한하여 채취 공급토록 하고 있다.

표1-8

채종립현황

단위:ha

수	종	면적		
		계	국유립	민유립
잣	나무	844	483	361
리기	다소나무	122	65	57
리기	태다소나무	264	194	70
강	송	288	13	275
해	송	50	36	14
낙	엽송	809	453	356
삼	나무	28	25	3
편	백	83	49	34
가	시나무	4	4	
	계	2,492	1,322	1,170

자료: 삼림청 (70년말 현재)

한편, 항구적인 종자공급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67년부터 채종원 750ha와 특용수종 채수포 210ha를 조성할 목표로 70년까지 채수포 조성은 완료하였고 채종원은 계속하여 조성하고 있다.

(3) 묘목생산

묘목생산추이는 65년에 742백만본이었던 것이 67년에 2,146백만본으로 약 3배의 증가를 보였다가 다시 줄어들어 70년에는 761백만본을 생산하였다.

67년에 묘목생산이 급증한 것은 전술한 바와 같이 연료림 조성사업의 대폭적인 확대에 기인한 것이다.

한편, 묘포경영규모는 65년에 4,780명의 업자에 묘포면적 1,660ha로서 업자 1인당 약 0.35ha의 영세한 경영으로 부터 70년에는 1인당 2.6ha의 규모로 점차 양묘사업의 기업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표1-9

묘목생산추이

연도	묘포수	업자수	묘포면적 ha	묘목생산본수		
				계	유묘	성묘
65	개소 5,627	인 4,780	1,660	백만본 742	백만본 182	백만본 560
66	3,413	2,622	1,495	666	193	473
67	4,102	1,538	3,543	2,146	405	1,741
68	3,894	534	1,598	975	433	542
69	1,317	421	1,625	1,196	614	582
70	698	397	1,042	761	393	368

자료: 산림청

2. 임산물 생산

가. 목재생산

국내산림자원의 조기증축을 위해서는 임목벌채량을 연간 총생산량의 15% 내로 제한하고 있다.

연도별 추이는 65년의 503천 m^3 생산실적에서 점차 증가되어 69년에는 1,095천 m^3 로 배증되었다가 70년에는 833천 m^3 로 약간 감소되었다.

이와같이 목재생산량이 증가된 것은 적극적인 무육벌채와 불량 활잡 임지의 과감한 수종갱신 벌채에 의한 것이므로 사실상 벌기임분(伐期林分)에서의 주벌생산(主伐生産)은 거의 변동이 없었다.

표1-10

목재생산

단위: m^3

연도	65	66	67	68	69	70
생산량	503	779	791	816	1,095	833

자료: 산림청

나. 죽재생산

연도별 죽재생산량은 다소의 변동이 있으나 연평균 230천속을 생산하고 있다.

68년부터 농산촌 소득증대 특별사업으로 죽림의 단지조성에 주력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죽재생산은 대폭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 1-11

죽 재 생 산

단위 : 천속

연 도	65	66	67	68	69	70
생 산 량	246	176	230	286	242	166

자료 : 산림청

다. 특수 입산물

버섯, 갈저, 굴피, 송지등 특수입산물은 수출대상품목으로써 또는 화학제품의 원료로서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65년 버섯생산량은 118M\$에 불과했으나 점차 증가되어 70년에는 약 4배에 달하는 419M\$을 생산하였으며 141만\$의 수출실적을 올렸다.

갈저생산 또한 갈포벽지의 수출증대에 따라 65년의 188M\$에서 70년에 381M\$을 생산하여 411만\$의 수출을 기록했으며 다소의 기복은 나타내고 있으나 점차적으로 증산되어 가고 있다.

쿨크의 원료가 되는 굴피생산은 67년까지 1,300M\$ 이상의 수준을 유지하다가 그후 감소되어 70년에는 973M\$으로 줄어들었으며 송지도 68년까지 연평균 1,300M\$을 생산하여 오다가 그후 급격히 감소되어 70년에는 539M\$으로 반감되었다.

3. 입산자원의 보호육성

가. 산림해충의 발생 및 방제

주요발생 해충으로는 송충, 솔잎혹파리, 흰불나방등으로, 특히, 송충이 전국적으로 만연하여 침엽수림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

그 발생추세는 65년에 659천ha에서 다소 기복을 나타내면서 줄어들다가 70년에는 약간 상승하여 506천ha의 피해를 입었다.

이와같은 막대한 피해를 절감시키기 위하여 주요지역에는 약제를 집중살포하고 깊은 산간지역에는 경화병균, 바이라스등 천적(天敵)을 이식하여 구제하며 지역별로 과학적인 조기에찰을 실시하여 피해의 미연방지에 주력해왔다.

표1-12

해충발생 및 방제상황

단위 : ha

연	도	발생면적	방제면적
65		658,586	782,577
66		516,717	604,947
67		469,369	562,155
68		490,502	538,936
69		446,869	485,314
70		505,718	504,916

자료 : 산림청

나. 도남벌 및 산화피해

국민생활의 안정과 철저한 보호단속으로 도남벌 및 산화피해는 점차 감소되어가고 있다.

69년에 51천m³의 도남벌 피해가 69년에는 약 1/3에 불과한 17천m³로

감소되었고, 70년에는 69년과 같은 정도의 피해가 발생 하였다.

산화피해 또한 65년 37천m³에서 70년에 22천m³로 다소 기복을 나타내고 있으나 점차 줄어드는 추세에 있다.

68년과 70년에는 산화피해가 각각 전년보다 많았던 것은 춘·추기에 이상건조 기온이 장기간 계속되었기 때문이다.

다. 산림보호직원 및 보호장비

전국산림에 배치되어 있는 보호직원의 변동상황은 45년에 2,163명으로 1인당 평균 3,200ha를 보호 관리하고 있었는데, 60년에는 560명으로 격감되어 1인당 무려 12,000ha를 담당하게 되었다.

그 후 점차적으로 증원하여 70년말 현재 1,002명으로 아직도 1인당 6,700ha의 광대한 면적을 관리하고 있다.

한편, 산림보호업무의 기동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각종 보호장비를 강화해 왔으며, 70년말 현재 싸이클 459대, 무전기 65대 (고정국 27대, 휴대국 38대), 약제분무기 2,000여대 등을 확보하여 도남별 피해의 예방은 물론 산화의 조기진압, 해충구제 사업의 능률을 배가시키고 있다.

표1-13

산림보호직원 변동상황

연 도	인 원	1인당 면적
	명	ha
45	2,163	3,200
60	560	12,000
64	894	7,500
67	943	7,200
70	1,002	6,700

자료 : 산림청

제 3 장 임산물 수급

1. 목재 수급

국민경제의 발전에 따라 목재의 수요가 매년 급증하고 있다.

합판 가공업의 획기적인 확대와 건축, 토목사업등 건설분야의 신장으로 65년에 1,259천 m³에 불과하던 것이 70년에는 약 4배에 달하는 4,656천m³로 증가되었다.

수요의 증대에 따라 총 공급량중 내재의 공급은 65년에 503천m³에서 70년에 845천 m³로 배가 되었으나, 내재 자급율은 40%에서 18%로 반감 되었다.

이와 같은 현상은 국내 임산자원의 빈약으로 급증하는 수요 증가를 내재 공급이 따르지 못하는데 기인한다.

표 1-14

목 재 수 급 상 황

단위 : 천m³

연 도	수 요 량	증 가 율	내 재			외 재		
			소 계	경 목	일 반	소 계	합 판	일 반
65	1,259	20%	503	304	199	756	511	245
66	1,877	49	779	313	466	1,098	707	391
67	2,320	23	791	335	456	1,529	993	536
68	3,072	32	800	367	433	2,272	1,565	707
69	3,922	28	884	386	498	3,038	1,990	1,048
70	4,659	19	845	450	495	3,811	2,236	1,575

자료 : 산림청

2. 목재 무역

가. 목재 수입

급증하는 목재수요에 따라 목재수입 또한 증가 일로에 있다. 65년의 756천 m^3 에서 70년에는 3,156천 m^3 로서 약 4배의 증가를 보였다.

수입목재는 주로 합판의 원자재인 나왕 원목으로서 70년 총 목재수입량의 90%를 차지하고 있으며, 말레이시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지에서 수입하고 있다.

한편, 일반용재로 쓰이는 송백류는 미국, 뉴질랜드에서 들여오고 있으며, 70년에 291천 m^3 를 수입 하였다.

이와 같이 목재수입량의 격증에 따라 70년의 소요 외화는 125백만\$에 달했으며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추세에 있다.

표 1-15

외재수입실적

단위: 천 m^3

연도	수입량	원 목 도 입 국 별							기타지역
		나 왕			송 백 류				
		소 계	말레이시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소 계	미 국	뉴질랜드	
65	756	710	490	220	—	38	18	20	8
66	1,098	958	613	345	—	126	72	54	14
67	1,529	1,311	862	449	—	207	143	64	11
68	2,010	1,564	1,129	391	44	424	332	92	22
69	2,650	2,406	1,297	921	188	228	148	80	16
70	3,156	2,847	1,488	888	471	291	236	55	18

자료: 산림청

은 선에 있었으나, 62년에는 약간 높은 추세를 보였다가 다시 하락하여 65년까지 안정추세를 나타냈다.

66년, 67년에는 이례적인 양등세를 보였다가 그 후 다시 일반 물가보다 하락하여 비교적 안정된 가격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와 같은 추세로 보아 목재가격이 전체물가 안정에는 기여하여 왔으나, 국유림에서 생산하는 활잡목의 가격에 압박을 주어 국유림야관리 특별회계의 세입을 감소시켜 왔다.

표 1-17

목재가격지수

연도	65	66	67	68	69	70
일반물가	100.0	108.8	115.8	125.2	133.7	145.9
목재	100.0	110.3	112.1	112.7	115.0	129.3

자료 : 산림청

4. 해외임지 개발

가. 해외 원목시장 동향

해외임산자원은 점차 줄어들고 생산지는 오지화 하여 개발비용이 증됨에 따라 생산원가가 상승되고 질도 저하되어서 최근의 원목도입가격은 연평균 2.3%의 등기율을 보여 왔다.

더구나 동남아지역의 원목수출국에서는 자국의 목재가공을 위한 정책 지원으로 점차 원목수출을 억제하고 있어 원목도입조건이 날로 악화되고 있다.

나. 해외 임산자원의 개발·도입

우리나라에서 현재 개발 및 추진하고 있는 임지는 인도네시아의 카리

만탄 및 스마트라지역과 말레시아의 사라와크 지역이다.

동남부 카리만탄의 59만ha는 69년부터 개발에 착수하여 69년 33천m³, 70년에 66천m³의 원목을 개발 도입했으며, 중부 카리만탄에 60만ha, 스마트라에 3만ha의 임지를 확보하였다.

한편, 더욱 많은 해외임지를 확보하여 보다 많은 원목을 도입하고자 인도네시아의 미 개발지와 파프아, 뉴기니아를 신규개발 대상지역으로 삼고 있다.

5. 목재 공업

가. 제재 시설

70년말 현재 제재 시설현황은 공장수 1,912개에 연간생산능력 4,650천m³로 65년에 비하여 약간 시설규모가 확대 되었다.

제재실적은 65년의 345천m³에서 70년에 1,148천m³로 3배 이상이 증가되었다.

이와 같은 증가의 원인은 국민경제의 확대 발전에 따른 건축 토목사업의 신장으로 건설재의 수요증가에 기인 한 것이다.

표 1-18 제 재 공 장 실 태

연 도	공 장 수	마 력 수	생 산 능 력	제 재 생산 고	원 목 소비 량
65	1,672 ^개	39,592 ^{마력}	3,656,845 ^{m³}	345,245 ^{m³}	475,186 ^{m³}
69	1,912	50,667	4,425,061	1,190,005	1,675,149
70	1,912	54,992	4,650,054	1,148,424	1,773,372

자료 : 산림청

나. 지류 생산

국민생활의 질적향상에 따라 지류소비 또한 확대일로에 있다.

제 4 장 임업 경영

1. 현 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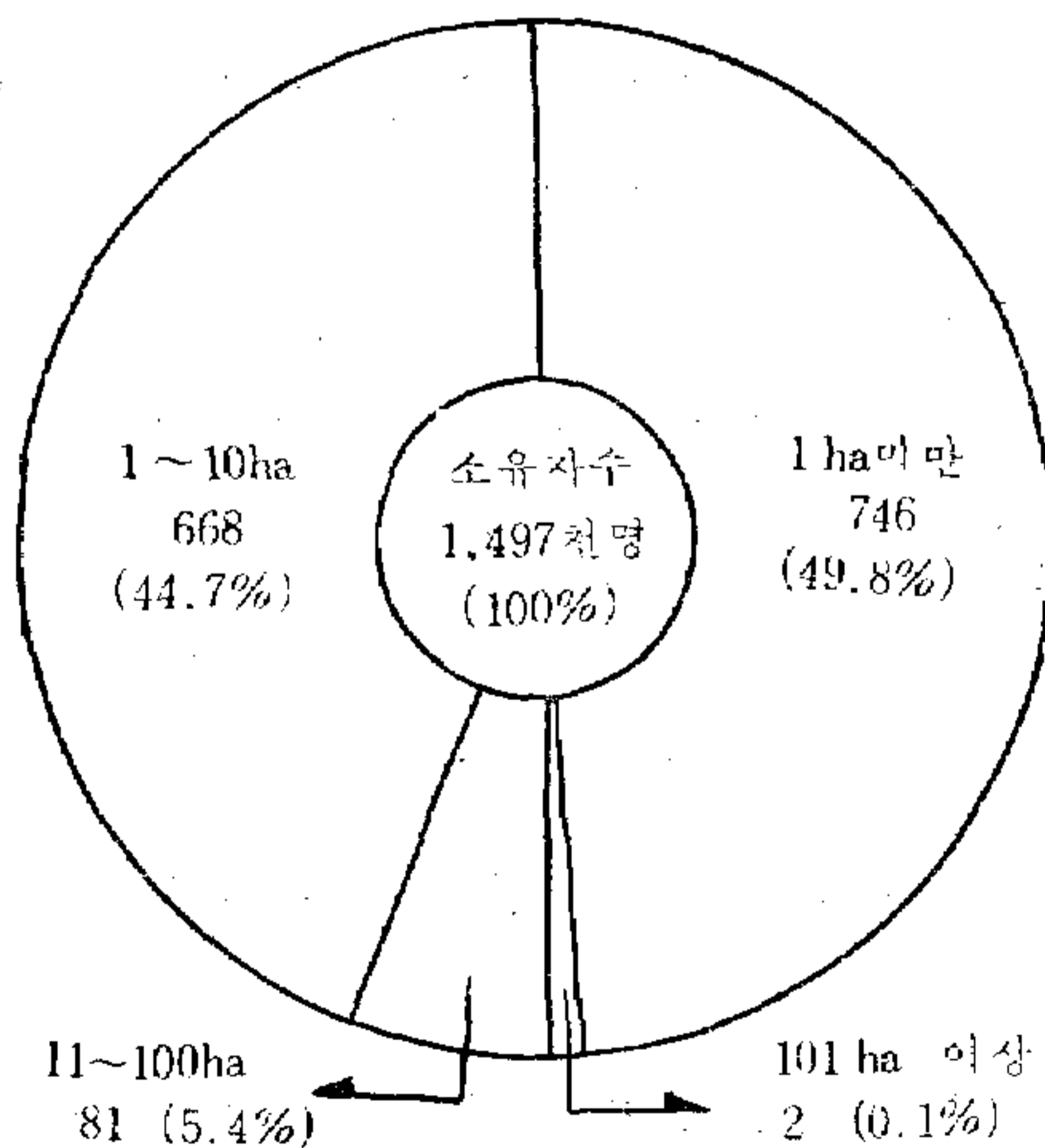
가. 사유림

68년말 현재 사유림 소유자는 총 1,497천명으로 소유규모별 구성은 1ha 미만의 소유자가 746천명, 1ha이상 10ha까지의 소유자가 668천명, 10ha 이상이 83천명으로 10ha미만의 영세산주가 전체의 94.5%를 차지하여 우리나라 산림 소유규모가 극히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유림 소유규모

표 1-22

68년말 현재



자료 : 산림청

한편, 70년말 현재 사유림의 면적은 전체 산림의 73%를 차지하고 있으나 축적은 43%에 지나지 않아 ha당 6m³에 불과한 극히 빈약한 상태에 놓여 있다.

이상과 같이 소유 규모가 영세하고 더구나 산림자원의 파괴로 산주들은 산림에 대한 경영관리를 소홀히 하여 왔으며, 산림복구사업은 의례 정부가 해야되는 사업인양 잘못된 인식이 되어왔다.

나. 공 유 림

공유림은 도유림과 군유림으로 구분되며 도유림은 경영활동이 활발하여 그 수입이 임업에 재투자되고 있으나 군유림은 경영관리가 침체상태에 머무르고 있다.

70년말 현재 공유림현황은 총면적 493천ha에 임목축적 5,040천m³로 ha당 10.2m³에 불과하다. 한편, 도·군유림별로 구분 비교하면 도유림은 ha당 17.3m³로 비교적 낡은 편이나, 군유림은 7.2m³로서 그 빈곤상은 사유림에 다음가는 상태이다.

구 분	면 적	축 적	ha 당 축적
계	493 ^{천ha}	5,040 ^{천m³}	10.2 ^{m³}
도 유 림	145	2,514	17.3
군 유 림	348	2,526	7.2

자료 : 산림청

다. 국 유 림

국유림은 관리의 소관별로 산림청소관 국유림과 타부처소관 국유림으로 구분하고 다시 산림청 소관 국유림은 준치목적에 따라 요존 국유림과 불요존 국유림으로 구분된다.

70년말 현재 총 국유림면적은 1,287천ha로서 그 중 국유임야 관리특별회계로 관리하는 산림청 소관 임야가 1,157천ha, 타부처소관이 130천 ha이다.

국유림의 면적은 전체 임야의 19.3%에 지나지 않으나 축적은 34,307천m³로 전체 축적의 50%를 차지하며, ha당 26.7m³로 비교적 좋은 임상을 구성하고 있다.

표 1-24

국유림 소관별 면적·축적

70년말 현재

구	분	면적	축적
합	계	1,287 ^{천ha}	34,307 ^{천m³}
산림청 소관	계	1,157	33,177
	요	884	29,673
	불요	273	3,504
타 부 처	소 관	130	1,130

자료 : 산림청

2. 경영 개선

가. 영림계획 편성

전술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산림 소유규모가 극히 영세하고 임목축적이 빈약하므로 산주들은 산림을 방치한채 경영을 소홀히 하여왔다.

소규모의 산림을 한개의 협업적인 경영단위가 되도록 묶어 산주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산림 경영에 참여시킬 목적으로 65년부터 전국 산림에 대하여 영림계획을 편성하여 70년까지 95%를 완료하였다.

따라서 앞으로의 각종 사업은 이 계획에 따라 실시될 것이며, 특히, 과

거 민원의 대상이 되었던 벌채 허가제를 폐지하고 산주의 신고만으로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표 1-25

영림계획편성실적

단위 : 천ha

소관별	구분	대상면적	편성면적
국유림		1,071	1,020
	영림서소관	783	783
	시도요존림	27	2
	불요존림	225	199
	시현림	2	2
	타부처소관	34	34
민유림		5,214	4,980
	사유림	4,726	4,565
	공유림	488	415
합계		6,285	6,000

자료 : 산림청

나. 임야 소유권 현실화

임야소유규모의 영세와 무주공산이란 그릇된 관습으로 산림에 대한 재산권 의식이 희박하다.

황폐산림을 조속히 복구하여 임산 자원을 증대시키고 산주의 자발적인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서는 소유권의 확립과 재산권의 고취가 필요하므로, 정부에서는 69.6.21 제정 공포된 「임야소유권 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소유권이 불명한 임야를 현실 소유자 명의로 전량 등기 완료할 계획으로 70년부터 임야등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총 대상건수 954천건중 70년에 511천건을 완료하였고, 잔량을 71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다. 국유림 관리개선

(1) 경영조직의 개편

국유림의 경영관리를 전담하는 기구로 서울, 강릉, 안동의 3개 영림서가 있으며, 69년에는 경영의 합리화와 기업화를 목적으로 영림서 산하에 11개 관리소를 신설하고 과거의 영림서 중심의 행정적인 체제로 부터 관리소 중심의 기업적 경영체제로 개편 강화하였다.

(2) 국유림의 정리와 시설개선

도시주변의 분산국유림을 처분하여 오지에 집단화 시키고 국, 사유 경계가 불확실한 임지는 경계측량을 실시하는 한편 임도를 정비하고 작업기구를 기계화하여 사업의 기동성을 배가 시키고 있다.

(3) 계획경영과 지원배양

기 편성된 영림계획에 의거 장기적이고 합리적인 경영을 하고 있으며 유역별로 임업단지를 조성해서 조림, 생산, 이용, 가공에 이르는 임업 관련 사업을 계열화 하는 한편 불량활잡림을 벌채 이용하고 경제성이 높은 우량임분을 조성하고있다.

제 5 장 국토보전

1. 사방사업

산림의 황폐로 말미암아 연평균 145억원 이상에 상당하는 한수해를 입어왔다.

이 막대한 피해를 예방하고 국토보전을 기하기 위해서 매년 많은 량의 사방사업을 실시하여 왔으며, 65년이후 67년까지는 산지 사방에만 치중하여 왔으나, 황폐산림을 효과적으로 복구하기 위하여 68년 부터는 전국에 설정한 14개 사방단지에 산지사방, 야계사방을 유역별로 상류로부터 집중 실시하고 해안지방의 비사의 피해가 심한 지역에는 해안 사방을 실시하고 있다.

표 1-26 사 방 사 업 실 적

연	도	산 지 사 방	해 안 사 방	야 계 사 방
65		77,271 ha	— ha	78 km
69		11,711	150	105
70		11,090	100	107

자료 : 산림청

2. 3강유역 개발사업

62년부터 66년까지 5개년에 걸쳐 국제연합 한국개간사업기구(UNKUP)에서 한국의 유역관리사업을 위한 기초조사를 위하여 안성천, 상주천,

동진강 유역에 시범사업을 실시하였다.

산림청소관으로는 산림조사 및 개발사업부문에 대하여 UNDP, FAO 공동위원단이 내한하여 산림청 관계관과의 협의로써 68년 6월 정부측대표 산림청장파, UNDP 측 대표 및 FAO 측 대표간에 운영계획서의 협정이 체결되었다.

따라서 사업계획으로 68년부터 72년까지 안성천, 상주천, 동진강지역에 유역단위로 산지사방, 야제사방, 조림사업을 산림청에서 주관 개발토록 하였으며, 68년부터 시작하여 70년까지 산지사방 7,217ha, 야제사방 168km, 조림 9,900ha를 실시하였다.

제 7 장 산림조합 육성

산림법 제5조에 의하여 62년에 전국에 걸쳐 부락단위로 산림계가 조직되었고 산림계를 회원으로 하는 산림조합이 시·군단위로 설치되었으며 중앙에 산림조합연합회가 설립되었다.

그동안 산림계와 산림조합은 산림의 자율적 보호를 비롯하여 양묘사업, 조림 및 무육사업 대행과 산림 부산물의 생산 및 수집등 정부 대행사업과 회원들의 공동복리를 위한 사업을 담당하여 왔으나, 산림계와 산림조합은 설립당시부터 정부의 재정적 지원없이 자체사업과 정부위탁사업으로 유지하여 왔으므로, 현재 일부 산림계와 조합은 유지가 어려운 극히 부실한 실정에 있다.

70년말 현재 전국에 21,498개의 산림계와 151개의 산림조합이 있으며, 산림조합연합회 산하에 9개의 도지부가 있다.

앞으로 임업의 전진한 발전을 위해서 공법단체인 산림조합의 시급한 육성이 요청되고 있다.

제 2 편 71년도 임업시책

여백

제 1 장 시책방향

대단지 산지개발계획에 따라 전국 14개지역에 용재자원을 집단조성하여 목재자급의 기반을 구축하고 수익성이 높은 특용수종을 지역별로 대폭 확대 조성시켜 농산촌의 소득을 증대시킨다.

한편 한수해를 예방하고 상류수원을 함양시키기 위해서 국토보전사업 특히 황폐계천의 복구에 주력하며 전국적으로 만연하고 있는 산림해충의 피해를 절감시키고자 구제사업을 효율적으로 실시한다.

국내산림자원이 증축되어 자급을 이룰때까지 원목수입을 확대하고 외국의 풍부한 산림자원을 직접 개발 도입하여 목재수급의 안정을 도모하며 임업기술의 개발과 지도체계를 확립해서 산림경영의 합리화를 이룩한다.

그리고 획기적인 임산물의 수출증대를 이룩하여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총력을 경주하였다.

71년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총 5,807백만원을 동원하였다. 재원별로는 국고예산에서 4,139백만원, 지방비에서 562백만원, 노력부담을 위주로한 민간부담 1,051백만원. W. F. P 양곡으로 55백만원이다.

주요부문별로는 조림 3,252백만원, 종묘 188백만원, 사방 1,417백만원, 보호 368백만원, 조사시험에 582백만원을 투입하였다.

제 2 장 임업생산향상과 기반조성

1. 대단지 산지개발

가. 개 요

69년에 조사완료한 산지 이용구분 조사결과를 토대로 전국 14개지역

에 용재림 대단지를 선정하고 앞으로 이 지역에 지원을 집중시켜 산림 자원의 집단조성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선정된 14개 대단지는 인구밀도가 희박하고 산림면적율이 높은 대표적인 산간지역이므로 자연적, 사회경제적 여건으로 보아 다른 어느 산업보다도 산지를 이용하고 임업을 개발하는 것이 이 지역의 경제발전과 주민생활의 향상을 위하여 중요한 것이다.

단지의 임야면적은 3,200천ha로 전체임야의 약 48%를 점하고 있으며 임목지는 2,759천ha이고 13.8%에 해당하는 441천 ha는 무임목지이다.

한편 임목축적은 42백만m³로서 총임목축적의 64.2%를 점하고 있다.

나. 목 표

(1) 임지이용목표

대단지내 총임야면적 3,200.2천ha중 59.6천ha의 상대임지는 경작지, 상전, 목야지등 타용도로 전환될 것이므로 임업투자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 조성한 인공림지 265.7천ha, 요수종갱신지 1,240.4천ha, 미임목지 216.5천ha 및 연료림전환지 106.2천ha, 도합 1,828.8천ha를 사업가능지로 하여 35년간에 전량 인공림화 한다.

천연림중 법정제한림 369.9천ha와 사업불능지 562.4천ha는 계속 천연림으로 존치한다.

연료림지 320.9천ha는 그대로 이용하다가 장래에는 주민소득의 증대로 탄계연료나 전력 등으로 약 50%가 대체될 것으로 보고 160.2천ha만 존치하고 160.7천ha는 용재림으로 전환시킨다.

(2) 용재림 조성

대단지 구역내 용재림(천연림포함) 면적은 2,438.4천ha로 총 임야면적의 76.2%를 차지한다. 그러나 천연림이 대부분으로 2,172.7천ha를 차지하며 인공림면적은 265.7천ha(인공림율 10.9%)에 불과하므로 70~74년간 312.3천ha를 조림하여 74년에는 인공림면적을 578.3천ha로 증

가시켜 인공림율을 22.2%로 높인다.

축적목표는 현재 인공림이 1,096천m³, 천연림이 40,939천m³이나 74년까지는 인공림 3,615천m³, 천연림 49,509천m³, 총53,124천m³로 인공림축적율을 6.8% 향상시키며 최종 목표년도인 2,004년에는 인공림 134,051천m³ 천연림 62,988천m³, 도합 197,039천m³로 증가시켜 인공림축적율을 68.0%로 올린다.

2. 임야 등기사업

산주의 권익을 보호하고 산림행정의 기반조성을 목적으로 71년말까지 전국 산림에 대하여 임야등기사업을 완료할 것이다. 6월말현재 총등기대상건수 1,015천건중 88%에 해당하는 895천건에 대하여 확인서발급을 끝냈고 등기를 완료한 건수는 661천건으로 전체의 65%를 달성했다.

등기대상은 임야대장 및 토지대장상의 임야이고 임야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사법서사 대행수수료를 국가에서 부담하고 등기에 따르는 조세 및 각종 공과금을 면제해 주고 있다.

표 2-1 임야등기사업 추진현황 6. 30현재

등기대상	확인서발급	등기완료	미등기
1,015천건	895천건	661천건	354천건
비율 (%)	88	65	35

자료 : 산림청

3. 조림사업

조속한 기간내 용재자원을 조성하여 목재의 자급 기반을 구축하고 수익성이 높은 특용수종을 확대증식하여 농산촌의 소득을 증대시키고자 71년에는 총 94,813ha를 계획하여 6월말 현재 99,609ha를 조림하므로써 105%의 실적을 냈다.

내역별로는 용재림 79,706ha, 특용수종 14,654ha, 개량포푸라 2,909ha 3강 유역조림 2,340ha 를 실시하므로서 계획량에 대하여 각각 105%, 102%, 116%, 100%의 성과를 달성했다.

표 2-2 71년 도 조 립 실 적 71. 6. 30 현재

구	분	계	획	실	적
용	재	림	75,675 ^{ha}	79,706 ^{ha}	105 [%]
특	용	수	14,298	14,654	102
개	량	포	2,500	2,909	116
3	강	조	2,340	2,340	100
	계		94,813	99,609	105

자료 : 산림청

가. 용재림 조성

(1) 국유림

과거와 같은 분산적인 사업실시를 지양하고 자원의 집단 조성에 주력하면서 경제적 가치가 낮은 불량 활잡목은 과감하게 벌채 이용하고 유용경제 수종으로 갱신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8,875ha 를 계획하여 전량 완료하였다.

(2) 민유림

14개 용재림 대단지에 집단자원을 조성하여 양묘—조림—육림—벌채—이용에 이르는 관련사업을 계열화한 확고한 임산기반을 조성하고자 금년에도 70,831ha 중 74%에 달하는 52,335ha 를 대단지에 집중 실시하였다. 한편 단지외 지역에 12,675ha, 자력조림으로 5,803ha 를 조성하므로서 각각 101%, 193%의 실적을 올려 계획량을 초과 달성했다.

나. 특용수종 증식

수익성이 높은 밤나무, 대나무, 호도나무 등 특용수종을 지역별 특성

에 따라 주산단지를 조성해서 경영을 집약화하고 생산기술을 향상시켜
연년보속적으로 수확케 하므로서 농산촌의 소득을 증대시키고자 68년부
터 전국 24개 지역의 주산단지를 중심으로 집단 조성하고 있다. 71년에
도 14,654ha 를 실시해서 계획량의 102%를 달성했다.

다. 통일동산 조성

국민의 통일염원을 행동으로 실천하고 황폐산림의 복구에 지역 주민
이 자발적으로 참여케 하고자 구, 시, 읍면의 행정단위와 초, 중 고교
의 학교 단위로 연간 3ha 이상씩을 실시해서 10ha 이상의 통일 동산을
조성하고 있다.

금년도 조성 실적은 읍·면과 학교를 포함한 10,271개소에서 설치계획
6,197 개소 중 6,153개소를 설치해서 99%의 실적을 냈으며 면적상으론
계획 12,038ha 중 11,958ha 를 실시했다.

라. 사후관리

과거에는 조림의 양적확대에 중점을 둔 결과, 조림의 사후관리를 소홀
히 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69년부터는 기조성한 인공림
임지에 대하여 보식, 하예, 무육 등 사후관리를 강화해서 경제적 가치
가 높은 우량 임분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71년에도 보식 15,934ha, 하예 125,000ha, 무육 102,200ha, 도합 243,
134ha 를 실시할 계획이다.

4. 종묘사업

가. 우량종자의 공급

산림용 종자의 국가관리체제를 확립하고 검사점수 제도를 강화해서 불

광종자의 공급을 막고 국가기관에서 직접 채취하여 우량종자만을 양묘자에게 공급하고 있다.

한편 항구적인 종자공급원을 조성하고자 채종원 750ha를 조성할 계획인데 71년까지 365ha를 조성할것이다.

나. 묘목 생산

71년도 묘목 생산 계획 본수는 총 358백만본으로 국유 묘포에서 27백만본, 민유 묘포에서 331백만본을 생산할 계획이다. 이를 수종별로 구분하면 소나무류가 41%, 낙엽송이 33%, 아까시아 7%, 기타 19%로 되어 있다.

5. 산림해충 방제

광대한 면적에 걸쳐 발생하는 막대한 산림피해를 방제하기 위하여 헬리콥터 및 분무기를 동원하여 130천ha에 약제를 살포하였고 경화병균, 병원미생물, 기타 곤충을 이용한 천적을 160천ha에 이식하여 구제하였으며 산주에 대한 의무적 구제로 4천ha, 직장별 구역책임제와 부락단위로 범 국민운동을 전개하여 155천ha 등 도합 44천ha를 실시하여 6월말 현재 발생면적에 대하여 83%의 구제작업을 완료하였다.

71년부터는 이와같이 전국 산림에 창궐하는 솔나방 및 솔잎혹파리의 효율적인 구제책으로 주년방제(周年防除) 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솔나방의 경우 3월 중에는 잠복소를 설치해서 유충을 유인하여 포살하고 4월~10월에는 약제의 살포, 인공포살 및 천적의 이식을 실시해서 구제하는 한편 7월 중, 하순경에는 고치의 채취, 7월하순~8월, 11월 중에는 유아등을 이용하여 성충을 유살시킨다. 과거와 같은 유충의 번창기에 한한 구제작업을 지양하고 해충의 생태에 따른 연중 구제작업을 계속해서 실시해나갈 것이다.

제 3 장 국토보전

1. 사방사업

70년말 현재 요사방지는 산지사방 71.3천ha, 야계사방 5.7천km, 해안사방 1.2천ha으로 황폐임지의 조속한 복구가 절실히 요청된다.

68년부터는 종래와 같은 분산적인 사업실시를 지양하고 산림복구종합계획에 의하여 중요수계별로 재해도가 큰지역의 상류로부터 집중복구하고 있으며 고속도로, 항만등 중요 산업시설 보호지역에 우선하여 실시하고 있다.

한편 경사가 완만하고 토질이 양호한 황폐산지는 사방초지를 조성하여 유축농업의 발전에 기여코자 노력하고 있다.

71년도 사업실시는 6월말 현재 산지사방 10,799ha 계획에 9,315ha를 실시, 해안사방 100ha를 완성했고 야계사방 250km 계획에 173km를 실시하였는데 잔량은 추기사업으로 계속 추진할 것이다.

2. 3강 유역 개발사업

68년부터 안성천, 동진강, 상주천지역에 유역단위로 산지사방, 야계사방 및 조림사업(연료림, 용재림)을 실시하고 있으며, 71년에도 계속하여 산지사방 3,639ha, 야계사방 50km, 연료림 1,140ha, 용재림 1,200ha를 계획하여 사업을 추진하였다.

제 4 장 임산물 수급안정과 수출촉진

1. 목재수급원활

71년도 목재수급 총량은 70년보다 약 6%가 증가한 5,103천m³로 추정

하였다.

용도별로는 일반용재 1,675천³, 합판용재 2,697천³, 갱목 467천³, 팔프용재 264천³로 구성되어 있다.

총 공급량중 국내재의 공급은 임목생산량을 감안한 1,027천³로 책정하였으며 총 수요량의 80%에 해당되는 4,076천³를 외재로 충당할 계획이다.

표 2-3 71년도 목재 수급계획 단위 : 천³

구 분	일 반 용	합 판 용	갱 목 용	팔 프 용	계
내 재	296	—	467	264	1,027
외 재	1,379	2,697	—	—	4,076
합 계	1,675	2,697	467	264	5,103

자료 : 산림청

이와같이 급증하는 목재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 국내 산림자원이 증축될때 까지 내재 생산을 억제하는 한편 외재를 도입하여 합판용재의 공급을 원활히 하고 목재 이용도를 제고시킬 것이다.

2. 해외임지개발

현재 우리나라에서 개발 대상지역으로 삼고 있는 인도네시아에 한국 남방, 경남기업, 동화기업등 3개업체가 남동부 카리만탄지역에 59만ha

표 2-4 71년도 해외 임지 개발계획 6.30 현재

구 분	확 보. 임 지	도 입 계 획	도 입 실 적
한 국 남 방	270천 ha	180천 m ³	111천 m ³
경 남 기 업	200	60	5
동 화 기 업	120	66	—
계	590	306	116

자료 : 산림청

의 임지를 확보하여 71년말까지 306천m³의 원목을 개발도입할 계획으로 6월말 현재 116천m³를 도입했다.

한편 한진상사, 동아건설, 일신개발, 남성임산등 4개업체가 새로이 진출하여 중부카리만탄 및 스마트라 지역에 총 63만ha의 신규임지를 확보하여 연내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3. 목재가격의 안정

목재가격은 67년부터 둔화되는 경향을 보이다가 70년에 약간 높은 상승을 보였다.

71년에는 외재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목재의 유통과정을 원활히 해서 목재가격의 안정을 도모할 것이다.

4. 임산물 수출증대

71년도 임산물 수출목표액은 지난해의 112백만\$에 비하여 21%가 증가한 135.4백만\$로 책정하였다.

품목별로는 합판이 125백만\$로 전체의 92%, 갈포벽지 5백만\$, 버섯류 2백만\$, 기타 임산물 3.4백만\$을 계획하였는데, 6월말 현재 78.5백만\$을 수출하여 계획의 58%를 달성했다.

표 2-5 71년도 임산물 수출계획 6. 30 현재

구 분	계 획 (A)	구 성 비	실 적 (B)	B/A
합 판	125,000 천\$	92 %	77,421 천\$	62 %
갈 포 벽 지	5,000	4	1,749	35
표 고 및 버섯	2,000	1	195	10
기 타 임 산 물	3,400	3	2,751	81
합 계	135,400	100	82,116	61

자료 : 산림청

수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출품의 질적 향상으로 대외신용도를 높이고 신규품목을 개발 확대 하는 한편 수출시장의 개척과 기반을 공고히 할것이며 이를 위해서 수출지원자금을 확대시켜 나갈것이다.

5. 임산연료 수급

과거 산림파괴의 주원인의 하나였던 농촌연료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 69년까지 1,200ha의 연료림을 조성 완료하였다.

앞으로는 연료림의 신규조성보다는 기존연료림의 보식, 비배, 무육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단위당 생산성을 증대시킬 것이다.

제 5 장 임업기술의 향상

1. 시험연구

시험사업의 강화로 개량소나무 내충성 밤나무 및 개량포프라를 발굴 하여 유용속성수종을 확대증식시키고 있으며, 병충해의 조기에찰로 산림피해의 절감을 도모하고 있다.

71년에도 조림성적향상 임지보전 산림병충해방제 임목육종연구시험등 제목을 선정해서시험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종래와는 달리 시책과 연결되는 중요부분을 중점 개발하고자 70년의 94제목에서 71년에는 73제목으로 시험항목을 축소시켰다.

2. 산림자원 조사

정확한 산림자원의 조사로 국토이용의 효율화를 기하고 앞으로의 산림정책 수립에 기반이 되는 제반자료를 마련하기 위해서 69년 임업시험

표 2-6

71년 시험연구 계획

구	분	제	목	수
	조림성적향상 시험			20
	임지보전 시험			2
	산림병충해 방제시험			8
	산림경영기술개선 시험			5
	임산물 이용도 증진시험			7
	지역시험			14
	임목육종연구 시험			17
	계			73

자료 : 산림청

장내에 조사업무를 전담하는 산림자원 조사소를 설치하였다.

70년까지 적지적수 토양조사 245천ha, 임야실태조사 1,398천ha, 항공사진촬영 2,991천ha를 마쳤으며 71년도에도 계속하여 적지적수 토양조사 134천ha, 임야실태조사 163천ha를 실시하고 있다.

제 6 장 임업금융

금년도에 확보된 임업자금은 재정자금으로 270백만원, 농산물 안정기금으로 634백만원, 중기성 및 단기성 금융자금으로 1,352백만원, 도합 2,256백만원이다.

자금별 용자내역은 다음과 같다.

○ 재정자금		270백만원
소득사업	5,910ha	163
조림 및 기타	3,596	107

○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		634 백만원
수출지원 (갈저외 7종)	9,742천\$	571
일반사업 (도토리수매)	2,500M₩	63
○ 중기성금융자금		494
양묘사업 (포지 확보)	80ha	48
조림지사후관리	37,000	347
표고재배	35,000m ³	79
갈저생산	495 M₩	20
○ 단기성금융자금		858
양묘사업	595백만원	858
합 계		2,256

제 7 장 산림조합육성

71년 6월말현재 151개의 산림조합과 21,498개의 산림계가 전국적으로 조직되어 있다.

이중 자립안정이 되어 있는 조합은 74개, 계는 4,922개에 불과하여 자립불능 조합은 단계적으로 정비하고 조합상무이사를 임명제로 개선해서 운영체제를 강화하고 있다.

표 2-7 산림조합 운영 실태 6.30 현재

구 분	총 수	자립 안정	불 안 정	자립 불능
산림조합	151	74	64	13
산림계	21,498	4,922	15,894	682

자료 : 산림청

이와 같이 운영이 불실한 산림조합의 육성을 위해서는 자체자금이 조성될 때까지 경비의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해주고 저리자금을 융자해주는 한편 연료관리사업의 위탁, 양묘사업의 확대지정, 특수임산물의 생산수집등 자체사업의 조장육성으로 경영기반을 마련토록 할 것이다.

제 3 편 72년도 임업시책 방향

여백

제 1 장 시책방향

1. 입업의 현황과 전망

획기적인 국민경제의 발전에 따르는 건축, 토목사업등 건설분야가 계속적으로 신장하고 목재 가공업의 급속한 성장등으로 목재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반면 국내산림자원이 파괴되어 국내목재수요의 80% 이상을 외재에 의존하고 있다.

한편, 세계의 목재 수요추세는 각종 대용재의 개발이용에도 불구하고 연간 1.7%씩 증가되고 있고, 원목수출국은 점차 자국의 목재가공업을 발전시켜 원목수출을 억제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상당기간 외재수입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우리나라로서는 확고한 원목수입원의 확보가 절실히 요청된다.

이와 같은 추세에 따라 현 단계에서 우리나라는 외재수입과 해외산림 자원개발 도입을 적극 추진하여 국내 목재수요를 충당하고 하루 속히 산림자원을 조성하여 목재의 자급기반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70년초에 대단지 산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용재자원 집단조성에 주력하고 있으며 양묘, 조림, 육림, 이용, 가공에 이르는 목재 관련사업을 계열화하고, 확고한 임산기반을 구축해서 목재의 자급기반을 조성하여 산림경영의 근대화를 이룩할 것이다.

목재수급 장기추정에 의하면 85년경까지는 외재수입량이 증가될 것이나 그후 점차 국내재의 공급이 증가되어 2,000년대 초기까지는 특수용재를 제외한 전량을 내재로 자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71년에 수립한 4대강 유역종합개발계획에 의하여 낙동강, 영

산강, 한강, 금강 유역에 산림개발사업을 집중하여 국토의 보전과 수원 함양을 이룩하여 국가산업발전의 기반을 구축할 것이다.

2. 72 년 도 시 책 방 향

증가일로에 있는 목재의 자급기반을 구축하고 농산촌의 소득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전국 14개대단지에 용재림을 집단조성하고 지역별 개발로 수익성이 높은 특용 수종을 증식시켜 주산단지를 조성할 것이다.

한편, 국토보전과 상류수원의 함양을 기하고자 71년도에 시작한 4대강 유역개발사업의 일환으로 황폐산지의 집중복구와 황폐 계천의 조속한 복구에 주력할 것이며, 전국적으로 만연하고 있는 산림해충의 획기적인 방제책을 강구하여 피해를 절감시킬것이다.

한편, 정확한 산림조사 사업을 실시하여 산림정책 수립에 활용될 제반 자료를 정비하고, 산림조합을 정비육성하여 산주의 권익과 산림정책 행정기반을 조성해서 임산 증대에 박차를 가할것이다.

72년 주요 목표는 다음과 같다.

임산자원조성	89,100	ha
용 재 림	74,900	
특용 수종	12,100	
개량포푸라	2,100	

국토보전 및 수원함양

산지사방	{ 신 규 { 보 수	3,600	ha
		3,500	
해안사방		145	

제 2 장 임산자원조성

1. 경제림 조성

가. 용재림 집단조성

날로 격증하는 목재수요의 공급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20만ha규모의 14개 대단지에 용재림을 집단조성하여 관련산업이 계열화된 확고한 임산기반을 조성한다.

나. 특용수종 주산단지 조성

수익성이 높은 밤나무, 호도나무, 대나무등 특용수종을 전국 24개 주산단지를 중심으로 증식시켜 농산촌의 소득을 증대시킨다.

다. 개량 포푸라 조성

하천변과 유희지에 생장이 빠른 개량포푸라를 조성 확대하여 증가일로에 있는 목재수요에 대처한다.

라. 사후관리의 철저

조림 및 사방사업의 양적 확대를 지양하고 기성 인공림의 비배, 무육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사업효과를 증진시킨다.

2. 국토보전 및 수원함양

4대강 유역개발지역에 유역별로 재해도가 큰 지역의 상류로부터 사방사업을 집중 실시할 것이며, 각종 저수지의 상류와 공업단지, 고속도로등 중요산업 시설지역의 복구에 주력할 것이다.

특히, 70년대에는 황폐계천을 복구하여 농경지의 매몰, 방자, 인명피해의 예방에 노력할 방침이다.

한편, 해안지방의 비사의 피해가 심한 지역에는 방풍림을 조성할 것이다.

3. 산림보호의 강화

가. 산림해충구제

전국적으로 광대한 면적에 해충이 발생하여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으므로 획기적인 해충구제책을 강구하여 피해를 경감시키도록 노력할 것이다.

71년도에 구입한 3대의 헬리콥터를 최대한으로 이용해서 도시 주변의 주요지역에 약제를 집중 살포하고 해충의 성장 생태에 따라 주년 방제를 하도록 할 것이며, 근본적인 대책으로 해충의 천적을 더욱 개발하여 오지대의 산림에 증식시켜 나가는 한편, 범국민 운동을 전개하여 산림자원의 침식을 제거할 것이다.

나. 인위피해의 예방 및 화전정리

임목의 도남벌 피해는 점차 감소되어 가고 있으나 아직도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농촌연료와 농용자재의 원활한 공급으로 피해요인을 제거하는 한편 무전시설 및 기타 보호장비를 강화하고 우범지구에 보호직원을 고정 배치해서 피해를 근절시킬 것이다.

한편, 과거 산림파괴의 주 원인의 하나였던 화전민을 이주 정착시켜 주택과 농경지를 확보 지원할 것이다.

4. 임업기술의 향상

시험연구를 신속히 이용할 수 있는 부문에 집중해서 실험결과를 산림

시책에 반영시키는 한편, 매스콤, 리후렐등을 이용해서 일반에 널리 보급 되도록 하고 산림계 및 산림조합을 통해서 기술지도 체제를 확립할 것이다.

임야실태조사 및 적지적수 조사를 철저히 해서 제반 산림통계자료를 완비할 것이며, 독립가의 추대와 시범사업을 확대하여 파급효과를 제고 시킬것이다.

한편, 임업기술자를 훈련시켜 자질을 향상시켜 나갈 것이다.

5. 통일동산 조성

국토통일의 염원을 행동으로 실천하고 애립사상을 진작시키기 위해서 각급학교 읍·면단위로 10ha 이상의 통일동산을 개괄적으로 조성토록 할 것이다.

제 3 장 임업경영

1. 사유림의 경영개선

사유림의 소유규모가 극히 영세하고 산림자원의 빈약으로 산주들은 산림경영을 소홀히 해온 결과 이제까지 제반 산림사업은 산주의 참여없이 정부가 주도 해온 실정이다.

이와 같은 그릇된 인식을 시정하고 산주 스스로 산림경영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60년대에에 전국의 산림에 대하여 영림계획을 편성하였고 70년에 이어 71년까지 임야등기 사업을 완료할 예정으로 있다.

앞으로의 사유림경영은 관의 간여를 최소한 줄여 나가는 반면 기 편성된 영림계획에 따라 산주 자신이 조림, 육림, 벌채 이용에 이르는 제반 사업을 실시하도록 할 것이며, 편성당시의 착오로 현지와 일치가 되지 않는 영림계획을 계속해서 수정하여 산주의 주도로 황폐된 산림을 복구해 나갈 방침이다.

2. 국유림의 경영개선

도시 주변의 분산 국유림을 처분하여 오지에 집단화시켜 나갈 것이며, 요존 국유림의 관리를 전담하는 영림서의 시설과 장비를 개선하여 산림경영의 기계화를 촉진할 것이다.

한편, 국유림 축적의 50% 이상이 경제성이 낮은 활잡림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과감한 수종갱신을 실시해서 경제적 가치가 높은 우량임분으로 개량해 나갈 것이다.

제 4 장 임산물 수급

1. 임산물유통 및 농촌연료대책

국내 임산자원의 조기 증축을 위하여 당분간 내재 생산을 억제하고 해외 원목의 장기 확보 대책을 계속 강구 한다.

연간 수요의 정확한 판단과 아울러 이에 대한 공급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하여 목재 가격의 계절적 변동폭을 최소한으로 억제한다. 벌채량은 임목의 연간 성장량의 15% 내로 책정하며 활잡목의 적극활용으로 목재의 이용도를 높이고 합판용재를 비롯한 외재를 적기에 도입한다.

한편, 농촌연료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서 연료림의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단위당 생산성을 제고시키고 연료 소비 절약을 위한 시범 분구개량 사업을 확대시킨다.

2. 해외 임산자원의 개발

목재수요량은 대용재의 개발에도 불구하고 급격히 증가되고 있는 반면 국내 임산자원의 빈약으로 외재의 의존도는 점차 높아지고 있다.

또한, 가격면과 이용면에서 유리한 외재는 주로 합판 원료로 공급되는 남방산 활엽수재로서 최근에 와서 원목수출국의 목재가공업 육성을 위한 정책전환으로 장기원목 확보가 어려워 질것이 예상되며 원목수입 가격도 상승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원목수입의 원활을 위하여 단기 거래에 그치지 아니하고 남방제국의 지원과 국제기구등의 협력을 얻어 개발 가능지역을 확대

조사해서 더욱많은 해외임지를 확보하여 해외 임산자원 개발사업을 적극추진해 나갈것이다.

3. 임 산 물 수 출

72년도 임산물 수출목표는 155백만\$로 책정하였다. 이중 합판이 142백만\$로서 90%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갈포 벽지, 목재 및 콜크등 기타 임산물이 13백만\$로 구성되어 있다.

제 5 장 산림조합육성

산림조합 및 산림계의 육성방안으로 운영이 불실한 조합 및 계를 정비 통합하고 조합사무이사를 임명제로 실시한다.

한편, 연료림 사후관리, 위탁림 수탁관리, 종균배양, 수출임산물 생산 및 수집 등 정부위탁사업과 자체사업의 조장육성으로 자립기반 구축을 지원 할 것이다.

정 오 표

페이지	행·열	틀 립	바로잡음	페이지	행·열	틀 립	바로잡음
21	하 8	실질성장율	실질성장율	119	상 2	1358	1385
22	하 1	1조77억원	1조77십억원	125	상 1	9.5%	9.6%
38	하 4	90.4	94.4		하 2	49.4%	48.1%
42	하 5	60.6	6.06	136	하 10	17.31	14.15
58	하 10	9.5	9.6		하 2	12.46	12.20
64	하 10	후자틀	후자증가틀	188	상 11	1,506	1,121
76	하 6	20,670	19,210		"	1,559	1,444
	"	76,400	39,882		하 11	24,971	23,477
	하 3	11,304	12,512		"	25,122	27,787
79	상 9	124.1천ha	124.1천ㄹ	199	하 10	8.7%	8.3%
94	표4열하1	53,888	51,888	203	표5열2행	260.4	264.0
112	표8열하3	(1.6)	(16.0)				